




용인시사총서 6



용인의 역사지리



2000

용인시 ·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여

백

용인시사총서 6

용인의 역사지리

최영준·정치영
홍금수·최원석
이용석

2000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여

백

목 차



I. 調査概要	11
1. 조사목적 및 경위	11
2. 조사방법	12
II. 龍仁의 自然과 人文環境	15
1. 용인의 자연환경	15
1) 용인의 전략적 위치	15
2) 용인의 지형	18
2. 용인의 역사·인문환경	27
1) 용인의 역사와 행정구역의 변천	28
2) 취락의 분포	35
3) 인구의 성장	41
4) 산업구조의 변천	45
3. 용인의 풍수	54
1) 풍수지명 및 설화	55
2) 명당풍수	61
3) 비보풍수	75
III. 龍仁의 交通과 商業	86
1. 전산업시대의 교통과 상업	86
2. 신작로건설에 따른 도로망패턴의 변화와 장시의 운영	110
3. 수려선체제하의 일제강점기 교통과 장시의 발달	120
4. 해방이후의 교통과 상업의 변천	130
IV. 龍仁의 聚落	149
1. 취락의 형성과 발달	150
1) 선사시대-고려시대의 취락	150
2) 조선시대 이후 취락	156
2. 구읍취락	164

CONTENT



3. 농촌	175
4. 교통촌과 시장촌	192
5. 동족촌	202
1) 동족촌의 형성	203
2) 동족촌의 입지와 구조	210
3) 동족촌의 해체와 변모	224
6. 용인의 가옥	227
1) 전통가옥 발달의 배경	228
2) 용인지방 가옥의 특성	233
V. 結論 및 提言	258



〈표차례〉

표 II- 1.	용인의 면별 동리 분포, 선초-1913	31
표 II- 2.	용인군의 행정구역, 1914	33
표 II- 3.	용인지역 평야의 위치와 명칭	52
표 II- 4.	용인의 풍수지명과 형국	56
표 II- 5.	용인의 아기장수형 설화	59
표 II- 6.	용인의 단맥형 설화	60
표 II- 7.	용인의 금기형 설화	60
표 II- 8.	용인의 마을 풍수 개관	68
표 II- 9.	용인의 비보사탑 개관	76
표 II-10.	용인의 비보숲 개관	79
표 II-11.	용인의 비보조산 개관	83
표 II-12.	용인의 비보 지명 개관	85
표 III- 1.	조선시대 9대로의 노선	88
표 III- 2.	조선초기 전국의 역도	90
표 III- 3.	경기도의 역참체계	91
표 III- 4.	용인의 역사례	91
표 III- 5.	역마지급규정	93
표 III- 6.	조선후기 용인 인근지역의 장시, 1830	104
표 III- 7.	용인·양지현의 점막분포	109
표 III- 8.	일제시대 신작로의 유형 및 규모에 관한 규정	111
표 III- 9.	경기남부 용인 인근의 재래시장 일람, 1914	116
표 III-10.	식민지 시대의 주요 상업용어	119
표 III-11.	용인 인근지역의 객주 분포, 1908	120
표 III-12.	용인의 3등도로	123
표 III-13.	연선 승합자동차 현황, 1932	123
표 III-14.	용인의 학교 현황, 1936	124
표 III-15.	경성의 시장, 1935	126



표 III-16.	경기도 용인 인근의 재래시장 일람, 1938	127
표 III-17.	수려선의 여객 및 화물취급 상황, 1954	130
표 III-18.	해방후 도로의 구분	132
표 III-19.	용인의 도로현황, 1963-1969	134
표 III-20.	우편물 취급상황	138
표 III-21.	신문보급상황	139
표 III-22.	전화가설현황	140
표 III-23.	Radio와 TV 보급율, 1963-1970	141
표 III-24.	용인 인근 재래시장의 물품거래 실적, 1954	142
표 III-25.	용인의 시장상황, 1963	144
표 III-26.	용인의 상설점포, 1969	146
표 III-27.	용인의 정기시장, 1970-1975	147
표 IV- 1.	용인의 청동기시대 유적	151
표 IV- 2.	용인의 토성과 망성	156
표 IV- 3.	조선시대 용인의 인구 추이	157
표 IV- 4.	18세기 용인 및 인근 군현의 인구밀도와 읍인구율	158
표 IV- 5.	18세기 용인의 면리와 면 별 인구	158
표 IV- 6.	18-20세기 초의 용인현의 촌락수의 변화	159
표 IV- 7.	일제시대 이후 용인의 인구	161
표 IV- 8.	1970년 이후 용인의 면별 인구변화	162
표 IV- 9.	읍취락의 주요건물구성	169
표 IV-10.	용인·양지 주민의 직업별 구성(1909년)	172
표 IV-11.	일제시대 읍삼면·내사면·수여면의 인구변화	173
표 IV-12.	지형을 반영한 용인의 자연마을 명칭	178
표 IV-13.	곡저평야에 입지한 촌락	180
표 IV-14.	조선시대 용인의 논·밭 면적(結數) 및 비율(%)	184
표 IV-15.	일제시대 이후 용인의 논·밭 면적(町步) 및 비율(%)	184
표 IV-16.	조선후기 용인의 제언	185
표 IV-17.	조선후기 용인의 주막의 분포	193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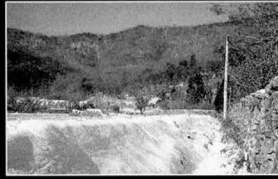


표 IV-18.	전국 유명 동족촌의 발생연대	204
표 IV-19.	유명 동족촌의 호수별 규모(1930년)	204
표 IV-20.	경기남부 주요성씨의 시기별 정착	206
표 IV-21.	조선시대 용인지역 문과급제자의 본관성씨 및 시기별 추이	206
표 IV-22.	용인지역 주요성씨의 시기별 성쇠와 세거지	210

〈그림차례〉

그림 II- 1.	용인의 지리적 위치	17
그림 II- 2.	용인의 지형구	19
그림 II- 3.	용인의 하천과 평야	23
그림 II- 4.	양지천과 청미천 유역의 지형	26
그림 II- 5.	용인의 문화유적·유물 분포	30
그림 II- 6.	용인의 행정구역, 선초-1913	32
그림 II- 7.	용인의 행정구역, 1914	34
그림 II- 8.	용인의 행정구역, 1970	36
그림 II- 9.	용인의 취락패턴, 1919	39
그림 II-10.	용인의 취락패턴, 1956	40
그림 II-11.	용인의 취락패턴, 1970	40
그림 II-12.	용인의 면별 인구분포, 1789	43
그림 II-13.	용인군의 면리별 인구분포, 1966	45
그림 II-14.	일제강점기 용인의 수전 분포, 1919	51
그림 II-15.	용인의 山經 개념도	62
그림 II-16.	대동여지도에서 본 용인과 양지의 산계	63
그림 II-17.	『海東地圖』 중의 용인현	64
그림 II-18.	『海東地圖』 중의 양지현	66
그림 III- 1.	용인내 교통로 발달의 자연지리적 조건	88
그림 III- 2.	용인의 도로망, 1895	99
그림 III- 3.	하천유역권에 비정한 용인의 시장권	103

CONTENT



그림 III- 4.	용인 인근의 재래시장 분포, 1833	106
그림 III- 5.	용인의 도로망, 1919	113
그림 III- 6.	용인 인근의 재래시장 분포, 1914	118
그림 III- 7.	용인의 교통·통신망, 1931	125
그림 III- 8.	용인 인근의 재래시장 분포, 1938	129
그림 III- 9.	용인의 도로망, 1956	134
그림 III-10.	용인의 도로망, 1970	136
그림 III-11.	용인 인근의 재래시장 분포, 1954	143
그림 III-12.	용인 인근의 재래시장 분포, 1970-75	148
그림 IV- 1.	용인의 청동기 유적과 성지의 분포	154
그림 IV- 2.	18~20세기초 용인현의 촌락수 변화	161
그림 IV- 3.	19세기 지방지도의 용인현 읍치부분	168
그림 IV- 4.	19세기 지방지도의 양지현 읍치부분	171
그림 IV- 5.	용인의 촌락입지	177
그림 IV- 6.	진위천 변 진목리·전궁리·방아리 일대의 경관변화	187
그림 IV- 7.	좌찬역의 구조	197
그림 IV- 8.	백암장의 구조	200
그림 IV- 9.	김량장의 성장	201
그림 IV-10.	원삼면 맹리 맹골의 마을구조	224
그림 IV-11.	모식적인 경기형 농가의 평면도	229
그림 IV-12.	一자집	238
그림 IV-13.	二자형 가옥	239
그림 IV-14.	튼 ㄱ자형 가옥	240
그림 IV-15.	가옥형의 진화과정	242
그림 IV-16.	ㄱ자형 가옥	243
그림 IV-17.	튼 ㄷ자형 가옥	246
그림 IV-18.	ㄷ자형 가옥	247
그림 IV-19.	맛곱패집	249
그림 IV-20.	튼 ㄹ자형 가옥	252

목 차



그림 IV-21.	모현면 갈담리의 가옥향과 평면형태	254
그림 IV-22.	원삼면 문촌리 문시랑 마을의 가옥향과 평면형태	254
그림 IV-23.	남사면 진목리의 가옥향과 평면형태	255

〈사진차례〉

사진 II- 1.	용인의 지식묘	29
사진 II- 2.	용인현 치소 서편의 비보 경관	65
사진 II- 3.	비보 기능을 담당한 석상	65
사진 II- 4.	운학동 별학	68
사진 II- 5.	창리 화곡(꽃골)	69
사진 II- 6.	상부곡 동구	70
사진 II- 7.	모현면 갈담리 갈월마을	71
사진 II- 8.	숲원이 뚫대바위	72
사진 II- 9.	맹리 원경	73
사진 II-10.	맹리 좌청룡 지맥과 느티나무 비보숲	73
사진 II-11.	문시랑 마을	74
사진 II-12.	미륵뜰 마을의 비보기능을 한 석불상	78
사진 II-13.	이현의 마을숲	80
사진 II-14.	독정의 마을숲	81
사진 II-15.	등촌의 공알바위가 있는 언덕	82
사진 II-16.	등촌의 공알바위	82
사진 II-17.	창말의 조산이 있었던 곳	84
사진 III- 1.	김량대로	92
사진 III- 2.	좌찬역촌	95
사진 III- 3.	구흥역촌	96
사진 III- 4.	마을 뒷길	98
사진 III- 5.	좌찬고개	114
사진 III- 6.	양지역의 간이곡물창고(환통)	122



사진 III- 7.	수려선의 궤도자리	132
사진 III- 8.	백암장	145
사진 IV- 1.	전원주택단지	164
사진 IV- 2.	양지 구읍터	166
사진 IV- 3.	양지향교	171
사진 IV- 4.	용인 구읍의 비석군	175
사진 IV- 5.	진목리 순지의 우물	182
사진 IV- 6.	동구의 경관요소(1)	189
사진 IV- 7.	동구의 경관요소(2)	189
사진 IV- 8.	모현면 갈담리 갈월의 마을회관	191
사진 IV- 9.	구성면 중리 내촌의 경관변화	191
사진 IV-10.	구흥역말의 당집	199
사진 IV-11.	오산리 본동 사당	214
사진 IV-12.	오산리 해주오씨 묘역	215
사진 IV-13.	능원리 충렬서원	217
사진 IV-14.	능원리 안골에 자리한 정몽주와 이석형의 묘소	217
사진 IV-15.	재실(齋室)	218
사진 IV-16.	갈담리 이계희씨 집의 사당	220
사진 IV-17.	원삼면 맹리 맹골	222
사진 IV-18.	우물마루	234
사진 IV-19.	가옥의 벽체	234
사진 IV-20.	모현면 갈담리의 돌담	235
사진 IV-21.	남사면 진목리 박씨종가	250
사진 IV-22.	원삼면 학일리 오형근씨 집	250

I. 調查概要

1. 조사목적 및 경위

龍仁市는 과거 한반도 남부를 중관하는 嶺南大路상에 위치한 곳으로 흔히 서울로 통하는 길목이라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지리적 특성상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곳이다. 국토공간 상 용인이 지닌 중요성은 최근 들어 더욱 증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용인을 포함한 수도권역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은 교통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의 주거·공업기능을 분담하게 되었고 도시민들의 여가활동의 장소로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중인 도시화·산업화는 용인시의 景觀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으며, 그 변화과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용인시의 옛 모습은 머지않아 역사 속에 묻히게 될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주민의 구성에 있어서도 외지인의 계속적인 유입으로 토박이와 원주민의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이 지역의 향토문화를 기억하고 보존할 주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용인의 옛 모습과 문화를 시급히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를 복원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용인의 역사지리를 복원하여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 취지가 있다. 아울러 ‘死去龍仁’이라는 편견 섞인 표현이 오랫동안 용인이라는 터를 가꾸어온 사람들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관념적인 장애가 된다는 판단아래 삶의 터전으로서의 용인을 소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조사단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사단장

윤 사 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원장)

□ 자문위원

최 기 엽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양 보 경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이 인 영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 책임조사원

최 영 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 조사원

정 치 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홍 금 수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 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최 원 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경산대학교 역사지리학과 강사)

이 용 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

□ 조사보조원

김 종 근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용인의 자연환경을 포함해 역사·교통·경제활동·취락·가옥 등 인문지리 제반에 걸친 내용을 연구 주제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먼저 용인의 형성과 발전에 깊이 관여된 자연환경에 대한 고찰과 아울러 인문지리 전반에 대한 개관을 연구의 시발점으로 하였다. 둘째, 용인의 風水를 '生居龍仁'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즉 陰宅보다는 陽宅 즉 마을과 고을이 그 조사의 대상이 되며, 용인 주민들의 풍수적 인식과 태도, 마을과 고을의 풍수적 입지·풍수적 배치와 공간구성 그리고 풍수 조경과 裨補 등을 주로 조사하였다. 셋째, 용인의 지리공간은 交通體系에 투영되어 있고 교통체계의 변모는 곧 용인 역사지리의 변천과정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도로와 철도를 포함하는 교통로, 전산업시대 교통시설의 제도적 축인 驛과 院 등의 기능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교통로를 통해 연결되는 중요한 사회경제활동의 공간인 在來市場의 구조와 운영을 파악하였다. 場市의 체계와 구조에 대한 분석은 과거 용인 주민의 생활권을 파악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끝으로 용인의 聚落 일반에 대한 조사는 형성, 유형, 공간구조, 발달과정, 가옥에 초점을 맞추었다. 취락의 立地란 마을의 터잡기로서 이를 고찰하면 취락이 처음 조성될 당시 주민들의 자연관·卜居觀 등 환경에 대한 가치인식체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공간구조의 분석은 취락에 속한 주민들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해 준다. 여러 유형의 촌락 가운데 동쪽촌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용인에 산재해있는 傳統民家は 과거 생활사의 일면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그 형태와 구조

는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용인의 지역성 규명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이 광범위하므로 조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의 지역적·시간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적 범위는 현재의 용인시 행정구역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조선시대 陽智縣과 竹山府 소속이었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용인으로 편입된 지역이 조사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조사의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 상한은 두지 않고 하한은 용인의 취락경관이 근대화하기 시작하던 시점, 즉 1970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는 각종 관련자료(고문헌, 보고서, 논문, 단행본, 통계, 지도)를 수집하는 것을 시발로, 수집된 문헌의 일차분석을 거쳐 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현장답사에서는 직접관찰과 주민들과의 면담을 중심으로 기록으로 남겨야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관요소를 촬영하였고 가옥평면은 스케치하였다. 그간 10여차례의 현지답사를 실시했으며, 야외연구에는 국립지리원 발행 1:50000 및 1:25000 지형도, 1:5000 기본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일제시대지도를 활용해 취락경관의 변천은 물론 토지이용상의 변화를 圖上에서 비교·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분야별 세부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인의 풍수국면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현지답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용인에 현존하는 풍수지명과 설화 등을 수집·채록하여 옛 용인 주민들이 자연환경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환경을 대하는 풍수관념적 태도는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용인의 邑治였던 현재의 구성면 마북리(龍仁縣 邑治)와 양지면 양지리(陽智縣 邑治)를 포함하여 야외조사에서 목격한 풍수형국을 구비한 여러 촌락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하여 그 입지 및 배치 등을 나름대로 해석하였다. 또한 風水裨補的 사실들이 나타나는 마을에 대해서는 이를 형태와 기능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교통로 분석에서는 제도적, 기능적 측면의 사실을 재구성하기에 앞서 古도로를 시기별로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노선복원과 驛·院의 입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邑誌와 같은 기본자료를 포함해 19세기 읍지도, 한말·일제시대의 각종 주제도와 도상에 기재된 지명을 활용하였으며, 자료상에서 파악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도로 및 철도의 운영과 기능에 대한 내용은 각종 사료와 통계자료를 통해 해석하였고 경관상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채록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시장 분석은 읍지, 문집, 일제시대 시장자료, 현대 지방지, 각종 지도에 기초하였으며 당대 운영된 시장의 이름, 입지, 거래품목, 개시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교통로를 통한 시장간의 연결관계를 알아보고자 분석결과를 지도화하여 제시하였다. 시장과 교통로는 개별적으로 보다는 시대구분을 토대로 동시에 서술하였으며 비교시기는 전산업시대, 신작로구

축단계, 해방이전 水驪線 운영단계, 해방이후 1970년에 이르는 기간 등 총 네 단계로 구성된다.

용인의 촌락을 畵數調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촌락의 입지형태 (평야 입지·골짜기 입지 등), 기능(농촌·교통촌·시장촌 등), 재지 유명 성씨의 존재여부 등을 기준으로 문헌과 지도의 분석을 통해 먼저 현지조사여부를 결정한 다음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촌락들을 선정하였다. 추출된 촌락에 대해서 문헌·지도·현지답사에 의한 심층조사가 실시되었다. 문헌과 통계자료 등은 촌락의 성립배경, 시기, 인구의 증가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제작시기를 달리하는 1:50000지형도(1890년대·1910년대·1970년대)는 촌락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사용되었으며, 1:5000 기본도는 촌락의 입지, 형태, 공간구조를 분석하는 기초자료가 되었다. 현지답사에서는 관찰과 면담을 병행하여 과거의 상황을 복원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마을의 역사와 사정에 밝은 古老들과 집중적인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동일한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질의하여 이를 종합하였다.

民家조사를 위한 답사는 촌락조사와 병행해 실시하였다. 현지조사에서 유의한 사항은 마을의 입지와 좌향, 지형, 주민의 경제활동, 주민의 구성, 마을의 규모 등이었다. 이러한 조건들은 가옥의 향, 규모, 형태, 구조, 건축재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사대상 가옥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되고 원형 보존이 비교적 양호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조사는 가옥의 평면도를 작성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호주와의 면담을 통해 건축연대, 주건물·부속건물의 이용, 구조, 부분별 명칭, 변형이전의 형태 등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나침반을 이용해 민가의 좌향을 기록하였다.

한편 각 장과 절의 집필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였는데, 용인의 자연환경과 가옥부분은 최영준, 역사·인문환경과 교통·상업부분은 홍금수, 풍수부분은 최원석, 취락부분은 정치영이 담당하였고, 취락을 다룬 장에서 동족촌 부분은 이용석이 전담하였으며 전체적인 자료정리와 가옥의 평면도작성에는 김종근이 수고하였다.

II. 龍仁의 自然과 人文環境

1. 용인의 자연환경

1) 용인의 전략적 위치

한 지역의 위치를 논할 때에 일반적으로 數理的 位置 즉 經緯度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地理的 位置(관계적 위치)를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지역의 범위가 좁을 경우에는 수리적 위치가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지리적 위치는 지역 주민 자신은 물론 주변지역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예가 적지 않는데 龍仁도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전략적 요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가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다고 보면 용인은 경기남부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용인시는 서울의 남동남쪽에 자리잡고 있는 약 592km²의 행정단위로서 서쪽은 수원시와 오산시, 동쪽은 이천시, 북쪽은 성남시(분당구)와 광주군, 남쪽은 안성군과 접경한다. 서울특별시 최남단(서초구 신원동)으로부터 용인시 최북단인 수지면 고기리까지의 거리는 약 7km, 서울시청으로부터 용인시청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5km에 불과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일정한 공간 내에 분포하는 주민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전략은 영토의 합리적 이용이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¹⁾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활동은 위치·방위·형태로 표현되는 영토라는 공간 위에서 전개되는데, 이 활동은 장소에 따라, 그리고 주민성에 따라 다르므로 모든 영토는 상이한 지리적 체계를 가지게 된다.²⁾ 그 공간이 국가의 중심부와 가까울수록 중앙정부는 공간의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용인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것은 조선왕조의 개국 이후이다. 다시 말하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용인지방은 國都에서 먼 변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三韓時代의 城邑國家중에 용인주변에 위치했던 나라들은 伯濟(서울 강남일원과 광주), 日華(양평일원), 古離(여주), 怒藍(이천·음죽)³⁾, 牟水(수원일대), 臣漬活(양성), 目支國(직산·평택일대)⁴⁾ 등이다. 이병도씨는 馬韓의 맹주였던 목지국의 위치를 직산으로 비정하는 이유로 이 지역은 聖居山을 등지고 서북으로 素沙坪과 평택의 평야가 전개되며 서쪽

1) Sack, R.D, 1986, *Human Territoriality: Its Theory and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5.

2) 위의 책, pp.25-26.

3) 千寬宇, 1989, 『古朝鮮史·三韓史研究』, 一潮閣, 422쪽.

4) 李丙巖, 1977, 『韓國史(고대편)』, 乙酉文化社, 283-285쪽.

으로 아산반에 임하고, 진위천·안성천 등 여러 하천들이 아산반으로 흐르며, 아산반을 따라 舟楫의 통행이 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⁵⁾ 백제의 발상지가 탄천이 한강과 합류하는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이고 마한의 거점이 진위천과 안성천 유역이었다면 북쪽의 백제국, 남쪽의 복지국 사이에 놓여있던 용인땅은 삼한시대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하였을 것이다.

삼국시대의 용인은 신라에 의한 통일이 완수될 때까지 수 차례 주인이 바뀌는 분쟁지역에 포함되었다. 고구려의 군세에 밀려 백제가 부여로 遷都함에 따라 용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고구려의 관도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어서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로 이 지역은 다시 신라의 북방영토로 편입되었다.

용인의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시된 계기는 조선왕조의 漢陽定都였다. 조선조정은 도성건설과 동시에 전국을 8도로 나누었는데,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을 京畿道라 칭하여 도성의 보호막으로 삼았다. ‘京畿’라는 말은 중국 宋代에서 유래하는 바 황제가 머무는 ‘京’과 皇都의 旁邑을 일컫는 畿縣에서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⁶⁾ 고려는 이를 모방하여 개경 주위의 고을들을 묶어 경기도라 하였는데, 용인은 경기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선조정이 설정한 경기도는 오늘날의 그것과 범위가 거의 비슷하다. 한양에 도읍을 정한 조선조정은 오늘날의 경기도와 범위가 거의 비슷한 지역을 경기도로 설정하였는데, 畿甸이란 말로도 불리는 이 용어는 왕의 직할지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書經』의 「禹貢」條를 보면 도성으로부터 반경 500리에 이르는 지역을 甸服이라 하여 왕의 직할지로 삼고,⁷⁾ 전북은 다시 100리 간격으로 5개 권으로 구분하였다. 도성에 가장 가까운 100리 이내의 땅을 甸, 100~200리를 邦甸, 200~300리를 家稍, 300~400리를 邦縣, 400~500리를 邦都라 하였다.⁸⁾

채지역은 다시 도성으로부터 50리 이내를 近郊, 50~100리 이내를 遠郊라 하였는데 근·원교는 모두 경제·문화적으로 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라 하여 國中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교지역 내에 있는 읍을 京邑이라 하였다.⁹⁾ 교는 방향에 따라 東郊·西郊·南郊·北郊로 불렀으나 행정적인 경계를 설정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적 우주관의 관점에서 보면 동교에 속하는 양주·광주·양근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방향이고 남교에 속하는 용인·이천·수원·여주 등은 태양이 남중하는 방향이므로 陽의 방향에 속한다. 또한 이 지역은 국왕의 행차가 빈번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도성에서 낙향하는 사대부들은 문화적으로 도성의 영향권에 속하고 중앙과의 인연을 유지

5) 위의 책, 266-267쪽.

6) 민덕식, 1987, “신라왕경과 한·중·일 고대도성과의 비교고찰”, 『최영희 선생 화갑기념 한국사학논집』, 탐구당, 55쪽.

7) 고대 중국의 1리는 약 0.53km였으므로 500리는 약 265km이다.

8) 『書經』下篇 禹貢條.

9) 『經世遺表』권5 地官修制 田制I 井田論.

하기에 용이한 남교와 동교에 정착하는 예가 많았다. 특히 남교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嶺南大路와 三南大路(충청우도·전라좌우도로 통하는 대로)가 통하는 용인은 사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거지로 인식되었다. 뿐만 아니라 용인은 서해안과 동부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접이지대로서 서해의 魚鹽, 경기내륙과 영서산지의 농임산물, 남부지방의 산물 등이 집산되는 요지였다.

용인에서 수원을 경유하여 서해안 각지로 통하는 해상로의 출구인 馬山浦까지는 약 20 km, 남한강 수운의 요지였던 여주의 梨浦까지는 약 25km, 송파 및 양재는 약 25km 청주는 약 50km로서 대부분 1日程에 불과하였다(그림 II-1). 이와 같은 위치상의 이점은 근대 교통기관의 도입 이후에도 중요시되어 식민지시대에는 용인군의 북부를 횡단하는 수려선 철도가 개통되어 인천·수원·이천·여주가 용인과 연결되었고, 오늘날에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용인시를 중·횡으로 관통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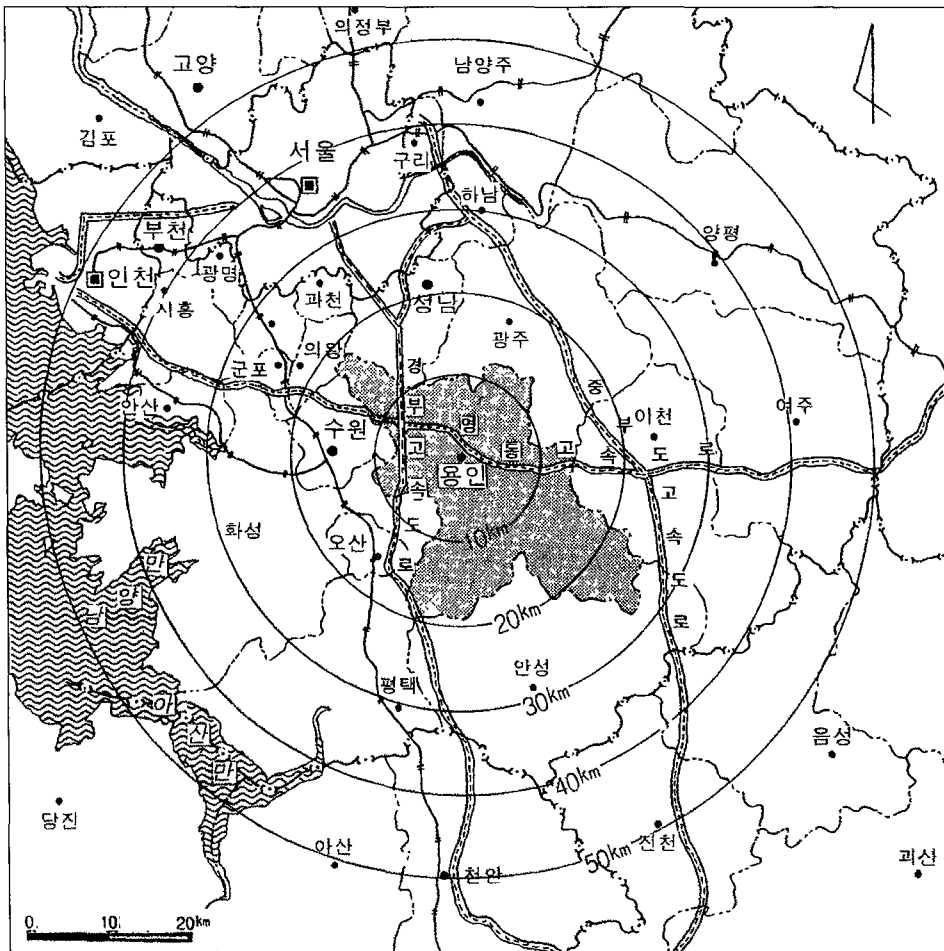


그림 II-1. 용인의 지리적 위치

2) 용인의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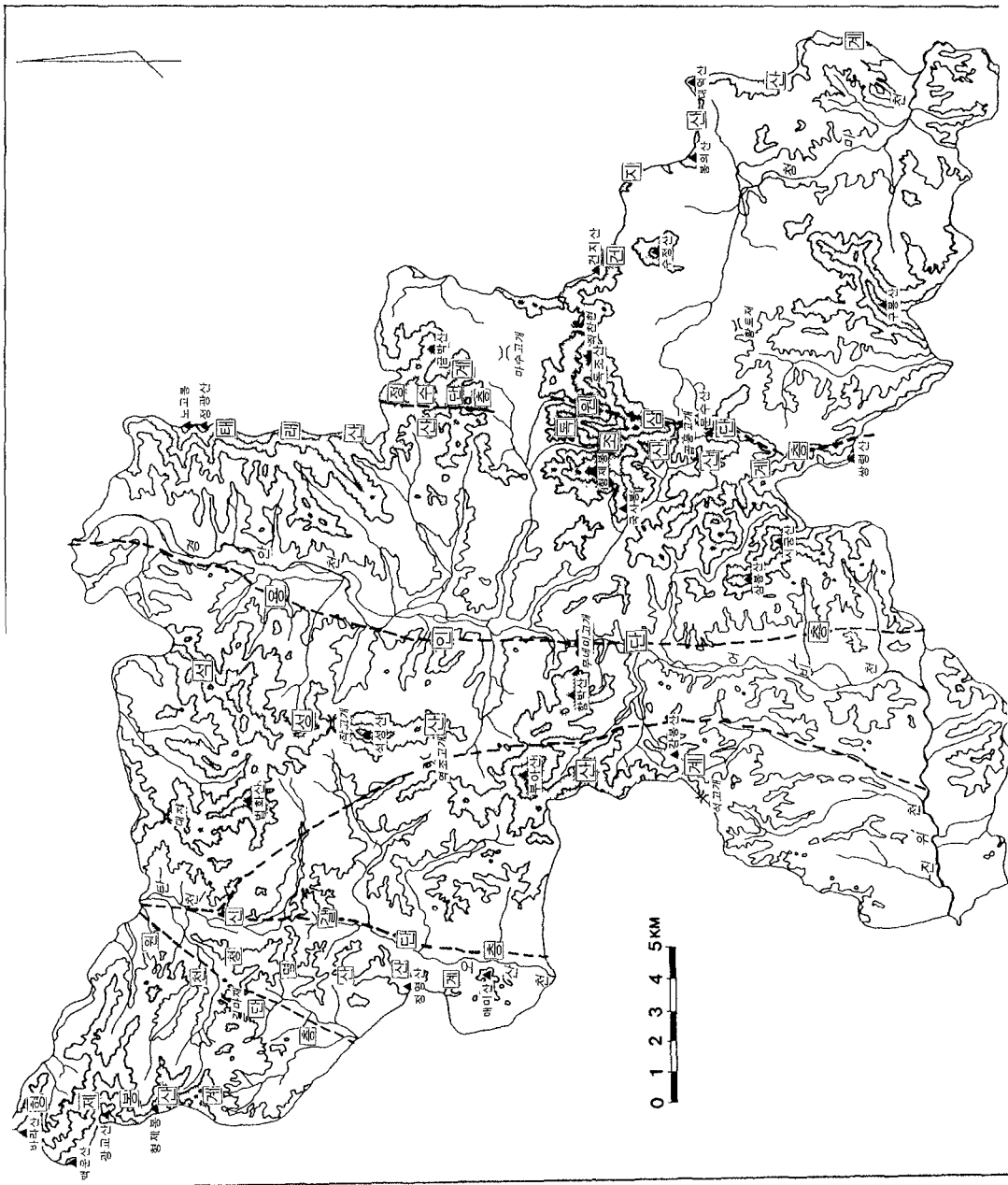
(1) 산지

용인시의 지도를 보면 힘차게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습이 연상된다. 경안천 하류부를 독수리의 머리로 본다면 진위천 하류부는 꼬리, 광교산 쪽은 왼쪽날개, 그리고 청미천 유역은 오른쪽 날개로 비유된다. 그런데 용인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지형적인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결코 유리한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군단위의 행정구역은 산지 또는 하천 등 자연적인 지형지물에 의해 경계가 지어지며 주변산지에서 발원하는 하천들이 모이는 평야의 중심부에 행정·경제·문화의 기능을 갖춘 중심취락이 입지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의 지형은 대체로 몇 개의 地形區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바 이는 남북방향으로 발달한 단층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용인지경 내에는 서쪽으로부터 원천단층, 신갈단층, 용인단층, 정수-원삼단층 등 네 개의 단층선이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단층선을 따라 흐르는 하천에 의해 좁고 긴 谷底平野가 나타난다. 대표적인 지형구는 서쪽으로부터 형제봉산계, 원천천 하곡, 청명산 산계, 탄천·신갈천 하곡, 성산 산계, 경안천·진위천 하곡, 봉래산·독조산 산계, 양지분지·백암분지, 건지산 산계 등이다. 그러나 원천천 하곡은 규모가 작고 청명산 산지 역시 脈勢가 약한 구릉성 산지이므로 형제봉 산계에 포함시키고 동쪽의 건지산 산계 역시 청명산 산계와 유사한 지형이므로 이를 백암분지에 포함시키면 대체로 형제봉산계, 탄천·신갈천하곡, 성산산계, 경안천·진위천하곡, 봉래산·독조산 산계, 양지·백암분지 등 여섯 개의 지형구조로 나눌 수 있다.¹⁰⁾ 즉 용인은 산지와 곡저평야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그림 II-2).

형제봉 산계와 청명산 산계는 대부분 先캄브리아기의 흑운모 편마암으로 덮혀있는 지역으로 國師峰(540m), 바라산(428m), 백운산(564m), 광교산(582m), 형제봉(448m) 등 500m 내외의 연봉으로 이어지며 북쪽으로는 청계산을 거쳐 우면산까지 연속되다가 한강을 만나 맥이 끊어진다. 이 산맥은 용인과 의왕시·수원시의 경계가 되는데, 산세가 험준하고 골이 깊어 鞍部의 발달이 미약하다. 유일한 통로는 백운산과 바라산 사이의 고분재 뿐이며 고도가 300m를 넘기 때문에 이 길은 오늘날에는 현지주민들만 이용하는 소로에 지나지 않는다. 청명산 산계는 100m 남짓한 구릉지로서 형제봉 산계에서 동쪽으로 뻗는 山脚으로 연결되나 이 산각의 안부인 길마재의 높이는 90m정도에 불과하여 원천천 유역과 탄

10) 국립지질광물연구소, 1972, 한국지질도 수원 (1:50,000).
국립지질광물연구소, 1973, 한국지질도 오산 (1:50,000).
국립지질광물연구소, 1974, 한국지질도 이천 (1:50,000).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982, 한국지질도 둔전 (1:50,000).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989, 안성도폭지질보고서 (1:50,000).



천유역의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성산 산계는 대부분 흑운모 편마암, 반상변정편마암 등 선캠브리아기 암석으로 덮여있으나 남쪽에 시대 미상의 화강편마암과 각섬암 분포지가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이 산계는 남한산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 용인지역에서 숫돌봉(330m)·법화산(385m)·석성산(471m) 등의 연봉을 이루다가 떡조고개의 안부에 이르러 맥세가 주춤한다. 떡조고개 남쪽에서 다시 부아산(409m), 함봉산 등 400m 고도를 유지하는 이 산지는 진위천 하곡에 접근하면서 낮은 구릉으로 변한다. 이 산지에서는 용인의 鎭山인 석성산이 가장 높으며 산지 중간에 대치고개·무등재·무푸레고개·안현·작고개·떡조고개·아흔아홉고개·상봉고개·석고개 등 많은 안부가 발달하여 용인과 수원 및 오산간의 교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죽전과 모현간의 대치고개, 영동고속도로와 통하는 작고개, 蔚嶺南大路와 국도 42번이 통하는 떡조고개, 남서면과 오산간의 석고개 등은 오늘날 자동차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떡조고개에는 과거에 水麗線 철도가 통하던 터널이 남아있다.

광주군과의 경계가 되는 봉래산-독조산 산계는 흑운모편마암으로 덮인 비교적 험준한 산지이다. 이 산계의 북쪽부분인 봉래산 산계는 지형윤희설로 볼 때 장년기 내지 노년기 초에 속하는 습곡산지로 노고봉(574m), 정광산(563m), 금박산(418m) 등의 연봉으로 이어지다가 양지분지에 이르러 구릉성 산지로 변한다. 이 산지에는 안부의 발달이 미약하여 말치고개, 기남이고개, 정수리고개 등이 있을 뿐인데 이들 조차 주요 교통로로 개발되지 못하였다. 경안천 지류인 양지천에 의해 단절되는 이 산계는 양지분지 남쪽에서 다시 일어나 독조봉(432m)·문수봉(405m)·쌍령산(502m)의 연봉을 이루며 이 산줄기에서 서북방향으로 뻗는 형제봉(442m)·국사봉(346m)·시궁산(515m) 등 3~4개의 산각이 발달하였다. 이 산계는 대부분 흑운모편마암으로 덮여있으나 원삼단층이 산지의 동쪽에 치우쳐 남북으로 뻗으며, 이 단층선의 동쪽부분에는 중생대 화강암이 관입하고 있으므로 차별침식에 의해 동쪽 산사면의 경사가 급하고 산지에는 화강암 돔(dome)과 너털바위(talus) 등이 발달하였다.¹¹⁾ 이 산계 역시 지세가 험준하여 교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안부가 별로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陽智와 백암분지사이의 佐贊고개(195m)는 嶺南대로의 요지였으며 오늘날 17번 국도가 통한다. 그리고 문수봉 북쪽의 굽등고개는 57번 지방도로 개발되어 용인과 백암간의 지름길로 이용된다.

용인과 이천의 경계를 이루는 건지산 산계는 흑운모편마암과 화강암이 혼재하는 산지인데 건지산(411m), 수정산(345m), 봉의산(315m) 등 300m 이상의 산들이 있으나 뚜렷한 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몇 개의 블록(block) 형태로 고립되었다. 산봉우리는 차별침식의 결과로 형성된 잔구형태를 띠고 있으나 말단부에는 완만한 저산성 구릉지가 발달하였다.

11) 국립지질광물연구소, 1974, 한국지질도, 이천도폭 (1: 50,000), 2-3쪽.

현대지리학에서는 용인의 산지가 태백산맥에서 갈라져나온 동북-남서 주향의 廣州山脈 말단부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산맥체계는 20세기 초 일본 지질학자 코토 분지로(小藤文二郎)의 조선산악론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¹²⁾ 코토는 지질구조선을 토대로 한반도의 산맥체계를 논한 바 있는데 이 설이 통감부시대의 교과서에 반영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도 중앙부 산지 대부분을 광주산맥의 말단부로 보게 되었다. 그런데 광주산맥은 한강에 의해 맥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의 명지산~도봉산으로 이어지는 줄기, 용문산 줄기 등 여러 개의 맥이 존재하므로 뚜렷한 산맥의 형태를 띠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래에는 이러한 학문적인 산맥관보다 산의 맥이 끊어지지 않아 육안으로 파악이 가능한 전통적인 산맥관으로 우리의 산세를 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山經表』, 『山水考』, 『擇里志』 등을 보면 우리나라의 산맥의 축을 白頭大幹이라 하고, 그 맥은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끊임없이 천여 리를 내려와 太白山에 이르고, 이 줄기가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소백산, 주흘산, 속리산으로 이어지며 속리산에서 다시 남쪽으로 뻗어 지리산까지 연결되면서 맥세가 그친다고 하였다.¹³⁾ 우리 선조들은 한반도의 모든 산맥들이 이 백두대간으로부터 갈라져 나온다고 보고 大幹 다음의 큰 산줄기를 正幹, 그 다음을 正脈이라고 불렀다.

『산수고』에 의하면 용인지방의 산지들은 백두대간의 속리산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漢南錦北正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북쪽으로 뻗어 竹山의 칠현산(516m)에 이르면 이 산맥은 서남서 주향의 금북정맥(현 차령산맥)과 서북주향의 漢南正脈으로 나뉜다. 한남정맥은 용인에 이르러 앞에 열거한 여러 갈래의 산계로 갈라진다.¹⁴⁾

(2) 하천과 평야

용인지방을 통과하는 단층선은 하천의 유로와 평야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남북방향으로 발달한 단층선에 의해 신갈단층에는 북류하는 炭川과 남류하는 오산천이 흐르고, 용인단층에는 북류하는 京安川과 남류하는 진위천이 흐른다. 그리고 원천단층의 원천천 역시 남류한다. 이들 하천의 본류는 부분적으로 넓은 곡저평야 내에서 曲流하는 蛇行川유로를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직선유로를 유지한다. 그리고 각 산계의 주맥으로부터 동서방향으로 뻗은 山脚사이의 골짜기에서 발원하는 지류들은 거의 직각으로 분류와 합류하기 때문에 樹枝狀 하계망이 발달한 청미천을 제외한 용인의 하천들은 거의 格子狀 河系網을 나타낸다. 특히 용인 단층선을 따라 남류하는 진위천은 어비리에서 유로가 서쪽으로 직각을 이룬다.¹⁵⁾

12) Koto, B., 1903, "An Orographic Sketch of Korea.", 『東大紀』19(1), pp.1-61.

13) 『擇里志』八道總論.

14) 『旅庵全書』(1) 『山水考』.

15) 국립지질광물연구소, 1973, 한국지질도 오산도폭, 2-3쪽.

용인이 경기남부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동시에 한북정맥의 중심이 이곳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용인은 경기남부의 대·소하천의 발원지가 된다. 용인에서 발원하는 하천 가운데 황해로 유입하는 진위천은 황구지천, 오산천, 어비천 등 3대 지류의 물을 모으는데, 이들 지류의 물 근원은 모두 용인땅에 있다. 3개 하천중 어비천이 진위천의 본류에 해당되어 유로가 길고 큰 지류도 많으며 유역평야도 잘 발달하였다.

용인의 동남부에는 유역이 넓은 청미천이 흐르며, 동쪽에는 북하천 상류 추계천의 극히 좁은 면적이 시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안성천 지류인 한천이 발원한다. 청미천은 독조산지에서 발원하며 맹리천, 평대천 등 약 10여 개 지류의 물을 거두어 남한강으로 유입하며 북하천은 이천분지를 지나 남한강의 梨浦로 흐른다. 한편 독조산계의 문수산과 쌍령산록에서 발원하는 한천은 안성천에 합류하고 아산만에서 진위천과 만난다.

용인단층 북쪽과 신갈단층 북쪽에는 각각 경안천과 탄천이 흐르는데, 이 하천들은 한강본류에 직접 유입된다. 경안천의 발원지는 양지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독조봉과 금박산의 산록, 원삼단층의 문수산, 성산산계의 부아산록 등인데 이들 발원지에서 각각 양지천, 운학천, 금학천 등이 흘러 용인읍에서 합류하며 하류로 내려가면서 주북천, 금어천, 능원천 등 10여개 이상의 지류의 물을 거두어 팔당에서 한강과 합류한다. 석성산 북록에서 발원하는 탄천은 서류하면서 마북천과 합류한 후 유로를 북으로 돌려 형제봉 산계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오는 성북천, 동막천 등의 지류를 거두고 한강으로 들어간다.

이처럼 많은 하천들이 용인을 중심으로 발원하여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간다는 사실은 용인의 강역이 여러 개의 유역으로 분리되어 자연적 통일성이 결여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각 유역간의 분수령이 높지 않고 종횡으로 통하는 鞍部가 열려 교통소통에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지역통합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하천의 발원지이므로 곡저평야의 비고가 비교적 높고 하천들이 대부분 직선유로를 유지하므로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旱魃이나 홍수의 피해가 적었다(그림 II-3).

『택리지』에 ‘竹山 서쪽에서 양지를 지나면 한남의 여러 고을이 흩어져 있는데, 촌락은 쇠하고 산수가 화창하지 못하여 살만한 곳이 없다.’고 하였다.¹⁶⁾ 즉 양지, 용인, 양성 등지는 산이 많고 넓은 들이 적어서 촌락의 발달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수운이 편리하고 넓은 들을 끼고 있는 江居나 어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海居보다 평온한 아름다움과 깨끗한 경치를 가지고 있으며 관개시설을 만들기 쉽고, 수해가 적으며 비옥한 농토가 있는 溪居를 가장 선호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용인은 산이 많고 들이 좁되 산은 험하지 않고 잔잔한 구릉이 발달되어 사대부의 可居地로 적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택리지』는 용인의 魚

16) 『擇里志』八道總論 京畿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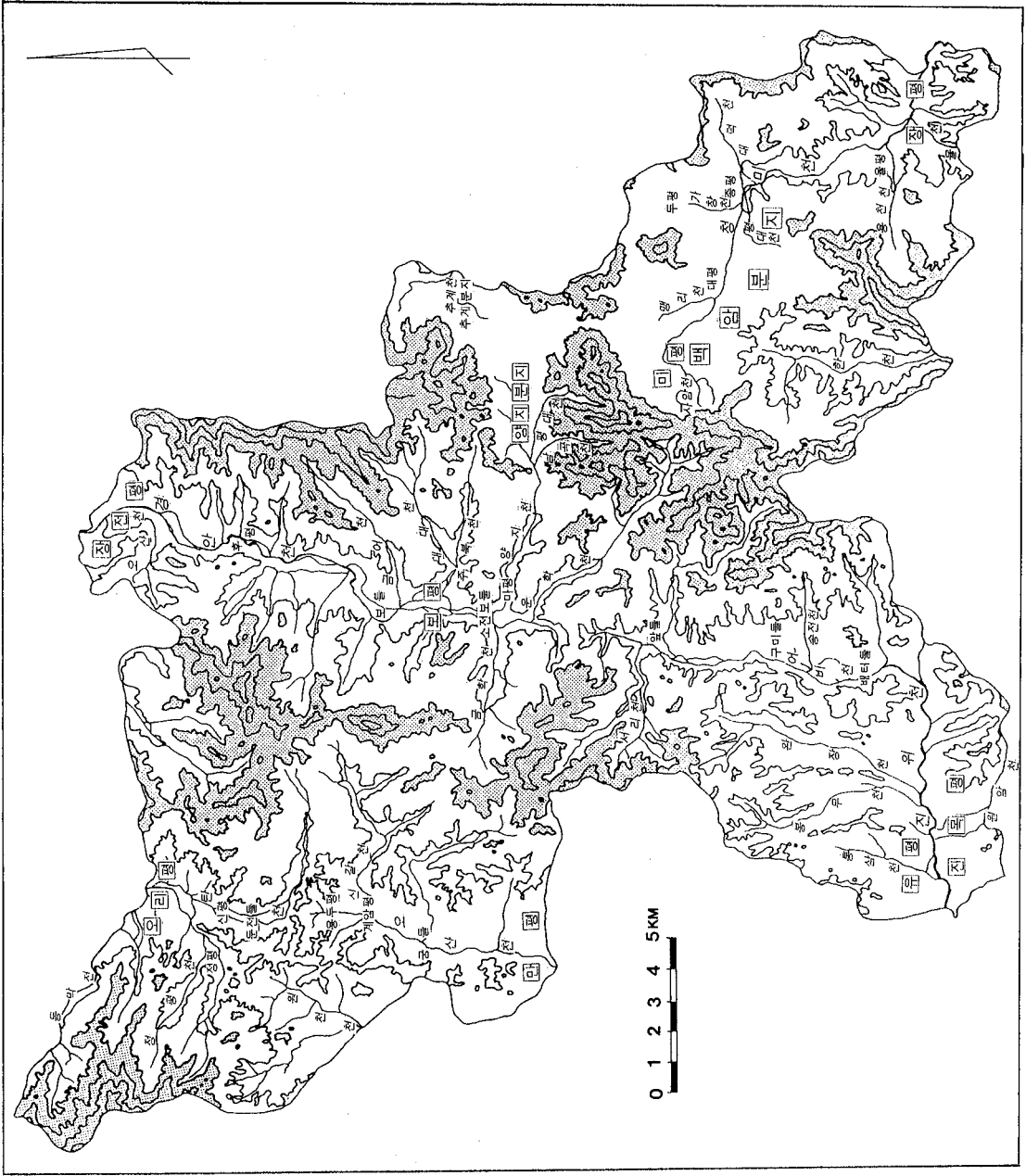


그림 II-3. 용인의 하천과 평야

肥川(진위천 상류)과 음죽의 청미천(백암면 일대 포함) 유역의 땅은 삼남지방과 마찬가지로 비옥하여 살만한 곳이라고 하였다.¹⁷⁾

용인의 평야는 대부분 지진구조선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谷底平野들로서 폭은 좁고 길게 펼쳐진다. 그러나 청미천 상류의 백암분지와 진위천 유역에는 비교적 넓은 들이 발달하였다. 용인의 주요 평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신갈단층을 따라 발달한 곡저평야는 신갈인터체인지 부근을 분수계로 하여 탄천유역과 오산천 유역으로 구분된다. 이 분수령은 비고가 80여 m에 불과하며 평야면보다 10m 내외의 고도차를 보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계로 인식하기 쉽다. 이 평야는 단일 지명을 갖지 못하고 하천의 지류 유역마다 '들' 또는 '뚝'으로 불리는 고유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탄천유역의 평야명칭은 상류부로부터 둔전들, 신평, 정평, 오리들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둔전들이 비교적 넓었으며 하천유로가 정비되기 전에는 하천유로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져 평야의 중앙부가 마치 河中島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탄천 하류부에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전까지 범람원과 배후습지가 남아있었다. 오산천에는 상류부로부터 용두평, 계암평, 궁들, 만평 등이 분포하는데 하류쪽의 만평은 들이 넓게 열렸다. 오늘날 이곳에는 신갈저수지가 건설되어 관개용수 공급원으로 이용된다.

용인의 중앙을 남북으로 열어놓은 용인단층을 따라 경안천 유역 곡저평야와 진위천 유역 곡저평야가 발달하였다. 이 평야는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해발 약 180m의 무네미 고개를 분수계로 하여 경안천 유역과 진위천 유역으로 나뉜다. 그러나 분수령과 곡저평야 간의 비고 차이는 극히 미미하다. 이들 두 평야는 매우 저평하고 계곡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자유곡류에 의해 발달한 범람원지형이 잘 발달하였으며 河岸段丘도 도처에서 목격된다. 범람원은 유로가 網狀으로 갈라지는 곳에서 잘 발달되었는데 경안천의 경우에는 防禦洞과 屯田里 일대의 淤坪일대, 배미들 일대, 후평 일대에 발달했었고, 진위천은 松田里, 염심리, 유평 일대에 발달했었다. 오늘날 경안천과 진위천은 장기간의 하천정비, 경지정리 사업, 저수지건설로 지형이 크게 변하여 범람원상의 자연제방과 배후습지가 거의 사라졌으나 진위천의 진복평 일대에서는 지금도 자연제방과 배후습지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자연제방 위에 발달한 촌락에는 대지를 지면보다 높게 터돋움한 민가들이 남아있다.

진위천 유역의 범람원은 대체로 해발 19~26m의 고도를 가진 충적지인데 얇은 토사층 밑에 2~3m의 사력층이 있고 바로 밑에는 기반암이 나타나므로 충적층은 그리 두껍지 않다. 이 범람원의 바깥쪽에는 해발 20~35m 고도의 하안단구가 약 4km 길이로 발달되었는데, 이 단구의 폭은 평균 1km 정도이다.¹⁸⁾ 이곳의 하안단구는 범람원과의 고도 차이가

17) 『擇里志』卜居總論 山水

18) 이의한, 1999, "辰威川 中流의 沖積段丘", 『지리학연구』33(2), 100-102쪽.

극히 적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은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진목평과 유평 외에도 상류부로 배터들, 기미들, 구미들, 앞들 등 작은 평지가 분포하는데 방목리로부터 송전 사이에 이르는 배터들은 1969년 二東저수지가 건설됨에 따라 수몰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 용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알려졌던 어비천 유역의 魚肥里를 비롯한 수 개 마을이 수몰되었다.

원삼단층 동쪽, 즉 용인 동남부지역은 류라기 화강암류 암석이 널리 분포하는 지역이다. 화강암은 비교적 침식·풍화에 약한 암석이므로 차별침식에 의해 주변의 편마암지대보다 낮은 분지지형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 분지는 독조산~佐贊고개를 경계로 경안천 지류(양지천) 유역의 분지와 청미천 유역의 백암분지로 구분된다. 이 분지들은 기반암인 화강암층 위에 얇은 퇴적층으로 덮혀 있는데 主堆積源은 화강암류 생성물인 점토·泥土·砂礫·자갈 등이 하부에 쌓이고 그 위는 모래·점토 등이 덮고 있는 일종의 퇴적지형인데 하천상류의 활발한 하방침식작용을 받아 곳곳에 깊은 골짜기가 발달하였다(그림 II-4). 산록완사면의 토양은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밭·과수원 등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독조산 남쪽사면에 해당되는 원삼면 사암리에서는 해발 120~200m, 북쪽의 양지분지에서는 해발 140~180m의 고도대에 완사면이 분포한다.¹⁹⁾

양지분지와 백암분지의 하천들은 단층선의 영향을 받은 용인서부의 하천들과 다른 하계망구조와 유로를 가지고 있다. 후자가 직선유로의 본류에 직각으로 합류하는 하계망구조를 지니는데 반해 이 화강암지대의 하천들은 樹枝狀 유로를 가지고 있다.

용인 동남부의 화강암지대는 청미천 수계, 경안천 수계, 북하천 수계, 안성천 수계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들 가운데 청미천 수계가 가장 면적이 넓고 경안천 수계가 이에 버금간다. 청미천 수계와 안성천 수계는 분수계의 고도차이가 20m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유역분지로 착각하기 쉽다. 다만 청미천 유역분지가 안성천 상류인 木新川 하곡보다 20~30m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암리에서 고당리 쪽으로 이동할 때 약간의 경사를 느낄 수 있다.

청미천 수계 상류부의 하계망은 오늘날 그물망처럼 조직된 인공관계수로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이 하천의 원류는 활처럼 굽은 독조산과 문수봉 산지의 동쪽 사면에서 발원하는 10여 개의 개울이며, 사암리의 용담저수지로 모였다가 동남류하는 사암천을 청미천의 원류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청미천 지류로는 독조산에서 발원하는 맹리천, 소학산에서 발원하는 가창천, 구봉산에서 북류하는 평대천, 대덕천, 용천천 등 10여 개의 지류가 있다.

양지천 유역과 북하천 발원지인 추계천 유역은 마수고개를 경계로 구분되나 분지면과 분수령의 비고는 10m 내외에 불과하다. 양지천 하계망은 독조산에서 발원하는 평대천·

19) 국립지질광물연구원, 1974, 한국지질도 이천도폭 (1: 50,000), 13쪽.



그림 II-4. 양지천과 청미천 지역의 지형(1910년대 1:50,000지형도)

왕곡천 등 6~7개의 계류들로 이루어지며 추계천 역시 독조산과 그 주위의 여러 골짜기에서 발원하는 10여 개의 계류들이 합류하여 복잡한 하계망을 가지고 있다. 용인 동남부의 평야발달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화강암 침식분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평지의 주위를 산지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하천에 의해 침식된 좁은 출구가 열려있다.

양지분지는 해발 120~140m의 고도를 유지하며, 분지 서쪽의 오리들과 동쪽의 앞자리들로 구분된다. 추계천 유역 분지 역시 양지분지와 비슷한 고도를 유지하며 추계리 부근에서 출구가 극히 좁아져 협곡을 형성한다. 이들 두 분지 사이, 즉 마수고개 일대에는 독조봉으로부터 내려오는 넓은 완사면이 발달하였다.

백암분지는 용인에서 가장 비옥하고 넓은 들이다. 이 분지에는 상류로부터 彌坪(미륵들), 大坪, 宗坪, 院坪, 栗坪, 長坪 등 넓은 들과 두평, 당앞들, 중말들, 가좌모들, 정자들 등 많은 소규모 谷底平野들이 발달하였다. 상류부의 미평 일대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넓은 산록완사면이 발달하였으며, 대평과 함께 해발고도 100m이상에 위치한다. 그러나 평야

면은 평탄한 편이다. 이 분지의 중심취락인 白岩리는 사암천, 평대천, 가창천, 대덕천 등이 합류하는 중평에 입지하고 있다. 이 평야는 해발 100m경계인 동시에 미평·대평으로 이루어진 상부분지와 하부분지의 경계로서, 백암리 남쪽 1km의 원터 부근에서 일시적으로 평야의 폭이 좁아진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평대천과 사암천 합류지점으로부터 백암에 이르기까지 유로가 網狀을 형성했었다. 백암리의 하류부에는 청미천을 따라 해발 100m 미만의 넓은 들이 전개되며 하천유로는 자유사행의 형태를 띤다. 지형이 저평하므로 홍수 시에는 하천이 범람하며 과거에는 대부분의 취락들이 100m 등고선에 가까운 산록이나 하안단구상에 입지했었으며, 오늘날에도 野村으로는 원평의 벌말 정도가 있을 뿐이다. 현재 하천제방이 축조되고 유로가 정비되었으므로 과거의 지형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식민지시대에는 율평으로부터 하류부로는 유로의 좌우로 범람원과 넓은 모래밭이 발달하였고 백봉천 등 일부 지류는 유로가 소멸되는 伏流河川을 형성했었다.

2. 용인의 역사·인문환경

한반도의 중앙부에 자리한 龍仁은 漢陽에 인접한 지역으로 여객의 통행이 뜰주했던 까닭에 咽喉에 비유되던 지역이다.²⁰⁾ 거리상으로 한양으로부터 40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용인은 전통적 개념의 近郊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郊’란 都城을 중심으로 100리 이내의 환상 지역을 일컫는데, 교내로는 行宮, 離宮, 陵墓, 祭壇, 狩獵場, 軍師訓練場 등이 집중 분포한다.²¹⁾ 용인은 조선시대 고관의 왕래가 잦았던 수원과 여주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료에서 자주 언급되듯이 국왕의 행차시 주요 경유지가 되었다. 王室 전용의 射場도 용인에 존재하였던 듯하다.²²⁾ 왕도에 가깝다는 지리적인 특성상 용인은 낙향한 사대부들이 학문을 연마하면서 후일을 기약하기에 적합한 世居地로도 중요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적어 토지에 기초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구비되어있다는 장점도 있다. 관념생활의 측면에서는 여러 개의 하천유역권으

20) “接於王都賓旅輻輳”(『新增東國輿地勝覽』龍仁縣形勝條). 용인 숙소 동쪽에 위치한 新亭에는 金壽寧의 기록이 전하는데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龍仁은 “小邑也以其接於王都也故凡大小賓旅日夜輻輳莫不因是蓋南北之喉也”. 漾碧亭에 관한 기사안에는 “龍仁當南北走集之街畿縣之最難治者”라는 표현으로 경기도내 교통중심지의 하나인 용인의 경우 밀려드는 여객을 수용할 만한 숙박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 시설이 부족해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을 지적한 대목이 있다(樓亭條).

21) 연산군 당대에 左贊成 이계동과 京畿觀察使 송일이 禁標의 경계를 표시한 지도를 작성할 때 사방 100리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양주 龍津, 과주 臨津, 용인 북단, 연천 大灘이 그 외곽 경계에 해당하였다(『燕山君日記』 5월 29일 癸丑條, 6월 21일 甲戌條).郊의 象徵性, 景觀, 衛戍機能, 土地利用, 聚落發達에 관한 사항은 崔永俊의 1989년 논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朝鮮時代 漢陽의 郊地域 研究”, 문화역사지리 創刊號, 3-22).

22) 『成宗實錄』 6년 9월 28일 甲戌條. 용인에 있던 사냥터는 王林射場으로 불리었다.

로 구성된 용인의 경우 소규모 지곡의 발달이 탁월하여 可居處로 적당한 風水局面을 곳곳에 조성해놓았기 때문에 理想鄉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묘지, 택지, 촌락 등의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경내에는 寶蓋山, 負兒山, 光教山, 禪長山, 莊莊川, 金嶺川, 葛川(駟興川), 魚肥川 등의 산천이 어우러져 풍류를 중요시하는 사대부에게는 더없이 좋은 생활터전을 부여한다.

용인은 과거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다. 1232년 있었던 봉고의 제2차 침입시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격전을 벌였던 것이나,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주력부대가 용인, 양지, 죽산을 통하는 上京街道를 차지하기 위해 진력했던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조선후기 최고의 전략가로 알려진 柳成龍의 수도방비책에서도 한양으로 통하는 직로변에 입지한 石城山에 성을 수축하고 군량을 저장하여 南漢山城과 일체를 이룸으로써 京都의 門戶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²³⁾ 전략적인 중요성이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통 및 상업과 관련된 기능적 중심성 또는 결절성도 의미한다. 용인에는 한양으로 통하는 간선인 金良大路를 비롯해 주요 취락을 연결하는 中路, 산길과 마을 안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小路로 구성된 고밀도의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맥으로 기능하였다.

용인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극심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식민세력이 가져온 정치·문화적인 충격과 함께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용인의 지리적 변화를 심화시켰다.²⁴⁾ 해방이후 용인은 1960년대 經濟開發期와 京釜高速公路의 개통을 계기로 近代化의 도상에 올라섰다. 새마을운동 당시에는 마을 안길 확장을 비롯해 소 하천 정비, 지붕개량, 환경정화, 마을회관 건립, 공동우물터 조성 등으로 村落의 면모가 일신되었다.²⁵⁾

1) 용인의 역사와 행정구역의 변천

용인은 先史時代의 유물을 비롯하여 三國時代, 高麗時代, 朝鮮時代를 대표할 만한 각종 유물·유적을 가지고 있다. 이들 유물의 다양성은 용인의 역사와 문화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으로는 모현면 갈담리, 남사면 봉무리, 이동면 덕성리와 천리, 양지면 평창리의 구석기유물, 포곡면 마성리와 유운리, 구성면 상하리, 모현면 왕산리, 원삼면 사암리와 맹리, 백암면 근삼리, 양지면 주북리 등지에서 출토된 지석묘, 모현면 초부리의 용범, 포곡면 유운리, 남사면 창리, 원삼면 사암리와 두창리의 선돌 등을 들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한다는 특징을 갖고있다(사진 II-1

23) 『宣祖實錄』 29년 4월 17일 癸丑條

24)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가옥의 경우 약 45,933 평이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다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998, 『駒城而誌』, 70쪽).

25)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에 따른 龍仁의 '변화하는 농촌경관'을 이해하는 데 金德鉉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1989, “最近 韓國村落의 景觀變化에 대한 理解”, 문화역사지리 創刊號, 23-38쪽).

)26)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유물로는 토기, 사찰, 석불, 석탑, 산성, 부도 등이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유적·유물의 태반은 조선시대의 것으로 질적으로도 앞선 시대와는 판이하게 구별된다. 여기에는 유명 성씨의 묘역을 포함해 정자, 비석, 사당, 제각, 정문, 산성, 서원, 봉수지, 사찰, 고가, 옹기·사기·자기 산지, 향교, 관아지 등이 포함된다(그림 II-5).



사진 II-1. 용인의 지석묘 : 한강 이남에 자리한 용인에는 다양한 크기의 남방식 지석묘가 곳곳에 남아있다. 양지 주북리 林苑에 있는 이 고인돌은 김해 許氏의 묘역에 들어서 있어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이어지는 용인 역사의 연속성을 대변하는 가시적인 상징물이다.

삼국시대 초기 용인은 백제의 영역이었으며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백제의 정치력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간주된다. 5세기경 남하정책을 펼 高句麗의 영토로 변한 용인은 漢山州에 편입되어 駒城縣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후 용인은 신라의 세력확장의 와중에서 통일을 맞이하게 되고 9州5小京 체제하에서 경덕왕에 의해 巨黍縣이라는 이름으로 漢州에 편입되었다.²⁷⁾ 고려 태조는 고구려의 명칭이던 駒城에 龍자를 더해 駒城縣을 龍駒縣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이를 楊廣道 廣州牧의 任內로 편입시켰다.²⁸⁾ 이후 명종 2년(1172)에 이르러 縣令官이 파견되었다.²⁹⁾

조선왕조의 지방행정체계는 朝廷(國王), 監司, 守令, 面里任의 계층적인 관료제를 근간으로 성립되었으며 행정구역은 크게 道, 州, 府, 郡, 縣, 面, 里로 편성되었다. 지방에서는

26) 경기도박물관, 1998, 『경기문화유적지도』1. 경기남부지역.

27) 『三國史記』卷35, 雜誌4 地理2.

28) ‘任內란 外官이 파견되지 않고 主郡에 종속되어 통치를 받는 행정단위로 屬縣, 兼縣, 合屬縣, 附邑, 支縣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29) 『高麗史』卷56 地理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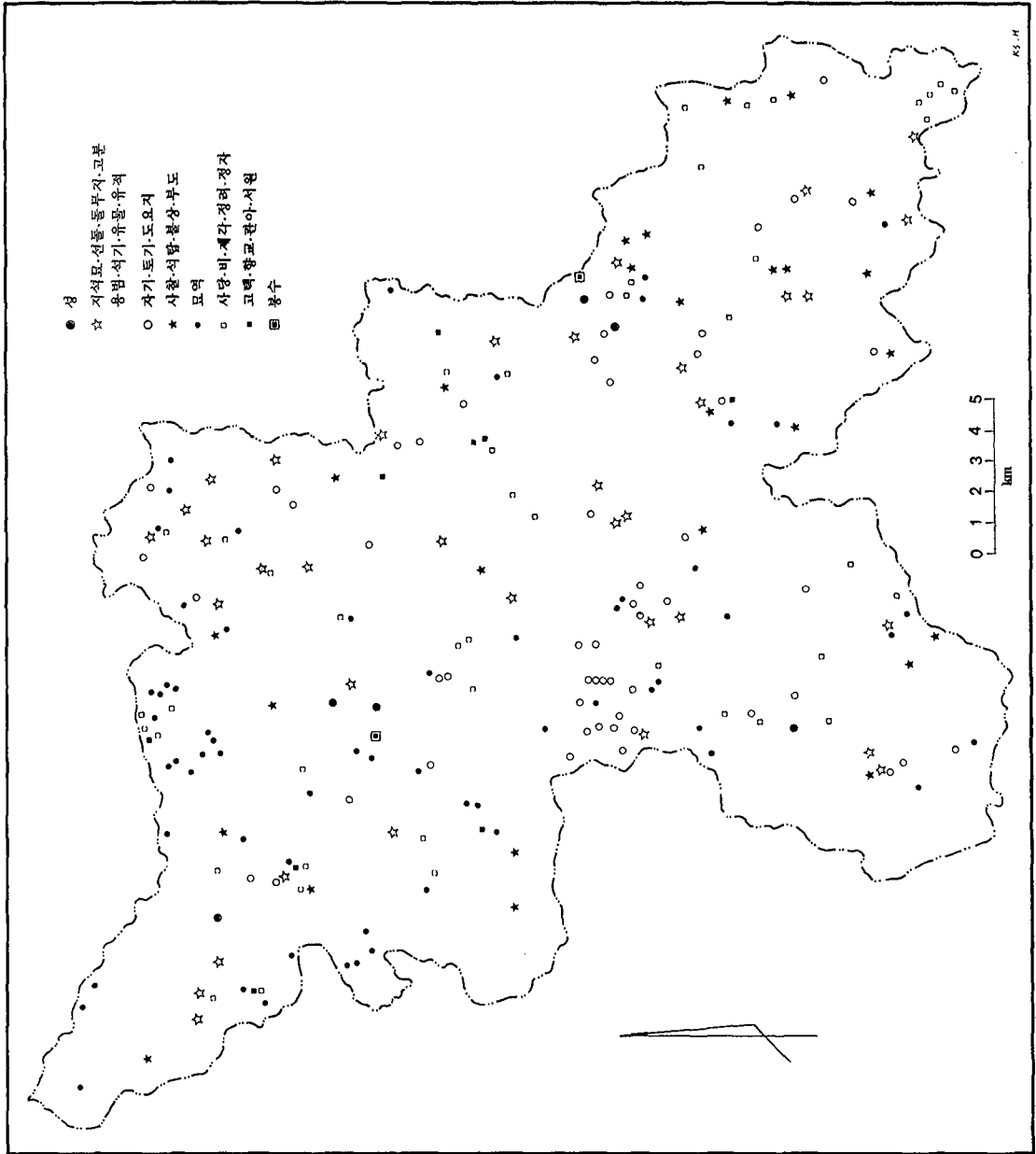


그림 II-5. 영인의 문화유적·유물 분포

自然村을 자치적인 조직을 갖는 최소의 행정단위로 간주하며 관습상 이를 洞, 坪, 村 등으로 분류하였는데, 선초 面里制의 정착과 함께 “京外以五戶爲一統 有統主 外則每五統有里正 每一面有勸農官” 한다는 규정에 따라 5戶가 1統으로, 5統이 1리로 편성되었다.³⁰⁾ 面은 대개 5-10개 정도의 洞이나 리의 집합적 의미를 지닌 행정단위였다. 용인이란 명칭은 용구현과 수원 소속의 部曲으로 출발한 處仁縣이 합병된 태종 13년(1413)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읍치는 언동 근처로 이 곳에는 종6품의 현령이 파견되어 정치·행정 업무를 주관하였다.³¹⁾ 병합과 함께 처인에 거처를 둔 많은 수의 관리와 노비가 용인으로 이주하였다.³²⁾ 이 때를 기해 용인현의 행정구역은 16개 面으로 확정되었으며 여기에는 치소가 자리한 邑內面을 비롯해 東邊面, 西邊面, 駒興面, 水眞面, 枝內面, 器谷面, 水餘面, 浦谷面, 慕賢村面, 縣內面, 道村面, 南村面, 西村面, 上東村面, 下東村面 등이 포함된다(표 II-1). 용인의 강역안에는 용인현외에도 양지와 죽산의 일부 面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양지의 邑內面, 朱東面, 朱北面, 朱西面, 木岳面, 古東面, 古北面, 古西面, 朴谷面, 高安面과 죽산의 遠一面, 遠三面, 近三面, 近一二面 등이 그들이다(그림 II-6).

표 II-1. 용인의 면별 동리 분포, 선초-1913

면	소 속 동 리
邑內面	북동, 남동, 언동, 마곡
西邊面	이현, 독정, 보수원
駒興面	갈곡, 내기, 갈천, 상촌, 미동, 신촌, 역촌, 상관곡
東邊面	수청동, 덕수동, 동막, 백현, 중동, 하지석, 상지석, 수원동
水眞面	죽전동, 동막리, 손기리, 고분현, 서봉동, 신리, 정평리, 성북동
枝內面	상리, 하리, 의상, 의하, 덕동, 영통
器谷面	상갈천, 중갈천, 하갈천, 외서천, 내서천, 농사동, 고매동, 공세동, 한의동, 보라동, 지곡
水餘面	서동, 역동, 북동, 유곡, 방축동, 금천리, 어매곡, 임원리, 고진리, 소학동, 하리, 대촌리, 동진리, 삼삼리, 호동, 예진리, 길업리, 매곡
浦谷面	신원리, 유실, 소운동, 전곡리, 신대, 가실, 동막, 이성동, 부곡, 허문, 냉천, 영곡, 마가실, 성저리, 둔전, 두계리, 당곡, 도사리
慕賢面	오산리, 우명동, 원촌, 왕림, 동산리, 고매곡, 상마산, 하마산, 개일리, 모산리, 관청리, 왕곡, 파담리, 갈월리, 부곡, 초하리
縣內面	완장동, 아곡, 남산동, 창동, 율곡, 화동, 방축동
道村面	삼인리, 상동, 산정리, 내기, 수세동
西村面	원포, 봉명동, 외동천, 동막, 사후
南村面	원암동, 아곡, 전궁동, 방목동, 진목동
上東面	목동, 덕성동, 천동, 원촌, 서동
下東面	시미동, 모산동, 요산동, 묘봉동, 어비동, 송전동

30) 『經國大典』卷2 戶典 戶籍條

31) 『太宗實錄』 14년 8월 21일 辛酉條, 『世宗實錄』地理志 龍仁縣條, 『新增東國輿地勝覽』龍仁縣 建置沿革條

32) 『太宗實錄』 14년 9월 8일 戊寅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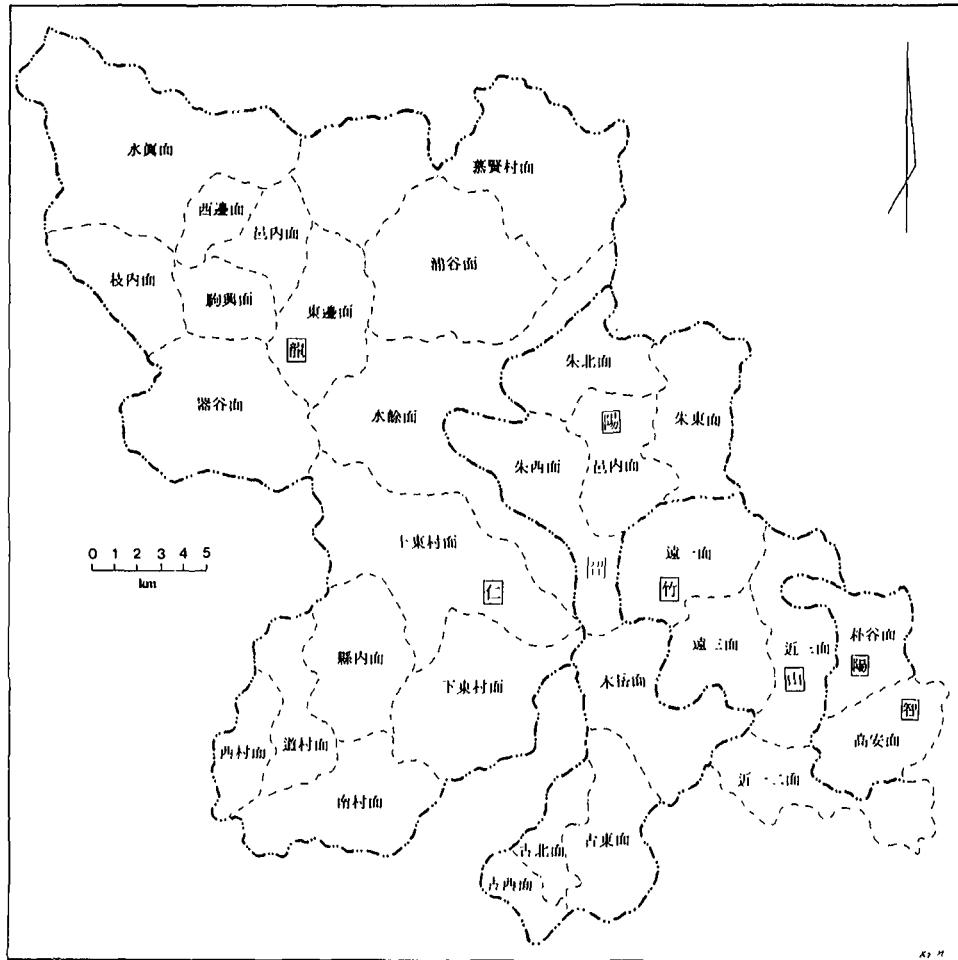


그림 II-6. 용인의 행정구역, 선초-1913

용인의 행정구역 체제는 1895년 乙未改革 당시 지방관제 개편원칙에 따라 변동이 있게 된다. 개편의 주요 골자는 종래 留守府, 府, 牧, 大都護府, 都護府, 郡, 縣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일률적으로 郡으로 바꾸고 이들 337개 군을 나누어 漢城府를 비롯한 23개의 府로 소속시킨 데 있다. 부에는 觀察使를, 군에는 郡守를 두어 행정사무를 총괄케 하였다.³³⁾ 용인군은 양지, 죽산 등과 함께 忠州府에 편제되었다. 군청은 水餘面 巢鶴洞으로 이전되었으며 군수는 총 16개 면과 136개 동리를 관할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왕비시해를 계기로 건양 원년(1896)에 다시 1府 13道制로 환원되었으며 道의 하위단위로 1牧(濟

33) 孫禎陸, 1992, 『韓國地方制度·自治史研究(上)』甲午更張-日帝強占期, 一志社, 35-55. 나머지 22개 府는 仁川, 忠州, 洪州, 公州, 全州, 南原, 羅州, 濟州, 晉州, 東萊, 大邱, 安東, 江陵, 春川, 開城, 海州, 平壤, 義州, 江界, 咸興, 甲山, 鏡城을 포함한다.

州), 7府(漢城, 廣州, 開城, 江華, 仁川, 東萊, 德源, 慶興), 331郡을 두었다.³⁴⁾ 이때 용인군은 경기도 관할로 재편성되었다.

건양 원년의 지방제도는 광무 10년(1906) 9월 20일자 勅令 제 48·49호에 의해 1首府 13道 11府 332郡으로 개정된 후 1910년 합방당시까지 1首府 13道 11府 317郡체제로 안착되었다. 그러나 당시까지 볼 수 없었던 대대적인 지방제도의 개편은 1914년 朝鮮總督府에 의해 단행되었다. 총독부는 4월 1일을 기해 京城, 仁川, 群山, 木浦, 大邱, 釜山, 馬山, 平壤, 新義州, 元山, 淸津의 12개 지역을 府로 지정하였고 이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지역간 통폐합을 추진해 결과적으로 220개 郡만이 존속하게 되었다.³⁵⁾ 양지와 죽산이 해체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 당시 용인은 양지, 죽산, 광주, 진위 등 접경한 네 군현과 일부 동리를 이속, 통폐합시키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단위 지역으로 성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용인은 양지군 전역과 죽산군의 遠一, 近一·二·三면을 편입시키게 되었으며, 당시의 행정구역개편과 함께 용인군청도 巢鶴洞에서 金良場으로 이전되었다. 이후 1937년에는 邑三面이 駒城面으로, 水餘面이 龍仁面으로 개칭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인 領域의 加減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龍仁의 行政區域의 틀을 마련한 1914년의 면리편제는 水餘面, 浦谷面, 慕賢面, 邑三面, 水枝面, 器興面, 南四面, 二東面, 內四面, 古三面, 外四面, 遠三面 등 12개 행정단위를 주축으로 형성되었다(표 II-2, 그림 II-7).

표 II-2. 용인군의 행정구역, 1914

면	소 속 리
水餘面	金良場里, 역북, 남, 고림, 삼가, 호, 류방, 마평, 운학, 해곡
浦谷面	留雲里, 금어, 삼계, 가실, 전대, 영문, 마성, 산원, 둔전
慕賢面	日山里, 초부, 갈담, 왕산, 매산, 동림, 능원, 오산
邑三面	彥南里, 상하, 동백, 중, 청덕, 마북, 보정, 죽전
水枝面	豐德川里, 고기, 신봉, 동천, 성북, 이의, 하, 상현
器興面	新葛里, 하갈, 공세, 고매, 서천, 농서, 지곡, 보라, 상갈, 영덕, 구갈
南四面	鳳舞里, 통삼, 봉명, 북, 진북, 원암, 전궁, 방아, 완장, 아곡, 창
二東面	松田里, 천, 서, 덕성, 목, 시미, 화산, 류봉, 어비
內四面	陽智里, 제일, 평창, 식금, 추계, 경수, 대대, 주북, 남곡, 송문
古三面	月香里, 가류, 쌍지, 봉산, 삼은, 신창, 대갈
外四面	白岩里, 가창, 근창, 근곡, 박곡, 근삼, 용천, 장평, 석천, 옥산, 백봉, 고안
遠三面	高塘里, 두창, 문촌, 죽릉, 동성, 가좌, 미평, 사암, 좌향, 맹, 학일, 목신

자료 越智唯七, 1917,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朝鮮總督府, 84-8쪽.

34) 孫禎陸, 1992, 『韓國地方制度·自治史研究』, 55-61쪽.

35) 孫禎陸, 1992, 『韓國地方制度·自治史研究』, 121-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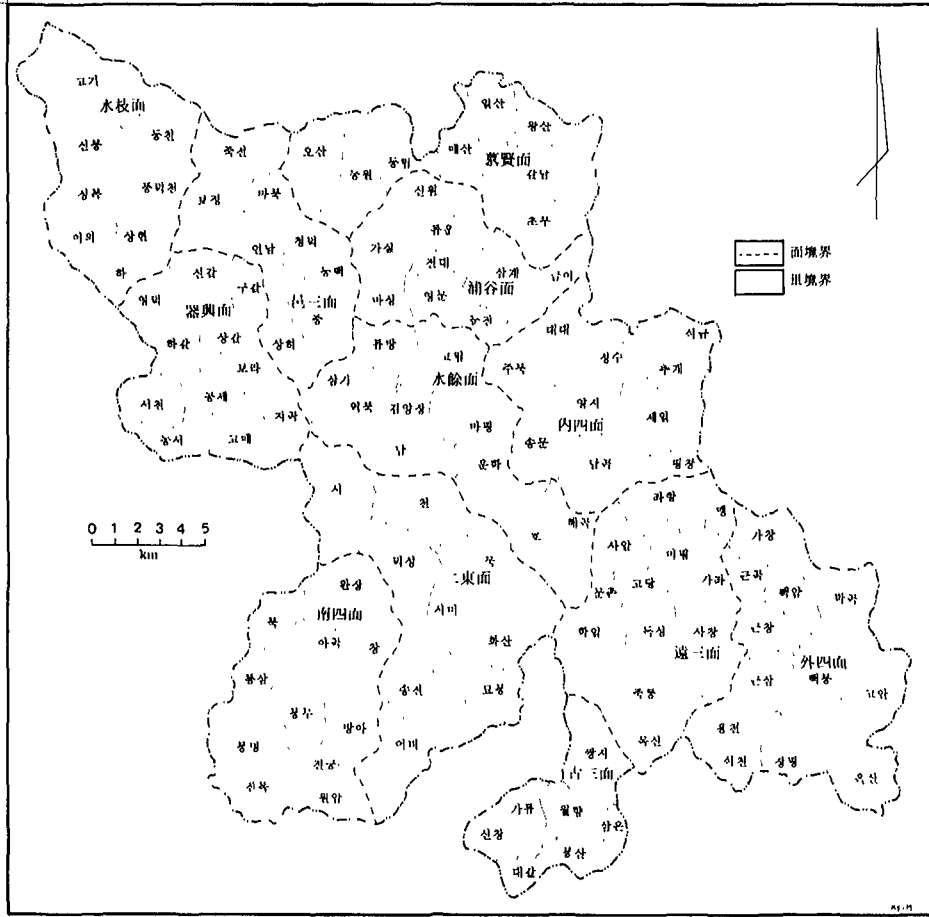


그림 Ⅱ-7. 용인의 행정구역, 1914

陽良部曲으로 출발한 陽智는 선초 古西面 鳳林山 아래의 洒谷里에서 陽山이라는 이름으로 개읍하였다.³⁶⁾ 양산은 당시 訓導官 관할로 있다가 1413년 縣으로 승격된 후 성종조

36) 종래 部曲은 국가 지배기구의 말단부를 이루는 특수한 지방행정조직으로 주민은 주로 노비와 죄인 같은 천민들로 구성된다고 하는 설이 지배적이었다(旅田巍, 1972, “高麗時代の賤民制度部曲について”,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57-74쪽). 그러나 최근에는 部曲이 처벌에 따라 형성된 것 외에 대부분은 설치 당시의 의미대로 인구와 호수가 縣 단위 수준에 이르지 못해 村이나 鄉과 함께 하부 행정단위를 형성하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신라시대 郡縣編成시 大豪族의 居城은 府州가 되었고 郡현이 되기에는 田戶口가 부족한 영세호족들의 거주지는 鄉部曲이 되었다는 것이다 (金龍德, 1983, “部曲의 規模 및 部曲人의 身分에 대하여”, 『韓國制度史研究』, 一潮閣, 1-63 쪽). 鄉所部曲은 일반 郡縣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행정구역과 주민을 보유하고 있었다. 형성과정이나 내부구조에서 郡현과 차이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천민부락, 수공업촌, 또는 반역에 연루된 집단이라는 식의 일반화가 불가능한 행정단위라 하겠다. 이들 촌락은 郡縣制정리를 거쳐 主縣 또는 屬縣으로 승격되거나, 移屬되거나, 革廢

에 읍치가 주동면 金箔山아래의 秋溪로 이전하면서 현감령이 되었다.³⁷⁾ 읍치의 이전과 동시에 朱東面, 朱西面, 朱北面, 古東面, 古西面, 古北面 등 6개 면이 설치되었으나 한 면 이라야 겨우 5-6개 동에 불과하고 지역 자체가 협소해 縣監 梁瑗具의 토상에 따라 죽산의 高安, 大谷, 木岳, 蹄村 등 4 部曲을 越境地로 병합할 수 있었다.³⁸⁾ 1500년에 혁읍되어 잠시 이전부에 합속되었다가 4년 후인 1504년 양성현으로 복설되었으며 읍치가 정수산아래로 이전되면서 읍호도 양지로 개칭되었다. 1914년의 행정구역개편으로 양지는 제촌면을 제외한 영토의 대부분을 용인에 잃게 된다.

1914년 이후 해방, 한국전쟁, 경제개발기를 거치면서 용인은 내적으로 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체험하였으나, 외형적으로는 그리 큰 변화가 없었다. 변화라 한다면 1963년에 남단의 고삼면이 안성군으로 편입된 일이 전부였다. 사실 고삼면은 月香里에 면사무소를 둔 양지 소속의 영역이었으나 일상생활은 오히려 안성권에 두고있었으므로 이속은 불가피했다고 보여진다. 고삼면이 빠진 용인은 1970년까지 龍仁面, 浦谷面, 慕賢面, 驅城面, 水枝面, 器興面, 南四面, 二東面, 遠三面, 外四面, 內四面 등 총 11개 면을 보유하기에 이른다 (그림 II-8).

2) 취락의 분포

용인은 각종 지식료의 분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착의 역사가 오랜 곳이다. 聚落의 立地는 조선후기 실학자의 한사람인 李重煥의 말을 빌리면 地理, 生利, 人心, 山水의 종합적인 판단아래 결정된다. 그러나 입지가 같다고 해서 취락의 성격이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용인에는 전산업시대형 도시로 간주할 수 있는 邑聚落을 비롯해 사대부의 集姓村, 驛村, 書院村, 鄕校村, 市場村, 寺院村, 衛戍聚落 등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겸비한 도회와 촌락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였다.

되어 直村化하게 된다. 이들이 主縣으로 승격될 때 단독으로 主邑이 되는 예는 드물고 여러 개의 鄕所部曲이나 村이 합쳐져 하나로 되는 경우가 많다 (李樹健, 1989,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民音社, 64-5쪽). 陽智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37) 『陽智郡邑誌』(1899) 事蹟條

38) 『新增東國輿地勝覽』 建置沿革條. 越境地의 위치를 포함한 陽智縣의 정확한 행정구역은 大東輿地圖에 상세히 나와있다. 越境地는 “某地越入於某地”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속읍의 境內에 있거나, 接壤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개재하는 他邑의 영역을 넘어서 따로 위치하면서 ‘所在邑’의 지배를 받지않고 격리한 ‘所屬邑’의 지배를 받는 郡현구획을 일컫는다. 越境地는 고려 현종 9년이후 속군, 속현의 분리와 독립, 향·소·부곡의 승격, 直村과 任內간 이속, 당해 읍에 대한 국가의 포상과 징벌, 지역간 물자조달의 형평성 제고, 수취체제의 모순, 지방행정체제의 미비 등 다양한 이유로 양적인 성장을 계속하였는데, 조선시대로 오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한말 1906년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약 70여개 소의 越境地가 존재하였다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民音社, 146-8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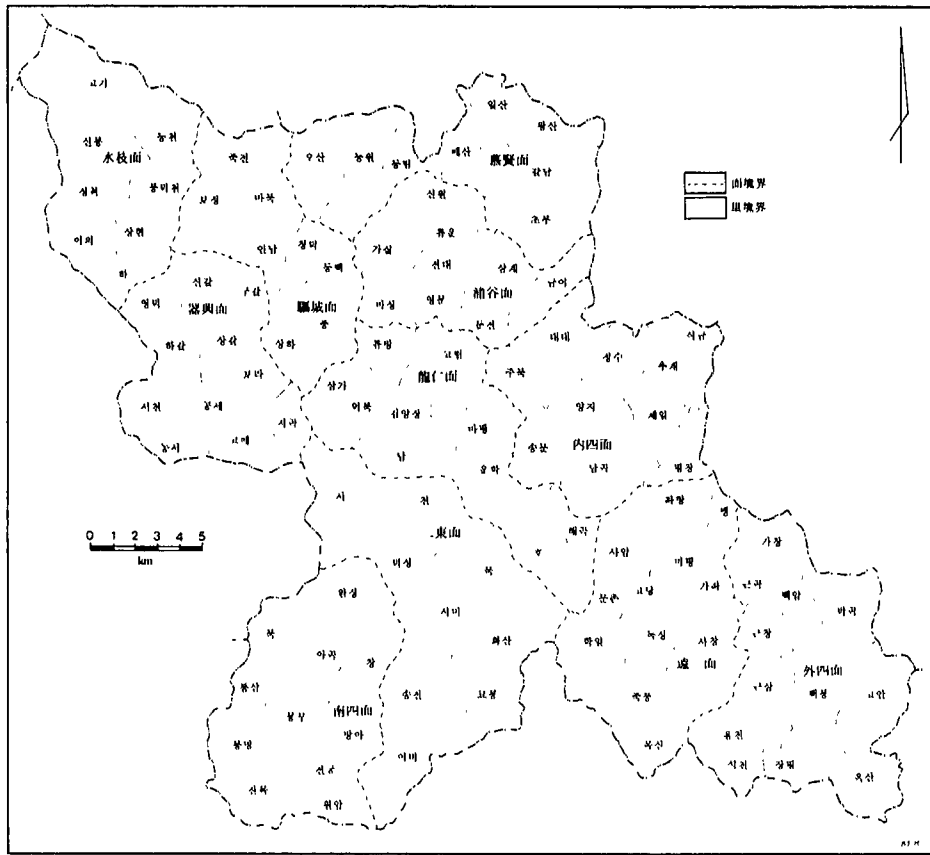


그림 II-8. 용인의 행정구역, 1970

용인 곳곳에 흩어져있는 유명 성씨의 묘역은 용인이 당대 세력자의 同族村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世宗實錄地理志』에 언급되고 있는 용인의 土姓으로는 秦, 李, 宋, 龍, 嚴씨, 處仁의 경우에는 李, 徐, 池, 葉, 金, 康씨, 양지는 安, 朴, 柳, 文, 安씨, 죽산은 朴, 崔, 安, 梁, 李, 庾, 閔, 金, 陰씨 등이 있었다. 이들 성씨는 鄉職을 세습해가며 지역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양란이후 조선후기로 오면서 이들 土姓은 亡姓이 되었으며 반면에 연일 鄭씨와 같은 移入姓이 다수 발생하였다. 양지의 예를 보면 19세기말 학일리의 해주 뒯씨를 비롯해 추계리의 연안 李, 평촌리의 풍천 任, 반정리의 전주 柳, 어득운리의 김해 金, 가장동의 전주 崔, 화산리의 죽산 安, 쌍령리의 무송尹, 향림리의 청주 韓씨, 백동리의 수원 白, 중상리의 전주 李씨 등이 移入姓氏로 집성촌이라는 小地域生活圈을 형성하고 있었다.³⁹⁾

용인에는 書院과 鄕校라는 지방교육기관이 존재하였다. 서원의 경우 小學의 장려, 尊

39) 『陽智郡邑誌』(1899) 人民姓氏條

賢, 師友之道의 확립이라는 기치아래 士林을 위한 敎學振興의 제도적 수단으로 중시되었다.40) 서원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경제주체로서 지방관이나 유지가 제공하는 儒生供饋用 獻品을 기반으로 운영되었고 인근 농민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도 많아 고려시대 寺院經濟에 비견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었다. 물론 후대로 오면서 서원의 수적 증대에 따른 명성과 권위의 실추는 있었지만 서원을 통한 향촌질서의 수립과 관료배출이라는 국가적 이념과 맞물려 있어 영향력은 여전하였다. 서원에 인접해서는 書院村이 형성된다. 서원촌은 서원의 건립을 주도한 사대부와 서원에 소속된 노비, 모입 경작민이 주요 구성원이 되고있다.41) 서원촌은 동족촌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용인에는 忠烈書院, 深谷書院, 寒泉書院 등 주요 서원에 인접해 서원촌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鄉校도 마찬가지로 교육과 제례를 수행하고 건물을 유지하며 儒生과 校生의 활동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노역은 鄉校田(學田), 鄉校奴婢, 校保, 官의 보조, 免講帖을 통해 조달되었다. 除役村의 일종인 鄉校村에서는 守直, 修理, 使喚 등의 잡역을 지원받을 권리도 누릴 수 있었다.42) 龍仁鄉校와 陽智鄉校는 인근에 향교촌을 두고있었다. 용인에는 또한 유명 寺刹이 많이 있다. 전통적으로 사찰 주변에는 寺院村이 들어서는 것이 보통이었다. 사원촌은 사찰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달하는 촌락으로 독특한 종교적 상징물을 경관의 일부로 가지고 있다.43) 용인의 유명사찰로는 광교산의 成佛寺, 瑞峯寺, 飛鳳菴, 선장산의 禪長寺(白蓮菴), 寶盖山의 金水菴, 향수산의 香水寺, 능곡의 隱寂菴, 굴암산의 窟巖寺 등이 있었으나 몇 개의 사찰은 후대로 오면서 폐쇄되었다. 양지의 경우 신화산의 神林寺, 성륜산의 雙嶺寺, 구봉산의 龍巖寺, 정수산의 普海菴와 安養寺 등이 각종 邑誌에 유명사찰로 소개되고 있다.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지만 구 관도에 연해서는 과거 身良役賤의 신분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된 驛村이 존재하였다. 駒興驛, 金嶺驛, 佐贊驛에 배속된 驛卒의 집단거주지가 이에 해당한다. 협궤철도가 부설된 1931년부터 1970년까지 존속된 철도역전도 용인의 촌락경관의 일부를 형성하였다. 역전취락은 광장을 중심으로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며 상업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44) 水驪線에 연해서는 德谷, 新葛, 漁丁, 三街, 龍仁, 麻平,

40) 鄭萬祚, 1997, 『朝鮮時代 書院研究』, 集文堂.

41) 崔元奎, 1988, “조선후기 書院田의 구조와 경영”, 『孫寶基박사 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지식산업사, 575-625쪽.

42) 尹熙勉, 1990, 『朝鮮後期 鄉校研究』, 一潮閣, 218-269쪽. 일반 군현의 향교에는 鄉校田 명목으로 5結이 지급되었다 (『續大典』12 太宗 6년 7월 乙酉). 그리고 奴婢는 향교 당 각 10명이 지급되었다 (『經國大典』卷5 刑典 外奴婢條).

43) 朴鍾鉞, 1988, “韓國 寺院村의 構造와 變貌”, 『地理學叢』 16, 11-52쪽.

44) 孔煥永, “鐵道驛前聚落到 關한 研究”, 『韓國의 人口와 聚落研究』,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

陽智, 鱗日 등의 간이역이 있었다. 교통은 여객과 화물의 이동을 수반하게되며 교통로의 발달은 노변 상업취락의 성립을 유도한다. 豊德川, 龍仁邑, 金良場, 白岩은 교통로상의 結節點으로 용인내에서는 商業聚落을 대표한다. 이곳에는 商街와 酒幕, 旅館, 장터로 활용되는 墟地 등의 경관을 확인할 수 있다.

용인의 취락은 해발고도 100m 이하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특히 하천이나 계류를 따라 발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溪谷은 산을 등지고 있어 바람을 차단할 수 있고 인근 野山에서는 땀감을 구하기 쉬우며, 食水의 공급이 편리하다. 川防을 통한 灌溉가 유리해 땅이 가물지 않고, 그렇다고 홍수가 빈번히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인 뒷받침을 줄 수 있는 논과 밭을 일구기 쉽고, 인적을 피해 녹음을 배경으로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등 準 自給自足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여러모로 편리한 취락입지라 할 수 있다.⁴⁵⁾ 취락은 溪居외에 江居, 海居 등의 형태로 표출되며 입지상 비교되는 측면이 많다. 수운, 해운, 어염의 이점을 가지고 논한다면 물론 대하천이나 해안에 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저지대는 식수의 질이 불량하여 피질을 초래하기 쉽고 바람이 거세며, 자연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단점을 안고 있어 전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기록상으로는 振威川과 淸美川邊이 이상적인 溪居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사실은 대규모 하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용인은 지역 전체가 溪居 내지 準溪居의 성격을 갖고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⁴⁶⁾ 계거형 도회로 분류할 수 있는 양지의 입지를 논한 기록을 보면, 定水山과 漁樵山을 主山과 案山으로 하고 擒縛山과 御隱山에 의해 동북과 서남 방향이 둘러싸인 곳에 위치한 읍치는 “물은 깊지 않으나 맑고 시원스러우며 뜰이 넓지 않지만 비옥해서 가거처로는 물론 도회로 손색이 없다”는 식의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⁴⁷⁾

전산업시대 용인은 비록 산지가 상당비율을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 취락은 農村의 성향이 강하여 촌락은 하천을 따라 비교적 규칙적으로 분포하였다. 治所 근처의 도시화 지역에는 신분과 지위가 높은 지방관리, 양반, 유생 및 이들 소유의 노비가 다수 기거하였다. 그러나 농촌과 도회는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했

육과, 152-80쪽.

45) 退溪 李滉의 山林溪居에 나타난 儒敎的 象徴性과 自然觀은 金德鉉의 논문이 시사하는 바 크다 (1999, “儒敎의 自然觀과 退溪의 山林溪居”, 『문화역사지리』 11, 33-51쪽).

46) 諺曰溪居不如江居 江居不如海居 此以通貨財取魚鹽而論耳 其實卽海上多風 人面易黑又多脚氣水腫瘡癩之疾 水泉既乏 土地且瀉 濁水潮至 淸潤絶少...惟溪居 有平穩之美 蕭洒之致 又有灌溉耕耘之利...京畿則龍仁魚肥川陰竹淸美川 土沃如三南而可居(李重煥『擇里志』,卜居總論).

47) 『陽智郡邑誌』(1899) 事蹟條. 이는 약간 과장된 표현인 듯한데 식민지 초기의 기록에 의하면 陽智는 도처에 산악이 증첩하고 동남쪽 일부에 약간의 평야가 있을 뿐으로 土地가 척박하여 수확량이 적고 때문에 생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吉田英三朗, 1912, 『朝鮮誌』, 町田文林堂, 280쪽).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도농간·지역간 연결은 거미줄망과 같이 발달한 大·中·小路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만남의 중계지로 鄉市와 酒幕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용인내 취락발달의 축을 확인해 보기 위해 聚落重心點(mean center of settlement)을 살펴보았다. 重心의 시·공간적인 이동은 취락의 전체적인 성장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유용하다. 시계열적인 변화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1919년, 1954년, 1970년 세 시점을 기준으로 취락의 분포를 확인하고 이들 취락의 평균중심점을 계산하였는데, 비교상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른 중심점의 이동을 배제하기 위해 1919년과 1954년도 외곽경계는 남단의 고삼면이 제외된 1963년 이후의 경계선을 적용하였다(그림 II-9·10·11). 용인지역이 용인, 양지, 죽산의 세 군현으로 나누어 존재하던 조선후기의 상황은 당시 존재했던 취락의 소재 및 입지의 파악이 어려워 고려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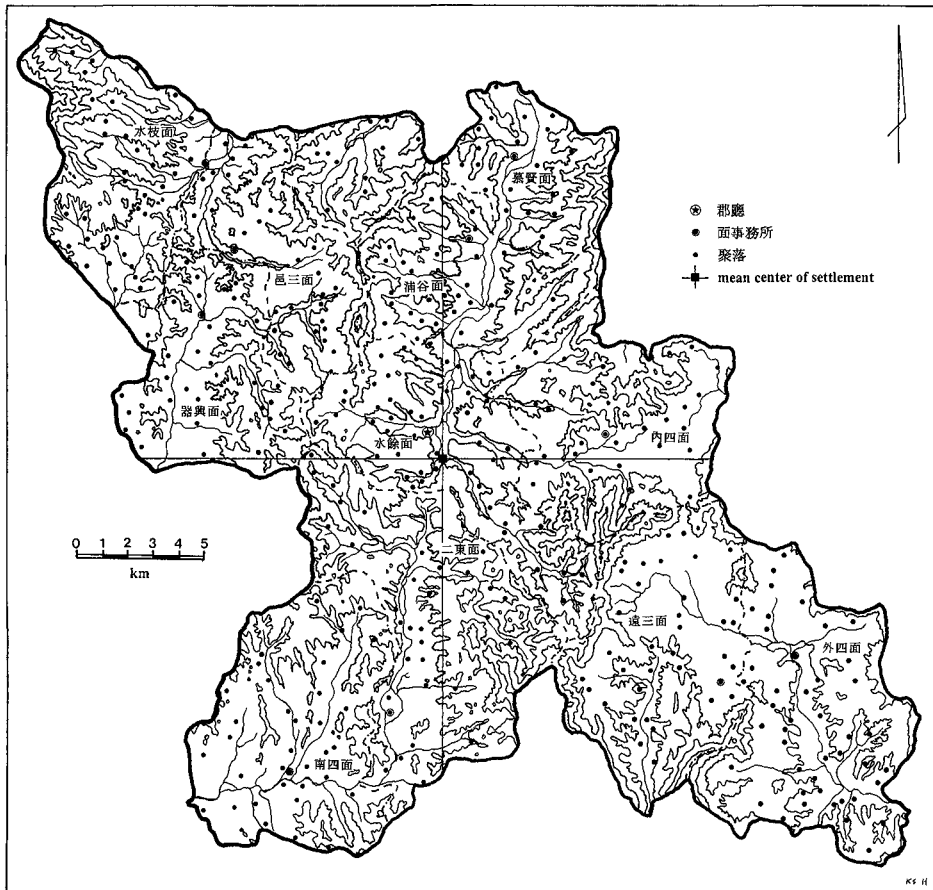


그림 II-9. 용인의 취락패턴, 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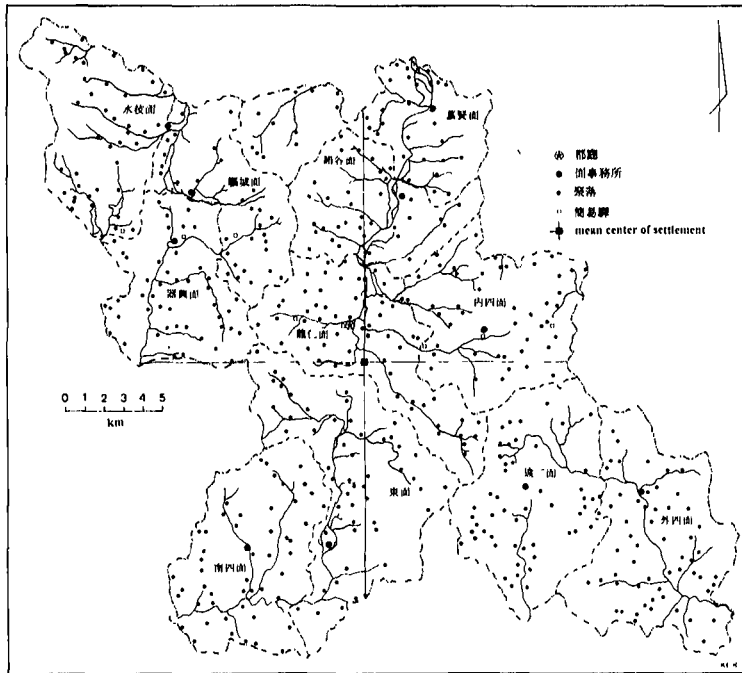


그림 II-10. 용인의 취락패턴,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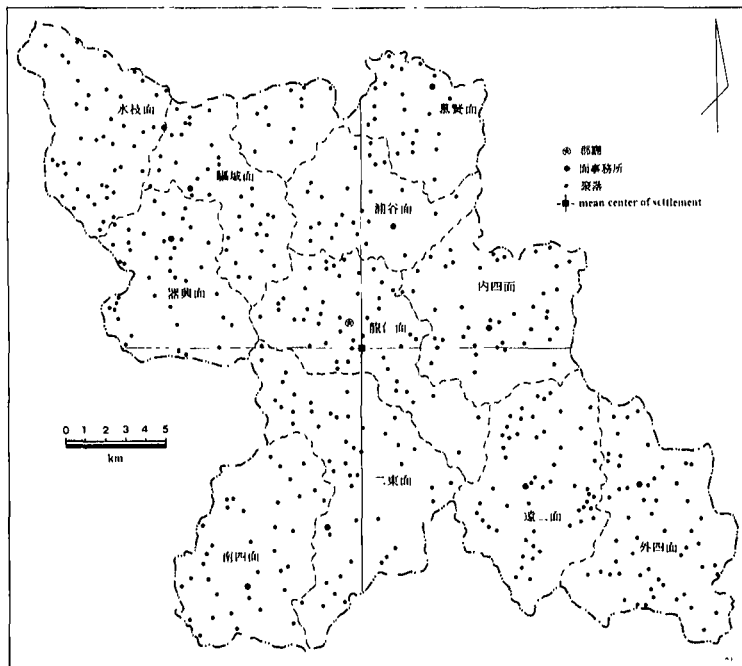


그림 II-11. 용인의 취락패턴, 1970

1919년 당시 용인의 聚落重心點은 김량장 남부의 下里와 南里의 중간지점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좌표점상의 증거는 교통·행정의 중심지인 김량장이 취락생활권에서도 요충에 해당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1956년의 중심점은 수직축의 변화 없이 수평축이 약간 남쪽으로 이동하여 정해지고 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북서부의 몇몇 취락이 피해를 보았거나 피난을 이유로 방기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전체적인 변화가 경미해 이전의 취락패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70년의 상황도 유사한 양상을 띤다. 수평축과 더불어 중심점이 약간 북상했을 뿐 그 외에는 특이할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서울을 축으로 한 移村向都의 시대를 알리는 공간적인 징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시작된 경제개발사업에 따른 수도권 확대와 1967년 경기도청의 수원이전, 1968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변화는 취락발달의 축을 북부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취락의 발달과 취락중심점의 이동은 인구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3) 인구의 성장

인구는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에 따른 自然增加와 인구의 지역간 이동에 따른 社會的增加에 의해 성장 또는 감소한다. 우리나라에 신뢰할 만한 人口統計가 공표되기 시작한 것은 1925년 簡易國勢調查 이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戶口調査는 정치, 경제,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 일찍부터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고려시대의 戶籍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 내용도 달라졌다. 즉, 서민의 호적은 지방관이 조사·작성하여 戶部에 보고하고 양반은 매 3년마다 戶主가 가족성원의 구성을 보고하였던 것이다.⁴⁸⁾ 조선시대에는 매 式年(子·卯·午·酉) 마다 호주로 하여금 가족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戶口單子를 만들고 이를 官衙에 제출하게 하였다. 지방의 해당 관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里와 面별로 五家作統하여 戶籍大帳을 완성하고 이를 상급관청에 보고하였다.⁴⁹⁾

용인의 인구를 추계할 만한 통계자료는 극히 미약하다. 호구통계는 출생 및 사망에 따른 변동사항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집계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누락되거나 실재하지 않는 인구가 첨가되기도 하였다. 가구 전체가 누락되는 경우는 물론 일부 성원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⁵⁰⁾ 현존하는 통계는 정부조사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데 정확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많아 직접 인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16세기에 편찬된『世宗實錄地理志』에 용인의 인구는 457호에 1,168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戶란 “三丁爲一戶”의 방식에 따른 編戶에 불과하며 인구도 오직 丁男만을

48) 白麟, 1971, “戶口總數解題”, 『戶口總數』, 서울대출판부, 2쪽.

49) 鄭德基, 1973, “朝鮮時代 戶口變遷의 社會經濟史的 研究”, 『湖西史學』 2, 6쪽.

50) 權泰煥·愼鏞廈, 1977, “朝鮮時代 人口推移에 關한 一試論”, 『東亞文化』 14, 293쪽.

등재한 것이기 때문에 女丁과 老幼를 포함한 전체 인구와는 거리가 있다.

임진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용인 주민 중 많은 수가 사망하거나 타지로 전출하였다. 그러나 전후 복구사업이 진행되면서 인구는 곧 성장곡선을 회복하기에 이른다. 1760년의 경우 己卯帳籍에 기초한 面別, 性別 인구통계가 남아있다. 16개 면 4,363호에 전체인구가 17,931 명으로 집계되어 가구당 평균 인구가 4명을 약간 초과하고 있다. 성별 통계를 보면 남성이 7,758 명에 여성이 10,173 명으로 性比가 76.3으로 계산되었다. 납세의 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에서 男丁의 다수가 누락되었거나 戰時死亡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여성인구의 초과가 뚜렷하다.⁵¹⁾ 정조 13년 (1789)에 간행된 『戶口總數』의 기록으로는 元戶 4,859에 남성 10,473명, 여성 10,646명이 용인현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60년에 비해 가구수가 11.4 %, 전체인구가 17.8 %로 각각 증가했다. 가구당 인구는 전회의 기록과 별 차이 없으나 성비에 있어 100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정남의 절대적 증가라는 요인 외에도 이들에 대한 조사와 집계보다 정확해졌다는 사실을 또한 말해준다.⁵²⁾ 면별 인구분포를 보면, 용인의 인구는 수적으로 보아 水餘面, 浦谷面, 慕賢村面, 水眞面, 枝內面, 器谷面, 下東村面에 주로 밀집해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지는 朱東面, 邑內面, 占東面에, 죽산에서는 遠一面, 遠三面, 近三面, 近一·二面에 비교적 많은 수의 인구가 거주했던 듯하다(그림 II-12). 1870년대 초 용인의 인구는 남성 11,239명과 여성 11,420명을 합해 전체 22,659명으로 1789년의 21,119명에 비해 약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상의 오차로 볼 수 있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주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시대의 인구통계는 정확도가 한층 높아졌다. 踏村面을 제외한 양지 전체와 죽산의 일부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계기로 용인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전체인구가 상당수 늘었다. 1925년 수치상으로 용인은 14,190세대, 남성 38,854명, 여성 37,056명으로 총 75,910 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³⁾ 5년 후인 1930년에는 14,459 세대에 전체 인구가 79,220명에 달해 가구당 평균 인구가 약 5.5 명으로 계산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0,735 명에 여성이 38,491명으로 성비 105.8의 남성초과로 나타났다.⁵⁴⁾ 해방 직전인 1944

51) 輿地圖書 龍仁縣 坊里條. 면별 인구 구성을 戶, 男, 女의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邑內面(246, 486, 702), 東邊面(214, 418, 710), 西邊面(86, 163, 219), 駒興面(77, 144, 191), 水眞面(283, 433, 730), 枝內面(324, 622, 850), 器谷面(402, 782, 810), 水餘面(440, 870, 830), 浦谷面(382, 742, 851), 慕賢村面(373, 683, 603), 縣內面(388, 368, 480), 道村面(181, 282, 350), 西村面(136, 206, 202), 南村面(242, 442, 980), 上東村面(283, 533, 845), 下東村面(306, 586, 820).

52) 1914년 龍仁에 편입될 踏村面을 제외한 陽智縣의 10개 면 (男 4,288명, 女 5,269명, 總 9,558명) 과 竹山縣의 5개 면 (男 3,511명, 女 3,921명, 總 7,432명)의 인구를 추가해 본 결과 용인은 당시 남성 18,272 명과 여성 19,836명을 종합해 38,109 명의 총인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53) 朝鮮總督府, 1925, 『簡易國勢調査結果表』.

54) 朝鮮總督府, 1930, 『朝鮮國勢調査報告』, 328쪽. 당시의 면별 인구를 세대수와 총인구의 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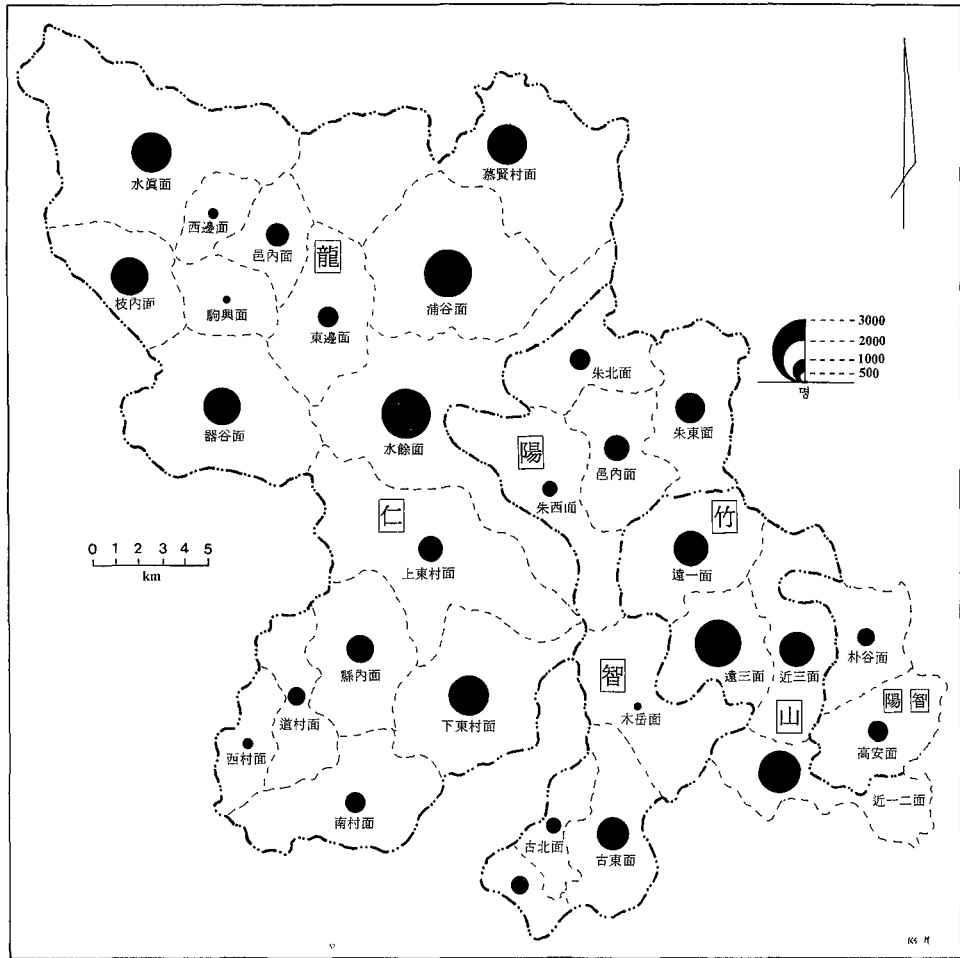


그림 II-12. 용인의 면별 인구분포, 1789

년 朝鮮總督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용인은 15,387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총인구는 남성 42,008 명, 여성은 42,976 명으로 전체 84,984 명이 되는데 전시정국의 영향 탓인지 남성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⁵⁵⁾

이는 해방직후인 1946년의 인구가 남성 46,664명에 여성인구 45,047명으로 재조정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당시 용인의 전체인구는 91,711명으로 불과 2년 사이에 행정구역의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6,727명의 인구증가가 기록된 셈이다.⁵⁶⁾ 한국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水餘面(1859, 9911), 浦谷面(932, 5007), 慕賢面(1001, 5445), 邑三面(825, 4513), 水枝面(1031, 5622), 器興面(1257, 6968), 南四面(1207, 6765), 二東面(1354, 7313), 內四面(1151, 6511), 古三面(742, 4180), 外四面(1590, 8867), 遠三面(1510, 8118).

55) 朝鮮總督府, 1944, 『人口調査結果報告』.

56) 在朝鮮美軍政廳 保健厚生部 生政局, 1946, 『南朝鮮地域及性別現住人口』.

쟁 직전인 1949년의 전체인구는 96,693명으로 늘어났다.⁵⁷⁾ 전쟁당시 얼마만한 인명피해가 있었는지 파악할 자료가 없으나 상당수의 인명과 재산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60년 센서스에 집계된 용인의 총인구는 처음으로 10만을 돌파하였다. 정확히 말하면 106,664 명으로 10년 사이에 불과 9,900여명 정도가 불어난 셈이다.

용인군청에서 자체 조사한 1966년의 통계는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을 거친 후 안정된 사회체제를 바탕으로 리 단위 인구를 누락 없이 기록하고 있다. 당시 인구는 용인면의 14,134명을 최대로 전체 103,370명으로 나타났다.⁵⁸⁾ 1960년의 인구수보다 적게 나타난 것은 1963년 남단의 고사면을 안성군에 편입시킨 결과이다. 여타 면의 인구는 외사면(13,450), 원삼면(11,162), 이동면(10,364), 남사면(9,868), 기흥면(8,272), 내사면(8,065), 수지면(7,246), 모현면(7,161), 구성면(7,112), 포곡면 (6,536)의 순서로 낮아진다. 리 단위로는 김량장의 4,476명이 차위인 이동면 어비리의 1,840명보다 무려 2,636명을 초과할 정도의 중심지로 군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사면의 진목리(1762), 외사면의 백봉리(1720), 용인면의 마평리(1708), 원삼면의 사암리(1696), 기흥면의 신갈리(1637), 이동면의 송전리(1620), 원삼면의 두창리(1566), 외사면의 백암리(1529) 등이 인구규모로 보아 10위권 내의 마을에 속한다. 반면 용인면의 해곡리(241), 기흥면의 농서리(308), 포곡면의 가실리(328), 기흥면의 상갈리(392), 내사면의 식금리(406) 등 산간마을은 인구규모상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그림 II-13).

이 연구의 하한인 1970년의 용인인구는 94,848 명으로 하향추세에 접어들고 있다.⁵⁹⁾ 이미 農-都移動의 시작을 알리는 통계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데 이는 人口密度의 변천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면별 인구의 추적이 가능한 1789년의 경우 인구밀도가 57.5명/km²로 잠정 계산되었는데 1925의 119.0명/km²와 비교한다면 조선후기 용인의 거주밀도는 상당히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의 인구밀도 추세는 1930년 124.0명/km², 1944년 133.2명/km², 1946년 143.8명/km², 1949년 152.0명/km², 1960년 168.6명/km², 1965년 175.4명/km², 1966년 173.9명/km², 1967년 167.8명/km², 1969년 155.8명/km², 1970년 156.8명/km²로 변화하고 있다.⁶⁰⁾ 1965년을 정점으로 밀도의 감소추세가 확인하다.

57) 公報處 統計局, 1949, 『第1回 總人口調查結果速報』.

58) 용인군, 1967, 『제7회 통계연보』, 162-85쪽.

59) 經濟企劃院, 1973, 『1970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60) 陽智의 古三面이 安城郡으로 통합된 1963년 전후 시기의 인구밀도 비교를 위해 1963년 이전의 인구통계에서 고삼면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인구를 이용하였고 면적도 고삼면을 제외한 전체면적 즉, 605 km²를 이용하였다. 『戶口總數』에서 추출한 인구의 경우 용인현의 것은 그대로 사용하였고 양지현의 경우 고동, 고서, 고북 등 후대의 고삼면 지역과 1914년 용인군에 포함되지 않은 제촌의 4개 면이 제외된 나머지 인구를, 죽산의 경우 1914년 용인으로 편입되어 지속된 5개 면의 인구를 취해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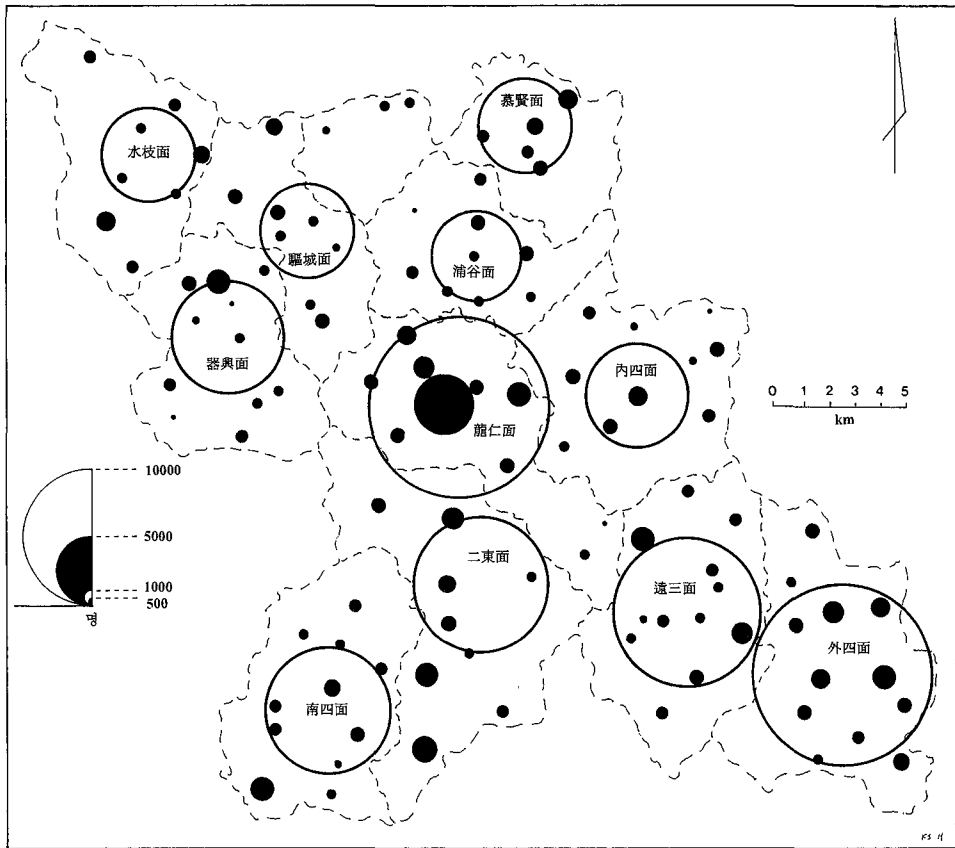


그림 Ⅱ-13. 용인군의 면리별 인구분포, 1966

4) 산업구조의 변천

각종 地理志에 언급된 용인, 양지, 죽산의 주요 산물로는 쌀, 보리, 기장, 팥, 콩, 조 등을 포함한 곡류, 약재, 대추, 삼, 뽕나무, 짜리버섯, 자기, 옹기, 도기, 석회 등이 있다. 옥수수, 구근류, 채소 등은 언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보편적으로 재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원일면의 경우 두 곳의 水鐵店이 있다는 기록도 보인다.⁶¹⁾ 경기도 내륙에 위치한 용인은 전형적인 농촌으로 農業에 기초한 産業構造를 바탕으로 성립된 지역이었다. 당시에는 쌀을 비롯한 주곡과 잡곡이 광범위하게 경작·재배되었다. 穀類 외에도 고구마, 감자와 같은 球根類, 오이, 가지, 마늘, 무, 아욱, 부추, 미나리, 매추, 잣, 토란, 생강, 파, 호박 등 菜蔬類, 그리고 果實類가 성황리에 경작·재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稻作은 용인의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룬다. 쌀은 수확량이 높고 인구부양력이 뛰어나다

61) 『竹山府邑誌』土産條

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청동기시대 이식된 이후 줄곧 육성되어왔는데, 초창기의 벼농사는 陸稻위주로 한반도 서북부를 통해 유입된 이후 乾稻作되다가 수리가 양호한 곳에서부터 江南農法의 영향아래 移秧法으로 변천해왔다.⁶²⁾ 용인에 벼농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판단할 기준은 없으나 시대적인 추세를 보면 조선전기는 耨田 위주의 영농법이 실시된 듯한데, 『世宗實錄地理志』에도 耨田 5,988結 가운데 논이 약 3/8 정도에 불과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인접한 양지와 죽산도 상황은 비슷하였다. 용인의 농업은 선진농법의 도입을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休閒의 극복과도 연결되는데 熟糞, 尿灰, 糞灰, 燒草 등 施肥를 통한 常耕連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⁶³⁾ 施肥法의 도입에는 당시 용인에 거주하던 新進士大夫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란과 내란이 있게되면 이를 피해 안전한 지대로 은신하려는 인구가 많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流民이 되어 평지나 연해지를 뒤로하고 산지로 향하게 되는데 새로운 정착지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도로 火田은 중요한 수단이었다. 용인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화전이 시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해주 뚝배기와 圃隱을 配享하는 忠烈祠院의 儒生간 산지이용을 둘러싼 1822년의 재산권 분쟁을 기록하고 있는 禮曹立案은 모현면 산지에서는 곳곳에서 火耕이 시도되었음을 시사해준다. 동 기록은 또한 삼림이 陵, 院, 廟 등에서 祭享시 필요한 숲을 제조하기 위한 목적의 香炭山으로, 난방이나 취사용으로 쓰일 뉘얼의 공급처로, 또는 기와를 구울 때 필요한 연료의 제공처로 이용되었음을 말해준다.⁶⁴⁾ 화전은 유민들이 정착하여 경작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며 세조와 선조대 용인에 만연했던 草賊이나 流民은 이들의 일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짙다.⁶⁵⁾ 비록 규모는 작으나 20세기 중반까지도 구성면에 세 가구와 내사면의 두 가구를 합해 총 다섯 가구의 火田農家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는 더 많은 수의 화전이 존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준다.⁶⁶⁾

임란과 호란으로 피해를 입은 용인의 농촌경제는 陳荒된 경지의 開墾과 함께 시작되었다. 流移民정착과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의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는데 행정당국에서도 면세나 감세조치를 취해 개간을 장려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영조연간에 이르러 용인의 전결 총수는 4,719結 31負 9束으로 전쟁 이전의 수준에 가깝게

62) 李春寧, 1991, 『쌀과 文化』, 서울대출판부, 30-46쪽.

63) 『農事直說』 施肥條

64) 안승준, 1998, "1822년 龍仁 吳達濟家所藏 禮曹立案의 分析", 『京畿鄉土史研究』2, 37-52쪽.

65) 『世宗實錄』 3년 10월 17일 丁未條, 5년 12월 4일 壬子條, 5년 12월 16일 甲子條. 壬子·甲子년의 기록에는 세조가 失農하여 유리한 백성이 용인과 광주의 경우 이미 반이 넘었다는 구체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중종 25년에도 39명의 도적이 관군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世宗實錄』 25년 12월 1일 丁巳條). 『宣祖實錄』 27년 3월 1일 己卯條.

66) 경기도 용인군, 1963, 『제3회 통계연보』, 13쪽.

회복되었다.67) 이 중에서 진전과 잡종지 2,926결 7부 19속을 제외한 實結은 1,793결 24부 5속이었다.

施肥法の 개발로 연작이 가능해졌지만 移秧法은 조선전기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양법은 시비와 제초 등의 작업에 투여되는 노동력을 상당비율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으나 水利의 제약이 커서 급속히 확산될 수 없었다. 하천수를 이용한 관개가 전국적으로 모색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川防, 즉 洿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시도된 것이다. 15세기 말엽에는 洿의 장점이 크게 인식되었고 16세기에는 보급단계로 접어들었다.68) 洿는 川防, 防川, 防洿, 防築 등으로도 명명되며 溪流의 물을 이용해 관개하는 수리시설을 총칭한다.69) 용인에 존재했거나 활용중인 洿로 구성면 마북리의 용암보, 보정리의 이진보, 기흥면 공세리의 보, 수지면 풍덕천리의 복싸뚝, 남사면 방아리의 구루물보, 원암리의 갈음평보, 염시미보, 모현면 왕산리의 왕구리보아지, 일산리의 가일보아지, 독갑보, 새보아지, 외사면 근곡리의 마룻들보, 군보, 근삼리의 가리방죽, 원삼면 맹리의 방죽, 미평리의 뒷보, 방죽골, 생안이앞보, 포곡면 둔전리의 상보와 중보 등이 있었다.70) 조선시대 용인의 농촌사회는 수개축이 용이한 洿가 이외에도 상당수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후기 용인의 농업생산력의 증대는 수전의 확대가 바탕이 되었다. 앞에 든 영조대의 토지 실결 가운데 밭이 1,053결 2부 3속, 논이 740결 22부 2속이었으므로 논·밭의 비율은 약 41% 정도가 된다. 선초보다 상당히 늘어난 양인데 이는 洿와 함께 중요한 수리시설이라 할 수 있는 堤堰의 확보와도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堰’이라 하면 해변의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해 쌓은 제방을 일컫으며 ‘堤’는 내륙의 농경지에 대한 수리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제방을 지칭하는데, 통상적으로 쓰일 때 堤堰은 후자를 의미한다.71) 농업이 天下之大本으로 여겨지던 당시 수리시설로서 제언을 수개축하는 일은 ‘農政之大者’로 비유되었다.72) 제언은 용인에는 18세기 당시 다섯 기의 존재여부가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구흥면의 伐五洞堤堰, 수진면의 裙岐洞堤堰, 지내면의 笠洞堤堰, 현내면의 衙洞堤堰 과 廟洞堤堰이 활발히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73) 양지에도 같은 수의 제언

67) 『龍仁縣邑誌』 結總條

68) 李泰鎭, 1986,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221-2쪽.

69) 宮嶋博史, 1983, “李朝後期の農業水利”, 『東洋史研究』41, 4-10쪽.

70) 한글학회, 1986, 『한국지명총람』18 경기편, 보진재, 147-92쪽.

71) 堤·堰·洿에 대한 구별은 다음의 설명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蓋近於山而有堤 堤者所以貯水也 近於野而有洿 洿者所以引水也 近於海而有堰 堰者所以防水也”(『日省錄』27冊 正祖 22년 12월 16일).

72) 『備邊司謄錄』 159冊 正祖 2년 1월 13일 堤堰節目條. 조선시대 수리시설의 종류 및 그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韓國研究圖書館에서 1961년 研究叢書 8輯으로 펴낸 李光麟의 『李朝水利史研究』가 좋은 참고가 된다.

이 있었는데 檢丹堰, 機勿谷堰, 文頭錄堰, 三穴山堰, 狗洞堰 등이 그것이다.⁷⁴⁾ 죽산소속의 제언으로 원일면의 奎之岷堤堰, 원삼면의 加佐洞堤堰, 근삼면의 五里洞堤堰, 金寺里堤堰, 근일면의 山里堤堰 등이 현재의 용인지역에 존재한 것들이다.⁷⁵⁾ 이들 제언은 위치와 형태상 平地型보다는 山谷型이 대부분이었다.

1870년대 초 元帳簿에 기록된 전답은 4,719결 31부 9속으로 이 중에서 잡종지 2,641결 58負 6속을 제외한 실결은 2,077결 73부 3속으로 이전에 비해 상당히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밭이 1,261결 12부 2속, 논이 816결 11부 1속으로 수전의 비율이 39.8 %로 영조대 읍지의 기록보다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전에서도 品種改良과 農器具開發을 통해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준다. 조선후기 농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인구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른 상업적 농업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가내 자급자족의 틀을 와해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20세기 초 용인에는 조, 콩, 보리, 옥수수, 수수 등의 雜穀을 포함해, 纖維作物인 복면, 油類作物인 참깨, 들깨, 아жу까리, 嗜好作物인 연초, 藥用作物인 백삼과 창출이 밭작물로 재배가 성하였다.⁷⁶⁾ 果樹로는 감, 밤, 대추, 은행 등의 생산이 있었다. 桑田은 德成洞, 社倉村, 書院村, 무네미, 新酒幕, 舍里, 監乙王洞, 高登浦, 魚亭洞, 中珙, 蓀儀洞, 長土里 등지에, 果樹園은 무네미, 新酒幕, 中珙, 蓀儀洞, 長土리에, 花卉은 郭院村 등지에서 재배되었다.⁷⁷⁾

양란이후의 조선사회는 생산력의 진전을 비롯해 농촌 토지수요구조의 변동,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등 그 이전과는 판이한 모습으로 출발하였다. 호박, 고추, 연초 등 외래작물이 도입되었고 인삼과 연초의 특수작물이 가세한 農業의 多角化는 한층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⁷⁸⁾ 애초 약초로 인식되었던 연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류층의 기호품으로

73) 『輿地圖書』 龍仁 縣 堤堰條. 1891년의 기록인 『龍仁 縣邑誌成冊』에는 이들 堤堰이 오래되어 頽廢되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 水利施設로서의 효용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이미 다했다고 보여진다.

74) 1871년에 편찬된 『陽智縣邑誌』에는 이들 제언의 위치, 형태, 규모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高安面黔丹堤堰臣字第26西犯長300尺周回500尺廣200尺水深4尺1寸植木50株水桶1..蒙利5石落, 機勿谷堤堰首字第41西犯長200尺周回400尺廣150尺水深4尺植木60株水桶1..蒙利4石10斗落, 文頭錄堤堰戌字第21南犯長400尺周回500尺廣220尺水深4尺2寸植木55株水桶1..蒙利6石落, 占東面三隱堤堰崑字第37西犯長210尺周回480尺廣160尺水深3尺5寸水桶1..植木60株蒙利3石10斗落, 古北佳望谷堤堰黃字第28西犯長400尺周回600尺廣210尺水深4尺2寸水桶1..植木80株蒙利4石10斗落.

75) 『輿地圖書』 堤堰條, 『竹山府邑誌』 堤堰條

76) 1900년 政府記錄에는 陽智와 龍仁에 蔘圃捧稅派員과 蔘政委員이 파견되어 人蔘耕作의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였던 사실이 나와있다 (『訓令照會存案』2, 서울大奎章閣 참조).

77) 農商務省, 1905,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 京畿·忠清·江原道, 582, 588, 601, 610쪽.

78) 遠·面三山內三面或種仁(人)蔘境內坊里 (『竹山郡邑誌』 土産條). 煙草의 도입과 산지의 확대, 새 배기술 및 유통과 관련된 사항은 李永鶴의 논문에 잘 요약되어 있다 (1985, "18세기 연초의 생산과 유통", 『韓國史論』13, 183-233).

정착되기에 이르는데 18세기 이후에는 품종개발과 함께 시비기술의 발달로 수확량의 증대와 수요증가에 따른 이윤의 폭이 대폭 늘어났다. 연초는 쌀, 콩 등 穀物과 면포, 마포 등 織物 다음으로 중요한 상품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19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양지현 읍내면 남촌·용곡리, 주동면 추계리, 주서면 반정리·어득운리·해곡리, 주북면 대대리 등지에서 煙草栽培가 성하였다.⁷⁹⁾ 연초재배는 종교상의 박해를 피해 은둔생활을 하던 天主教徒의 활약상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辛酉迫害를 비롯한 수 차례의 탄압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산지로 이주한 신도들은 새로운 거주지에 정착하기 위한 여유자금이 필요했고 연초는 장에 내다 팔면 곡물보다 몇 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어 선호되던 상품작물의 하나였다.⁸⁰⁾ 金大建 신부가 용인 출신이었고 안성 미리내성지가 인접해있다는 사실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⁸¹⁾

용인의 전답은 지역주민에 의해 대대로 세습되던 것 외에, 왕족의 田庄과 공신이나 공공기관에 소속된 屯土도 상당한 면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⁸²⁾ 둔전리의 토지는 訓練都監에서 민간에 대해 세를 거두었던 토지였는데 운영에 있어 폐단이 많았다.⁸³⁾ 숙종 36년과 37년(1710-11)의 보고에서는 珍陽君의 아들인 成平副守 李渾이 立案한 空閑地 文件이 위조라 하여 현지 주민과 소송을 벌이게되는 사건도 있었다.⁸⁴⁾ 1738년 崔奎瑞의 사당을 건립할 때에도 祭田으로 30결의 토지가 하사되었다.⁸⁵⁾ 賜額書院에 내려지는 전답도 있었는데 광해군 1년(1609)에 현판을 받은 忠烈書院, 효종 원년(1650)에 사액된 趙光祖를 配享하는 深谷書院, 순조2년(1802)에 사액된 參贊 文正公 李緯의 寒泉書院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⁸⁶⁾ 그러나 농민의 상당부분은 소작인으로 구성되었다. 1905년 당시 용인주민의 약 90%가 농업인구로 분류되고 있는데 토지의 상당부가 在京地主의 소유로 되어있고 自作農의 비율이 고작 1%인 반면 小作農은 무려 99%에 달하여 전근대적인 토지소유구조

79) 南草 出於邑內面南村龍谷里 朱東面秋溪里 朱西面盤亭里魚得雲里海谷里 朱北面大岱里 等處 (『陽智縣邑誌』土産條).

80) 尹京淑, 1990, 鎭安高原 天主教 教友村에 관한 文化地理學的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蔡奇秉, 1993, 內浦地方의 天主教 教友村 研究, 高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최영준, 1999, "19세기 내포지방의 천주교 확산", 『대한지리학회지』 34, 395-418쪽.

81) 煙草생산은 朝鮮後期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65년 현재 192명의 농민이 이 사업에 종사하고있으며 총 191,640 坪의 농토에서 66,061kg의 연초를 연간 생산하였다 (경기도용인군, 1965, 『제5회 통계연보』, 35쪽).

82) 世祖 3년(1457) 亂臣인 楊柟 소유의 전답과 가옥이 右參贊 黃守身에게 넘어간 것이나 李昊의 龍仁 田地가 右議政 姜孟卿에게 이전된 사실은 이를 증명해준다 (『世祖實錄』3년 3월 18일 丁亥, 3년 3월 23일 丙戌). 顯宗 2년(1651)에는 새로 태어난 공주에서 용인에 田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과 訟事가 있었던 사실이 있다 (『顯宗實錄』2년 10월 25일 辛未).

83) 『顯宗實錄』5년 11월 23일 庚戌

84) 『肅宗實錄』36년 10월 5일 丙寅; 37년 1월 11일 庚子

85) 『英祖實錄』14년 2월 14일 丙申

86) 忠烈書院, 書院案内文 참조. 『孝宗實錄』원년 10월 22일 丁未; 『純祖實錄』2년 1월 28일 庚子

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小作慣行의 예에 따라 소출은 分半하되 조세는 지주가 전적으로 지불하고 대신 종자는 작인이 조달하는 식의 체제가 보편적이었으며 부산물인 짚은 소작인이 차지할 수 있었다. 밭에 대해서는 1日耕당 콩 15斗에서 20斗의 小作料가 부과되었다. 호당 경지면적은 논인 경우 10町, 밭이 2畝으로 경기도 평균인 17.8 町과 2.3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의 논은 상당부가 天水地로 분류되고 있어 경지이용상 관개가 큰 문제였음을 엿볼 수 있다.⁸⁷⁾

일제강점기에는 기후와 토질에 적합한 영농법의 개발, 재래품종의 개량, 신작물의 도입, 비료의 도입, 수리관개시설의 개선, 개간의 확대, 가축의 품종개량, 양잠의 장려 등과 관련된 일련의 시책이 있었다. 특히 경지와 관련해서는 産米増殖計劃의 일환으로 土地調査를 통한 지적 및 소유권의 파악을 포함해서 국유 미개간지의 대부, 제언과 보의 수축, 수리조합의 설립, 개간사업의 활성화, 지복의 변환, 관개개선 등의 근대화 사업이 시행되었다.⁸⁸⁾ 이러한 사업 외에 일인 영농기업의 진출도 활발히 진행되어 용인으로는 1911년에 창립된 丹波農場이 들어왔다. 단과농장은 1927년 현재 논 19.3 정보, 밭 55.1 정보, 기타 2정보의 경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여기서는 일반농업과 병행하여 과수재배가 행해졌다. 1919년에 설립된 주식회사인 東山農場과 1907년에 설립된 합명회사인 國武農場도 이미 수원, 진위, 시흥은 물론 용인에도 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⁸⁹⁾

일제 당시 용인지역의 농경지, 특히 논은 하천변을 따라 넓게 발달해 있었다(그림 II-14). 水田은 거의 전지역에 걸쳐 분포하지만 청미천과 진위천변의 저고도 평야부에 비교적 연속적으로 잘 발달해 있다. 탄천과 오산천을 따라서도 수전이 존재하지만 규모와 연속성은 앞선 지역보다는 떨어진다. 한때 읍치가 소재한 양지는 농지가 협소하여 인구부양력이 그리 높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용인의 농경지는 전체적으로 발달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광대한 면적의 논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개용수의 부족으로 한해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였다는 점에 있었다. 7월과 8월 홍수시에 하천변의 토지 일부가 잠기는 피해도 있었지만 배수가 빨라 가뭄에 따른 피해보다는 경미한 수준이었다.⁹⁰⁾ 1941년 당시 土地臺帳에 등재된 용인의 백평당 토지가격은 10등급 논인 경우 기준지가는 132.60圓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며, 이보다 등급이 낮은 논은 11등급이 129.60원, 12등급 123.90원, 13등급 119.70원, 14등급 113.60원, 15등급 109.20원, 16등급 105.60원, 17등급 104.50원, 18등급 91.00원, 19등급 81.00원, 20 등급 69.60원, 21등급 60.00원, 22등급 49.80원에 거래되었다. 이 거래가격은 경기도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경성, 인천, 개성, 고

87) 農商務省, 1905,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 249, 261, 407-8, 418, 504쪽.

88) 朝鮮總督府殖産局, 1927, 『朝鮮の農業』 참조.

89) 朝鮮總督府殖産局, 1927, 『朝鮮の農業』, 162-3쪽.

90) 農商務省, 1905,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 112쪽.

양, 부천, 김포, 강화, 개풍, 평택 등 수도에 가깝게 위치하거나 토질 자체가 비옥한 지역에 비해 낮고 인근의 여주, 이천과는 동등하며 기타 지역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⁹¹⁾



그림 II-14. 일제강점기 용인의 수전 분포, 1919

광무년간 원일면에서는 조생종 벼(早稻)가 일찍부터 재배되고 있었다.⁹²⁾ 용인에서는 이외에도 在來種 벼가 널리 재배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일제시대 용인에는 구마모토縣 원산으로 1907년 수원 東山農場에서 시험 재배되어 경기도내 장려품종으로 지정되었던 雷神力, 1912년 추천된 도찌키縣 원산의 多摩錦, 1911년에 지정된 니가타縣 원산인 日ノ出,

91) 朝鮮總督府農林局農政課編, 1941, 『農地關係統制法令便 附 農地基準價格表』, 朝鮮行政學會, 118-9쪽.

92) 『竹山郡邑誌』土産條

풍토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양조에 적합하여 수원 勸業模範場이 1915년 장려품중으로 지정한 바 있던 야마구찌縣 원산의 穀良都, 1919년 장려된 토야마縣 원산인 銀方主의 변종인 中生銀方主 水原3號 등이 이식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⁹³⁾ 당시 수원에서 재배중인 재래종과 개량신종을 비교해본 결과 신종 벼의 경우 짚의 길이는 짧으나, 이삭수가 많아 전체적으로 단위면적당 산출되는 짚의 양이 많았다. 짚은 지붕 재료나 거름으로 긴요하게 활용되었다. 특히, 早神力의 경우 생산량에서 재래종에 비해 훨씬 우세하였다.⁹⁴⁾

해방이후 혼란한 정국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용인의 농촌기반시설 상당부가 파괴되었다. 전후 복구사업은 진전화된 경지를 원래상태로 회복하고 영농에 필요한 인원, 장비, 설비 등을 갖추는 데 진력하였다. 노력의 결과 1960년 용인은 총 5,032만 2천평의 토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택지가 2.4%인 118만 5천평, 밭이 39.6%인 1,995만평, 논이 58%인 2,918만 7천평으로 논이 월등하게 나타났다. 10년 후인 1969년에는 저수지(7,329평), 잡종지(27,864평), 사찰지(1,715평)를 합친 총 면적이 5,228만 3천평으로 나타났고 이중 택지, 밭, 논의 비율이 각각 5%, 37%, 57%로 변동하였다. 택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있음을 엿볼 수 있다.⁹⁵⁾ 용인의 지역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요 평야의 위치와 명칭은 표 II-3과 같다.

표 II-3. 용인지역 평야의 위치와 명칭

면	평 야 명 칭
駒城面	麻北里(물방아거리, 쇠자리, 수문통거리), 寶亭里(방짚들, 연원들, 중보들)
器興面	古梅里(만가대, 천가대), 貢稅里(붓들, 솔다배기, 양청지), 甫羅里(궁들)
南四面	防牙里(감뿔들, 개랭이, 공상지, 구루물, 돌탑, 말무덤들, 모랭이, 물밧들, 밤밭들, 방죽밭들, 범바위들, 삼형젓들, 안골, 안자리, 자라울, 호마래밭), 北里(창들), 完庄里(고개너머, 남생이골), 全宮里(갈음평보, 쟁개들, 전궁들, 질꾸지), 倉里(감바위, 물미, 장들, 쟁명들, 조산, 창입), 通三里(가락골, 다름개, 병목안)
內四面	南谷里(뒷반단, 오릿들), 松門里(남평들, 당모랭이, 섬들, 웃골, 웃보들, 중밭들), 陽智里(고물들, 돌팍재들, 문앞들, 정거장앞들), 盤日里(곰밭들, 마수고갯들, 평창들), 朱北里(두집매골), 秋溪里(사솔안), 坪倉里(곤밭, 공동묘지들, 돼깃들, 무수막골, 벌텃들, 복당골들, 새텃들, 용구릿들, 저수지들, 차골들)
慕賢面	葛潭里(강지), 旺山里(긴밭들, 왕구리보아지), 日山里(가일보아지, 새보아지, 아홉모랭이), 草美里(평구재, 한배미)

93) 朝鮮農會, 1944, 『朝鮮農業發達史』(發達編), 197-202쪽.

94) チョトンチ(벼 생산량 3.30石/段步, 짚 생산량 82.700貫/段步, 줄기수 52株, 줄기당 이삭수 11.5本, 짚의 길이 3.55尺), パッペ(3.30石/段步, 89.600貫/段步, 51株, 11.8本, 3.30尺), 早神力(4.48石/段步, 126.700貫/段步, 48株, 16.3本, 3.18尺), 近江(3.14石/段步, 114.900貫/段步, 51株, 15本, 3.10尺) (朝鮮農會, 1944, 『朝鮮農業發達史』, 213-4쪽).

95) 용인군, 1970, 『제10회 통계연보』, 15쪽.

水枝面	古基里(높은들), 東川里(내리가리, 독굴너머, 뒷강변, 방통이, 보뜨랑, 살구쟁이, 수중, 어항, 청염밭), 上峴里(병랑들, 서원앞들, 안산고라시, 평창들), 星福里(뒷논들), 新鳳里(두간논, 뒷골논, 보아짓들), 竹田里(군량들), 豊德川里(구레논, 귀들기, 독구리골, 무지니들, 물방거리, 벌밭, 분숫골, 서뻘통이들, 세거리, 안산너머, 도리논골, 작은분숫골, 중논골, 큰분숫골, 텃국밀)
外四面	稼倉里(가을, 구백암앞들, 등지미, 파라골들), 近谷里(근곡들, 손너골), 近三里(씨앗들, 장계들), 近倉里(새말들, 이광실, 지적모퉁이, 진등들, 하인들), 柏峯里(배두루기), 白峯里(가는골, 구름모퉁이, 망들, 새갯들, 은봇들, 정갯들, 흙다리깨), 玉山里(고똥이, 벌던, 쪽다리)
龍仁邑	三街里(솔거매기, 아홉배미)
元三面	加在月里(가재울들), 高塘里(거두릿들, 모래밧들, 산막골들, 심막들, 저무넛들, 주막앞들), 篤城里(배지들, 앞들, 원수굴, 청너머, 품우굴, 헛들), 孟里(가시밧들, 맹골앞들, 반매, 방죽골, 숲거리, 영밧들, 오리골, 정정개), 彌坪里(가갯들, 뒷보, 망쟁이, 방죽골, 비렁뱅이들, 비선거리, 생안이앞보, 중들, 중봇들, 홍애), 沙峯里(백골, 앞들, 정배미), 佐恒里(모래봇들, 숲거리, 안들, 요골, 용실, 이문거리, 진벌, 질구덩이, 참샘물거리), 竹陵里(거는데, 대문앞자리, 독정이들, 돌쌍갯들, 뒷강변, 문앞들, 벌떡지, 복갯들, 안말들, 안산밧들, 양아봇들, 앞들, 용못들, 통밧들), 學日里(봇들, 쇠죽골, 앞자리, 점아래, 질꼬지)
二東面	德成里(긴배밧들, 까치들, 안쟁이, 중들, 진못), 卯峯里(굴용굴, 자봉들), 松田里(상부집거리, 새가지, 앞들, 조금시기, 중개들, 참샘), 時美里(독정어, 두더리, 밧갈래), 魚肥里(비렁뱅이들), 華山里(김치들, 담안, 앞논, 옛들, 이중굴, 탑들)
浦谷面	稼室里(설봉짓들, 예계숫들, 주렛들), 屯田里(상봇들, 중봇들), 麻城里(잡실들), 三溪里(당골바지), 英門里(말무덤골)

자료 한글학회, 1986, 『한국지명총람』18 경기편, 보진재, 147-92쪽.

늘어나는 농경지 면적에 맞추어 水利施設의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63년 통계상으로 용인군내에는 9개소의 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용인면 고림리의 소류지, 포곡면 영문리의 用水井, 마성리의 소류지, 모현면 동림리의 소류지, 매산리의 용수정, 수지면 하리의 여천저수지, 신대저수지, 외사면 고안리의 소류지, 백봉리의 소류지 등이 그들인데 전체 蒙利面積이 218,547坪에 달하였다. 1968년 군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용인의 논은 총 9,860ha로 이 가운데 5,051ha가 한해상습지로 분류되고 있어 농경지이용의 효율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乾畝直播의 형태로 활용되는 면적도 3,486ha로 상당히 넓게 나타나고있다. 당시 농업용수개발계획의 일환으로 357개소의 管井을 설치해 1,373ha의 蒙利면적을 확보하고 10개소의 集水暗渠를 통해 124ha, 3개소의 저수지를 추가로 조성해 68ha의 논을 수리안전답으로 개량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⁹⁶⁾ 한편, 농기구의 발달은 농촌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군 전체적으로는 탈곡기 6,575대, 경운기 3,911대, 살분기 149대, 분무기 344대, 제초기 953대, 당기 1,710대, 제송기 417대, 양수기 94대, 원동기 227대가 확보된 상태였다.

용인의 농촌근대화는 영농의 다각화를 수반하였으며 주곡 위주의 생산체제에서 벗어나

96) 경기도 용인군, 1968, 『농업용수개발계획』, 1쪽.

과수, 소채, 특용작물, 양잠에 대한 투자와 함께 축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1960년대 초 용인은 벼농사에 종사하는 농가가 13,032호로 여전히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전작에 관여하는 농가도 772호나 되고 그밖에 과수 6호, 채소 54호, 특용작물 14호, 축산 16호, 양잠 2호 등 다채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1963년 호당 경지면적을 보면 논은 6.77 단보, 밭은 4.33 단보로 집계되었다. 주요 농작물의 소출을 보면 미곡 122,870석을 비롯해 보리, 쌀보리, 밀, 메밀을 포함한 맥류가 29,179석, 조, 수수, 옥수수 등 잡곡이 3,695석, 콩, 팥, 녹두, 완두 등 두류가 13,323석, 감자와 옥수수를 포함한 서류가 10,154석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인 통계를 일일이 다 들 수는 없지만, 무, 배추, 마늘, 파 등의 채소, 사과, 배, 복숭아, 자두, 감을 포함한 과일, 호마, 박하, 피마자 등 특용작물, 앞서 설명한 연초, 인삼, 천궁, 당귀, 황기, 황금, 택사, 현삼, 백지, 작약, 목단, 마, 자환, 소엽, 생지황, 길경 등 약초의 생산량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었다.⁹⁷⁾

3. 용인의 풍수

風水는 땅의 질서와 이치를 유기체적인 원리로 사유하고 이해하는 전통적 지혜로서, 한국의 취락입지 및 조경, 공간배치와 구성, 건축 등에 널리 활용되었다. 풍수의 이상적 空間像인 明堂이란 자연적 거주최적지이자 자연가치[生氣]가 집중된 장소로서, 옛부터 龍仁은 山水가 좋아 곳곳이 명당이라고 알려졌으며 풍수는 고을과 마을의 입지, 마을의 공간구성 등에 적용되었다. 이 글은 ‘살기 좋은 터전으로서의 龍仁 [生居龍仁]’에 초점을 두어 아래의 네 가지를 서술의 주안점으로 삼는다.

- 용인 주민들은 자연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였는가?
(풍수적 환경인식 및 태도)
- 최적의 지리적 환경에 어떻게 입지하고 있는가? (풍수적 명당입지)
- 어떻게 풍수의 이상형으로 가꾸었는가? (풍수적 裨補造景)
- 자연 조건과 조화롭게 공간을 배치하고 구성하였는가?
(풍수적 공간배치와 구성)

또한 본고의 내용은 風水地名(說話)·明堂風水·裨補風水의 체계로 구성하였고⁹⁸⁾, 연구범위는 현 용인시 행정구역의 陽基風水의 사실로 한정하였다.⁹⁹⁾

97) 이들 농작물의 소출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는 경기도 용인군이 발간한 1963년 통계연보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98) 明堂風水란 해당 지역의 명당적 조건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를 살피는 풍수적 立地論이며, 裨補風水란 해당 지역을 어떻게 풍수적 이상형으로 가꾸고 있는지를 살피는 풍수적 造景論이다.

99) 풍수는 基地別로 陽基風水(취락풍수)·陽宅風水(주택풍수)·陰宅風水(묘풍수)로 구분되고, 취

용인풍수의 작성에는 문헌 조사와 답사가 병행되었다. 주요 참고문헌은 古地誌類에서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誌』, 『陽智郡邑誌』 등을 참고하였고, 古地圖類에서는 『海東地圖』 중의 龍仁 및 陽智 도엽과 규장각 소장 龍仁地圖¹⁰⁰⁾를, 현대의 地誌類 중에서는 『龍仁郡誌』, 『駒城面誌』¹⁰¹⁾, 『地誌總覽』¹⁰²⁾등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기타 報告書類로서 『龍仁市文化財總覽』¹⁰³⁾과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¹⁰⁴⁾와 郷土研究物인 『龍仁郷土文化研究』, 『내고장 옛 이야기』¹⁰⁵⁾ 등도 참조하였다. 그리고 2000년 1월 28일·31일, 4월 26일·27일, 6월 30일, 7월 3일·4일·14일에 현지 답사하고 주민들과 면담하였다.

1) 풍수지명 및 설화

용인에 전해 내려오는 풍수지명 및 설화 등을 통하여 옛 용인 주민들이 지리적 환경을 어떻게 풍수적으로 인식하였고 자연환경에 대한 풍수적인 태도는 어떠하였는지 살펴본다.

(1) 용인의 풍수지명

땅이름에는 땅의 모양과 장소의 성격이 담겨 있고, 이름을 붙였던 당시 사람들의 지리적인 사고가 투영되어 있다. 땅이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변천하지만 그 과정에 끼친 풍수사상의 영향 또한 매우 컸다. 풍수문화가 지역에 파급되면서 새로운 풍수지명이 지어지거나, 혹은 기존의 지명이 풍수적으로 풀이된다.

風水論 중에서도 특히 땅의 생김새에 빗대어 풍수를 설명하는 形局論은 널리 적용되어 지명으로 정착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좋은 形局의 마을터에 거주하면 그 地德을 입어 좋은 所應이 있으리라는 풍수적 기대 심리가 깔려 있다. 풍수는 吉地 혹은 明堂이 人事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논리를 지니고 있으니 예컨대 용인의 사례로서 마을(陽智面 朱北里 佳庄)의 뒷산이 玉女形이라서 산 밑에 집터를 잡으면 부자가 된다는 식이다.¹⁰⁶⁾ 풍수서인 『靑鳥經』에도 “큰 부자가 될 땅은 둥그스름한 봉우리가 금궤처럼 생겼고, 빈천한 땅은 난잡함이 마치 개미떼가 흩어지는 것과 같다”¹⁰⁷⁾고 땅의 모양으로 길흉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形局名은 대체로 부귀와 풍요와 장수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으니, 예컨대 용·봉황·거북·학 형국은 존귀함을 상징하고, 소 형국은 풍요로움을, 매화 형국은 다산과

락풍수는 다시 國都風水, 都邑(고을)風水, 村落(마을)風水로 나눌 수 있다.

100) 규장각 도서번호(10376)

101) 용인문화원, 1998, 『駒城面誌』.

102) 李仁寧 엮음, 1991, 『내고장 용인 地誌總覽』, 용인문화원.

103) 용인시, 1997, 『용인시 문화재 총람』.

104)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0,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都邑·信仰·生活風水篇).

105) 홍순석·이인영 엮음, 1985, 『내고장 옛 이야기』, 용인문화원.

106) 『地誌總覽』, 242쪽.

107) “大富之地 圓峯金櫃 貧賤之地 亂如散蟻”

풍요를 상징하였다.¹⁰⁸⁾ 이처럼 ‘닮은 것은 닮은 것을 낳는다’는 주술적 원리를 프레이저(Frazer)는 ‘유사의 법칙(Law of Similarity)’이라 명칭한 바 있다.¹⁰⁹⁾ 이로써 형국론은 유사 법칙의 풍수적인 한 응용형태로 해석이 가능하다.

龍仁의 風水의 지명에도 住民들의 風水的인 인식과 태도가 담겨 있다, 『東國輿地誌』(顯宗年間, 1655년 경) 山川條에서 龍仁의 負兒山을 설명하기를, “현 남쪽 20리에 부아산이 있다. 봉우리 위에 또 작은 봉우리가 있는데, 마치 사람이 아이를 업은 형상과 같아서 이름 붙인 것이다”¹¹⁰⁾라고 하였고, 용네(기흥읍 상갈리 소재), 뱀부리(남사면 하갈리 어귀의 산부리), 거북산(남사면 방아리 소재), 배봉(용인시 삼가리와 역북리 경계)등의 이름이 현존하는데, 지명에서 보듯이 모두 산의 형세를 생명이 깃든 것으로 보는 유기체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풍수적 사유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아래에 정리된 표 II-4의 풍수형국적 마을 지명처럼 마을의 터전을 吉祥의 유기체적인 형국명으로 호칭하는 단계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좋은 마을의 터전에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리려는 소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용인의 풍수적 지명 중에 형국과 관련된 것을 정리한 것이다.¹¹¹⁾

표 II-4. 용인의 풍수지명과 형국

마을명	風水形局의由來
龍仁市 雲鶴洞	龍의 형상인 兄弟峰이 구름을 얻지 못하면 騰天하지 못한다고 하여 비보적 의미로 붙인 지명
龍仁市 雲鶴洞 別鶴(鶴村)	마을 뒷산이 학의 모양.
龍仁市 虎洞	마을 앞산이 호랑이가 누운 형국.
器興邑 古梅里	梅花落地形
器興邑 靈德里 風谷	봉황이 앉은 형태의 마을 형국.
器興邑 農耨里 半月	반달 형국
器興邑 上葛里 金華(金品里)	金盤形의 터가 있다 해서 유래된 이름.
南四面 鳳舞里	鳳바위가 춤을 추는 형상.
南四面 鳳舞里 梧木洞	鳳(바위)는 오동나무[梧木]에 깃들므로 붙인 비보지명
南四面 通三里 通谷洞	마을의 뒷산이 臥牛形이어서 마을을 소가 누운 쇠죽통으로 비유한 襍補 지명
南四面 全宮里 角宮洞	마을 뒷산이 황소머리 형국에 뿔난 형상.

108) 매화는 많은 씨를 퍼뜨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09) Frazer, J.G., 1971, *The Golden Bough - A Study in Magic and Religion*, Macmillan.

110) “負兒山 在縣南二十里 峯上又有小峯 若人負兒狀故名”

111) 표(II-4)는 『龍仁郡誌』·『내고장 용인 地誌總覽』所在의 풍수관련 지명과 답사를 통해 확인한 것을 기초 자료로 정리한 것이다.

南四面 倉里 月谷	반달 형국
南四面 完庄里 梅陵洞	梅花落地穴이 있다고하여 붙은 이름.
慕賢面 旺山里 旺谷	金龜沒泥形이라하여 旺龜里라 하다가 旺谷으로 바뀌었음.
慕賢面 旺山里 茅山(梅자리)	梅花落地形 명당이 있어 생긴 이름.
慕賢面 草美里 上草下·下草下	駐馬脫鞍向草之形
慕賢面 梅山里 馬山 / 上馬山	마을 뒷산이 말처럼 생겼음 / 渴馬飲水形
慕賢面 梅山里 윗고밀(古梅谷)	마을 뒷편 분묘가 梅花落地形
慕賢面 日山里 下馬山	渴馬飲水形
陽智面 陽智里 藤村	마을 뒷산의 女根(공알) 바위를 덮기 위하여 등나무를 심어서 등촌이라 불림.
陽智面 南谷里 龍谷(배매실)	마을 형상이 배의 모양 혹은 마을 앞산이 뱀의 형국.
陽智面 松門里 盤亭	마을 뒷등산이 소반처럼 생겼다고하여 불렀음.
白岩面 近谷里 馬頭(말머리)	마을 앞쪽 산이 말머리 형상이어서 붙은 이름.
遠三面 篤城里 아광이	무학대사가 지리를 탐지할 때 夜光珠가 묻힌 곳이라 해서 칭함.
遠三面 彌坪里 生雁	마을 뒷산이 기러기가 날아가는 형국.
遠三面 竹陵里 靑龍말	마을 뒷산의 이름이 靑龍山이라서 붙은 이름.
二東面 卯峯里 半月	반달 형국
二東面 時美里 飛龍洞	飛龍形
二東面 德成里 金峴(쇠재)	臥牛形
二東面 德成里 三巴(三拜울)	道誥國師가 이 마을을 지나다가 마을 형상이 아주 잘 생긴 吉地라고 하여 절을 세 번하고 갔다고 붙은 이름
二東面 卯峰里	마을을 둘러싼 봉우리가 토끼 모양으로 생겨서 붙은 이름.
二東面 泉里 노곡(노루실)	노루가 누워있는 형국.
蒲谷面 金魚里 魚梅室	매화나무 밑에 고기가 노는 형국.

위의 표에서 보듯이 용인 소재 자연마을의 풍수 형국적 지명 중에, 龍 形局(飛龍洞·靑龍말·龍谷), 鳳凰 형국(舞鳳里), 거북 형국(旺龜里→旺谷)에서는 삶의 터전을 길지로서 존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호랑이 형국(虎洞)에서는 주민들이 산을 敬畏롭게 생각하는 사유를 읽을 수 있고, 소 형국(쇠재·角宮洞)과 金盤 形局(金華) 그리고 매화 형국(고매리·매자리·梅陵洞·윗고밀)에서는 풍요로움에의 소망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달 形局(半月)에서 미래에의 희망을 땅에 依託하는 정서를 알 수 있다.¹¹²⁾ 말 形局(上草下·下草下·下馬山·馬頭)에서는 말의 왕성한 생명력을 산에 부여하여 상징화하였다. 그리고 名風水의 대명사로서 道誥과 無學을 등장시켜 마을터가 吉地임을 한껏 강조하기

112) 반월은 둥근달로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風水的인 吉祥의 상징이다. 이러한 인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신라의 왕궁터인 반월성인데, 『三國遺事』紀異 第1 <第四脫解王>에 의하면, “초생달같이 둥근 언덕이 있어 지세가 오래 살 만한 곳”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도 하였다(삼배울, 야광이). 이상과 같은 촌락 공간에 대한 형국지명은 주민들의 신성공간(sacred space)으로서의 공간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용인의 마을지명에는 풍수적 환경에 대한 비보적 사유도 드러나고 있다. 龍仁市 雲鶴洞의 ‘雲’字는 마을 주산의 맥이 발원하는 兄弟峰이 용의 형세를 하고 있어 이와 相應되게 한 것이며(용은 구름을 얻어야 昇天함), 남사면 舞鳳里와 梧木洞에서 보이는 鳳과 梧木의 相補的 관계 설정도 그렇고(봉황은 오동나무에 깃들어 오래 머물기를 바람), 남사면 통곡에서는 소 형국에 필요한 쇠죽봉(구유)을 마을 地名化함으로써 형국적 시스템의 완비를 기하는 한편 지력을 빌어 경제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려 하였다(소의 죽통에는 먹을 것이 담김). 그리고 양지면의 藤村은 마을 뒷산에 보이는 바위가 女根 모양이라 가리기 위해 등나무를 심은데서 지명이 유래되었으니 이는 경관에 대한 환경심리적이고 환경미학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양지면 식남리의 식송은 비보적 기능을 하는 소나무 숲을 조성한 데서 붙은 지명으로 마을의 풍수지리적 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환경조경의 한 형태인 것이다.

(2) 용인의 풍수설화

풍수지명이 주로 지리적 자연환경을 標微하고 있는 것이라면, 풍수설화는 사회적 성격과 윤리성이 계재되어 있다. 풍수설화는 내용별로 분류하여 아기장수형, 斷脈型, 그리고 禁忌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유형의 설화는 전국 각지에서 널리 퍼져 있다.

說話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좋은 지리적인 문서이기도 하다. 한국의 風水說話를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혹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태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몇 가지 측면을 추출할 수 있다. 환경은 사람에게 신비한 힘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자연지형은 살아있는 유기체 혹은 사물의 기능적인 시스템으로 다루어졌고, 환경은 쉽게 파괴될 수 있는 다치기 쉬운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사람은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야 만이 자연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¹¹³⁾

아기장수형 설화는 문중과 왕조간의 갈등이 표현되어 있으며, 용마바위 혹은 용마산의 기운을 타고 아기장수가 탄생한다는 풍수적인 계기를 구조로 지닌다. 용인에도 왕조에 대한 문중의 신분계급적 갈등을 담고 있는 아기장수 설화가 채록되었으니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113) Yoon Hong-Key, 1979, The value of folklore in the study of Man's attitude towards environment, 10th NZ Geography Conference, p.162.

표 II-5. 용인의 아기장수형 설화

마을명	설화내용
① 용인시 유방동	옛날 남씨 문중에서 유방리의 투구봉과 칼봉 사이의 장군혈에 묘를 썼는데 얼마 안 있어 문중 사람 가운데서 아기 장수를 낳았다고 한다. 남씨 문중에서는 화근이 될 것을 우려하여 아기장수를 죽였다. 장군혈에서 마주 보이는 액교산의 바위에서 용마가 나와 울었다.
② 용인시 해곡동 해곡	옛날 고씨의 어느 가정에서 어깨 밑에 날개가 돋힌 아기를 낳았다. 문중에서 의논하여 죽였다. 그때 별안간 말울음 소리가 들렸다.
③ 기흥읍 상갈리	신갈고등학교 산이 용마인데 이 기운을 타고 날랜 장사가 태어났으나 역적이라고 죽였다. 신갈초등학교 뒤에 말무덤이 있다고 한다
④ 남사면 봉무리	봉무리 개집말에 사는 진주 이씨가 장사 아기를 낳았는데 관가에서 알고 죽이니 방아리의 장수굴(용마굴)에서 용마가 나와 울다가 죽어서 말무덤뜬에 묻었다.
⑤ 원삼면 문촌리 문시랑	이씨네가 하인을 두었는데 어느날 편지를 써서 서울로 심부름을 보내자 서울 130리 길을 새벽이 오기 전에 다녀왔다. 이상하게 생각한 주인이 하인에게 술을 먹여 재운 후에 겨드랑이를 보니 날개가 달려 있었다. 놀란 주인은 집안 망하게 할 놈이라며 독살했다. 그날 저녁 용마가 나타나 마당을 다니며 울더니 우물에 빠져 죽었다.

자료 ①114), ②115), ③116), ④117), ⑤118)

斷脈型 설화는 명당을 이루는 지맥을 끊거나 차단하는 풍수적 계기를 포함하는 구조로서 대외적 갈등과 신분계급간 혹은 빈부계층간의 갈등이 주종을 이루며, 시기적으로는 임란과 일제시기의 것이 많다. 일제에 의한 단맥형 설화의 경우, 일제강점기하에서의 일본인들의 수탈은 강한 적대감을 불러 일으켰고 민족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존재로 잡제의 식 속까지 깊이 새겨졌을 것이며, 그 결과로 철도나 도로의 건설에 따른 실제적 행위와 함께 단맥의 행위자로서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¹¹⁹⁾ 용인의 단맥형 설화는 일제에 의한 단맥(내촌)과 빈부갈등의 단맥 사례(단사·내동·담안뜸)가 나타났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14) 홍순석·이인영 엮음, 1985, 『내고장 옛 이야기』, 용인문화원, 45-46쪽.

115) 홍순석·이인영 엮음, 1985, 『내고장 옛 이야기』, 용인문화원, 90쪽.

116) 정양화, 1992, “용인군의 지명(1)”, 『龍仁鄉土文化研究』2, 용인문화원.

117) 이인영 엮음, 1991, 『내고장 용인 地誌總覽』 56쪽.

118)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0,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都邑·信仰·生活風水篇), 254-256쪽.

119) 강중탁, 1986, “도선설화의 연구”-풍수설화적 성격을 중심으로”, 『월산 임동권박사 송수기념 논문집』(국어국문학편), 85쪽.

표 II-6. 용인의 단막형 설화

마을명		설화내용
①	용인시 고림동 단사	큰 부자가 살았다. 식객들이 너무 많자 끓을 방법을 강구하던 중 시주승이 들렸다. 부자는 시주승에게 그 대책을 물었다. 시주승은 부자집 집 뒤에도 뒤쪽 먼 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산을 만들라고 하였다.
②	구성면 중리 내촌	마을의 주산인 석성산에서부터 성주 이씨 종산에 이르는 맥의 잘룩한 지점인 박석고개는 한양으로 이르는 옛길로서 성주 이씨 문중에서 고개의 맥을 건드리지 마라는 풍수금기가 내려오고 있었다. 일제 시기 때 일본인은 이 고개를 깎아 내었는데, 고개의 허리를 끊을 때 고개에서 피가 나왔으며 그래서 이 동네에는 장수가 안 나온다고 한다.
③	원삼면 사암리 내동	내동 마을 옆에 세 개의 바위가 있다. 본래 이곳은 부자가 살던 집터였다. 어느 날 걸승이 시주를 요청하였다. 주인은 걸승의 목탁을 깨버렸다. 걸승은 집 앞의 큰 바위를 세 쪽으로 깨면 세 배로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가 그렇게 하였더니 家勢가 기울어 가난하게 되었다.
④	이동면 덕성리 담안뜰	옛날 소장사라는 부잣집이 있었다. 손님이 들끓어 인근 절에 가서 손님을 오지 않게 하는 방도를 물었다. 중은 집 뒷뜰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쪼개 버리라고 하였다. 부자가 그 바위를 쪼개자 바위 속에서 제비 한 마리가 날아 갔다. 그 이후에 부자는 망해 버리고 말았다.

자료 ①)20), ②)21), ③)22), ④)23)

禁忌型 설화는 풍수적 환경 혹은 비보적 장치의 보전을 유지할 목적으로 꾸며진다. 용인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배의 형국에 우물을 파는 것은 배에 구멍을 뚫는 행위와 같다고 보아 금하고 있으니 형국보전을 위한 금기 사례(염심·문시랑)에 해당되며, 구성면 내촌에서는 명당으로 이르는 지맥을 중시 여겨 안전을 꾀하고 있으니 이는 지맥보전을 위한 금기 사례가 된다. 그리고 마을 비보물의 기능과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금기 사례(미륵뜰)도 있었다.

표 II-7. 용인의 금기형 설화

	마을명	금기내용
①	구성면 중리 내촌	마을의 주산인 석성산에서부터 성주 이씨 종산에 이르는 맥의 잘룩한 지점(박석고개)을 건드리지 마라고 하였다.
②	남사면 전궁리 염심	염심은 배에 소금을 실은 형국이라는 한다. 예전에는 함부로 우물을 못파게 하였는데, 배의 밑창에 구멍을 뚫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③	원삼면 미평리 미륵뜰	미평리 약사어래입상(문화재자료 제44호)은 고려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속칭 미륵불로 불린다. 불상 앞이 막히면 동리에 흉사가 들고 화재가 생긴다는 속설이 있어 불상 전면에는 일체의 건물을 짓지 못한다고 한다.
④	원삼면 문촌리 문시랑	문시랑은 풍수적으로 繫舟形이라고 한다. 마을을 둘러싼 들판을 물이라고 보고 배(마을)가 이 산등성이에 매어 있는 형국이라고 풀이한다. 옛부터 이 마을에서 우물을 파지 않고 동네 위쪽에 있는 우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우물을 파면 배가 가라 앉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자료 ①)24), ②)25), ③)26), ④)27)

- 120) 홍순석·이인영 엮음, 1985, 『내고장 옛 이야기』, 용인문화원, 19쪽.
 121) 용인문화원, 1998, 『駒城面誌』, 548쪽.
 122) 홍순석·이인영 엮음, 1985, 『내고장 옛 이야기』, 용인문화원, 43-44쪽.
 123) 홍순석·이인영 엮음, 1985, 『내고장 옛 이야기』, 용인문화원, 69쪽.

2) 명당풍수

명당풍수는 취락의 입지에 있어 얼마나 풍수적인 명당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는 풍수적 해석론이다. 여기에서는 용인의 두 고을과 용인의 자연마을을 선정하여 명당적 입지 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용인의 고을풍수

용인의 고을 풍수에서는 현 용인시 소재의 두 고을으로서 龍仁縣 및 陽智縣 邑基의 풍수적 입지·비보적 조경·공간적 배치를 살펴본다.

邑基의 풍수에 관하여 『人子須知』라는 풍수서에서 말하기를, “陽基와 陰地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만 陽基의 龍은 길고 穴은 넓으며, 물은 크게 合聚하거나 彎曲하고 砂는 크게 交結하여 멀리 朝揖하는 것뿐이다. 대개 宅地는 역량이 陰地보다 큰 것이므로 반드시 크게 모인 연후에 結作되는 것이니 聚會가 많을수록 局勢가 넓고, 局勢가 넓을수록 結作이 큰 것이니 上格은 首都나 大都市가 되고 다음은 郡·邑 정도가 되고 작은 것은 鄉村이나 基址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각기 大小와 優劣의 차이로서 분별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結作된 크기에 따라 도읍과 마을 그리고 주택과 묘터로 쓰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邑基는 村基 보다 局勢가 크게 結作됨을 요구한다.

조선조 邑基의 입지 선정에는 풍수가 제일의 요건이 되었고, 그밖에도 교통지리적인 조건, 방어적 여건 등이 중시되었다. 왕조실록에는 국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네가지 전체 조건을 지적하고 있으니 그 첫째가 산천형세의 풍수였으며, 두번째는 조운이 편리한지의 여부, 세번째는 사방으로 도로가 고르게 나 있는지의 문제, 네번째는 성곽을 축조할 수 있는 여건이었던 것이다.¹²⁸⁾ 이러한 국도 입지의 풍수지리적 조건, 교통지리적 조건, 국방지리적 조건은 邑基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

조선조에 邑基의 공간 계획과 조경 그리고 배치원리에 풍수는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조선 개국 후 한양의 공간계획 및 구성에 풍수와 비보가 적용되었다는 史實 확인으로도 추정이 가능하다. 국도의 공간계획은 그 하부 행정체계인 고을 공간계획의 모델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양의 경우, 조선 태조 2년에 “권중화가 새 도읍의 宗廟·社稷·宮殿·朝市를 만들 地勢의 그림을 바치니, 書雲觀과 風水學人 李陽達·裒尙忠 등에게 명하여 地面의 형세를 살펴보게 하였다.¹²⁹⁾ 그리고 基地의 비보적 조경도 더해지고 있

124) 제보 : 이양섭(64세), 구성면 중 5리 내촌.

125) 제보 : 조병수(66세), 남사면 전궁리 엄심.

126) 용인시, 1997, 『용인시 문화재 총람』, 58쪽.

127)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0,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都邑·信仰·生活風水篇), 256-257쪽.

128) 『太祖實錄』 2年 2月 9日, 3年 8月 12日.

으니 “國初에 정승 河崙이 도선의 裨補術을 써서 崇禮門 밖에 못을 파고 崇仁門 안에 산을 만들었다”는 언급을 접할 수 있다.¹³⁰⁾

邑基를 구성하는 주요 건축요소인 관아·객사와 문묘(향교)·사직단의 공간배치는 일정한 원리를 따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풍수적 요소도 포함되고 있다. 邑基의 공간적 배치는 중심부에 왕권을 상징하는 객사(객관)와 읍의 수령이 거주하는 아사, 그리고 공사를 처리하는 동헌이 자리잡고 있다. 객사를 중심으로 「周禮考工記」에 따른 左廟右社의 배치를 이루어 문묘(향교 소재)·사직단·성황사·여단 등 1묘·1사·2단을 설립하였다. 坐向은 客舍의 경우 대체로 南向하고 있으나 衙舍의 경우는 地勢에 따라 相對向으로 배치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고을풍수론을 기초로 용인현과 양지현의 邑基風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山經表』와 「대동여지도」를 통하여 용인 고을의 山系를 살펴보면, 龍仁의 山系는 漢南正脈의 계통으로서 그 支脈이 된다. 白頭大幹에서 漢南錦北正脈으로 분기하는 결절점이 속리산인데, 여기서 西北進하다가 죽산의 칠현산 줄기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 서쪽으로는 錦北正脈이 되고 북쪽으로는 漢南正脈이 된다. 칠현산에서 백운산을 거쳐 구봉산으로 뻗은 한줄기는 서편으로 성륜산이 되고, 동편으로는 이천의 산가지를 이룬다. 성륜산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본 줄기는 북진하면서 수유산과 부아산을 거쳐 보개산과 석성산을 맺고 이어 香水山으로 갈라져 용인의 주산을 이루며, 동편 줄기는 이천의 오음산에 이어 서쪽으로 휘돌아 定水山을 맺어 양지의 주산이 된다. 『海東地圖』중 「龍仁縣」「陽智縣」圖葉에는 용인과 양지의 주산에서 치소로 이르는 龍脈을 강조하여 그렸으며, 邑基를 중심으로 山勢와 水勢가 감싸 안고 있는 풍수적 형국을 실감있게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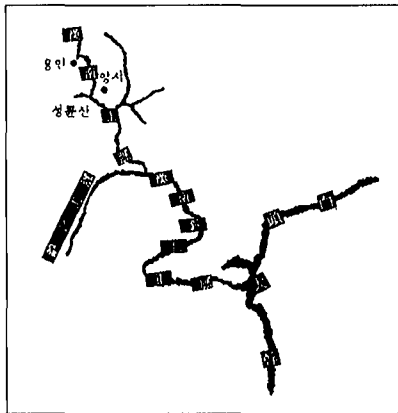


그림 II-15. 용인의 山經 개념도 : 대동여지도도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129) 『太祖實錄』 2年 2月 10日.

130) 『成宗實錄』 16年 1月 8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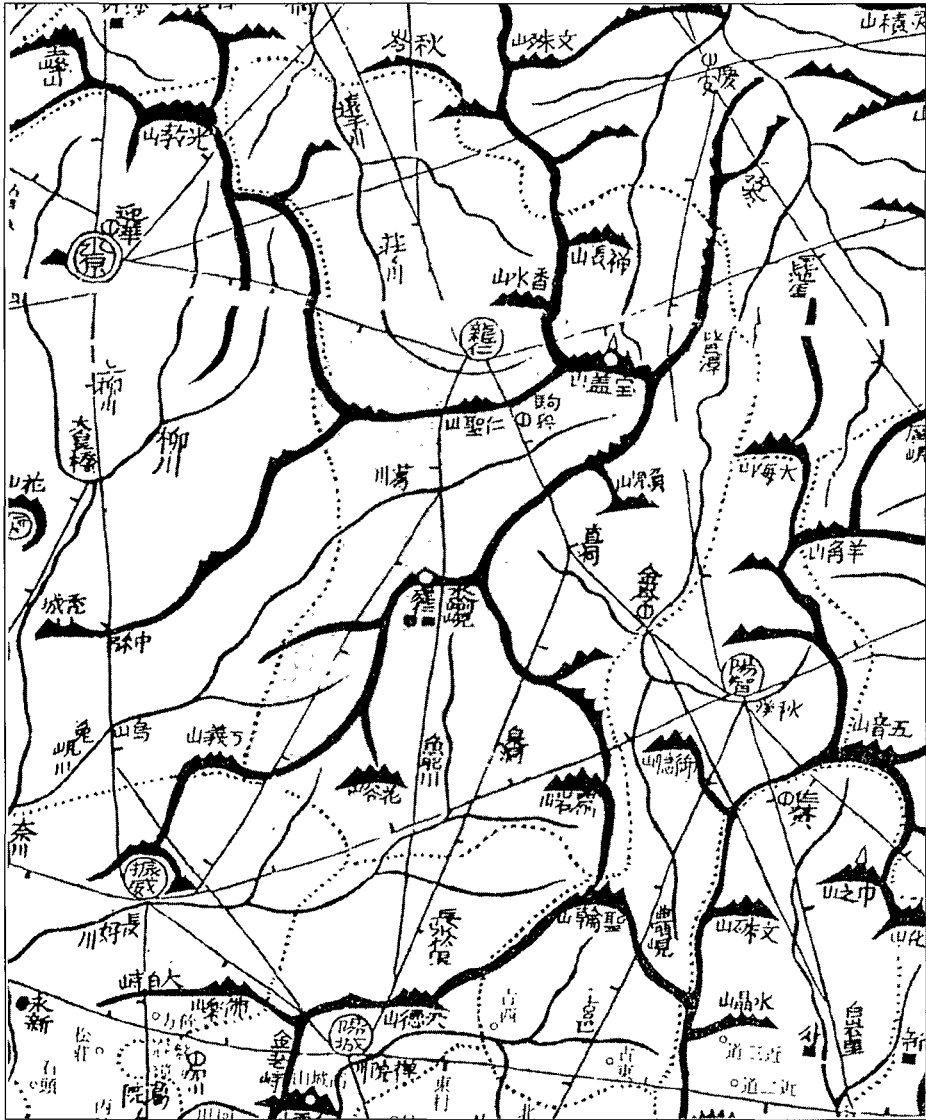


그림 II-16. 대동여지도에서 본 용인과 양지의 산계

고을입지를 도로적인 조건에서 살펴보아도 용인과 양지의 고을 읍치는 한양과 영남을 잇는 간선도로인 第四路(九大路 중 한양-부산 간 도로)와 五路(九大路 중 한양-통영 간 도로)의 노선을 끼고 있어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龍仁縣의 邑治(後에 龍仁郡의 治所) 자리는 현재 구성면 사무소 위치로서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조치 이후 오늘에 이른다.¹³¹⁾ 龍仁 邑基의 입지는 풍수적으로 香水山을 주산으로 삼고 있으며, 邑基 오른편으로는 산허리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을 끼고 이 하천은 앞

131) 용인문화원, 1998, 『駒城面誌』, 1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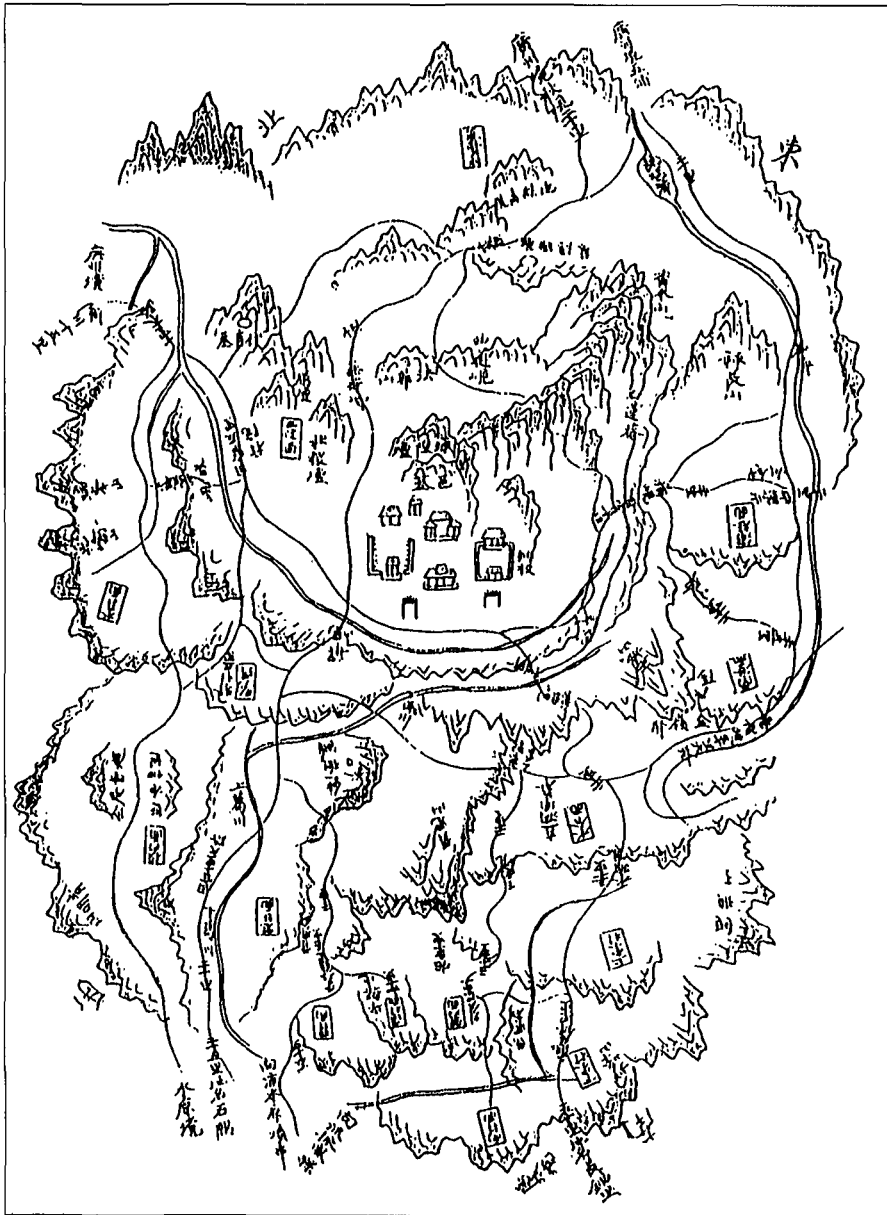


그림 II-17. 『海東地圖』 중의 용인현

으로 구홍천과 합류하여 水口를 이룬다. 局址이 넉넉한 평지에 자리잡았으나 邑基의 국면에서 보아 용인현 동쪽의 좌청룡 지맥에 비해 서쪽의 우백호 지맥이 水口部까지 여며주지 못하여 치소를 중심으로 보아 서편의 어귀 부분(구성면 마북리 330-1)이 虛缺한데, 이를 비보하기 위하여 남북 방향으로 느티나무를 길게 심어서 숲을 가꾸고 부가적으로 비보 신앙물로서 석상을 배치하였다. 이 석상에 대하여, 이곳은 地氣가 드센 곳이어서 지기

를 누르고 동리의 흉사나 재액을 막는 주술적인 민간신앙의 소산물인 장승설(逐鬼將神)¹³²⁾ 혹은 미륵설¹³³⁾이 있으며, 비보적 기능을 하는 석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사진 II-2. 용인현 치소 서편의 비보 경관 : 느티나무 숲과 석상 보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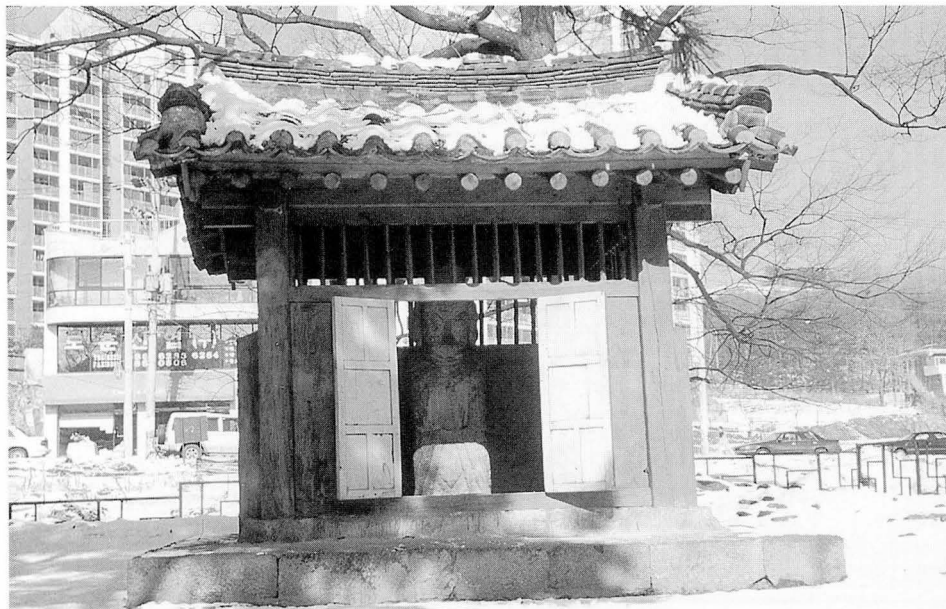


사진 II-3. 비보 기능을 담당한 石像

132) 龍仁郡, 1990, 『龍仁郡誌』, 795쪽.

133) 용인문화원, 1998, 『駒城面誌』, 529쪽.

양지 邑基는 지금 양지면 북지회관 자리이다. 현 위치 이전에 양지리 藤村에 읍치가 있었다는 구전이 있으나¹³⁴⁾ 문헌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선 정종 원년(1399)에 안성에서 독립하여 양지현이라 일컫고 監務를 두었으며, 邑基는 定水山을 주산으로 삼았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山川條에, “定水山; 현 북쪽 2리 되는 곳에 있는데, 鎮山이며 일명 大海라 한다”고 하였다.¹³⁵⁾ 또한 『陽智郡 邑誌』에는 고을의 지리적 입지를 풍수적으로 상세히 적고 있으니, “고을의 形局은 定水山을 主山으로 漁樵山이 案山으로 대하고 있고 金箔山이 동북에 우뚝 서 있으며 御隱山이 서남쪽에 웅거하고 있다. 물은 깊지 않으나 맑으며 들은 넓지 않으나 비옥하여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며 鄉邑이 설치된 곳”이라고 하였다.¹³⁶⁾ 局勢는 넓으나 읍치를 중심으로 감싸 안아주는 山勢의 힘이 느슨하며, 亥方(北北西) 방향의 虛結處한 지세도 있어 비보숲 조성 등 모종의 비보책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확인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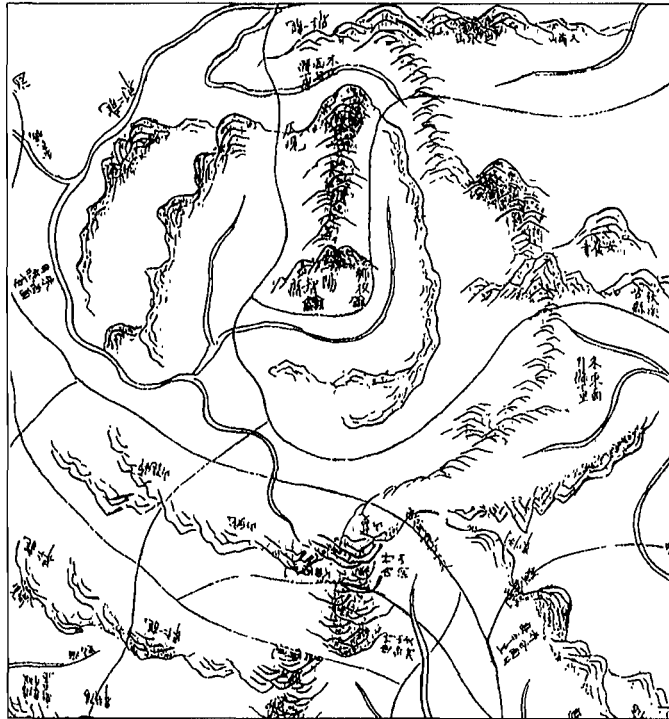


그림 Ⅱ-18. 『海東地圖』 중의 양지현

134) 제보 : 권영원(77세), 양지면 양지4리.

박진환(71세), 양지면 양지4리.

135) 『新增東國輿地勝覽』8, 陽智縣 山川.

136) 『陽智郡 邑誌』, 斗巖條; “邑局則 定水山爲主 漁樵山對案 金箔山屹立于東北 御隱山盤據於西南 水不深而澄清 野不曠而膏沃 人民可居之地 鄉邑設置之處也.”

용인과 양지 치소의 주요 건물은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龍仁縣地圖』¹³⁷⁾(1872)와 『海東地圖』 중 『龍仁縣』 『陽智縣』 도엽에 의하면, 객사와 관아를 중심으로 왼편에 향교가 배치되었고 오른편으로는 사직단과 여단이 자리잡았다.

(2) 용인의 마을풍수

마을 풍수는 풍수적 입지·비보적 조경·공간배치 및 좌향의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명당풍수적 취락입지의 필요충분 요건은 ‘장풍득수’로 요약된다. 바람을 갈무리(藏風) 하기 위해서는 뒤로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背山의 지형조건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고, 물을 얻기(得水) 위해서는 하천을 끼고 있거나 근접하고 있는 臨水의 지형조건이 필요하다. 한국의 취락 입지를 흔히 배산임수라고 일컫는 사실은 대부분의 취락이 풍수적으로 좋은 터를 가려 적지에 입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용인의 옛 마을도 대체로 산을 뒤로 두고 하천을 곁에 낀 마을입지를 하고 있다. 바람이 갈무리되고 물을 얻은 지형에는 水口¹³⁸⁾가 잠겨있다. 李重煥(1690-1762)은 『擇里誌』에서 擇里의 제1조건으로 ‘水口關鎖’를 제시하였던 바, 마을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먼저 水口를 보라(先看水口)”고 하면서 “水口의 형세는 빗장 잠겨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도 이러한 뜻이었다.¹³⁹⁾

마을이 풍수적인 명당에 입지한 경우와는 달리 부분적으로 터에 문제가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 곧 자연적인 지형조건이 갖춰졌으면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곧, 취락입지의 지형적 조건상 산간에서 구릉지나 평야지로 나오면 뒤로는 背山하여 바람을 막고는 있으나 앞으로는 開闊되거나 虛缺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허결처를 막아주는 비보를 필요로 한 것이다. 한국의 전통 촌락에서는 많은 경우 숲이나 조산을 통하여 동구와 수구를 비보를 하였다.

비보적 조경을 통해 마을의 입지적 조건이 보완되었으면 이제 마을의 지형적 조건과 거주집단의 성격에 맞게 공간적 배치가 이루어진다. 반촌의 경우 풍수적 중심 공간에는 종가가 자리잡는다. 주택의 배치 및 좌향은 지형적 조건에 맞게 이루어지는데, 기본향인 남향에 지형적 상대향이 조합되어 결정된다.

이하의 표와 사례는 용인의 자연마을을 몇 개 선정하여 풍수적 사실을 정리한 것이다.

137) 규장각 도서번호(10376).

138) “水口란 局내의 명당수가 합쳐 밖으로 흘러나가는 곳으로 풍수 용어로는 破라고도 한다. 수구의 명칭에는 몇가지 설이 있는데 예컨대 靑龍과 白虎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다 하여 水口라는 說과 來龍의 入首가 龍虎間에 입을 내밀고 있어 수구라 한다는 說이 그것이다.”(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18쪽.)

139) 『擇里誌』 卜居總論; “水口虧疎空闊處, 雖有良田萬頃, 廣廈千間, 類不能傳世, 自然消散耗敗故, 尋相陽基, 必求水口關鎖”

표 II-8. 용인의 마을 풍수 개관

마을명	풍수 입지	풍수 비보	世居事實
용인시 운학동 별학	학이 알을 품은 형국		남원 양씨 세거지
구성면 마북리		숲 비보	
구성면 보정리 이현		숲 비보(현존)	남평 문씨 세거지
구성면 보정리 독정		水口 비보	전주 이씨 등 각성
남사면 창리 창말		造山 비보	
남사면 창리 화곡			의령 남씨 세거지
남사면 전궁리 염심	배 형국		밀양 박씨 등 각성
모현면 초부리 상부곡		水口 비보	연안 이씨 세거지
모현면 갈담리 갈월			연안 이씨 세거지
양지면 송문리 반정			전주 유씨
양지면 식금리 식송		水口 비보	
양지면 양지리 등촌		숲 비보	
양지면 주북리 가장	마을 뒷산이 玉女形		
양지면 주북리 숲원이	배 형국	숲 비보(소멸) 뚝대 비보(현존)	
원삼면 맹리	主山;건지산, 朝山;수정산	숲 비보	양천 허씨 세거지
원삼면 문촌리 문시랑	主山;문수산, 朝山;구봉산	숲 비보	전주 이씨 세거지
이동면 덕성리 삼배울			사천 목씨
이동면 서리 하반		숲 비보	
이동면 천리 노루실		숲 비보	

① 용인시

- 운학동 別鶴



사진 II-4. 운학동 별학 : 마을 뒤로 너럭하게 날개를 편 학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

별학은 마을 뒤의 산 형세가 학의 모양을 하고 있어 학촌이라 불렀다고 하며¹⁴⁰⁾ 마을의 풍수적 입지는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는 말이 전해 내려온다. 병풍처럼 펼쳐진 마을 뒷산은 학이 날개를 펼친 모습으로 비유되었고, 취락 공간은 알로 상징되었다. 남원 梁氏가 10여대 동안 세거하였으며 현재의 호수는 35가구 가량이다.¹⁴¹⁾ 마을의 풍수적 중심 공간에는 양씨 종가가 자리잡고 있고, 그 오른쪽에는 수령 250여 년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가 서 있다.

② 남사면

가. 창리 화곡(꽃골) 웃말



사진 II-5. 창리 화곡(꽃골) : 골짜기 안쪽 끝으로 웃말이 자리하고 있다.

웃말은 길고 좁은 골짜기의 안쪽 끝에 입지하고 있으며 산의 형세가 둥글고 완만하여 마을에서는 오이냉쿨 형상이라는 말이 전해진다. 의령 남씨의 세거지로 제보자의 11대조가 홍성군 결성에서 南九萬 선생의 사패지인 이곳으로 입향하였다. 남씨 이전에는 천씨가 살았다고 한다. 이 마을의 형세를 볼 때 어느 곳에 묘를 써도 비록 부자는 나지 않지만 자손에 큰 패는 없다는 風水談이 전해 내려온다. 70년대에는 7-8가구가 살았으나, 현재는 6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곁에는 제보자의 증조부가 세운 마을의 재

140) 홍순석·이인영 엮음, 1985, 『내고장 옛 이야기』, 164쪽.

141) 제보 : 이인재(67세), 용인시 운학동 별학.

액을 막기 위한 돌(문화재자료 제 61호)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소실되었다.¹⁴²⁾

나. 남사면 전궁리 엄심

엄심 마을의 풍수는 배에 소금을 실은 형국이라는 말이 전한다. 예전에는 함부로 우물을 못 파게 하였는데, 배의 밑창에 구멍을 뚫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마주 보이는 동남쪽의 산(153m) 모랭이에 돌출한 자연석을 돛대바위라 일컬어 배 형국과 보완 관계를 맺었다. 70년대에는 12가구가 거주하였으며 현재 18가구가 거주하는데 그 중 밀양 박씨가 6호를 차지하고 있다.¹⁴³⁾

③ 모현면

가. 초부리 상부곡



사진 II-6. 상부곡 동구

상부곡 마을은 정광산 西斜面의 골짜기에서 흐르는 부계천의 상류 부위에 개울물을 끼고 마을이 입지하고 있다. 원래의 마을이름은 윗부개울 또는 윗부곡이라 불렀는데 1914년의 지명 개편 때에 현 상부곡이라 칭하였다.¹⁴⁴⁾ 상부곡 洞口(느티나무 숲이 있는 곳)의

142) 제보 : 남상익(62세), 남사면 창리 화곡.

143) 제보 : 조병수씨(66세), 남사면 전궁리 엄심.

144) 홍순석 · 이인영 엮음, 1985, 『내고장 옛 이야기』, 용인문화원, 187쪽.

토지는 마을 공동소유이며, 휴식 장소로 활용된다. 이 느티나무 숲은 풍수적으로 마을 입구를 빗장 질러서 주거지의 지기 누설을 막고 아늑한 空間感을 조성하는 비보적 기능을 한다. 상부곡의 전통적 주거지는 느티나무 숲을 경계로 그 위쪽에 자리잡고 있었다. 상부곡은 연안 이씨 집성촌으로 현재 20여 호가 거주한다고 하며, 제보자의 9대조인 李聃老씨가 모현면 능원리에서 상부곡으로 입향하여 4형제(雨佐·義佐·梅佐·天佐)를 두고 그 자손이 뻗어 내려 정착했다고 한다. 마을 공동체 행사로는 산신제가 있으며 현재도 10월 초에 마을 뒷산의 큰 소나무 아래의 제당에서 거행된다.¹⁴⁵⁾

나. 갈담리 갈월



사진 II-7. 모현면 갈담리 갈월마을 : 마을이 정광산 자락에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다.

갈월마을은 정광산 노고봉 아래의 西斜面 안 자락에 취락이 立地하여 있다. 갈월의 남쪽 골짜기에 있는 초부리 상부곡과 갈월은 같은 형제가 개척한 마을로서, 제보자의 8대조인 연안이씨 李三老씨가 모현면 능원리에서 이곳으로 입향하여 5형제를 두어 오늘에 이르고, 아우인 李聃老씨는 초부리 상부곡으로 입향하였다. 현재 80여호 중에 30여호가 연안 이씨로 대성을 이루고 있다. 과거에는 총 90여 호 중에 50-60호 가량을 연안 이씨가 차지했다고 한다.¹⁴⁶⁾ 주거지는 개울을 끼고 골짜기의 좌우편에 立地하고 있으며, 마을터

145) 제보 : 이영희(79세), 모현면 초부리 상부곡.

146) 제보 : 이병의(74세), 모현면 갈담리 갈월.

의 가운데로는 골바람을 피하기 위해 주거지가 형성되지 않았다. 주택의 좌향은 주로 남서향을 하고 있으니, 이는 기본향인 남향에 갈월의 지형적 조건으로서 동을 등지고 서쪽으로 열려 있는 지세적 상대향의 조건이 복합된 결과로 보인다.

④ 양지면

가. 주북리 숲원이[林園]

숲원이 마을의 주거지는 주북천 변의 들판에 입지하고 있다. 현재 130가구 중 김해 허씨가 30여호 거주한다. 예전에는 주북천 변의 마을 경계선을 따라 버드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우거져서 주북천 밖에서 마을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숲의 위치상 水口의 습水處 주변인 것으로 보아 수구막이 기능의 裨補숲으로 추정된다. 이 숲은 30여년 전 주거지화 되면서 없어졌다.¹⁴⁷⁾ 이 마을에는 許駿永(1826-1878)의 묘의 앞에 2개의 돛대기둥이 있어 특징적이다. 이곳은 터가 行舟 形局이어서 배터골 혹은 배모루라 부르는데,¹⁴⁸⁾ 이에 대한 裨補策으로 묘 아래에 돌기둥 2개를 세우고 돛대로 삼았다고 한다. 돌돛대의 높이는 각각 172cm, 154cm이며, 폭은 25cm의 원기둥형이며, 자연석을 다듬은 형태이다. 허씨의 무덤은 지석묘(문화재자료 제49호)의 바로 아래에 배치된 것으로 보아 묘터의 선정에 지석묘의 신앙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II-8. 숲원이 돛대바위 : 돌기둥은 배터에 돛대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147) 제보 : 허홍구(80세), 양지면 주북리 숲원.

148) 용인시, 1997, 『용인시 문화재 총람』, 60쪽.

⑤ 원삼면
가. 맹리



사진 II-9. 맹리 원경 : 마을터는 건지산의 맥이 뭉쳐 있는 언덕 자락에 기대어 자리를 잡았다.



사진 II-10. 맹리 좌청룡 지맥과 느티나무 비보숲

맹리는 옛 죽산고을 三大吉地의 하나로 거론되는 곳이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지석묘(문화재 자료 68호)가 마을 동구에 있는 것을 보아 매우 오래 전부터 주거지였음을 알 수 있다. 본래는 죽산군 원일면 맹동이었으나 1914년에 원삼면에 편입되었다. 맹리는 맹자를 흠모한 문사들이 살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마을의 주거지는 乾芝山을 주산으로 삼고 남향하여 주거지가 입지하였으며, 마주 보이는 수정산을 朝山으로 삼았다. 주거지 좌우로 주산에서 맥이 뺀 지맥이 마을을 감싸주고 있다. 주거지에서 보이는 왼편 支脈이 오른편 지맥보다 상대적으로 虛하여 지맥의 능선에 느티나무 숲을 조성하여 비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느티나무의 수령은 600여 년으로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양천 許씨 세거지였다.

나. 문촌리 문시랑



사진 II-11. 문시랑 마을 : 마을은 문수산에서 돌출한 언덕배기에 터를 잡았다.

문시랑마을은 산간 분지의 주산에서 돌출하여 뻗어있는 볼록한 언덕배기(凸處)에 입지하고 있는데 이곳은 분지의 풍수적 중심을 이룬다. 마을 뒤로 文殊山(404m)을 주산으로 삼았고, 朝山은 九峰山(469m)이며, 오른편으로는 쌍룡산이 있다. 이 마을은 竹山 三大吉地의 첫째로서 一 문시랑이(문시랑), 二 맹골(孟里), 三 장선(이죽면 장서리)이라는 말이 있다. 마을의 이름은 고려 중엽 이곳에 터를 잡은 문씨의 벼슬이 시랑 이라는데 유래되었다

고 한다. 문시랑의 풍수를 예전 어떤 지관이 배혈 혹은 繫舟形이라고 했다고 한다. 마을을 둘러싼 들판을 물이라고 보고 배(마을)가 이 산등성이에 매어 있는 形局이라고 풀이한다. 여기서 風水禁忌가 생겨 이 마을에서는 우물을 파지 않고 동네 위쪽에 있는 우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우물을 파면 배가 가라앉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문시랑마을에는 두 가지 비보적 조치가 취해졌다. 그 하나는 동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하여 산등성 아랫쪽의 동쪽에 소나무를 심은 것이고¹⁴⁹⁾, 또 하나는 마을 동구에 비보적 기능으로 추정되는 미륵석상을 조성한 것이다. 주민들은 이 자리를 수살마당(守煞)이라고 불렀다. 이 미륵상은 소실되었다. 문시랑마을은 전주 이씨가 大姓을 이루고 살았고 제보자의 7대조가 입향하였는데 현재는 30여 호 중에 5가구를 이루고 있다.¹⁵⁰⁾

3) 비보풍수

이상에서 용인풍수의 개괄적 현황을 살펴보았지만 그 중에 샅터를 명당으로 가꾸기 위한 환경조경의 사실들이 여럿 드러났다. 이 절에서는 용인의 비보풍수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裨補란 철학적으로 인간이 자연환경과 상생·조화 관계를 맺으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풍수전통이자, 자연과 인간이 이루는 유기적 통합생명의 상호조절 원리로서, 풍수적으로는 자연적 成局의 缺處를 補하여 인위적으로 吉局을 형성하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비보설은 地理家의 宗祖인 道詵(827~898)의 비보사탑설에서 비롯하며(용인의 용덕사는 도선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고을비보사찰이다) 이것이 비보풍수설로 발전하면서 이상적인 취락 형태로 조영하는 원리가 되었다. 비보 형태의 史的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면, 고려조의 산천 및 국도 裨補를 위한 사탑의 설치에서 비롯하여 山川裨補都監의 설치에 의한 造山 裨補, 築墩 裨補 등이 시행되며, 조선조에 이르면 고을과 마을에서도 일반적으로 비보가 이루어진다.

비보 형태는 사탑 비보, 숲 비보, 조산 비보, 장승 비보, 못 비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용인의 경우 앞에서 말한 비보사찰로서 龍德寺 외에도 여러 숲 비보가 현존하고 있고 조산비보도 있었다. 비보기능은 水口막이, 補虛, 형국보완, 화재방어, 수해방어, 흉상차폐, 음풍방지 등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용인 소재 비보기능 역시 유사한 형태들이 나타나며 독특하게는 마을(양지면 양지리 등촌) 뒷산이 女體의 陰部 형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공알바위(陰核)가 있어서 그 陰風을 막기위해 나무를 심어 가린 사례도 발견되었다.

149)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0,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都邑·信仰·生活風水篇), 256-257쪽.

150) 제보 : 이철주(81세), 원삼면 문촌리 문시랑.

(1) 龍仁의 裨補寺塔

용인시 이동면에는 한국풍수설의 시조 道誥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聖輪山 龍德寺라는 비보사찰이 있으며, 구성면 마북리와 원삼면 미평리, 문촌리 문시랑에는 비보적 기능으로 추정되는 마을신앙물로서의 石像이 있다. 이들은 불교적 양식을 한 풍수비보의 형태로서 비보사탑의 개념범주에 속한다.

비보사탑은 風水裨補史에서 초기적 형태의 裨補수단으로서 풍수적인 환경 해석에 기초하여 비보 혹은 진압을 목적으로 하여 조성하였거나 후대에 의미가 덧붙여진 불교적 조형물이다. 비보사탑에는 산천지기의 음양, 순역, 길흉판단이라는 풍수적 가치가 융합 개입되어 있으며, 풍수적인 비보 혹은 염승이 필요한 장소에 입지한다.

사탑 비보의 구성요소로서는 불상, 탑, 부도, 당간 등이 있다. 불상은 철불과 약사여래상, 미륵석상이 비보에 활용된다. 용인의 경우에도, 龍德寺에는 비보적 기능의 철불이, 미평리에는 약사여래상이, 문시랑에서는 미륵석상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탑의 裨補的 기능은 水勢裨補, 地勢裨補로 각각 나눌 수 있다. 수세비보는 사탑을 설치함으로써 水로 인한 자연재해를 막고자 의도한 것이고 지세비보는 사탑을 설치함으로써 지덕을 비보하자는 것으로, 형국비보, 흉상비보, 산세비보 등의 사례로 세분할 수 있겠다.

비보사탑은 基地의 대상별로 國域裨補 혹은 山川裨補寺塔, 國都裨補寺塔, 고을裨補寺塔, 마을裨補寺塔으로 분류된다.

표 II-9. 용인의 비보사탑 개관

비 보 사 탑 명	비 보 위 치	비 보 기능	비 보 대상	비 고
이동면 龍德寺 鐵佛	邑 近祖山(聖輪山)	山勢 鎮壓	고을비보	현존
구성면 마북리 石像	邑基 入口	補虛 및 地氣鎮壓	고을비보	현존
원삼면 미평리 藥師如來立像	聚落 앞	補虛	마을비보	현존
원삼면 문촌리 문시랑 彌勒石像	마을 동구	마을 鎮護	마을비보	消失

① 聖輪山 龍德寺

龍仁市 이동면 목리 聖輪山에 있는 龍德寺는 용인고을의 비보사찰이다.

창건 연혁에 관하여 「龍德寺重修記」(1914)¹⁵¹⁾에 의하면, “신라 文聖王(839-857) 때에 廉

151) “...新羅文聖王時에 廉居禪師가 始建此寺하고 由後 神武王末也에 道誥國師가 此寺를 重修할 時에 三層石塔과 鐵人三位를 造成하고...”. 「龍德寺重修記」는 李京淳이라는 이 사찰의 스님이 大正 3년(1914)에 작성한 「佛龕田畵獻納記」에 있다(『畿內寺院誌』, 590쪽).

居禪師(? -844)가 이 절을 처음 창건하고, 神武王(839) 말년에 도선국사가 이 절을 重修할 때에, 3층 석탑과 鐵人像 3위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龍珠寺本末寺誌』에서는 “도선 이후 천여 년간 폐사 되었다가 근래에 중창되었다. 전해 내려오는 말로, 도선국사가 窟庵을 조성한 뒤 그 안에 오백나한상과 보살상을 안치했었다”고 하였다.¹⁵²⁾ 용덕사에 전해오는 略史에 의하면, “신라말의 고승 도선대사가 이 절을 증수하면서 보살 一軀를 비롯하여 3층 석탑 1기와 鐵人 三위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도선이 철인상을 조성한 이유는 이 터의 地氣가 드세어 누르기 위해서라고 한다.¹⁵³⁾

도선의 비문에 근거하여 볼 때 龍德寺의 중창 사실은 없으며 더군다나 중창시기인 신무왕대인 839년은 도선의 나이 13세로서 출가하기도 전이고¹⁵⁴⁾ 보살상과 나한상, 鐵人像, 탑은 모두 고려 중기 이후의 후대 양식이니¹⁵⁵⁾ 용덕사는 도선이 직접 창건한 절이라기 보다는 고려시대에 산세를 진압할 목적으로 창건 혹은 중창하면서 도선에 假託된 고을 禪補寺刹의 寺格임을 알 수가 있다. 비보사찰을 성륜산에 배치한 이유에 관해서 터의 地氣가 드세다는 설이 있으나 주목할 사실은 성륜산이 용인과 양지고을의 主山에 대해 近祖山에 해당하고, 용덕사에 있는 窟穴이 고을풍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鎮壓 대상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성륜산의 風水價値는 용인과 양지고을의 풍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며 이에 비보적 필요성이 있어 사탑을 장치한 것이다.

② 원삼면 미평리 藥師如來立像

미평리의 미륵뜰이라는 자연마을에는 마을에서 미륵으로 불리는 마을비보 기능을 담당한 약사여래입상(문화재자료 44호)이 있다. 약사여래석상의 크기는 높이 4m, 두께 0.5m이며 고려 중기의 조성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최초 불교적 비보물로서의 약사석상으로 조성되었으나 조선조 미륵신앙의 성행과 함께 마을지킴이로서의 마을미륵으로 의미와 성격이 變轉하고 풍수적 기능이 附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을이 들판 가운데에 입지하고 있어(풍수상 平支龍 입지) 풍수적 주거조건이 불리하고 특히 마을 전방이 개활되어 있는 관계로 불안한 주거심리가 생기므로 이 미륵상에 신앙적으로 의지하여 주거공간의 안정성을 보장 받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미륵뜰 주거지의 공간적 배치구조를 보아서도 알 수 있으니 옛 주거지는 남쪽의 넓은 들을 바라보고 있는 미륵을 가운데 두고 그 옆과 뒤에 주거공간이 배치되었던 것이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구전으로, 불상 앞에 집을 지으면 불상이 허물어 버린대거나¹⁵⁶⁾ 불상의 앞이 막히면 동리에 흉사가 들고 화재가 생긴다는

152) 사찰문화연구원, 1993, 『경기도 I』, 178쪽.

153)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龍仁郡誌』, 794쪽.

154) 도선의 비문에 의하면 도선은 문성왕대인 841년에 출가하였다.

155) 『畿內寺院誌』, 593-595쪽.

속설이 있고 그래서 불상 앞으로는 일체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금기¹⁵⁷⁾ 역시 이러한 의식의 반영으로 추정된다.



사진 II-12. 미륵뜰 마을의 비보기능을 한 석불상

마을미륵이란 마을주민들이 마을입구나 인근지역에 자연석을 미륵불로 조형하여 세워 놓고 민중구원을 위한 미륵하생을 기원하거나 마을공간을 미륵정토세계로 구현하기 위하여 제작한 석불상을 말한다. 비보적 기능의 미륵은 조선후기에 호남지방의 취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남지방의 경우 조선후기에는 혼락분화가 본격화되면서 민간신앙적 미륵신앙이 성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풍수비보적 기능의 미륵신앙이 구체화된다. 여기서 미륵은 마을공간을 미륵정토세계로 구현하려는 신앙적 조형물로서의 마을미륵이며 아울러 풍수비보적 기능을 갖는다.¹⁵⁸⁾ 미륵뜰 주민들의 석상에 대한 의례는 고사를 지내는 정도이며 정해진 날짜는 없다. 미륵의 위치에 관해 죽산의 미륵을 마주 본다는 구전이 있다. 미평리 미륵뜰은 진천 송씨가 선주민이었다고 하며 현재는 여러 성씨로 구성되어 90여 세대 가량 주거한다.¹⁵⁹⁾

156) 제보 : 이홍주(66세), 원삼면 미평리 미륵뜰.

157) 용인시, 1997, 『용인시 문화재 총람』, 58쪽.

158) 송화섭, 1994, “朝鮮後期 마을미륵의 形成背景과 그 性格”, 『韓國思想史學』6, 221쪽, 275쪽.

159) 제보 : 이홍주(66세), 원삼면 미평리 미륵뜰.

(2) 용인의 비보숲

비보숲은 局의 풍수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이다. 비보숲은 국도, 고을, 마을 등의 취락에 비보수단으로 널리 응용되었다. 초기에는 國都 主山과 주위의 산에 한정되다가, 읍 혹은 마을로까지 확산되어 본격적으로 비보숲이 조성된 시기는 조선 중기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

비보숲은 주기능인 補虛藏風 외에도 地氣培養 및 龍脈裨補, 水害防止, 凶相遮蔽 등의 고유 기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비보숲은 방풍, 보온, 홍수방지, 휴양이라는 다기능적이고 효과적인 裨補수단이다.

용인에도 비보 기능의 숲이 여럿 있다. 주로 보허, 방풍 및 풍치 기능을 겸하고 있으니 허결한 地勢와 山勢를 보완하고 복돋는 기능(龍仁 치소, 맹리)과 形局을 보완하는 기능(하늘말, 노루실), 그리고 마을간의 경계 기능(상부곡, 서리), 마을에서 보이는 風水의 凶相의 가림막 기능(등촌)을 하는 사례도 있다. 비보숲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마을 앞이나 동구가 대부분이나 특수하게 산세보완의 필요에 따라서는 虛缺한 해당 장소(용인읍기, 맹리, 하늘말, 문시랑 등)와 차폐할 대상물 근처(등촌)에 식재되기도 한다. 조선조 용인치소의 서편 입구에는 지세를 보완하고 허결함을 막는 기능을 하는 느티나무 숲의 경관이 오늘날 까지 남아 있으며, 구성면 이현과 독정에는 마을의 보허를 하고 있는 비보숲이 현존한다. 여러 마을에 있었던 裨補숲은 도시화의 개발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소멸하였으며,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는 용인의 비보숲 개황을 요약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며, 표 다음에는 용인의 대표적인 현존 비보숲을 소개하였다.

표 II-10. 용인의 비보숲 개관

지 명	비보 위치	비보 기능	수 종	비고
龍仁 邑基(현 구성면 마북리)	治所 서편 입구	補虛 및 地勢補完	느티나무	현존
구성면 마북리 하늘말	마을 좌우 산협	補虛 및 形局補完		훼손
구성면 보정리 이현	마을 앞	補虛·방풍·풍치	오리나무 등	현존
구성면 보정리 독정	마을 입구 하천변	補虛	참나무 등	현존
모현면 초부리 상부곡	마을 동구	補虛·마을 경계	느티나무	현존
양지면 식금리 植松(심근솔)		補虛	소나무	소멸
양지면 양지리 藤村	마을 뒷산	凶相遮蔽	등나무	현존
양지면 주북리	마을 입구 하천변	補虛	버드나무	소멸
원삼면 맹리	마을 좌청룡 지맥	地脈 裨補	느티나무	현존
이동면 서리	마을 입구	補虛 마을 경계	느티·참나무 등	현존
이동면 천리 노루실	마을 입구	補虛 및 形局補完	느티나무	훼손

① 구성면 보정리 이현¹⁶⁰⁾



사진 II-13. 이현의 마을숲

이현의 마을터는 背山하여 북동향으로 입지하여 있고 마을 전면은 개활되었으며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가로질러 놓여있다. 이현 마을에는 근대화 이전에 남평 문씨(제보자의 8 대조로 약 250여년 전)가 광주군 남종면 금천리로부터 이곳으로 입향하여 대성을 이루어 거주하였으며 현재는 10세대가 주거한다. 현 236세대에 619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 거주지 앞으로 수령 150년 내외의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제보자의 조부가 심었다고 한다. 藪帶의 길이는 200여 미터에 달하며, 오리나무·아카시·전나무·참나무·포플라·버드나무·은행나무 등의 수종으로 구성된 50여 그루의 나무가 현존한다. 마을 거주지의 藏風의 조건이 미비하여 보허 기능을 하고 방풍이나 풍치의 기능을 겸한다. 현재는 도로의 차량 소음으로 인한 방음기능도 부가되고 있다.

160) 제보 : 문종돈(52세), 구성면 보정리 이현.
문택기(82세), 구성면 보정리 이현.

② 구성면 보정리 독정¹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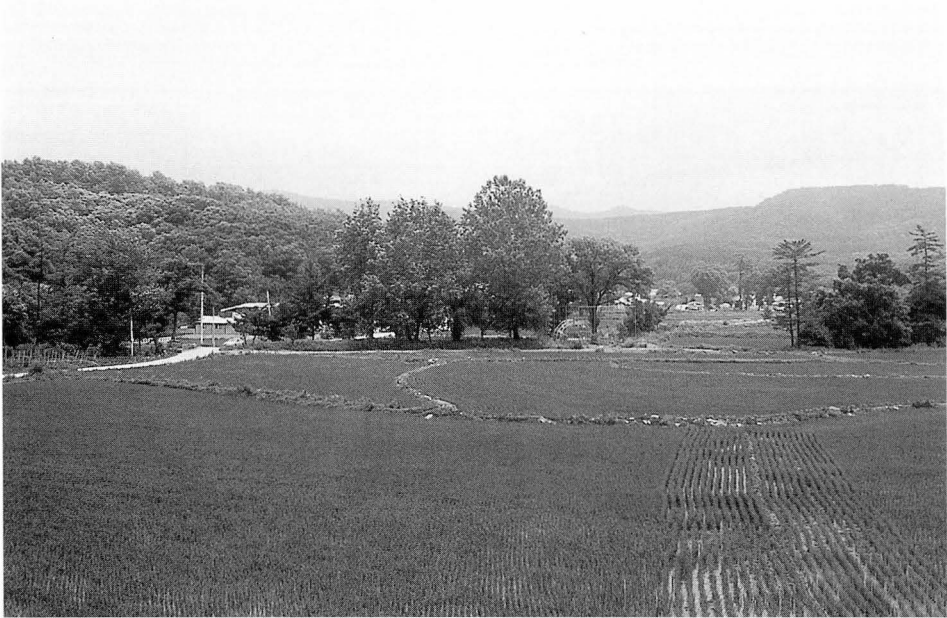


사진 II-14. 독정의 마을숲

독정은 마을 동편에 산을 끼고 서쪽으로 열린 골짜기를 따라 주거지가 입지하여 있으며 하천이 마을 앞을 가로질러 흐른다. 주택은 주로 남향을 하고 있다. 전주 이씨, 나주 정씨 등이 원주민을 구성하고 있으며 현 30세대 중 절반은 외지인이다. 마을 동구 하천변을 끼고 숲을 조성하였는데 그 위치는 마을 지맥의 좌청룡과 우백호 사이에 해당한다. 藪帶의 길이는 150미터 가량이며 수종은 최초의 참나무를 비롯하여(현재는 4그루 가량 현존) 새마을 사업으로 다시 심은 느티나무·은행나무·포플라 등이 있다. 마을 앞이 허전하여 숲을 가꾸었다고 한다. 풍수적인 기능상 마을의 수구를 막는 비보기능을 하며 하천 제방을 공고히 하는 기능을 겸한다.

161) 제보 : 정규관(67세), 구성면 보정리 독정.

③ 양지면 양지리 등촌(162)



사진 Ⅱ-15. 등촌의 공알바위가 있는 언덕 : 무릎을 세우고 다리를 벌린 형국을 하고 있다.



사진 Ⅱ-16. 등촌의 공알바위

162) 제보 : 권영원(77세), 양지면 양지리 등촌.
박진환(71세), 양지면 양지리 등촌.

등촌이라는 마을이름은 마을 뒷산의 못생긴 바위를 가리기 위해 등나무를 심었다는데 유래한다. 마을 주민은 이 바위를 공알바위 혹은 여자불알바위라고 하는데 여체의 음핵을 가리키는 말이다. 마을 뒷산은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있는 형국을 하고 있고 그 사타구니 가운데에 닭 벼슬 모양을 한 자연석이 돌출하고 있어 흡사 음핵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형국이 마주 바라보이는 건너 벌토 마을에서는 이 바위로 말미암아 淫風이 일어나 여자가 난봉이 나고 과부가 생겨 난다고 하여 바위를 가리는 방편으로 등나무를 심었던 것이다. 비보물을 조성한 주체에 관해 두가지 속설이 있는데, 벌토마을의 주민들이 등나무를 심고 바위를 일부 깨뜨렸다고도 하고 한 때 등촌에 있었던 양지 고을 치소의 군수가 등나무를 심고 흙을 파다가 바위를 보이지 않게 덮었다고도 한다. 현재 공알바위는 마을 뒷산 언덕의 경사진 土層에 닭벼슬 형태로 돌출하여 있는데 폭은 5m, 높이는 1.5~3m가량으로 주위에는 등나무 덩굴이 뻗어 성장하고 있다.

(3) 용인의 비보조산

비보조산이란 흙을 쌓아올려 산을 만드는 것으로 대부분은 생기를 모으고 왕성하게 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으며, 또 소규모의 것은 돌을 쌓아서 산의 모양을 만든 것이 있다.¹⁶³⁾ 풍수적 비보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성한다. 범주상 광의적인 비보조산은 그 형태상 인조산(가산), 돌탑, 서낭당, 선돌, 당나무(造山나무), 숲, 장승, 솟대 등을 포함하나 협의적으로는 흙이나 돌로 조성한 산을 일반적으로 가리킨다. 용인에도 돌무지(운학동·방아리), 선돌(화곡), 흙무지(창말) 등의 사례가 나타난다. 비보조산의 주기능으로는 虛한 지세를 도와 지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한편 地氣를 저장하는 것이다. 또한 허결, 공허, 공원한 수구를 막고 터를 鎮護 한다. 그리고 곳에 따라서는 형국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럴 경우 조산은 行舟 형국의 돛대 등의 상징성을 지닌다. 용인의 미평리에 돛대로 일컬어지는 높이 약 17m, 둘레 4m의 들메나무 사례가 있으니¹⁶⁴⁾ 이는 미평리의 풍수적 마을 입지상 배 형국이어서 나무로 돛대를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11. 용인의 비보조산 개관

마을명	비보 형태	비보 위치	비보 기능	비고
용인시 운학동	돌무지			
남사면 창리 화곡 웃말	입석(선돌)	마을 입구	災厄 防止	消失
남사면 창리 창말	흙무지	마을 앞 들	補虛	消滅
남사면 방아리	돌무지			
원삼면 미평리	나무		形局 補完	

163)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28, 『朝鮮の林藪』, 23쪽; “造山とは封土の山を作り多くは生氣を榮旺する爲植樹をなすを本體とするものであり又小規模なものは石を積んで山の形をなすものである”

164) 홍순석·이인영 엮음, 1985, 『내고장 옛 이야기』, 용인문화원, 130쪽.

위에서 정리한 사례지역 중 남사면 창리 창말에는 남쪽들의 논 가운데에 취락의 보호 기능을 하는 인공적 조산(흙무지)이 있었는데 이것을 말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그 조산이 있던 들을 조산들이라고 불렀다. 조산의 형태는 흙과 돌로 둥그렇게 조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소멸되었다.¹⁶⁵⁾ 그밖에 창리 옷말 동구의 느티나무 곁에는 마을의 재액을 막기 위해 세운 입석이 있었다고 하며¹⁶⁶⁾ 용인시 운학동에도 돌무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마을 이름을 돌무더기라고 하였고¹⁶⁷⁾ 남사면 방아리 들에는 돌무더기가 탐처럼 있어 돌탑이라고 하였다.¹⁶⁸⁾



사진 II-17. 창말의 조산이 있었던 곳(○표시) : 멀리 창말이 보이며, ○표시한 곳에 있었던 조산은 마을 앞의 보호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용인의 비보지명

비보지명은 땅이름을 붙임으로써 비보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심리적이고 상징적인 비보형태이다. 용인의 경우 龍山과 雲鶴洞, 舞鳳里와 梧木洞, 배 형국과 돛대바위,¹⁶⁹⁾ 소형국과 통곡 등의 지명적 보완이 가해지고 있다.

165) 제보 : 권경애(59세), 남사면 창리 화곡.

166) 제보 : 남상익(62세), 남사면 창리 화곡.

167) 용인시, 1997, 『용인시 문화재 총람』, 150-151쪽; “둘레 14.2m, 높이 2.74m, 직경 4.1m로서, 성황당 돌더미 혹은 돌무지무덤으로 보기도 한다. 돌무지의 훼손과 부정스러운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매년 초순 제관을 뽑고 길일을 택하여 소를 제물로 쓰는 큰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168) 홍순석·이인영 엮음, 1985, 『내고장 옛 이야기』, 용인문화원, 54쪽.

표 II-12. 용인의 비보 지명 개관

裨補地名	裨補的象徵性
龍仁市 雲鶴洞	龍의 형상인 兄弟峰이 구름을 얻어야 騰天한다고 하여 붙인 비보지명.
南四面 梧木洞	鳳은 오동나무에 깃들기에 마을에 머물기를 염원하여 붙인 마을 지명.
南四面 通三里 通谷	마을의 뒷산이 臥牛形으로 마을을 죽통에 비유.
南四面 舍宮里 念心	마을이 배 형국으로 마을 앞산의 돌출한 자연석을 돛대바위로 일컬어 형국 체계를 보완

(5) 용인의 비보놀이

양지면에는 풍수비보적인 상징성을 띠는 줄다리기 민속놀이를 한 적이 있다. 양지면에는 예전에 정월보름이 되면 각 마을에서 줄다리기를 했는데, 산업화의 진행으로 전승이 중단되다가 동네에 줄초상이 나와 동네 앞으로 지나다니는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용머리를 끊어서 그렇다고 하여 다시 재개한 적이 있다. 줄다리기 놀이는 1979년도까지 행하다가 이후 완전히 단절되었다.¹⁷⁰⁾ 이러한 놀이의 상징성은 도로 개설로 인하여 끊어진 산세를 줄다리기라는 놀이 문화를 통하여 문화적으로 잇는 행태인 것이다.¹⁷¹⁾

169) 제보 : 조병수(66세), 남사면 전궁리 엄집.

170) 용인문화원, 1998, 『駒城面誌』, 784-785쪽.

171) 참고적으로 산세비보적 기능의 유사한 줄다리기 놀이가 울산읍과 언양읍에 전승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한다. 두 고을에서는 빠져나가는 읍의 산세를 馬頭戲 혹은 馬頭戰이라고 명칭된 줄다리기를 통하여 끌어 당기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輿地圖書』(18세기)에 의하면, “東大山이 바다로 곧장 달려 나가는데 그 형상이 마치 말머리 같다. 고을사람들은 東大山의 맥이 서쪽을 돌아 보지않고 곧장 달려가는 것을 꺼려 줄로 끌어당겼으니 그로 인하여 놀이가 되었다”(『輿地圖書』「蔚山」(補遺) 風俗條: “馬頭戲. 每年五月五日, 邑人分東西, 曳索爭勇, 以占豐凶, 西勝年凶, 東勝年凶, 以決勝負. 蓋馬頭云者, 東大山直走海中, 狀如馬頭, 元不西顧, 邑人畏其直走, 以繩牽之, 因以爲戲, 蓋倣唐時拔河之類也”)고 한다. 그 기원은 당나라 시대의 拔河 놀이로 설명하고 있다. 언양 고을에도 울산과 유사한 비보적 민속놀이가 있었으니 ‘馬頭戰’이라고 한다. 『輿地圖書』에 의하면, “俗傳에, 읍터의 용머리가 울산 경계로 달려 가는 것 같다고 하여 이 싸움놀이를하여 그 龍頭를 끌어당긴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머리가 바로 용머리라고 적었다(『輿地圖書』「彥陽」 風俗條: “馬頭戰. 五月五日, 川南北民人聚邑城, 以路上路下分左右隊. 前一日勅民戶, 各出藁索合爲一條, 窺其頭而貼大木, 是謂馬頭. 兩隊一時鼓進擊, 附左右橫索角力爭奪, 俗傳邑基龍頭放走蔚境, 故設爲此戰以挽龍頭, 其言馬頭者卽龍頭也).

Ⅲ. 龍仁의 交通과 商業

交通은 지리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회기간설비라 할 수 있다. 근대적인 교통수단의 도입 이전 시간·거리비용은 더욱 컸으리라 생각되는데 교통이 地域地理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동인이 되었던 이유는 時·空수렴 (time-space compression)에 따른 파급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交通路는 文化傳播의 통로가 되며 교통의 발달은 地域的 分業을 유도해 토지 및 공간의 합리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교통은 또한 재화와 여객의 공간적 이동을 강화하여 지역간 접근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교통은 사회유지를 위해 필요한 情報의 傳達이라는 기능도 수행하였는데, 특히 교통수단 및 교통로의 발달이 미진했던 前産業時代의 通信業務는 교통기능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한반도는 척량산맥에서 뻗어내린 2차산맥이 황해를 향해 늑골형태로 발달해있기 때문에 동서간 이동보다 남북간 교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되었다. 역대의 수도 및 주요 도회가 水路와 海路를 통해 쉽게 이어질 수 있었던 반면 산줄기가 높고 연속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 지역간 연결의 효율성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륙수로와 해로는 여러 형태의 환경적인 제약으로 교통로로서 효율성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내륙수로의 경우 여울, 수량의 계절적인 반복, 겨울철 하천의 동결, 전통농경사회의 핵심 기반시설인 淤와외의 경쟁관계 등의 이유로 시간적으로 제약이 수반되는 교통형태였다. 陸上交通은 지형적인 이유로 도로이용이 제약되는 정도가 낮고, 골짜기나 산맥과 산맥사이의 鞍部를 따라 발달한 고갯길을 통해 분수계를 그리 어렵지 않게 넘나들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연속성을 갖춘 교통체계라 할 수 있다. 하천과 만나는 곳에서는 소규모 범선이나 교량을 통해 지형적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교통시간, 수송물량의 규모, 단위화물당 수송비의 측면에서 선박에 필적할 수는 없었지만 경기내륙에 위치하여 해로와 수로를 거의 활용할 수 없었던 龍仁으로서는 도로가 일상생활을 수행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의 하나였다.

1. 전산업시대의 교통과 상업

근대화된 교통시설이 소개되기 이전 한국의 전통적인 도로는 일부 대도시지역과 지방의 정치·행정·군사중심지를 제외하면 九折羊腸의 '꼬불길'로 비유될 수 있는 형태의 것

이었다. 도로는 양편의 길마가 겨우 비껴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였으며 개중에는 장마철에 휩쓸려나가 자취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은 수평적인 연결고리를 갖지 못하고 도읍을 향해 수직적·계층적으로 집중하는 형태가 보편적이었으며, 전국적으로 보면 朝鮮時代의 경우 漢陽을 향해 사방의 도로가 집중하는 'X'자형 패턴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정치·행정적인 측면이 다분히 고려된 형태로 中央集權的인 정치질서의 구축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였다. 중앙정부와 지역중심지를 연결하는 도로, 즉 官道는 비교적 지속적인 관심아래 정비되고 확장되었다.

용인의 도로망은 다른 요인에 앞서 地形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유지되었다. 용인의 지표형태와 기복은 5개의 하천유역권에 의해 결정되는데, 북서부의 炭川流域圈, 烏山川流域圈, 북동부의 慶安川流域圈, 서남부의 振威川流域圈, 남동부의 淸溪川流域圈이 바로 일차적인 틀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들 주요 하천에 연하여 저기복의 범람원이 펼쳐지고 지류를 따라 올라가면서 소규모 곡저평야가 대상으로 발달해 있다. 저기복의 평야는 대부분 100m 이하의 고도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200m가 넘는 산지는 경안천과 진위천을 잇는 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 국지적으로 발달해 있다. 역사적으로 龍仁의 간선도로를 포함한 주요 교통로는 중심되는 하곡과 지곡을 따라 발달하였으며 분수계는 안부를 따라 발달한 '고개길'을 통해 극복하였다. 고려시대 이후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용인의 교통로는 開京과 漢陽으로 수렴하는 교통망의 咽喉部를 형성하였던 바, 幹線은 북서부의 하곡을 통해 들어와 남하하다가 서에서 동으로 이어지는 수평선을 그린 후 안부를 넘어 동남부 하곡을 통해 빠져나가는 누인 'S'자형을 그리며 발달하였다(그림 III-1).

교통의 성패는 연결성과 접근성을 좌우하는 道路網과 輸送樣式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러한 교통체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인 측면의 중요성도 부인할 수 없다. 驛站制는 우리의 실정에 맞게 고안된 전산업시대의 관영 교통운영체제였다. 역참제는 교통과 통신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서 삼국시대에 이미 정립된 이후 구한말까지 지속되었다.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대를 내려오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체계화되었다. 驛站은 驛路를 매개로 성립되었다.

용인은 조선시대 四方最繁之九大路 중 제 4대로에 해당하는 三南大路의 관문에 해당하며 흔히 영호남의 길목으로 비유되고 있다.¹⁾ 제 4대로는 남대문을 빠져 나와 광나루(廣津)에서 한강을 도하한 후 광주, 용인, 양지, 죽산, 충주, 문경, 대구, 밀양, 양산, 동래를 잇는 1000리 가까운 관도로 제 1대로인 義州路와 함께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여 해양과 대륙세력간 중심축을 형성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로라 할 수 있다(표 III-1).

1) 『宣祖實錄』39년 3월 1일 己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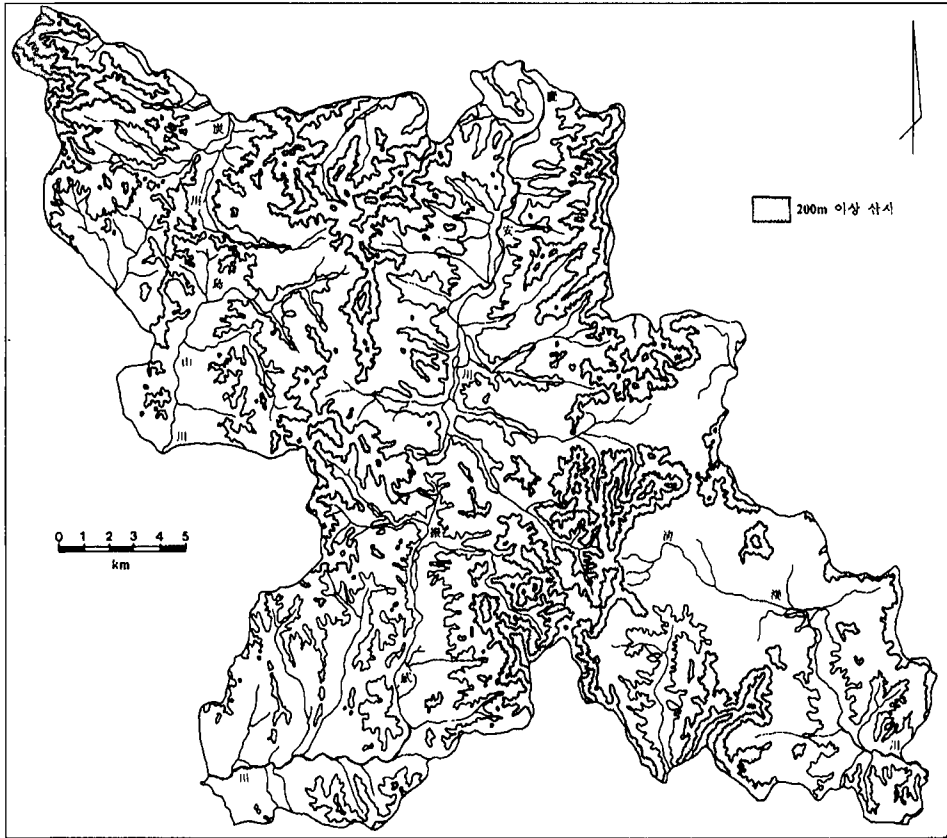


그림 III-1. 용인내 교통로 발달의 자연지리적 조건

표 III-1. 조선시대 9대로의 노선

노선	방향	구 간	거리
一路	서북	漢陽 - (弘濟院) - 義州	1086리
二路	동북	漢陽 - (水踰里店) - 慶興 西水羅	2414리
三路	동	漢陽 - (忘憂里峴) - 平海	810리
四路	동남	漢陽-漢江10里, 板橋站40, 險川10, 龍仁2, 直谷20, 陽智20, 佐贊10, 陣村30, 廣岩20, 石院20, 崇善40, 達川40, 忠州10, 丹月10, 安審50, 烏嶺東華院20, 閉慶20, 新院20, 幽谷20, 德通站20, 洛院30, 佛峴30, 洛東津10, 餘次里站30, 古里谷30, 文川20, 東明院峴40, 牛岩倉10, 琴湖江20, 大邱10, 梧桐院30, 八助嶺20, 淸道20, 楡川30, 密陽30, 耳倉10, 內浦津40, 黃山20, 梁山20, 東萊40 - 釜山20里	907리
五路	남	南抵統營	
六路	남	南抵統營一路	
七路	남	漢陽 - (銅雀) - 濟州	2016리
八路	서남	漢陽 - 忠淸水營	
九路	서	漢陽 - (楊花渡) - 江華	130리

자료 『增補文獻備考』卷24, 輿地考 12, 道里條

과거 三浦에 정착한 왜인은 상주, 문경, 충주를 거쳐 서울로 올라오는 上京路를 빈번히 이용했기 때문에 도로에 연한 고을의 주민들은 失農하거나 막대한 접대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등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1432년 禮曹에서는 일본인 사신의 상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소를 올리게되는데, 乃而浦에 도착한 사절에 한하여 창원, 성주, 옥천, 청주, 죽산, 용인, 한강을 연결하는 입경로를 허락한 듯하다.²⁾ 良才, 樂生, 龍仁, 陽智를 연결하는 구간은 성종 4년(1473) 여주에 안치된 英陵의 獻官이 왕래하는 도로로 지정되었다. 이전에는 주로 광주와 이천을 거치는 경로가 전용되었으나 두 고을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시간·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행되었다.³⁾ 이렇듯 중요한 도로였기 때문에 용인에 부임하는 관료는 도로와 교량에 대한 수리와 관리를 임기동안 수행해야 할 중요한 직책의 하나로 생각하였다. 국왕의 幸行時 용인까지는 중간체류를 포함한 시간거리로 약 3-4일 노정에 해당했다.⁴⁾ 용인에는 또한 왕실전용의 射場이 있어 국왕과 고관의 행차가 잦았던 듯하다.⁵⁾

교통중심지로서 용인을 평가하는 데에는 이 외에도 임진왜란 당시 북상하던 왜군과 관군이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용인의 광교산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당시 이 지역 태반이 焦土化되었다는『亂中雜錄』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駒興, 金良, 佐贊을 잇는 幹線道路에는 왜군이 방책을 치고 兵站線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⁶⁾ 충주까지 진격한 小西行長의 1진이 여주, 양근, 북한강을 거쳐 한양으로 진격하였고, 加藤清正이 이끄는 2진은 음성, 죽산, 양지, 용인 등의 경로를 거쳐 한양에 이르는 좌로를 택하였다. 3진인 黑田長政의 군대도 청주에서 진천, 죽산, 용인을 거쳐 한양에 입성하였다. 이는 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용인이 수도방어와 관련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 대변해준다.⁷⁾ 이 기록은 또한 양지 역시 수도진격의 일부 통로를 제공하였던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한때 모반에 연루된 趙憲立이 이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조 6년에 革畝의 위기를 맞았지만 삼공의 의견을 존중해 철회된 사건이 있었는데, 양지가 교통상 중요한 지점에 입지하고 있다는 것이 철회의 가장 큰 이유였다.⁸⁾ 영조 4년(1728)의 역모시에는 용인의 직곡과 양지의 좌찬고개 및 미음강(청미천) 입구는 진압군이 작전을 수행하는 전위방어선을 형성하였다.⁹⁾

2) 『世宗實錄』14년 1월 8일 戊辰

3) 『成宗實錄』4년 2월 22일 癸未

4) 『中宗實錄』23년 9월 22일 辛卯

5) 『成宗實錄』6년 9월 28일 甲戌. 龍仁에 있던 사냥터는 王林射場으로 불리었다.

6) 『宣祖實錄』26년 4월 20일 甲辰

7) 韓國道路公社, 1981, 『韓國道路史』, 166쪽.

8) 『仁祖實錄』6년 2월 13일 乙巳

9) 『英祖實錄』4년 3월 22일 壬申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은 군사행정을 포함한 국사를 계획하는 데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조정에서는 外方道路의 노선을 일정하게 구획하고 이들 구간의 운영을 위해 관리를 파견하였는데, 도로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파견되는 관리의 위계에도 차등을 두었다. 驛路는 대·중·소의 구분이 있었으며 그 기준은 군사, 정치, 행정, 외교적인 기능과 중요성에 관련된 것이었다.『經國大典』의 규정에 따르면 전체 19개 驛道에 대해 중 6품관인 察訪을, 나머지 16개 도에는 중 9품인 驛丞을 파견하도록 하였다(표 III-2). 찰방이 주재하는 本驛은 관할 역로를 따라 개설된 屬驛의 운영을 비롯한 해당 역도의 교통업무를 총괄하였다. 찰방의 소관역로는 본역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표 III-2. 조선초기 전국의 역도

지역	察訪驛道	驛丞驛道
경기도	迎曙, 良才, 平丘	蠶林, 慶安, 桃源
충청도	栗峯, 連原, 成歡	利仁, 金井, 時興
경상도	幽谷, 金泉, 安奇, 長水, 省峴	松羅, 昌樂, 沙斤, 自如, 召村, 黃山
전라도	參禮, 葵樹, 靑巖	景陽, 碧沙, 濟原
황해도	金郊, 靑丹	麒麟
강원도	銀溪, 保安	平陵, 祥雲
영안도	高山, 居山	輸城
평안도	大同, 魚川	

자료 『經國大典』吏典 外官職條

당시 경기도에는 영서, 양재, 평구의 찰방역도와 중림, 경안, 도원의 역승역도 등 총 6개 간선도로가 지나고 있었다. 용인, 양지, 죽산 등 현 용인시의 전체 혹은 일부를 구성하던 군현은 찰방이 주재한 良才道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용인의 駒興驛, 金嶺(良)驛, 죽산의 佐贊驛이 양재찰방의 책임아래 운영·관할되었다(표 III-3). 각 역은 馬匹과 驛卒을 갖추고 공문서의 전달, 공물수송, 사신의 영송, 관리 내왕시의 편의제공, 정보의 전달 등 온갖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역은 평지와 산지의 구별은 있었으나 평균 30리마다 설치되었다. 역에 비치된 마필을 사용하려면 馬牌라는 증명서 필요했고 마패에는 이용자의 신분이나 업무의 긴급성을 감안해 이용가능한 말의 수를 새겨두었다.¹⁰⁾

10) 金昌洙, 1976, “交通·通信·烽燧”, 『韓國史論』4, 국사편찬위원회, 115쪽.

표 III-3. 경기도의 역참체계

역도	관리	품계	소속역
迎曙道	찰방	종6품	벽제, 마산, 동기, 청교, 산예, 중련
良才道	찰방	종6품	낙생, 구흥, 금령, 좌찬, 분행, 무극, 강북, 가천, 청호, 장족, 동화, 해문
平丘道	찰방	종6품	연양, 안기, 량문, 봉안, 오빈, 쌍수, 전곡, 백동, 구곡, 감천, 연동
重林道	역승	종9품	경신, 반유, 석곡, 금륜, 동생, 남산
慶安道	역승	종9품	덕중, 양화, 신진, 안평, 아천, 오천, 영춘
桃源道	역승	종9품	구화, 백령, 옥계, 단조, 상수

자료 『經國大典』吏典 外官職條

1760년의 기록상으로 용인의 도로는 서북부 광주부에 이르는 京都路(向京路) 15리길과 동으로 양지현에 이르는 30리의 金良大路, 서남쪽 진위현에 이르는 振威路 30리길이 大路로 분류되었으며, 남으로 양성현에 이르는 50리길은 中路였다(사진 III-1).¹¹⁾ 죽산에서 보면 관문을 나와 양지로 이어지는 嶺南路가 大路로 분류되었다.¹²⁾ 당시 용인의 구흥역에는 大馬 3필을 포함해 騎馬 6필, 卜馬 2필이 비치되어 있었고 이를 역노비 26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금령역에는 大馬 1필, 騎馬 3필, 卜馬 1필에 역노비 18명이 배속되었다. 죽산의 좌찬역에는 말 6필과 역노비 9명이 역사를 돌보고 있었다(표 III-4). 역은 노변에 입지했을 때 역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금령역과 좌찬역은 원칙대로 대로에 연해 위치하였다. 그러나 구흥역은 대로에서 떨어진 곳에 자리하였는데 이는 신분상 身良役賤의 특수계층인 역민을 사대부 관료가 집단으로 기거하는 읍치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의도에서 계획된 듯하다.¹³⁾

표 III-4. 용인의 역사례

역명	소속	역마	역노비	位 畝	출 처
駒興驛	용인	大馬3匹 騎馬6匹 卜馬2匹	奴26		輿地圖書, 1760
		馬7匹	馬戶首7	位畝 45石6斗落	龍仁縣邑誌, 1871
		馬7匹	馬戶首7	位畝 39石12斗5升落 位田 41日半耕	龍仁縣邑誌成冊, 1891
金嶺驛	용인	大馬1匹 騎馬3匹 卜馬1匹	奴15 婢3		輿地圖書, 1760

11) 『輿地圖書』龍仁縣 道路條

12) 自官門北通陽智大路 東南由陰竹石院通鳥嶺大路 西南通安城大路 南通鎮川大路 (『竹山郡邑誌』(1899년, 奎10720) 道路條).

13) 일찍이 礮溪 柳馨遠도 전국적으로 많은 驛의 위치가 路邊에 있지않고 후미진 곳에 위치하여 道路運營의 原則에 乖리되는 일면을 지적한 바 있다 (郵驛每三十里一置驛必須臨當道路得其形便, 今諸驛多不傍臨道路或僻在三四里外甚非置驛本意如此者悉可移正兩驛相距固以三十里爲限然必得其形, 『礮溪隱錄』卷 22 兵制後錄 郵驛條).

		馬5匹	馬戶首5	位畝 20石5斗落 位田 23石6斗落	龍仁縣邑誌, 1871
		馬5匹	馬戶首5	位畝 20石15斗5升落 位田 38日耕1息	龍仁縣邑誌成冊, 1891
佐贊驛	죽산	馬6匹	奴9名		輿地圖書, 1760
		馬6匹	奴婢9		竹山邑誌, 1832
		馬6匹	馬戶首9	租256石16斗7升5合 太 29石4斗4升	竹山邑誌, 1899



사진 III-1. 김량대로 : 김량대로는 용인현 읍치에서 김량역을 지나 양지읍치를 연결하는 조선시대의 역로를 지칭하며 북서쪽으로는 경도로, 남동쪽으로는 좌찬고개를 넘어 영남로로 이어진다. 사진에는 김량역을 출발하여 주막이 있었던 삼거리를 지나 '메주고개(彌助峴)'을 넘어 어정포로 향해 올라오는 김량대로의 일부 구간으로 중리앞에 남아있는 구도로이다. 노폭은 3.5m 정도이고 옆에는 연대가 오랜 정자목(shade tree)인 느티나무가 서있다.

역로를 이용하는 관원은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말을 이용할 수 있었다. 『經國大典』을 통해 법제화된 관원의 給馬規程을 보면, 말에는 乘馬와 馱馬의 구별이 있었고 승용마는 별도로 상등, 중등, 하등의 엄밀한 구분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급마의 원칙은 이용자의 신분에서 따라 적용의 폭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大君이나 議政府의 고관은 일등기마 1필과 하등마 3필, 짐말 3필을 이용할 수 있었고 종9품관의 경우 짐말 1필과 중등승마 1필을 차용할 수 있었다(표 III-5). 역무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에게는 이들

고관이 마패에 명시된 수효 이상의 마필을 요구한다거나 활용한 마필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 또 말에 상해를 입히는 등의 폐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¹⁴⁾ 중앙과 지방의 양반관료는 또한 여행 중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종의 통행증이라 할 수 있는 勿禁帖을 소지하였으나 이는 역마를 요구할 법적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大典通編』 이후에는 文武内外의 관원이 奉命으로 여행할 때에 연도의 고을에 路文을 발송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각 고을의 책임자는 여행자의 숙식을 포함한 일체의 편의를 책임져야 했다. 노문에는 수행원의 수, 이용 가능한 마필수, 여행일정 등이 자세히 기록되었다. 휴가를 얻어 고향에 내려가는 군사, 상경하는 왜사, 행상에게는 여행허가증인 路引이 발급되었다. 특히 商旅에게 발급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收稅하였다.¹⁵⁾ 일반 사대부와 상민은 비록 관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었지만 역마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부유층은 자신들의 마필을 사용해 여행하였다.

표 III-5. 역마지급규정

이용자의 신분	上等乘馬	中等乘馬	下等乘馬	馱馬
大君 議政	1		3	3
正2品 이상	1		3	2
從2品	1		2	2
3品 堂上	1		2	1
6品 이상		1	1	1
9品 이상		1		1
赴京使, 副使, 通信使	1			2
赴京書狀官, 從事官, 通信從事官		1		1
通信製述官 이하			1	2인 1마
赴京從人			1	2인 1마
御使	1		1	1

자료 『經國大典』, 兵典 驛馬條

역무는 驛長, 驛吏, 驛卒, 驛丁, 日守, 奴婢, 率人 등에 의해 관장되었고 이들 인원은 역의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그리고 이들 종사자들의 급료와 역을 운영하는데 수반되는 제반 경비는 각 역에 지급된 토지로 충당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각 道와 역을 大·中·小의 3등급으로 나누어 位田을 지급함으로써 도로관리 및 역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하였다.¹⁶⁾ 선초 『經國大典』의 규정으로는 官屯田 12결, 公須田으로 대로 20결,

14) 『礪溪隱錄』卷 22 兵制後錄 郵驛條

15) 文書의 구체적인 樣式과 記載事項에 대해서는 崔承熙의 『韓國古文書研究』(지식산업사, 1989)를 참조.

중로 15결, 소로 5결, 馬位田으로 대마 7결, 중마 5결 50부, 소마 4결이 책정되었다. 身役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有役人田은 馬田 2결, 副長田 1결 5부, 急走田 50부가 배정되었으며 이러한 토지는 총칭하여 驛田이라 했다. 세종대에 용인과 죽산은 대로, 양지는 중로로 편성되었다.¹⁷⁾ 역전은 원칙상 自耕無稅地였으나 토지가 역과 너무 떨어져 있으면 노비를 시켜 경작케 하거나 타인에게 소작시켜 賭租를 수납하는 예가 많았다.

19세기 후반 구홍역은 위담 45석6두락에서 나오는 도조로 운영되었고, 근령역은 위담 20석 5두락과 위전 23석 16두락, 죽산 좌찬역은 도조 256석 16두 7승 5흡의 지원이 있었다.¹⁸⁾ 역전답은 역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18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광무 8년 과거 용인 구홍역에 소속된 驛屯土는 73석락으로 총 타조 661석6두5승 가운데 다음해 종자로 쓰게될 73석을 제외한 588석6두5승이 실상납액으로 기록된 바 있다.¹⁹⁾ 융희 2년 구홍역의 立馬隊畝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홍면 驛村坪의 11필지, 新村坪 12필지, 飲水谷坪 25필지, 龍頭坪 28필지, 屯田坪 15필지, 湯馬谷坪 5필지, 新陵洞坪 28필지, 館谷坪 7필지, 道峴坪 6필지, 栗木洞坪 10필지, 鶯峴坪 1필지, 東邊面 東便坪 13필지, 下支石坪 1필지 등 驛畝 총 39석락에서 나오는 284석 9두의 도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조는 分半打租의 비율로 수납되었다. 토지는 131명의 소작인에 의해 경작되었으며 이 가운데 15명은 2필지를, 6명은 3필지를 소작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역민의 집단 거주지를 흔히 ‘역말(驛村)’이라고 부른다. 역촌은 身良役賤의 특수 신분층으로 구성된 촌락공동체로 신분상승에 엄격한 제약이 가해진 구속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현종조에 이르러 역노가운데 양인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한하여 從母法의 예에 따라 양인의 신분으로 역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칙이 개정되기는 했어도 전체적인 구속의 틀은 유지되고 있었다.²¹⁾ 역촌의 규모를 비정할 수 있는 자료는 그리 흔치않다. 『輿地圖書』에는 18세기 좌찬역촌의 규모를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編戶 167, 남성 364명, 여성 441명의 총인구 805명으로 구성된 중규모 촌락이었음을 시사해준다.²²⁾ 역촌에는 馬房과 함께 여행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할 목적으

16) 『世宗實錄』 2년 11월 5일 己巳

17) 『世宗實錄』 27년 7월 13일 乙酉

18) 『竹山郡邑誌』 驛賭條, 佐贊驛 賭租 256石16斗7升5合

19) 『龍仁郡駒輿驛畝秋收成冊』, 光武 8年 9月

20) 『龍仁郡駒輿驛所在前加立馬隊畝調查成冊』, 隆熙2年5月

21) 驛民의 身分에 관한 전반적인 規程은 다음과 같다: 驛婢勿論良賤夫所生并爲驛奴婢, 驛奴聚良妻所生自顯宗朝己酉從母許良後自任子男爲驛史女爲驛女, 驛吏聚公賤所生自顯宗朝甲辰男女并從母役, 驛女嫁良夫所生南依弘治受教爲驛史而自今甲子六月始爲申明今辛酉式形上案入錄已屬他役者勿爲推尋, 驛女嫁良夫所生女依他良女所生例勿爲屬驛而今辛酉式年形止案入錄已服驛役者仍爲屬驛 (版籍司, 『度支志外篇』 驛奴婢節目).

22) “佐贊驛村自官門出五十里編戶167男364女441口” (『輿地圖書』 竹山縣 坊里條).

로 설치된 里門이 있었으며 좌찬역촌도 예외는 아니었다(사진 III-2).²³⁾



사진 III-2. 좌찬역촌: 양재도에 소속된 좌찬역은 分行과 함께 죽산부의 역으로 말 6필과 역노비 9명으로 구성되었다. 양지와 죽산 중간의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18세기 중엽에는 역을 포함한 인근 취락의 총인구가 805명에 달하였다. 마을 어귀에는 里門이 있었으며 위치는 사진에 나와있는 지점이다. 산등성이가 끝나는 곳에 양지로 넘어가는 좌찬고개가 위치한다.

말은 전산업시대 교통수단으로 가치가 컸기 때문에 노략질의 주요 대상이 되는 예가 비일비재하였다. 중종대 경상도의 進上品을 나르던 말을 용인에서 약탈당해 司饗院이 보고한 사실이 있다.²⁴⁾ 명종대의 한 보고에 의하면 용인과 진위 방면으로 도적의 출몰이 잦아 도로가 통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규모도 말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이 약 50여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²⁵⁾ 임란을 겪고 난 이후에 도적은 극도로 번성하여 경기어사 黃克中은 용인, 양지, 죽산 사이의 큰길가에 三手兵 100여명을 배치하여 도로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기하기도 하였다.²⁶⁾ 이문은 이들 도적을 포함해 기타 동정이 수상한 자를 검찰하기 위해서 필요하였다.

역로를 따라서는 路邊施設로서 10리마다 小塚가, 30리마다 大塚가 설치되어 여행자를

23) 제보: 金漢洙 (66세, 용인시 원삼면 좌향리 71번지).

24) 『中宗實錄』17년 2월 24일 辛丑

25) 『明宗實錄』3년 10월 15일 丙辰

26) 『宣祖實錄』27년 8월 27일 壬申

위한 案内標識의 역할을 하였다. 후는 里數와 地名이 새겨진 일종의 里程標로 대후의 경우 역의 위치와 같은 지점에 세워지는 것이 상례였다. 즉, 거리 단위로 ‘三十里爲一息’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30리를 1식이라는 단위로 구분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보행자가 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쉬어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²⁷⁾ 혹자는 5리마다 풋말기둥인 桓楹을 두고 10리마다 장승에 해당하는 堠人을 세워 사방의 거리와 마을이름을 기록하여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이정표 근처에 버드나무나 느티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하였다.²⁸⁾ 현재 ‘역말’이라 불리는 구흥역촌에는 당집, 돌무지, 연대가 오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남아있어 역촌의 전형적인 노변경관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사진 I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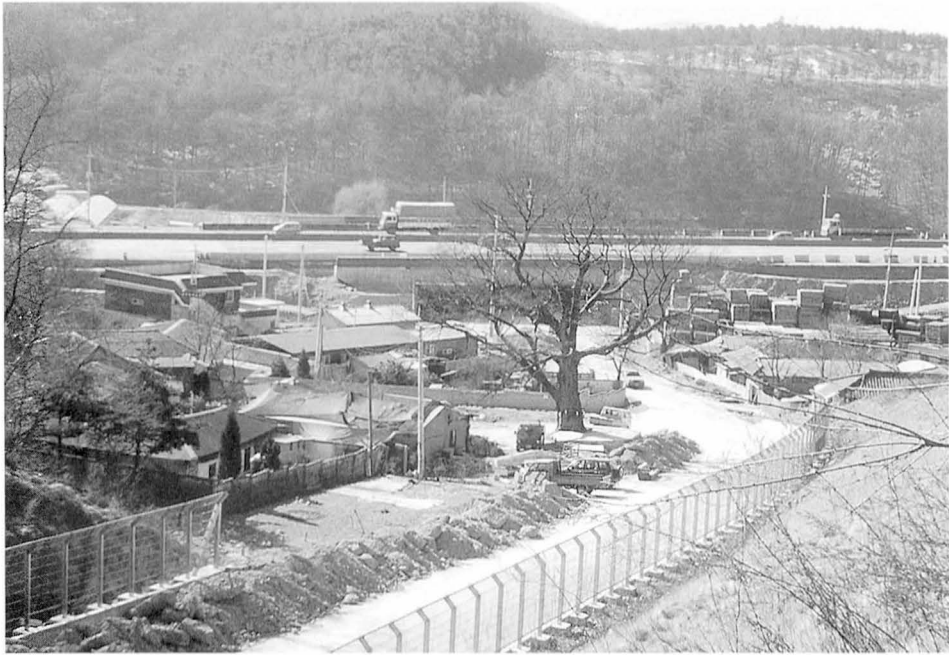


사진 III-3. 구흥역촌: 구흥역은 김량대로에 배속된 역으로 18세기 중엽 대마 3필, 기마 6필, 짐말 2필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노비 26명이 운영을 맡아보았다. 身良役賤이라는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된 촌락이었기 때문에 읍치와는 약 2km 정도의 떨어진 거리에 격리되어 입지하였다. 마을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변에는 느티나무가 서있고 인근 아산에는 당집과 돌무지가 남아있다.

27) “外方道路, 每十里立小堠, 三十里大堠置驛 (堠刻里數地名). 八道路程, 依皇朝例用周尺, 六尺爲一步, 三百六十步爲一里, 三十里爲一息” (『續大典』工典 橋路).

28) 『牧民心書』工典 道路條

이정표와 함께 내왕하는 관리나 여행자의 편의를 위한 숙박시설로 院이 곳곳에 들어섰다. 이미 16세기 초엽부터 용인에는 읍치를 기준으로 서쪽 10리 되는 거리에 普施院, 남쪽 20리에 弘化院, 금령역에서 3리거리에 있다는 金嶺院을 두고있었으며, 양지에는 현 남쪽 54리 되는 지점의 承寶院이 내왕하는 여객의 편의를 돌보고있었다.²⁹⁾ 원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으나 고려시대의 寺院과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사원은 연등회·팔관회 등의 의식을 개최하였고, 喪·祭禮를 주관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병자의 휴양소이자 교육기관이기도한 사원은 또한 특수한 지역에 '院'을 分所로서 설치하여 사회에 봉사하였다. 원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여 여행자의 불편을 덜어주었고 산적이 있는 곳에 들어서 그들을 순화시키는 역할도 수행하였다.³⁰⁾

원도 대개 30리마다 설치되었는데 인근 주민 중에서 덕망있는 사람을 院主로 차정하였다. 원주에게는 院主田이 급료로 지불되었고 원의 운영을 위해 대·중·소로 차등 있게 원전을 지급하였다. 대로변의 원은 1결 35부, 중로원에는 90부, 소로원에는 45부의 토지가 각각 지급되었다. 공무수행자의 편의 제공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숙소와 주식을 제공하였으므로 반관반민의 성격을 지닌 기관이었다. 원은 역 근처나 나루터, 고개, 산뿔, 계곡의 입구 등 交通要地에 주로 입지하였다. 원에는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 廚房, 馬房, 廳室, 樓亭, 草亭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³¹⁾ 용인의 역원은 乙未年(1895)을 기해 폐기되었다.³²⁾

제도사의 관점에서 접근한 교통과 교통로는 대부분 거시적인 측면에서 서술되어왔기 때문에 실제 지역민의 도로이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단면이 있다. 사실 용인의 도로망은 읍치와 읍치, 읍치와 왕도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외에도 간선에서 뻗어난 무수한 수의 支線이 존재했다. 흔히 '산길,' '뒤안길,' '질러가는 길,' '셋길,' '지름길' 등으로 불리던 이들 소로는 인근 마을과 교류할 때나 '장보러가는 길'로 중요하였다(사진 III-4). 그림 III-2는 일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도로패턴이 바뀌기 이전 용인의 도로망을 보여주고 있다. 京都路, 金良大路, 嶺南路, 石隅路로 구성된 간선과 북동-남서 방향으로 형성된 연로가 'X'자 축을 이루고 배후지역이 사이길(間路)과 소로로 연결되는 거미줄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로망의 중심에는 김량장이 들어서 있는데, 김량장은 용인현과 양지현의 중간지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북부 광주의 경안과 남부 양성·안성의 두 현을 잇는 結節點으로 중요하였다. 官衙를 포함해 場市, 驛, 院, 店幕 등 주요 시설은 대부분 간선도로에 연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안과 안성간 직선상의 도로연

29) 『新增東國輿地勝覽』驛院條. 陽智의 承寶院은 일찍이 酸梨院이라 불리었다.

30) 許興植, 1990,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333-5쪽.

31) 崔在京, 1975, "朝鮮時代 院에 대하여", 『嶺南史學』4, 56, 62-4쪽.

32) 『龍仁郡誌』驛院條(1899年, 古915-12).

변에는 몇 개의 점막만이 개설되어 있어 중심성이 간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용인현 읍치 서쪽의 聯路는 水原으로 가는 石隅路이고 김량장에서 백암장으로 난 山路는 양지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는 여행객들의 지름길로 이용되었다. 양지관아에서 동쪽으로 난 도로는 이천 읍치로 이어진다. 용인주민의 일상생활은 이들 대·중·소로를 통한 인근 고을과의 교류를 통해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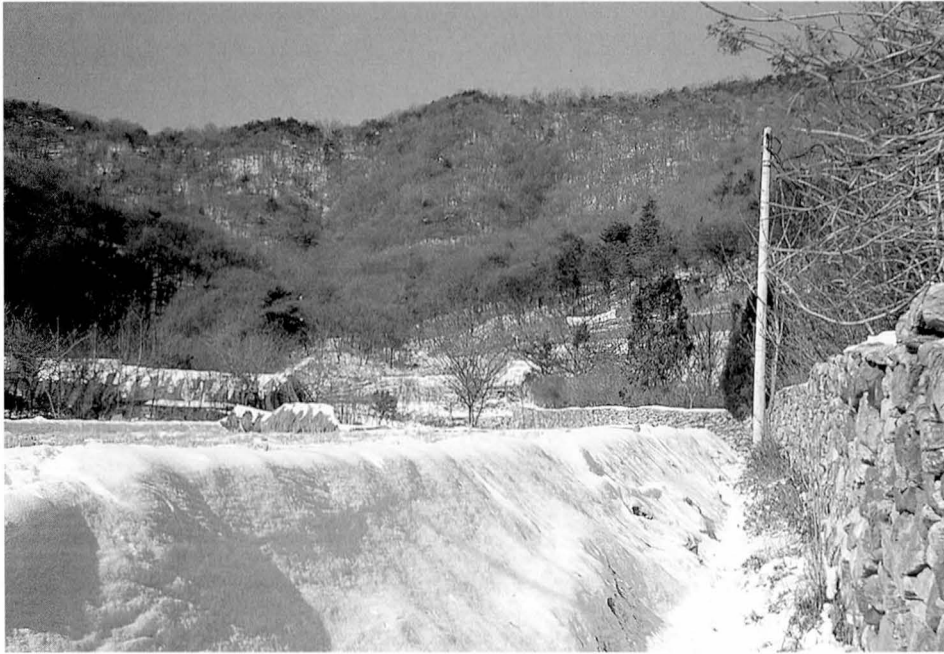


사진 III-4. 마을 뒷길 : 역로와 더불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도로는 마을 안길, 산길, 마을 뒷길 등 소위 '지름길'이었다. 농토와 돌담사이의 이 소로는 수지면 고분현에 있다. 마을 뒷편 산등성이의 안부는 '고분재'로 조선시대에는 용인 북서지역에서 수원부·과천현으로 넘어가는 고개였다.

통신분야에서는 烽燧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봉수는 변경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을 중앙으로 전달하는 통신방법으로 煙火를 이용해 상황의 내용 및 긴박성을 보고하는 연락체제였다. 봉수를 구성하는 핵심설비는 수 십리 간격으로 堠望의 要地인 산정에 구축된 煙臺라 할 수 있다. 연대에 불을 지피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변경의 위급을 조정해 알렸다. 봉화는 평시 1炬, 적출현시 2거, 경계접근시 3거, 경계침범시 4거, 집전시 5거를 올려 서울의 木覓山까지 전달하는 전시통신체계였다. 안개나 구름의 영향으로 연락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火炮, 角聲, 또는 手旗를 활용하여 변통하였다.³³⁾ 봉수제 운영의 최고

33) 南都永, 1981, “朝鮮時代 軍事通信組織의 發達”, 『韓國史論』9, 국사편찬위원회, 83, 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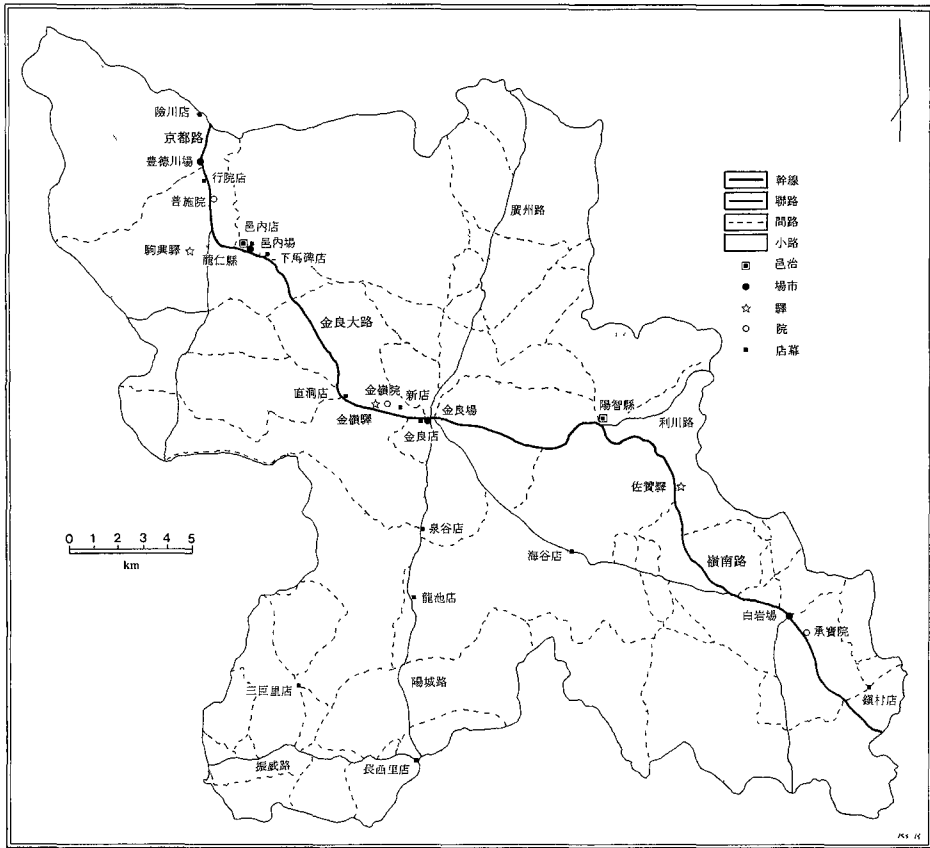


그림 Ⅲ-2. 용인의 도로망, 1895

기관은 兵曹의 武備司였으며 정보의 내용은 의정부와 국왕에 보고하였다. 병조의 하위기구로는 지역단위의 營鎮으로 營鎮長은 봉수대의 관리책임을 맡았다. 봉수대의 요원구성은 연대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京봉수의 경우 2명의 伍員과 4명의 烽軍으로 편성되었으며, 沿邊봉수는 2명의 伍長과 10명의 烽軍, 內地봉수는 2명의 伍長과 6명의 烽軍이 실무에 종사하였다.³⁴⁾

조선시대에는 전국적으로 다섯 개의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었다. 용인을 지나는 봉수로 는 제 2거에 해당하는데 다대포를 출발해 양산, 언양, 경주, 영천, 안동, 예안, 영주, 봉화, 순흥, 풍기, 단양, 청풍, 충주, 음성, 죽산, 용인, 광주를 거쳐 목덕산으로 이어지는 통신선 이었다. 용인의 寶蓋山 정상에 설치된 봉수는 현 용인 영토인 죽산부의 巾之山에서 보내 오는 소식을 받아 광주의 穿川峴 봉수로 전송하였다.³⁵⁾ 봉수제는 1895년까지 존속되었

34) 『經國大典』兵典

35) 『新增東國輿地勝覽』烽燧條; 國防軍史研究所 編, 1997, 『韓國의 烽燧制度』, 國防軍史研究所 曄

다.³⁶⁾

갑신정변 다음해인 1885년에는 한성과 제주포간 현대식 전신의 개통에 이어 한성과 의주를 잇는 西路電信線이 신설되었고 청국을 거쳐 유럽에 이르는 국제전신업무도 가동되었다. 3년이 지난 1888년 한성에서 공주, 전주, 대구를 거쳐 부산에 이르는 南路電信線이, 1891년에는 한성에서 춘천을 경유하여 원산에 이르는 北路電信線이 개통되었다. 1902년에는 한성과 인천간의 최초의 電話通信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통신설비는 아직 용인에까지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용인은 1903년에 개설된 수원電報司와 이듬해 개설된 진위電報司를 통해 정보통신을 집하였다.³⁷⁾

한 사회의 경제활동에서 생산, 분배, 소비는 가장 기초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특히 분배를 포함하는 교환체계는 생산자의 공급과 소비자의 수요를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³⁸⁾ 전근대적 정치체제를 근간으로 하던 조선시대에는 토지에 근거한 농업만을 장려하였고 이외의 다른 분야, 특히 상공업에 대해서는 억제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호란은 이러한 중세적인 정치·경제·사회 체제의 총체적인 재조정을 강요하였으며 17세기 이후 조선의 상업은 인구증가, 농업생산력의 증대, 상품경제의 성장, 유통망의 확충, 지역간 연계체제의 정비, 금속화폐의 유통이라는 시대적인 도움을 받으며 경제활동의 큰 축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조선 후기 실학자의 한사람인 李瀾도 장시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는 추세에 주목한 바 있다.³⁹⁾ 당시 본격화된 도시화의 추세도 상업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농촌에서 유리된 상당수의 인구가 대도시나 지방

조.

36) 近代의 通信手段의 등장이전, 특히 壬亂 와중에서 변경의 상황을 급보해야했던 烽燧의 기능이 마비되자 대안으로 擺撥制가 채택되었다. 驛의 交通·通信業務를 보조하던 擺撥은 민간의 정보전달과는 무관하게 행정상의 勅諭을 포함한 公文의 전달, 軍事情報의 上達 등을 전담하였다. 公文의 皮角에 文牒을 넣어 傳送하였다. 傳送시에는 2월에서 7월 사이 3急에 6개 驛, 2急에 5개 驛, 1急에 4개 驛을 하루만에 거치도록 규정하였고 8월에서 정월사이에는 1개 驛씩 줄여 운영하였다. 擺撥에는 騎撥과 步撥의 구분이 있었는데 전자의 경우 25리, 후자는 30리마다 1站을 두었다. 騎撥은 말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던 방식으로 각 站에는 撥長과 色吏 각 1명, 騎撥軍 5명, 말 5필이 비치되었다. 步撥站은 撥長 1명과 실제로 문서를 들고 달려서 전하는 軍丁 2명으로 편성되었다. 파발조직은 중요도에 따라 直撥과 間撥의 구별이 있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義州의 1050리 길에 배치된 41站으로 구성된 西撥, 서울에서 咸興의 2300리 길에 마련된 64站의 北撥, 서울에서 東萊까지의 920리 31站의 南撥이 있었다. 南撥은 서울을 출발해 廣州, 利川, 陰竹, 忠州, 延豊, 開慶, 咸昌, 尙州, 善山, 仁同, 漆谷, 大邱, 淸道, 密陽, 梁山을 거쳐 東萊에 이르는 通信路로서 亂時을 통과하지는 않았다(趙炳魯, 1997, “운수업의 발달”, 『한국사』 33, 『조선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259-60쪽; 『高麗史』 卷82 志36 兵2 站驛條; 南都永, 1981, “朝鮮時代 軍事通信組織의 發達”, 『韓國史論』 9, 108-126쪽 참조).

37) 遞信部, 1985, 『韓國電氣通信100年史(上)』, 大韓民國遞信部, 4-5, 181쪽.

38) Brian Berry, *Geography of Market Centers and Retail Distribu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7), 1.

39) 論鄉邑 墟市漸益 方數十里間 無日不場 (『旱湖集說』 人門編 生財 墟市條).

의 중소도회로 유입되어 노점상으로, 비농업 소비자로 유통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장은 소재지에 따라 京市와 鄕市로 나뉜다.⁴⁰⁾ 조선후기 도시에서는 市廛의 상권이 신흥사상층에 의해 잠식되었고, 지방에서는 場門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었다. 일부 대도시의 常設市場을 제외하면 장시는 대개 일정하게 開市日을 정해놓고 운영되던 定期市場이었다. 정기시장은 週市의 형태로 일주일에 한두 번 열리는 경우를 포함해 10일장 등 여러 형태가 있었으나 대체로 5일을 주기로 개시되는 1월6장이 보편적이었다. 대외무역이 활기를 되찾고 화폐유통이 활성화되면서 거래가 원활해졌고 여러 지역에서는 개시일의 체계적인 조정으로 장시가 일정 지역내에서 ‘實質的’인 상설시장으로 기능하게 된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었다.⁴¹⁾ 이처럼 상업에 대한 억압책과 말업관의 해소, 봉건적인 시전체제의 해체, 자유상인층의 대두, 근세적 상업자본의 축적 등으로 점철된 이 시기의 상업 활동은 왕도인 한양은 물론 각 지역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⁴²⁾ 지방에 개시되는 장문은 교통의 중심지 혹은 물화의 집산지에 별다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인과 구매자가 집합·교역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유지·발전되었다.

재래시장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生活圈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생활권은 대개 河川流域圈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용인은 분수계를 기준으로 몇 개의 생활권으로 나뉜다. 여기에는 炭川流域, 慶安川流域, 淸美川流域, 振威川流域, 烏山川流域 등 5 권역이 포함되며 따라서 전산업시대 용인지역의 이상적인 장시수는 최소 5基라 할 수 있다. 1770에 편찬된 『東國文獻備考』에 따르면 용인에는 邑內場, 金良場, 道村場의 세 장시가 있었으며 현재의 용인 동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당시 죽산의 排觀場이 있었다.⁴³⁾ 결과적으로 보면 현내장이 탄천유역, 김량장이 경안천유역, 도촌장이 진위천유역을, 배관장이 청미천유역을 분담하는 식으로 시장권이 형성되어 이상적인 모델에 가깝게 접근해있다. 오산천유역은 대읍인 수원에 가까워 수원이나 오산의 생활권에 편입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III-3).⁴⁴⁾

40) 朴元善, 1985, “韓國의 場市”, 『동방학지』46-48, 249쪽.

41) 개시일의 조정을 통한 상설시장화에 대한 주장은 다음 논문에 설득력있게 개진되고 있다(韓相權, 1981, “18세기말-19세기초의 場市發達에 대한 基礎研究”, 『韓國史論』7, 180-237쪽).

42) 近代社會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였던 商業資本의 形成·集積과 都賈商業資本의 生産部門에의 침투와 관련된 문제는 姜萬吉의 研究에서 자세히 분석되고 있다(『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高麗大學校出版部 (1973) 참조).

43) 『東國文獻備考』卷72 市糶考 鄕市條

44) 新葛이 속해있는 器興面은 현재에도 水原의 生活圈안에 들어있다 (權赫在, 1995, 『韓國地理』地方編, 法文社, 9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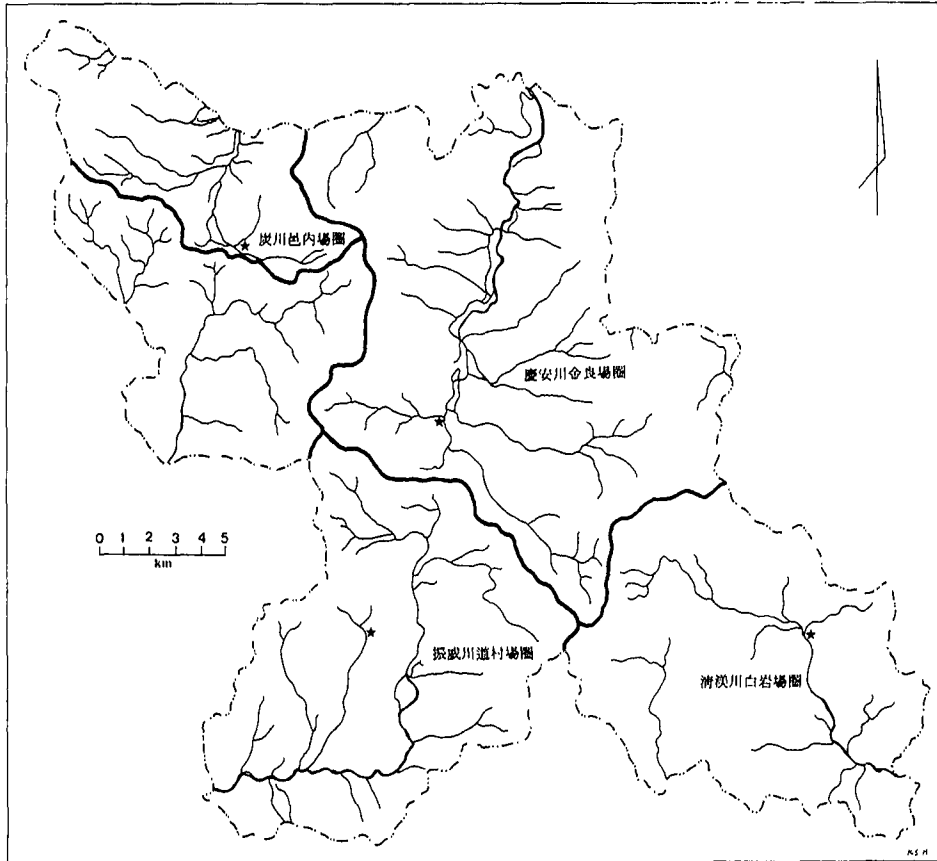


그림 III-3. 하천유역권에 비정한 용인의 시장권

그러나 용인의 장시는 지역내에 폐쇄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인근 군현의 장시와 지역의 시장권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역동적으로 발전해왔다. 市場圈은 행정범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지방촌락사회의 공동생활권이라 할 수 있다.⁴⁵⁾ 장시의 수와 위치는 시장권안에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자체적인 조정과정을 거쳐 변화를 거듭하였는데, 특히 한양 근교에 위치한 용인의 상업활동은 일차적으로 수위도시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며 성장해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양은 이미 17세기 후반부터 商業都市로 급성장하고 있었으며 이는 京都 자체는 물론 京畿 일원의 인구증가에 의해 힘입은 바 컸다.⁴⁶⁾ 한양의 상업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京江商人의 활약상으로 漢江, 龍山江, 西江, 麻布,

45) 崔在錫, 1975, 『韓國農村社會研究』, 一志社, 77쪽.

46) 龍仁은 15세기 이후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戶와 口의 규모에서 타 郡縣과 비교한 等級에서 지속적인 상향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人口統計와 等級의 變化趨勢는 다음 논문을 참조: 楊普景, 1994, "서울의 공간확대와 시민의 삶", 『서울학연구』 창간호, 48-75쪽.

望遠, 豆毛浦, 西水庫, 뜯섬 등지의 상인은 전국 시장권의 帶狀 中核을 형성하고 있었다.47) 용인 북부의 광주는 삼남과 영동의 갈림길에 위치하여 교역에 따른 이점이 많았다. 특히 松坡場은 한양내 특권 시전상인을 위협하는 亂塵과 中都兒의 집결지였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동족촌을 상당수 가지고 있는 용인의 경우 조세, 공물, 중앙기관에 대한 도조와 함께 한양에 기거하는 지주 몫의 미곡을 육로로 직송하였던 것인데, 아마도 이러한 물자 이동 패턴은 후대에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48)

용인은 또한 인근의 수원과 안성이라는 고차 상업중심지와 하나의 시장망 속에서 관계를 정립해가고 있었다. 이론적으로 시장권내에서 소비되고 남은 잉여물품은 고차중심지로 상향이동하여 인근 군현은 물론 원격지의 대장으로까지 공급되었고, 시장권내에서 초과되는 수요는 대장에서 하향이동하였기 때문이다.49) 용인 서부에 자리한 수원은 교내의 배후 거점도시로서 경기남부의 유통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다. 수원과 교내의 교류에서 중요한 것은 어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내륙의 전형적인 농촌지역과 해안지역은 전통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활발한 교역을 전개해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며 특히 소금은 遠距離 交易의 대표적인 물품이었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이 주요 소금산지로서 거론되며 여기서 산출된 소금은 수원의 성내·성외장을 거쳐 용인으로 유입되거나 행상에 의해 직접 운반되는 경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용인 인근의 대장 가운데 삼남에서 한양으로 통하는 교통요지에 입지한 安城場은 각종 물화가 집산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조선후기 실학자인 이증환도 “水原東爲陽城安城 居畿湖海峽之間 貨物委輸貢買走集 爲漢南都會”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들어 안성의 상황을 묘사한 바 있다. 안성천변에 입지한 안성은 서해의 해산물이 반입되어 내륙과 해안의 물자가 교류되는 거점으로 성장하였다. 거래되는 물품으로는 어염이외에도 유기를 비롯해 담뱃대, 갓, 한지, 도기, 싸리바구니, 목세공, 석공예품, 가죽신, 연초 등 다양하였으며 이들 물품은 한양을 포함해 인근의 수원, 아산, 진천, 용인, 여주 등지로 거래되었다.50)

1830년대까지 용인에는 읍치 관문앞의 縣內場, 동부의 金良場, 남부의 道村場이 지속되었다. 이들 세 장시는 모두 5일장으로 읍내장의 경우 초이틀, 김량장은 초닷새, 도촌장은 초하루에 開市되었다. 去來物品은 미곡을 비롯해 옷감, 어염, 과일, 그릇, 담배, 가죽 등이 있었다. 1864년의 기록인 김정호의 『大東地志』에도 장시와 개시일이 동일하게 나와있는

47) 京江을 중심으로한 朝鮮時代 漢陽의 商業發達에 관해서는 高東煥의 체계적인 연구가 있다 (高東煥, 1988, 『朝鮮後期서울商業發達史研究』, 지식산업사).

48) 稅穀의 運送루트에 관해서는 다음 論文이 참고가 된다: 崔完基, 1989, 『朝鮮後期船俗運業史研究』, 一潮閣.

49) 大場圈의 構造와 場市圈間의 流通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李憲昶, 1989, “舊韓末 忠清北道の 市場構造”, 『近代朝鮮의 經濟構造』, 174-226쪽.

50) 조영좌, 1987, 朝鮮時代 安城場에 관한 歷史地理的 考察,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점으로 미루어 그간 큰 변화는 없었던 듯하다.⁵¹⁾ 후에 용인 경내로 편입되는 죽산 북부에는 초하루에 개시하는 排甘(排觀, 白岩)場이 있었으며 이 곳에서는 쌀, 콩, 보리, 부명, 면화, 과일, 소 등이 거래되고 있었다(표 III-6). 배감장은 京釜街道에 입지하여 물화의 집산처로 성황을 누리고 있었다.⁵²⁾ 1891년의 邑誌에는 2·7일 장인 昆岩場이 존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1899년의 동일 자료에는 빠져있어 중간에 폐기된 듯하다. 시암장은 양지고삼면과의 접경에 위치하였다.⁵³⁾ 4·9일 주기로 개시되는 介川場은 양지의 유일한 장시였으나 독자적인 시장권을 형성할 정도의 규모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1830년대 이후의 각종 기록에서는 누락되고 만다. 이는 양지가 용인 김량장과 이천 오천장의 시장생활권으로 편입되어버린 사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양지의 강역이 高安·朴谷·蹄村의 越境地와 안성 깊숙이 파고 들어간 고삼면의 犬牙相入地 등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근 군현의 장시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거리비용상 효율적이었던 당시 실정을 반영한다.

용인, 양지, 죽산 등지에 개설·운영되던 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된 계층은 물론 물품판매를 통해 이윤을 남기는 상인층과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 모두가 되겠지만 시장개설을 허가한 지방관청으로는 場稅가 납부되었다. 용인의 경우 1794년 한해동안 총 216兩의 장세를 수납할 수 있었는데, 읍내장에서는 춘·하계 매달 초하루에 4냥8전, 추·동계에는 6냥을 收拵하였다. 김량장에서는 각각 6냥과 9냥, 도촌장에서는 각각 4냥2전과 6냥을 시장세가 납부되었다. 죽산 배관장의 세액은 매달 기준으로 8월부터 2월까지 15냥5전, 3월에서 7월 사이에는 7냥8전으로 책정되었다.⁵⁴⁾

표 III-6. 조선후기 용인 인근지역의 장시, 1830

시장	소재지	개시	거래품목
城內	廣州 官門 밖	2-7	미곡, 무명, 삼베, 배, 밤, 엇기름, 어염, 닭, 사기, 담배, 소
昆池厓	東50리	4-9	
松坡	西20리	5-10	
沙坪	西30리	2-7	
慶安	東30리	3-8	
牛川	北30리	4-9	
洛生	南10리	3-8	
州內	驪州 官門 앞	2-7	쌀, 콩, 보리, 무명, 삼베, 비단, 해조, 어염, 대추, 밤, 배, 감, 솔, 목기, 가죽, 사기, 연초, 평, 닭

51) 金正浩, 『大東地志』市場條

52) 吉田英三郎, 1912, 『朝鮮編誌』, 町田文林堂, 253쪽.

53) 『竹山府邑誌』場市條 (1891, 占915.12); 『竹山郡邑誌』場市條 (1899, 奎10720)

54) 『賦役實摺』(1794), 場稅錢條

億 億	西20리(吉川面)	1-6	
曲 水	北30리(大松面)	4-9	
新恩川	北50리(介軍山面)	5-10	
宮 里	西30리(金沙面)	3-8	
府 內	利川	2-7	미곡, 무명, 삼베, 어염, 과일, 목기, 옹기, 소
郡 梁	南20리(月面)	5-10	
板 橋	北10리(新面)	3-8	
縣 內	龍仁 官門 앞	2-7	미곡, 무명, 삼베, 어염, 대추, 밤, 배, 감, 유기, 옹기, 사기, 목기, 담배, 소
金 良	東30리(水餘面)	5-10	
道 村	南50리(道村面)	1-6	
介 川	陽智 東10리	4-9	미곡, 무명, 삼베, 어염, 대추, 밤, 담배
府 內	竹山 官門里	4-9	쌀, 콩, 보리, 무명, 면화, 과일, 소
排 甘	竹山 北30리(近三面)	1-6	
二 實	西30리(西南面)	3-8	
注 川	東20리(南一面)	3-8	
長湖院	陰竹 南10리(南面)	4-9	미곡, 무명, 어염, 대추, 밤, 배, 감, 솔, 유기, 담배, 소
新 場	振威 西10리(一炭面)	1-6	미곡, 무명, 닭, 자리, 담배
郡 內	安城 南1리	2-7	쌀, 콩, 밀, 삼베, 무명, 어염, 대추, 밤, 배, 감, 유기, 철물, 사기, 목기, 삿갓, 초롱이, 가족신, 생마, 자리, 멧돌, 다듬이, 절구 선반, 소
縣 內	陽城	4-9	
素 砂	南30리(九龍面)	5-10	
府 內	水原 北門 밖	2-7	미곡, 무명, 채소, 과일, 어염, 해조, 담배, 소
	南門 밖	4-9	
鳥 山	南30리	1-6	
府 內	南陽 官門 앞	2-7	쌀, 콩, 보리, 무명, 어염, 대추, 밤, 감, 연초
春 橋	東10리(楮八面)	1-6	
新 基	西20리(水山面)	4-9	
軍 浦	果川 南20리(下西面)	1-6	미곡, 무명, 삼베, 어염, 과일, 철물, 담배, 소
安 陽	西25리(下西面)	3-8	

자료 『林園十六志』 倪圭志

개시일을 통해 용인현과 인근 군현의 시장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볼 때, 용인은 도촌장(1-6일), 수원 오산장(1-6일), 용인 현내장(2-7일), 수원 북문장(2-7), 광주 낙생장(3-8일), 경안장(3-8일), 수원 남문장(4-9일), 용인 김량장(5-10) 등을 중심으로 하는 형식적인 常設市場圈을 형성하고 있었다. 용인 남서부의 경우에도 죽산의 배감장(1-6일)을 시발로 안성장(2-7일), 이천장(2-7일), 죽산 주천장(3-8일), 죽산장(4-9일), 음죽 장호원장(4-9일), 용인 김량장(5-10일), 이천 군량장(5-10일) 등을 포함하는 '개시일상의 상설시장권'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생활권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III-4). 시장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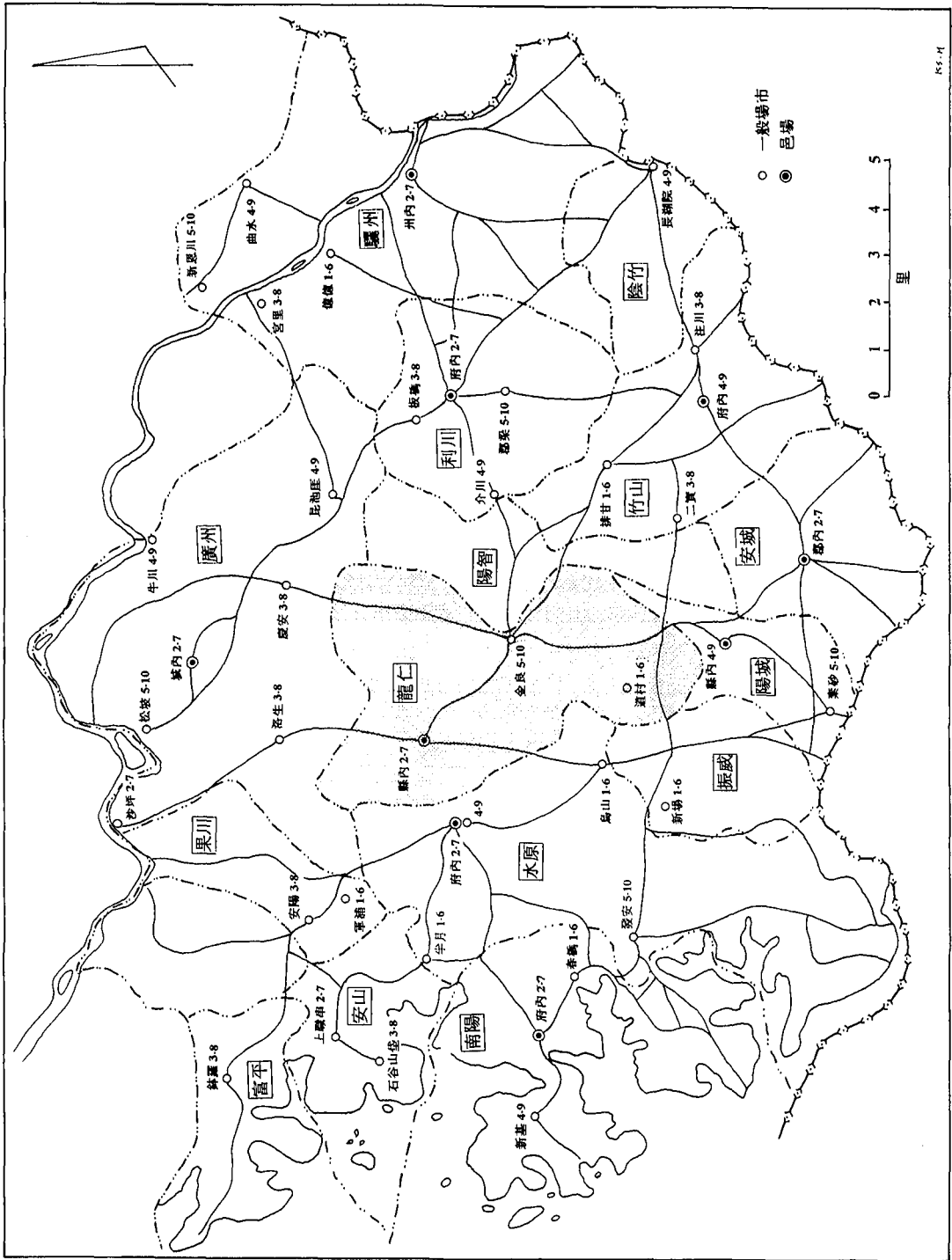


그림 Ⅲ-4. 용인 인근의 제례시장 분포, 1833 : 축적은 일본리로 표시되어있는데 1리는 환산하면 약 4km에 해당한다.

및 증설이 요구되던 상황아래서 시장상호간 경쟁에 따른 차별적인 성장 혹은 일부 시장의 소멸은 이렇듯 개시일의 미묘한 조정에 따라 극복되고 있었다.

상행위의 주체로는 客主, 旅閣, 居間, 襍負商, 賁人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향촌사회에서는 坐商보다는 보부상의 활약상이 돋보였다. 용인을 출입하는 대다수의 상인은 인근의 장시를 개시일에 맞추어 순회하던 보부상이었다. 陸商인 보부상은 襍商과 負商을 포함하는 行商을 일컫는다. 보상은 직물, 지물, 귀금속, 인삼, 피혁, 필묵, 관구, 잡화 등의 물화를 보자기에 싸서 짊어지고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일정한 권역의 시장을 돌며 행상하였기 때문에 붓짐장수, 보짐장사, 장돌뱅이, 장돌림 등의 이름으로 불리었고 부상은 소금, 도기, 칠기, 염건어, 짚신 등을 지게에 지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행상으로 등짐장수, 등금장사, 들금장수, 돌짐장수 등으로 불리었다. 보부상은 가가호호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행위를 하기도 했지만 대개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장시를 주요 활동무대로 하였다.⁵⁵⁾ 유사시에는 정탐임무도 겸하였던 사례가 있다. 草賊의 약탈과 위협으로부터 자체방어를 위해 일정한 무리를 이루어 활동하였던 보부상은 엄격한 규율아래 움직인 상인길드의 성격을 지닌 단체였으며 상품유통의 촉진은 물론 정보전달이라는 중요한 업무도 수행하였다.⁵⁶⁾

客商主人이라 일컬어지는 客主는 매매를 斡旋하고 仲介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며 유통과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객주는 장터에 좌정하였는데 주요 업무는 위탁판매였으며 그밖에도 旅宿, 金融, 都賣, 倉庫, 輸送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겸하였다. 객주의 유형은 物商客主, 旅閣, 灣商客主, 襍商客主, 步行客主, 換錢客主, 무시로客主 등 다양하였다.⁵⁷⁾ 1905년의 한 기록에 따르면 죽산의 백암장에는 3인의 객주가 영업하고 있었는데 馬房을 갖추고 있었고 미곡의 위탁판매에 대한 대가로 3분의 수수료를 수취하였다.⁵⁸⁾

장시는 유기체적인 성격을 띤다. 정치·사회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장시의 존폐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보다 직접적으로는 시장경제원리, 장시의 입지, 교통 등의 요인과 결부되어 성장 또는 쇠퇴하거나 개시일이 조정되는 역동성을 띤다. 장시는 시장권의 형성, 연계관계의 구축, 고립적 기능, 기존 시장의 분리 등의 원인으로 신설되거나 흡수, 소멸, 통합 등의 형태로 폐지되는 예가 빈번하였다.⁵⁹⁾ 1905년 당시의 장시상황을 보면

55) 李勳燮·黃善民, 1990, 『負襍商研究』, 保景文化社, 17-22쪽.

56) 文定昌, 1941, 『朝鮮의 市場』, 日本評論社, 42-3쪽.

57) 朴元善, 1985, “韓國의 場市”, 『동방학지』46-48, 273쪽.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朴元善의 1968년 延世大學校出版部에선 간행한 『客主』58-68쪽을 참조. 무시로 객주는 술, 바가지, 비, 삼태기 등 일용품을 다루는 客主를 칭한다. 객주는 또한 旅閣으로 불리는데 資本의 規模가 클 경우 旅閣, 그렇지 않을 경우 客主로 명명된다. 地域에 따라서는 구분을 두지않고 客主 또는 旅閣으로 통칭되는데, 대개 旅閣은 주로 漢江沿岸 각 浦에 큰 倉庫를 두고 자급력을 바탕으로 곡물, 소금, 어류, 해산물 등을 전업적으로 취급하는 大商人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文定昌, 1941, 『朝鮮의 市場』, 日本評論社, 47-9쪽).

58) 農商務省, 1905,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京畿·忠清·江原道), 669-70쪽.

용인에는 읍내장(2-7일)과 김량장(5-10일)이 존속된 반면 남부의 도촌장이 폐기되었고 이를 대신해 북서부에 위치한 풍덕천장(1-6일)이 새로 개설되었다. 죽산에는 백암장(1-6일)이 유지되었다. 백암장에서 취급되는 주요 품목으로는 콩, 조, 옥수수, 연초, 면화 등 곡물과 상품작물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연초와 면화는 한양으로, 곡물은 인근의 대도시인 수원으로 많은 양이 판매되었다.⁶⁰⁾

경제력이 일시에 증대되는 ‘장날’에는 도적의 출몰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귀화인(向化人)의 횡포도 이에 못지 않았다. 용인에는 彌助峯을 중심으로 귀화인이 많이 거주했으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시적이거나 뿌뿌이 흩어졌다.⁶¹⁾ 이들의 존재가 다시 부각된 것은 광해군 1년(1609)의 보고를 통해서인데,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는 향화인의 횡포에 대응하여 備邊司가 移住策을 건의한 사건이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그들의 규모는 10 여 호에 남녀 합계 80여명에 달했다. 당시 이들 귀화인이 용인에 들어와 정착한 것이 이미 7-8년 째 되었다고 하니 임란으로 흩어졌던 무리가 전란후에 다시 군집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의 소지는 이들이 장터근처에 거주하면서 행인과 상인을 상대로 약탈을 자행했던 데 있었다.⁶²⁾

상업경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관영 숙박업소인 院의 쇠퇴인데 원은 임란이후 급격히 쇠퇴하게 된다. 공무수행자의 횡포, 취약한 재정구조, 원주인에 대한 신분적인 차별 등의 제반 요인이 원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직접적으로는 상품화폐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商旅의 빈번한 이동과 함께 酒幕이 번성했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간단한 숙박설비를 갖추고 요식서비스를 제공하던 주막은 店幕 또는 흔히 ‘술집’으로 불리며 대개 가로변, 읍내, 선착장, 시장소재지, 산간벽지의 고갯마루 등지에 분포하였다. 주점은 교통이 불편하였던 시절에 서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였으며 그만큼 영업도 번성하였다.

중세 유럽의 경우에도 여행자의 편의를 위한 설비가 곳곳에 입지하고 있었는데, 이들 여행자는 巡禮者, 聖職者, 商人, 軍人, 巡迴判事들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修道院, 城砦, 高級 호스텔 등지에서 숙박하였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지역간 교역이 활성화되자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던 수도원을 대신하여 민영의 숙박설비가 급속히 증가되었다.⁶³⁾ 민영 숙박업소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지표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들 公共場所(public space)는 공동체 생활의 중심으로 음주, 오락, 여흥의 장소인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지

59) 韓相權, 1981, “18세기말-19세기초의 場市發達에 대한 基礎研究”, 『韓國史論』7, 180-237 참조.

60) 農商務省, 1905,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京畿·忠清·江原道), 669-70쪽.

61) 『宣祖實錄』36년 4월 16일 壬寅

62) 『光海君日記』원년 8월 25일 癸酉

63) Harold D. Eberlein, *The English Immigrant Past and Present: A review of its history and social life* (Philadelphia and London, J.B. Lippincott, 1926), 10, 12, 72, 75.

리적 공간이었으며 이 곳으로는 각종 정보가 수렴하여 각지로 전파되는 결절지로도 중요하였다.⁶⁴⁾

영조년간에 편찬된 읍지를 보면 용인에는 이미 상당수의 점막이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읍지의 邑內店을 포함해 下馬碑店, 行院店, 險川店, 直洞店, 新店, 金良店, 泉谷店, 邠陽店, 長西里店, 三巨里店, 龍池店幕 등 명칭과 위치를 달리하는 여러 점막을 확인할 수 있다. 양지에는 고안면의 鎭村店과 주서면의 海谷店이 있었다(표 III-7). 공교롭게도 이후의 기록에는 점막에 대한 언급이 거의 되어있지 않은데, 이는 주막의 쇠퇴보다는 오히려 보편화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봄이 더 타당하다.

표 III-7. 용인·양지현의 점막분포

점 막	소 속	위 치	전 거
邑內店	용 인	縣內 邑內面	龍仁縣邑誌, 영조년간
下馬碑店		縣東 5리 邑內面	龍仁縣邑誌, 영조년간
行院店		縣西 5리 西邊面	龍仁縣邑誌, 영조년간
險川店		縣西 15리 水枝面	龍仁縣邑誌, 영조년간
直洞店		縣東 20리 水餘面	龍仁縣邑誌, 영조년간
新 店		縣東 25리 水餘面	龍仁縣邑誌, 영조년간
金良店		縣東 30리 水餘面	龍仁縣邑誌, 영조년간
泉谷店		縣南 40리 上東村面	龍仁縣邑誌, 영조년간
邠陽店		縣南 47리 下東村面	龍仁縣邑誌, 영조년간
長西里店		縣南 60리 下東村面	龍仁縣邑誌, 영조년간
三巨里店		縣南 50리 西村面	龍仁縣邑誌, 영조년간
龍池店幕		陽城縣路邊	龍仁縣地圖, 1871
鎭村店	양 지	高安面	陽智縣邑誌, 1842년경
海谷店		朱西面	陽智縣邑誌, 1842년경

도회지의 주막이 요식업에 전문화한 반면 농촌의 주막은 숙박업을 겸하였다. 제공되는 음식으로는 식사와 함께 막걸리가 주를 이루었으며 곳에 따라서는 약주와 소주가 제공되기도 했다. 숙박객에게는 별도의 이부자리를 마련해주는 대신 간단한 목침만을 주되 숙박료는 따로 계산하지 않고 식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관례였다. 주막은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비상시에는 요역의 대가로 공문서의 전달을 일시 수행하기도 하였다.⁶⁵⁾ 사적인 요역의 요청과 관련해 邸吏나 고을의 土豪 또는 冊客이 수시로 店首에 대해 傳任(路卜)을 요구해와 큰 폐단이 된 일이 있어 茶山도 旅店에 대한 횡포를 근절해야한다고

64) Peter Clark, *The English Alehouse: A social history 1200-1830* (London: Longman, 1983), 1, 4.

65) 朝鮮總督府, 1929, 『朝鮮の市場經濟』, 279-80쪽.

역설한 바 있다.⁶⁶⁾

지방에 소재한 소규모 주막은 장날 시장내에 가건물 형식으로 세워지곤 했는데, 이들 점막은 촌민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서 사회적으로 중요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정보유통과 관련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⁶⁷⁾ 주막과 함께 여숙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으로 步行客主가 있었으나 객실 등의 설비와 대우가 주막에 비해 고급스러웠던 까닭에 儒生이나 兩班들이 주로 투숙하였다.⁶⁸⁾

2. 신작로건설에 따른 도로망패턴의 변화와 장시의 운영

1904년 乙巳條約의 체결과 동시에 일제는 도로개수를 위한 사전점검에 착수하였다. 주요 현안은 일본과 한반도 내륙에 위치한 수탈 대상지역을 중계할 항만 중심의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대륙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배후에 깔고있었다. 統監府는 1906년 內部 산하에 治道局을 신설하고 1907년 제1기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사업을 계기로 소위 신작로라 불리는 잘 닦여진 도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듬해 시작된 제2기 사업에는 수원에서 김량장, 양지, 이천, 여주를 지나는 노선이 포함되어 있었다.⁶⁹⁾ 이 노선은이미 조선후기 양지현의 稅穀上納시 주로 이용되던 노선이었다. 양지의 경우 稅穀을 육로나 관선을 통해 한양까지 운반하는 대신 사선을 임대하여 여주의 利浦를 출발해 한강을 따라 경도에 도착하는 경로를 취했던 것이다. 신작로는 이 노선의 일부를 보수·개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⁷⁰⁾

庚戌國恥이후 일제의 도로사업은 식민지약탈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진행되었다. 朝鮮總督府는 1911년 4월 道路規則을 공포하여 도로의 등급을 1-3등 및 등외도로의 4종으로 규정하고 道路修築標準을 설정하였다. 1등도로는 경성에서 도청소재지나 주요 군사령부, 항구, 철도역을 잇는 도로, 2등도로는 도청소재지간 또는 도청소재지에서 관할 부청과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3등도로는 인접한 부청 또는 군청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지칭하며 등외도로는 이에 속하지 않는 여러 형태의 도로를 포함하였다(표 III-8).

66) 『牧民心書』工典 道路條

67) Harold D. Eberlein, *The English Inn Past and Present* (Philadelphia and London, J.B. Lippincott, 1926), 227.

68) 朴元善, 1985, “韓國의 場市”, 『동방학지』46-48, 274쪽. 西洋의 旅館과 酒幕은 規模와 社會的인 地位에 따라 세 階層으로 구별된다. 上流層이 포도주, 맥주, 고급음식을 즐기던 시설은 inn이라 하였고,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대규모 宿泊設備가 갖추어지지 않은 형태의 것을 tavern, 下層民이 기본적인 음식과 주류를 즐기고 숙박할 수 있던 설비를 alehouse라고 구분하였다 (Peter Clark, *The English Alehouse: A social history 1200-1830* (London: Longman, 1983), 5).

69) 韓國道路公社, 1981, 『韓國道路史』, 181-2쪽.

70) 崔完基, 1989, 『朝鮮後其殖産運業史研究』, 一潮閣, 187쪽.

표 III-8. 일제시대 신작로의 유형 및 규모에 관한 규정

도로등급	노폭	유형
1等道路	4칸	경성에서 도청소재지, 사단사령부, 여단사령부, 요새사령부, 진수부, 주요항구 및 철도역에 이르는 도로
		전략상 중요한 도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로
2等道路	3칸	인접 도청소재지를 잇는 도로
		도청소재지에서 관할 부청과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도청소재지에서 관할 주요 항진과 철도역에 이르는 도로
		도내 주요 항진, 철도역, 도로간을 잇는 도로
3等道路	2칸	인접한 도내의 주요 항진, 철도역, 도로간을 잇는 도로
		인접한 부청 또는 군청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부청, 군청, 도청소재지에서 부군도내 주요 지점, 항진, 철도역을 잇는 도로
		부군도내 주요 지점, 항진, 철도역, 도로간을 잇는 도로
等外道路		인접 부군도내 주요 지점, 항진, 철도역, 도로간을 잇는 도로
		기타

자료 朝鮮總督府, 1928, 『朝鮮土木事業誌』, 76쪽.

1등도로의 경우 노폭을 4칸(약 7.3m), 2등도로는 3칸(약 5.5m), 3등도로는 2칸(약 3.6m)으로 규정하였다. 등외도로의 노폭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 도로의 관리책임은 1·2 등도로의 경우 조선총독, 3등도로는 도지사, 등외도로는 부윤, 군수 또는 도사의 소관으로 하였다. 도로건설시 노폭은 지형상의 제약으로 규정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1등도로는 3칸으로 2등도로는 2칸반으로 수정하여 건설토록 하였다. 노면의 기울기 역시 도로교통상 중요한 요소의 하나였는데, 1등도로에서 3등도로까지 각각 1/30, 1/25, 1/20의 구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지형상의 이유를 들어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각각 1/15, 1/15, 1/10으로 기울기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1·2등도로에서 1/20, 3등도로에서 1/15 이상의 가파른 기울기를 요하는 지점에 한하여 도로연장 10칸 마다 1/100 이하의 완만한 구간을 10칸이상 배려하도록 안전조치가 강구되기도 하였다. 도하지점에 교량을 설치할 경우 교폭은 노폭에 준하도록 하였고 1·2등도로에서 평당 기준으로 400관, 3등도로는 300관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권고하였다.⁷¹⁾

기록에 따르면 과거 용인 읍치를 지나던 京釜街道는 우마차가 통할 수 있는 규모의 ‘大路’였으나 일찍이 수원, 양성, 광주로 통하는 도로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巢鶴洞 역시 길이 좁아 수레의 통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지에서 수원까지 우마차를 이용해

71) 朝鮮總督府, 1928, 『朝鮮土木事業誌』, 76-8쪽.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된 것은 신작로건설 이후의 일로 생각되며 김량장의 발전도 이때부터 본격화된 듯하다.⁷²⁾ 신작로 건설사업은 기존의 도로망 패턴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용인의 간선은 수원과 이천을 잇는 노선으로 전환되었으며 수 백년 동안 남북을 축으로 형성되어온 교통패턴이 동서로 재조정됨으로써 지역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앞서 양지의 사례를 들어 밝힌 대로 용인의 신작로는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새로운 노선의 개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기존 주요 도로의 노폭을 확장하고 굴곡을 직선으로 수정하여 효율을 높이는 한편 거리 양편에 街路樹를 심어 단장하는 수준이었는데, 특히 여정포에서 양지까지 이어지는 과거의 金良人路 대부분 구간과 이천 읍치로 이어지는 구간은 과거의 노선 그대로이다.

구체적으로 1919년 당시 용인의 도로망을 보면 수원을 출발하여 신갈, 양지, 이천, 여주를 지나 멀리 원주까지 이어지는 동서간 도로가 용인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으며, 과거 죽산에서 올라와 양지관아를 거쳐 김량장, 용인관아를 지나던 노선은 이제 직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도로밀도의 증가와 함께 소로이상의 주요 도로의 정비와 확장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량장이 군내 최대 결절점으로서의 입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한가지 달라진 점은 군청이 1911년 신작로변의 김량장리로 이전되었고 1914년 行政區域改編을 계기로 양지와 죽산의 일부 영역이 용인으로 편입되면서 이 곳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19세기 말엽까지 용인현의 읍치였던 언남리는 舊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驛興驛의 교통기능이 마비된 것도 이와 비슷한 시기인데 읍치와 구역을 대신해 이제는 김량장과 신갈이 신흥 행정·교통중심지로 급부상하였다. 간선도로와 주요 직선은 군청과 면소재지 또는 면소재지간을 연결하는 동맥이 되었다(그림 III-5).

흥미롭게도 장시는 구 간선도로를 따라 입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일상생활은 여전히 신작로 등장 이전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영위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인근의 장시를 돌아보거나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불일이 있을 때 우마차나 도입 단계에 있던 승합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지름길을 이용해 도보여행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험준한 산길은 오랫동안 이용해온 고개를 넘어 소통하였다. 용인내 주요 고개로는 古分峴, 馬鞍峴, 柳峙, 後峴, 大峙, 無等峙, 伊峴, 晚峴, 鞍峴, 石峴, 冠子峴, 栢峴, 壽命峴, 博石峴, 彌叻峴, 鶴峴, 王峴, 水踰峴, 葛峴, 定水峴, 馬峙, 大垈峴, 佐贊峴, 御隱峴, 深浮峴, 金峴, 石谷峴, 傲峴, 安魚峴, 廉峙, 曲屯峴, 龍谷峴, 於峴, 入夕峙, 栗峴 등 명칭과 입지에서 다양하였다(사진 III-5).

신작로의 건설로 용인에서 수원까지 우마차의 통행이 가능해졌고 수송시간도 크게 단축되어 경기 남부의 대도회인 수원으로 땀감 등 부피가 큰 물자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

72) 吉田英三郎, 1912, 『朝蘆舊誌』, 町田文林堂, 243-4, 2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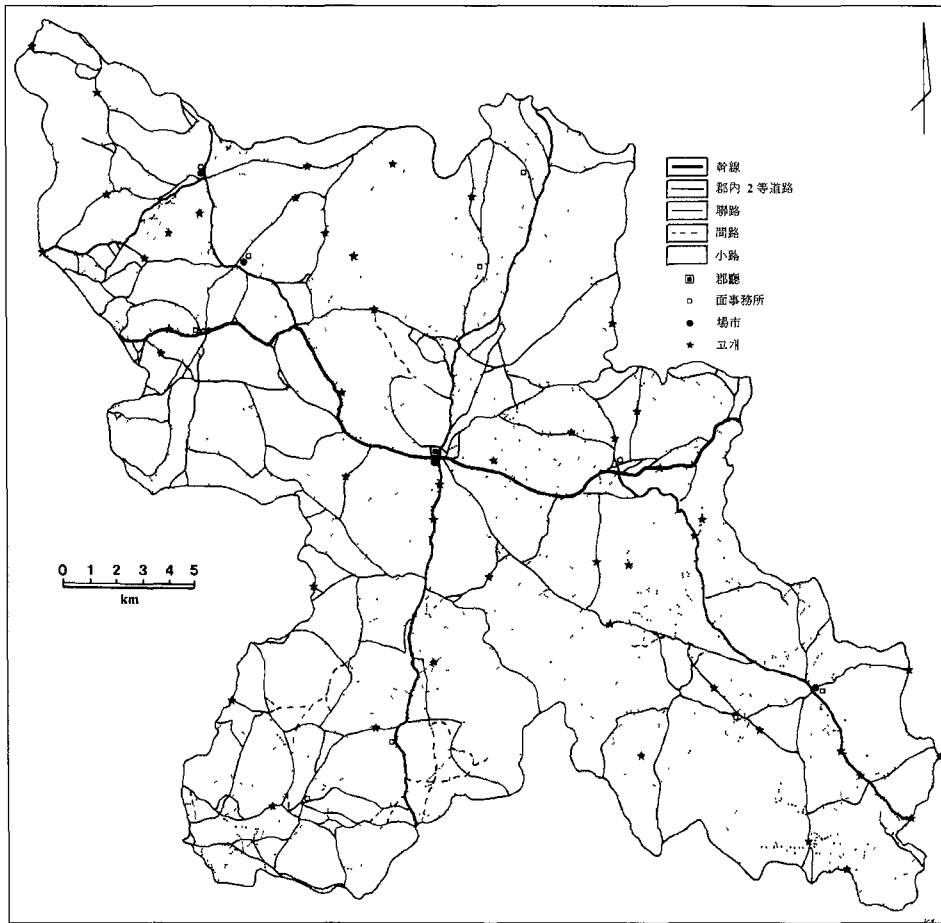


그림 Ⅲ-5. 용인의 도로망, 1919

다. 더불어 승합차와 버스의 도입으로 지역내 교통상황은 크게 개선되었다. 1929년 당시 용인과 인근 지역을 잇는 버스의 운행로선을 보면 수원과 여주를 잇는 총 17.12 리 구간을 3시간 50분 남짓 걸려 하루에 한번 왕복하는 것을 포함해, 김량장과 죽산간 2시간 20분에 걸치는 노선, 오산과 김량장을 연결하는 1일 2회 운행의 노선이 있었다. 오산과 김량장간 왕복시간은 1시간 30분 가량이었다.⁷³⁾

교통수단과 교통망의 체계화는 통신의 정비를 동반하였다. 1908년에는 共電式電話施設이 도입되었고 1929년에는 京城放送局이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庚戌年 이후의 통신망은 警備電話網의 확충이라는 틀 안에서 계획·시행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륙침략을 공고히 한다는 취지에 부응하는 시책이었다. 지방의 우편·전신·전화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朝鮮總督府는 1910년 總督府通信官署官制의 시행을 계기로 地方分掌機構

73) 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86, 『水原市史』, 1265쪽.



사진 III-5. 좌찬고개: 좌전고개로도 알려진 이 嶺隘는 양지에서 죽산을 지나는 嶺南路상에 위치하며 근대이전 병란시에는 주요한 방어선의 일부였다. 사진은 양지에서 죽산쪽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경관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고갯마루'란 상점간판이 인상적이다. 중앙의 양지로 향하는 古도로 우측의 산허리를 따라 조성한 新도로에는 백암을 출발해 양지와 용인을 거쳐 수원에 도달하는 버스가 달리고 있다.

를 정비하게되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의 우편업무는 경성우편국에서 관할하게되었다.⁷⁴⁾ 용인의 우편업무와 통신서비스권역은 각각 우체국단위로 구분되는데, 1909년 陽智郵便取扱所의 경우 보통우편, 소포, 환전, 저축 및 국고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양지군 일원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었다. 용인군에는 龍仁郵便所가 있었으며 보통우편을 주로 취급하였고 우편서비스는 용인군에 한정되고 있었다. 죽산 역시 우체소를 기점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고금출납에 관한 업무는 陽智郵便取扱所에서 관장하고 있었는데 대상지역은 양지군, 용인군, 이천군을 포함하고 있었다. 죽산군의 업무는 京城郵便局安城出張所를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⁷⁵⁾

교통로 및 통신망의 확충과 개선으로 지역간 교역도 활성화되었다. 도로는 장시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였다. 이 시기 지역의 중심지인 읍내에는 대개의 경우 장이 하나 정도 있었으며 일반 촌락중심지 가운데 교통요지나 물화의 집산지 근처에도 시장이 특별한 설

74) 遞信部, 1985, 『韓國電氣通信100年史(上)』, 大韓民國遞信部, 6, 17, 284쪽.

75) 統監府通信管理局, 1909, 『統監府通信事業第一回報告』, 68, 72, 123쪽.

비 없이 자연적으로 설립되어 상인과 구매자가 운집한 가운데 물자교환을 중계하는 공공 장소로 기능하고 있었다. 보통 3-4리 정도의 하루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지역적인 시장망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농촌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개시일은 대체로 5일장으로 통일되는 추세에 있었다. 향시를 출입하던 상고에게는 무세원칙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칙 뿐으로 실제로는 軍門, 宮家, 軍營, 地方官廳에서 임의적으로 수납하는 市場稅의 폐단이 컸다. 조선시대 용인의 시장세수입액은 앞서 밝힌 바와 같으며, 이후 광무 11년에 마련된 地方稅規則施行細則에 따라 시장을 군수의 관할하에 두었으며 군수는 市場稅徵收員을 선임하여 현장징수를 원칙으로 시행하였다. 시장세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다기보다는 대개 賣買稅의 형태로 부과되었으며 대개는 매상의 1/100 정도 수준에서 징수되었다. 대정 3년(1914)의 總督府令에 따라 시장의 설치와 변경은 도정 책임자가 관할하도록 조정되었다.⁷⁶⁾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않지만 구한말 용인의 장시도 百一稅의 원칙에 따라 시장세가 부과·징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시대에도 시장의 종류는 다양하였다. 대도시인 경성의 경우 상설 상점인 市塵, 市肆, 塵房, 塵舖 등이 있었고, 전국적으로는 魚市場, 穀物市場, 牛市場, 在來市場, 鄉市, 邑內市, 城內市, 城外市, 府內市, 藥令市, 柴炭市 등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존립하였다. 위치에 따라 西門市, 東門市, 南門市, 上市, 下市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경영형태로는 公設市場과 私設市場으로 나뉘기도 한다.⁷⁷⁾ 1914년 市場規則의 제정으로 시장이 세 형태로 구분되기에 이른다. 제1호시장은 재래시장을 의미하며, 제2호시장은 시가지의 공설시장, 제3호시장은 경매방식에 따라 운영되는 어류·채소시장 및 중앙 도매시장, 제4호시장은 곡물유가증권현물시장을 지칭하게 되었다.⁷⁸⁾

1909년 당시 용인에는 매월 5일을 시작으로 개시되던 김량장과 1일부터 열리는 풍덕천장이 제1호시장으로 상업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들 장으로는 쌀, 콩, 연초, 명태, 면포, 면사, 석유, 성냥, 소가죽, 계란, 신탄 등이 집산되었다. 이전의 시장상황과 비교할 때, 용인 남서부의 물품교역을 돕던 도촌장과 읍내장이 폐기되고 북서부에 풍덕천장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변화라면 변화라 할 수 있겠는데, 폐기된 두 장시는 인근의 대장인 안성장, 오산장, 분수계너머의 김량장사이에 놓여 그 활동범위가 위축되었고 교통로 및 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원거리 이동이 수월해져 그 입지가 한층 약화된 것이 폐기의 주된 이유가 된 듯하다. 죽산의 백암장은 1일부터 개시되며 집산품으로는 쌀, 콩, 좁쌀, 연초, 소, 손수건, 백목, 비단, 실, 삼베, 종이, 철기, 못, 북어, 조기, 미역, 문어, 전복, 가죽, 신발, 짚신, 나막신, 염료, 유기, 토기, 삿갓, 망건 등이 있었으며 이들 물산은 광주, 수원, 용인, 이

76) 文定昌, 1941, 『朝鮮の市場』, 日本評論社, 53-5, 66쪽.

77) 朝鮮總督府, 1929, 『朝鮮の市場經濟』, 3-4쪽.

78) 朝鮮總督府, 1929, 『朝鮮の市場經濟』, 5쪽.

천, 음죽, 충주, 음성, 안성 등 여러 군에서 유입되었다.79)

1913년과 1914년 사이에 집계된 사항을 보면 용인 최대의 시장은 거래액 90,000원 상당의 백암장이었으며 김량장은 이보다는 적지만 70,000원을 웃도는 규모의 장시였다. 풍덕천장은 소규모로 운영된 장시로 거래액이 5,000원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었으며 거래 품목은 쌀, 보리, 콩, 면포, 염건어 등을 위주로 하였다. 개시일은 1909년과 차이가 없었으며 한가지 달라진 것은 백암장이 1914년 행정구역조정과 함께 용인군으로 편입된 점으로 용인의 상업경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표 III-9). 1회 거래액의 규모를 비교해볼 때 상위의 장시는 장호원장, 백암장, 오산장을 제외하면 모두 읍내장으로 이들 장시는 모두 주요 교통로의 결절점에 입지한다는 공통점을 갖고있다. 개시일상으로 김량장(5-10일)은 용인 자체는 물론 인근 군현 장시의 공백을 채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III-6). 서구의 경우 시장의 계층은 hamlet, village, town, small city, regional city, regional metropolis, national metropolis 의 순으로 정해지는데, 이 시기 용인의 장시는 아마도 town 내지 small city 정도의 지역적인 단위를 배경에서 성립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원과 안성은 거래측면에서 regional city나 regional metropolis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80)

표 III-9. 경기남부 용인 인근의 재래시장 일람, 1914

시장명	소재지	개시	거래물품	거래액
京 安	廣州郡 廣州面 京安里	3-8	소, 쌀, 면포, 삼베, 명태	20,305円
老 谷	都天面 老谷里	3-8	쌀, 보리, 면포, 도기, 어염	4,925
昆池岩	實村面 昆池岩里	3-8	쌀, 보리, 면포, 명태, 잡화	9,216
松 坡	中堡面 松坡里	5-10	소, 쌀, 우피, 면포, 명태	128,340
山 城	中部面 山里	2-7	소, 면포, 보리, 마포, 짚신	1,013
倉 隅	東部面 倉隅里	2-7	쌀, 보리, 면포, 콩, 과일	426
牛 川	南終面 牛川里	4-9	소, 쌀, 면포, 명태, 해조	36,307
邑 內	驪州郡 州內面 弘門里	5-10	쌀, 소, 면포, 명태, 염건어	84,340
梨 浦	金沙面 梨浦里	1-6	쌀, 면포, 마포, 명태, 신탄	21,815
利 川	利川郡 邑內面 官庫里	2-7	쌀, 어염, 명태, 견포	123,450
午 川	麻長面 午川里	4-9	쌀, 어염, 명태, 견포, 잡화	5,986
長湖院	漢溝面 長湖院里	4-9	소, 쌀, 비단, 명태, 염건어	151,820

79) 度支部司稅局, 1909, 『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查書』京畿編, 20-2쪽.

80) 小賣業의 規模에 따른 市場의 階層에 대해서는 Brian Berry의 *Geography of Market Centers and Retail Distribu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7)과 이 분야의 고전인 Walter Christaller의 *The Central Places of Southern German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6)가 참고가 된다.

珠 珀	戶法面 珠珀里	3-8	쌀, 엽건어, 명태, 비단, 해조	1,942
加 洞	暮加面 陳加里	5-10	쌀, 명태, 엽건어, 비단, 해조	538
金良場	龍仁郡 水餘面 金良場里	5-10	쌀, 소, 콩, 보리, 면포	70,574
白 岩	外四面 白岩里	1-6	쌀, 소, 콩, 면포, 신탄	90,000
豐德川	水枝面 豐德川里	1-6	쌀, 콩, 면포, 엽건어, 보리	5,160
安 城	安城郡 邑內面 場基里	2-7	소, 쌀, 보리, 면포, 명태	217,141
注 川	一竹面 注川里	3-8	쌀, 보리, 마포, 어염, 명태	4,233
竹 山	二竹面 竹山里	5-10	쌀, 어염, 명태, 견포, 잡화	760
西井里	振威郡 松炭面 西井里	2-7	쌀, 콩, 소, 잡화	15,106
安 仲	梧城面 安仲里	1-6	쌀, 콩, 소, 잡화	8,800
城 內	水原郡 水原邑 北水里	9	소, 쌀, 직물, 담배, 어류	179,299
城 外	水原邑 山樓里	4	소, 쌀, 직물, 담배, 어류	165,830
半 月	半月面 八谷一里	1-6	소, 쌀, 직물, 담배, 어류	2,422
南 陽	陰德面 南陽里	3-8	소, 쌀, 직물, 담배, 어류	9,151
鳥 山	城湖面 鳥山里	3-8	소, 쌀, 직물, 담배, 어류	174,307
發 安	鄉南面 發安里	5-10	소, 쌀, 직물, 담배, 어류	37,264
軍 浦	始興郡 西二面 虎溪里	1-6	쌀, 직물, 콩, 어류	7,783

자료 臨時土地調査局編纂, 1919, 『朝鮮地誌資料』, 朝鮮總督府, 348-51쪽.

당시 통용되던 商業用語를 통해 고찰해볼 때 일제 중반의 상업활동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접어들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자본주인 物主를 포함해 듯보기장스, 깃쥬, 거간, 디거리장스, 외목장스 등 다양한 종류의 상인층이 존재하였으며, 던당포, 은횡, 도중, 복덕방 등의 상업기관이 있었고, 슈표, 어음 등 유통매체가 통용되고 있었으며, 티부칙과 세음 등 회계와 관련된 활동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표 III-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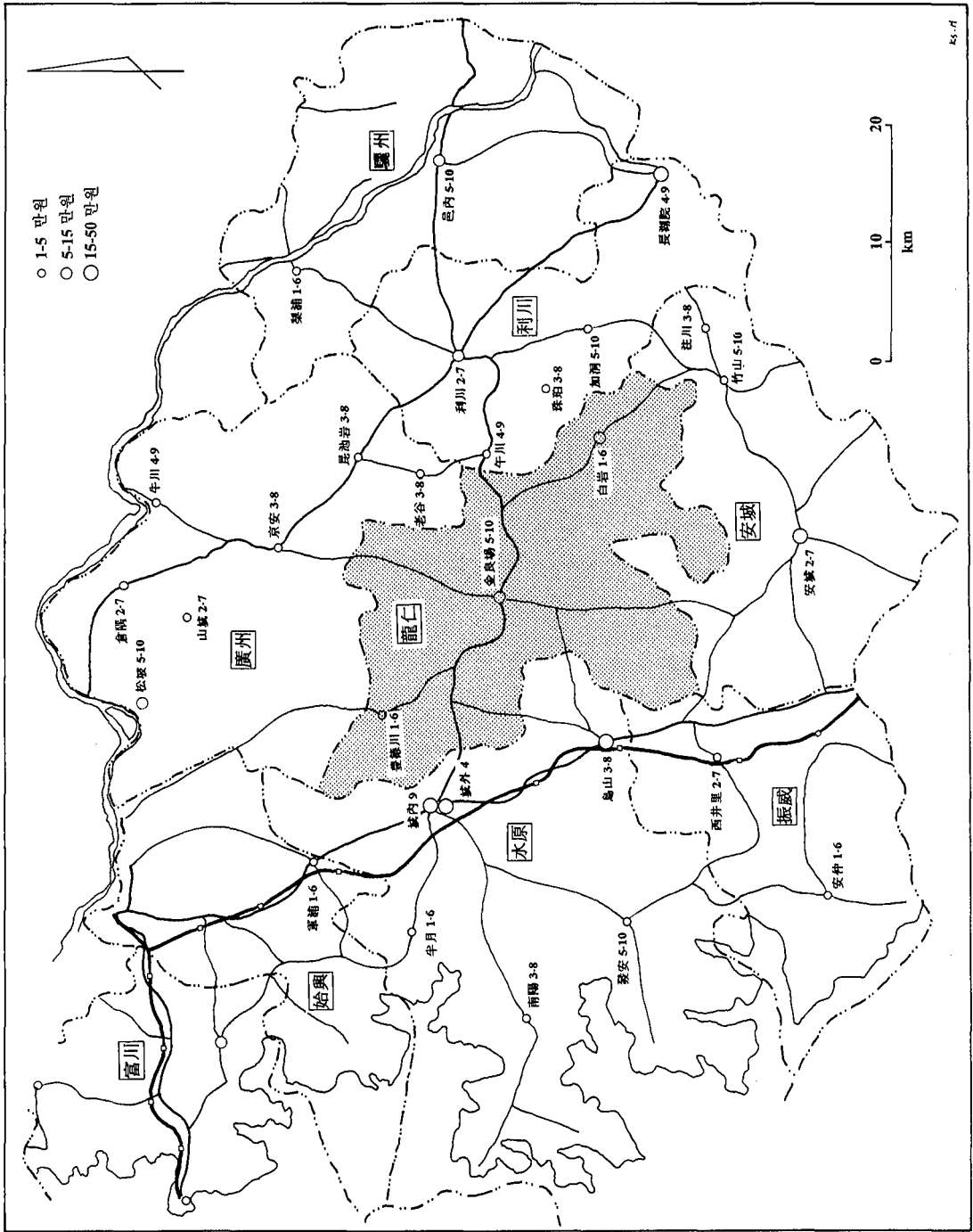


그림 Ⅲ-6. 용인 인근의 제래시장 분포, 1914

표 III-10. 식민지 시대의 주요 상업용어

한자표기	통용어	의미	한자표기	통용어	의미
去來, 興成	거림, 흥경	거래		장소	상업
興販	흥판	매매	商人	상인	상인
物主	물주	자본주	本錢, 本金	본전, 및천	자본원금
散賣	산매	소매	放賣, 發賣	방매, 발매	판매
公拍	공박	경매	都賣	도매	도매
中商	중상, 되거리장소	중간상인	客主	각주	객주
	뚝보기장소	투기상	居間	거간	중개인
和賣	화매	이의없는 거래	都庫	도고, 외목장소	전문판매
	금세	가격	時勢	시세	시세
去文	거문	지출금	客	객, 손님	손님
捧納, 捧上, 捧入	봉납, 봉상, 봉입	수납	先金	선금	선금
直錢	직전, 맞돈	현금		우수리	鉤錢
	에누리, 외누리	할인	都合, 合算	도합, 합산	합계
看品, 看色, 標抹	간품, 간식, 표말	견본	會計	회계, 세음	감정
外上	외상	외상	反庫	반고	재고조사
利條	리도	영업상의 이익	狼狽	랑되	손실
獨食	독식	독점	罰錢	벌던	위약금
用度	용도, 씬씀이	일상비용	通寄, 寄別	통기, 과별	통지
路需, 路資, 路費	로슈, 로즈, 로비	여행비	結錢, 稅納	절전, 세납	세금
銀行	은행	은행	船價	선가	선임
會社, 股本	의사, 고본	회사	都中	도중	조합
抵當	더당	저당	典當	던당	전당
邊文, 邊錢	변문, 변전	이자	管守	관슈	보관
手記, 手標, 明文	슈기, 슈표, 명문	문서	登記, 書類	등디, 서류	서류
致富冊, 帳簿	티부칙, 장부	원장	於音, 手標	어음, 슈표	수표
店肆, 店鋪, 市塵	덤스, 덤포, 시전	상점	假家	가가	노점
庖廚	포주, 푸주, 달임방	정육점	場, 場市	당, 당시	시장
酒幕, 旅閣	주막, 려각	주막	理髮所	리발소	이발소
福德房	복덕방	복덕방	籌板	쥬판	주판
典當舖, 典當局	던당포, 던당국	전당포	鞋塵	집석장소	신발점

자료 朝鮮總督府, 1925, 『朝鮮人の商業』, 181-200쪽.

수도의 근교에 위치한 용인은 경성과 긴밀한 상업적 연대를 맺고있었는데, 경술국치직 전 漢城府에는 西部宜惠倉內市場, 東部廣場內市場, 西大門外石橋市場, 中部前塔洞菜物市場 등 4개의 주요 시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 시장은 가을부터 겨울동안 개시되는 前塔洞 菜蔬市場을 제외하면 모두 상설시장으로서 취급하는 품목으로는 쌀, 콩, 해산물, 과일, 연초, 잡화, 채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⁸¹⁾ 신작로를 포함한 교통로의 확충으로

81) 度支部司稅局, 1909, 『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查書』京畿編, 1-3쪽.

육로나 京釜鐵道를 통해 용인에서 경성으로의 접근이 보다 수월해지면서 경성의 영향력도 배가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용인의 장시를 이끌어 가는 주체는 이전과 다름없이 행상과 장날에 몰려드는 주민들 자신이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일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위탁매매·알선·여숙업을 본업으로 하는 객주도 상당수 존재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08년의 상황을 예로 들면 용인에는 6명, 인근의 죽산에는 2명의 객주가 있었다. 용인의 객주가 취급하는 물품은 주로 쌀, 소금, 소를 포함하고 있다. 후에 백암장이 용인으로 편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죽산의 사항도 관심을 끌게되는데, 죽산의 객주가 취급하는 불화로는 소, 쌀, 보리, 옷감, 해조류, 어물 등이 있었다(표 III-11).⁸²⁾ 이들 객주는 위탁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口文 또는 口錢이라 하였다. 구문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 없어 지역적으로 다양한 비율로 책정되었으며 용인의 객주는 쌀 한 가나 거래에 20전, 소금 한가마니에 15전, 소 한 마리당 40전의 수수료를 소득으로 하였다. 죽산에서는 보리 거래액 10리당 30전의 비율로 구문이 책정되고 있는데 이는 쌀이나 포목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소 한 마리 당 구문은 용인보다 훨씬 낮은 26전이였다.⁸³⁾

표 III-11. 용인 인근지역의 객주 분포, 1908

지역	객주수	취급품목
龍仁	6	米, 鹽, 牛
竹山	2	牛, 米, 麥, 布木, 海草, 魚物
陰竹	2	布木, 紬緞, 洋糸
驪州	3	布(唐木, 廣木), 海産物(甘藷, 北魚), 生淸
水原	5	布(白木, 白苧, 生苧, 麻布), 紙物, 魚物
廣州	6	牛
安城	19	布(白木, 生白苧, 麻布), 牛皮, 鹽, 藻類(海衣, 甘藷), 魚物(胛魚, 石魚, 高東魚)
仁川	73	米穀(白米, 正租), 豆流(大豆, 小豆), 麥類(大麥, 小麥), 紙, 布木, 蠶, 北魚, 牛皮, 鹽, 砂金, 柴炭

자료 『朝鮮』第2卷 3號, 1908年 11月號, “朝鮮の間屋制度”, 78-9쪽.

3. 수려선체제하의 일제강점기 교통과 장시의 발달

일제식민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된 교통로확충은 자원탈취라는 목적을 이면에 깔고 진행되었다. 식민지 진출을 위한 교두보는 1905년 京釜線의 개통으로 마련되었고 10년 후에

82) 『朝鮮』第2卷 3號, 11月號 (1908년), “朝鮮の間屋制度”, 78-9쪽 (朴元善, 1968, 『客主』, 延世大學校出版部, 148쪽에서 재인용).

83) 朴元善, 1968, 『客主』, 延世大學校出版部, 126쪽에서 재인용.

마무리된 湖南線 등을 통해 한반도의 전초기지화는 가속화되었다. 1931년 12월 1일 일제는 이천과 여주의 쌀을 일본으로 공출하기 위해 경부본선의 水原驛을 기점으로 이천을 거쳐 여주에 이르는 연장 73.4km, 궤간 0.762m의 증기 및 가솔린 병용 철도인 水驪線을 부설하였다. 철도의 소유권은 일인 田川常治朗이 사장으로 있는 京東鐵道株式會社에 있었으며 이 회사의 본사는 수원에 있었다. 경동철도주식회사는 소화 3년 8월에 설립되어 5년 12월 1일부터 수원에서 이천에 이르는 53.1km의 구간에 대한 경영을 개시하였고 다음해 12월 1일부터는 이천과 여주간 20.3km에 대한 운영을 시작하였다. 경동철도주식회사는 간부 9명 종사원 173명, 차입금 130만원을 포함한 자본금 300만원으로 출발하였다. 수려선은 수원의 기점을 출발해 水原本驛(3.0km), 遠川(6.5km), 德谷(9.0km), 新葛(12.5km), 魚汀(15.9km), 三街(21.8km), 龍仁(24.1km), 麻平(23.4km), 陽智(31.9km), 霽日(35.4km), 午川(40.0km), 標橋(45.7km), 西山(49.4km), 利川(53.1km), 茂村(57.6km), 梅柳(64.4km), 新垈(69.7km), 驪州(73.4km) 등의 간이역을 경유하였다.⁸⁴⁾

수원을 출발하여 여주에 도착하는 철도편은 1938년 하루에 5회 걸쳐 있었고 반대로 여주에서 수원으로 돌아오는 기차편은 1회 적은 4회였다. 일년이 지난 1939년에는 왕복 4회로 조정되었다. 열차 시간대를 보면 수원에서 9시 50분에 출발한 기차는 여주에 12시 13분에 도착하였으며, 13시에 출발한 기차는 15시 23분, 15시 39분 기차는 18시 1분, 19시 8분 기차는 21시 43분에 각각 도착하였다. 결과적으로 수려선의 편도 운행시간은 평균 2시간 23분이었다.⁸⁵⁾

소화 6년의 상황을 보면 용인역에서 하적된 주요산물로는 쌀이 한해 평균 234톤, 정미되지 않은 벼가 725톤 이상에 달하였다. 이 밖에도 인천으로는 대두 370톤, 신탄 857톤, 잡곡 15톤, 연초 734톤, 목재 80톤, 목탄 315톤 이상, 경성으로는 갯목 520톤이 실려나갔다.⁸⁶⁾ 1932년 당시 철도를 통한 영업실적을 보면 총 430,461圓의 수입을 올렸으며 부문별로는 여객운임이 286,265원, 화물이 112,622원, 기타가 31,574원으로 나타났다.⁸⁷⁾ 1942년에는 수입이 2,776,036원으로 급증하였다.⁸⁸⁾ 당시 대부분의 驛舍에는 곡물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간이창고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양지역 앞에 남아있는 곡물창고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III-6). 곡물창고 외에도 양지역 인근에는 제과점과 양조장을 비롯한 시설물과 함께 몇 채의 일식가옥도 존재하였다.

84) 中村進吾, 1932, 『朝鮮鐵道沿線要覽』, 159-63쪽.

85) 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86, 『水原市史』, 1253쪽.

86) 中村進吾, 1932, 『朝鮮鐵道沿線要覽』, 161쪽

87) 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86, 『水原市史』, 1253쪽.

88)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龍仁郡誌』, 461쪽.



사진 III-6. 양지역의 간이곡물창고(丸通): 경기내륙과 강원도 서남부의 자원수탈을 목적으로 건설된 水驩線은 일제강점기 동안 용인에서 생산된 막대한 양의 미곡을 수송하는 기간시설로 이용되었다. 선로변의 간이역에는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창고가 갖추어져 있었는데, 주로 미곡을 쌓아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동철도주식회사는 1937년 수려선에 이어 54km에 달하는 水仁線을 개통시켰는데 목적은 전자와 동일하였다. 즉, 쌀을 포함한 내륙의 물자를 인천으로 수송하고 君子, 蘇萊, 南洞의 어염을 내륙으로 수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강원도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부수적인 이유도 있었다.⁸⁹⁾ 수려선과 수인선은 총연장에서 약 20km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0.762m의 궤간과 증기·가솔린을 동력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다.⁹⁰⁾ 1937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궤도의 차이에 따른 수송상의 난점이 부각되면서 한때 광궤로 바꾸는 案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현에 옮겨지지 못했다. 수려선과 수인선은 1942년까지 경동철도주식회사의 소유로 되어있었으나 1943년 조선총독부의 일원화시책에 따라 朝鮮鐵道株式會社로 통합되었다.⁹¹⁾

신작로에 이은 협궤철도의 부설로 용인내에는 새로운 교통중심지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버스정거장과 철도간이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신갈은 김량장과 같은 기존의 교통결절점에 비견될 정도로 현저한 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철로와 함께 일반 육로의 정비도 계

89) 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86, 『水原市史』, 1253쪽.

90) 京畿道, 1936, 『京畿道勢概要』, 40쪽.

9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86, 『水原市史』, 1254-61쪽.

속되어 1936년 당시 용인에는 4노선으로 구성된 3등도로가 통과하게 된다. 경성과 김량장을 잇는 3번노선은 총연장 45km의 도로로 복선연장도 12km를 넘어서고 있었다. 양지와 죽산에 이르는 구 영남대로 구간은 26km를 상회하는데 복선이 절반정도를 차지하였다. 동북쪽으로 뻗은 17번 도로는 김량장과 광주의 경안을 연결하는 21km의 노선이었으며 서남쪽으로는 김량장과 오산을 연결하는 24km의 38번 도로가 통하였다(표 III-12).

표 III-12. 용인의 3등도로

노선번호	노선	총연장	복선연장	단선연장	통과지역
3	京城-金良場	45,965.5m	12,548.1m	33,417.4m	京城, 始興, 廣州, 龍仁
16	陽智-竹山	26,318.1	1,141.8	25,176.3	龍仁, 安城
17	金良場-慶安里	21,541.8		21,541.8	龍仁, 廣州
38	金良場-烏山	24,870.0		24,870.0	龍仁, 水原

자료 京畿道, 1936, 『京畿道勢概要』, 29-31쪽.

이들 도로는 화물의 운반은 물론 여객의 수송에도 큰 몫을 담당하였다. 용인에 승합자동차가 운영을 시작한 것은 신작로의 개통을 전후한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1930년대 초가 되면 수원과 원주를 연결하는 26里21町의 노정을 포함해 오산과 김량장, 평택과 송전리, 김량장과 죽산, 김량장과 경안, 김량장과 고당리를 잇는 승합차가 운행중에 있었다. 노선을 통해보다라도 김량장의 결절성 내지 중심성이 단연 돋보인다. 단위거리(1里)당 요금은 수원과 원주간 장거리 교통로의 15錢8厘를 최소로 하여 김량장과 죽산의 22錢9厘가 최고액으로 나타났다(표 III-13).

표 III-13. 연선 승합자동차 현황, 1932

구간	거리	소요시간	일왕복회수	일리당요금	편도요금
水原-原州	26里21町	5시간 41분	1	15錢8厘	4圓20錢
烏山-金良場	6里	1시간 27분	2	16錢6厘	1圓
平澤-松田里	6里	1시간 25분	1	20錢	1圓20錢
金良場-竹山	8里	1시간 55분	1	22錢9厘	1圓80錢
金良場-慶安	5里19町	1시간 40분	1	22錢	1圓10錢
金良場-高塘里	3里18町	52분	1	21錢4厘	75錢

자료 中村進吾, 1932, 『朝鮮鐵道沿線要覽』, 31, 38쪽.

여객의 지역내·지역간 이동은 목적별로 여러 형태의 분류가 가능하지만 주로 通勤, 通學, 物品販賣 및 購買와 관련된 교통의 비중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학은 식민지시

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었다. 1930년대 중반 용인에는 소학교를 비롯해 다수의 보통학교가 설립되어 있었으며 특히 陽智公立普通學校, 器興公立普通學校, 金良場公立普通學校, 白岩公立普通學校, 松田公立普通學校 등은 300명 이상의 교직원과 학생을 보유한 교육기관이었다. 용인 인근에는 소위 名門學校가 여럿 있었는데, 1905년 설립된 安城公立普通學校를 비롯해 利川公立普通學校, 烏山公立普通學校, 水原公立普通學校 등의 명성이 높았다. 특히, 안성과 수원에 위치한 공립학교는 1000명 이상의 교직원과 학생을 보유한 학교였다(표 III-14). 용인에 거주를 둔 학생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들 상급학교로 통학하였으며 통학시 수려선과 승합차를 이용하였다.

표 III-14. 용인의 학교 현황, 1936

학교명	소재지	설립	학년	학급	직원		학생		
					일	조선	남	여	계
용인									
龍仁公立尋常高等小學校	수여면 김량장리	1913		3	3		26	24	50
器興公立尋常高等小學校	기흥면 신갈리	1916		2	2		14	7	21
陽智公立普通學校	내사면 양지리	1912	6	6	1	5	319	76	395
器興公立普通學校	기흥면 신갈리	1913	6	6	2	5	342	92	434
金良場公立普通學校	수여면 김량장리	1915	6	1	5	6	486	166	653
白岩公立普通學校	외사면 백암리	1919	6	6	1	4	310	75	385
松田公立普通學校	이동면 송전리	1919	6	6	2	5	361	72	433
遠三公立普通學校	원삼면 독성리	1924	4	4	1	3	204	72	276
慕賢公立普通學校	모현면 매산리	1930	4	2	1	2	117	26	143
古三公立普通學校	고삼면 월향리	1930	4	2	1	2	116	38	154
水枝公立普通學校	수지면 풍덕천리	1932	4	2	1	2	113	30	143
浦谷公立普通學校	포곡면 전대리	1933	4	2	1	2	106	26	132
南四公立普通學校	남사면 봉무리	1934	4	2	1	1	93	15	108
駒城公立普通學校	구성면 언남리	1934	4	2	1	2	104	17	121
용인인근주요학교									
利川公立普通學校	이천면 관고리	1913	6	13	5	9	656	228	884
安城公立普通學校	안성면 동리	1905	6	18	8	10	886	253	1139
水原公立普通學校	수원읍 신평리	1907	6	20	8	15	929	413	1343
烏山公立普通學校	성호면 오산리	1913	6	11	4	8	652	186	838

자료 京畿道, 1936, 『京畿道勢概要』, 224-5, 234-7쪽.

강점기중반의 교통과 통신은 한반도의 주요 도시는 물론 내륙의 자원공급지를 일본 본토와 연결하는 전형적인 植民地型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용인은 수려선과 신작로를 통해

경부선과 수인선의 교차점인 수원 본역과 연결되었고 이 곳에서 경성, 부산, 인천 등지로 나아갈 수 있었다. 후자의 두 도시는 일본으로 향하는 식민지의 中繼港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도로는 수원과 이천·여주로 통하는 동서로 외에, 풍덕천을 나와 판교로 이어지는 북서로, 김량장에서 경안으로 나가는 북동로, 양지에서 안성선 철도의 간이역이 있는 죽산으로 향하는 동남로, 김량장에서 안성, 평택, 오산으로 이어지는 서남로가 전체적인 패턴을 결정하였다(그림 III-7). 이 시기 용인의 전신·전화 서비스는 전신선로상에서 파악해볼 때 수원과 여주를 잇는 수려선이 철도우편선로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경성에서 광주 경안, 이천, 장호원을 지나 충주에 이르는 통신선의 배후에 놓여있었다. 백암에서 김량장으로서는 우편선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1939년 당시 전화가입자의 수에서 용인은 50인 미만의 가입자를 기록해 10급으로 분류되고 있어 통신의 혜택이 널리 보급되지는 못한 듯하다.⁹²⁾



그림 III-7. 용인의 교통·통신망, 1931

교통로와 통신망의 확충으로 용인의 시장은 가깝게는 경기남부의 정기시장을 포함해 멀게는 경성의 상설시장까지 철로와 자동차편으로 연락되기에 이르렀다. 경성에서는 필요

92) 朝鮮總督府遞信局, 1938, 『朝鮮通信事業沿革史』, 市外電話線路圖, 電話線路圖, 朝鮮遞信地圖 참조; 遞信部, 1985, 『韓國電氣通信100年史(上)』, 大韓民國遞信部, 366-7쪽.

한 물품은 물론, 중개, 알선, 유흥, 여숙, 요식, 목욕, 이발, 운수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성에는 개설시기가 다른 공설시장이 9개 있었으며 여기서는 주로 일용잡화와 쌀감, 채소 등이 거래되었다(표 III-15). 그러나 이 당시 경성의 상업은 이미 1910년부터 계속된 日商의 잠식으로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일상이 공산품과 고급품을 주종으로 한 도매업을 장악한 반면 韓商은 일용잡화와 저가품을 소매하는 식으로 시장이 운영되었던 것이다.⁹³⁾ 그런 와중에서도 경성의 상업은 북촌의 조선인 시장생활권과 남촌의 일본인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권의 대립구조를 포함해 새로운 형태의 점포와 상설시장이 출현해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商業景觀과 消費文化를 도태하기도 했는데, 대형 百貨店의 등장은 그 한 예이다.⁹⁴⁾

표 III-15. 경성의 시장, 1935

시장명	개설	취급품목	시장세	상점수	종사원	매상고
明治町 공설시장	1919	일용잡화	유	16	39	72,139円
花園町 공설시장	1920	일용잡화	유	14	74	189,409円
龍山 공설시장	1923	일용잡화	유	14	50	117,309円
麻布 공설시장	1926	일용잡화	유	14	20	92,221円
敦義洞 공설시탄시장	1920	시탄	무		중개인 7	20,501円
安國洞 공설시탄시장	1920	시탄	유		중개인 6	13,795円
東大門 공설시탄소채시장	1923	시탄·소채	유		중개인 8	23,413円
瑞麟洞 공설시탄소채시장	1925	시탄·소채	유		중개인 7	33,398円
西大門 공설시탄소채시장	1929	시탄·소채	무		중개인 9	28,574円

자료 京畿道, 1935, 『京畿道(서울)大要』, 30쪽.

지방에서 활약하고 있던 ‘장돌림’은 농가에서 재배한 곡물, 과일, 채소, 닭, 계란, 신탄 등을 매입하여 정기시장을 돌아다니며 판매하였다. 장날 주말과 음식점에서는 출장한 마을 주민을 상대로 국밥, 국수, 막걸리 등을 판매하였다. 장을 보러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2-3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각계각층의 면면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중에는 관공서에 불일이 있어 잠깐 나왔다가 장을 보고 돌아가는 주민도 있었고 단순히 나들이를 위해 장에 불러드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듯 장시는 경제적인 기능 외에도 정보를 교환하고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척과 친구를 만나며, 개인적으로 이발, 음주,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비경제적인 역할도 수행하였다.⁹⁵⁾ 겨울철의 장

93) 金泰雄, 2000, “1910년대 ‘京城府’ 유통체계의 변동과 한상의 쇠퇴”, 『서울상업사』, 453-83쪽 참조.

94) 許英蘭, 2000, “일제시기 서울의 ‘생활권적 상업’과 소비”, 『서울상업사』, 485-539쪽 참조.

95) 崔在錫, 1975, 『韓國農村社會研究』, 一志社, 79쪽.

은 오전 10시에, 해가 이른 여름철에는 오전 8시경에 개장하여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성황을 이루다가 일몰에 가까워 폐장하였으며 계절마다 찾아오는 명절에는 제사에 필요한 제수를 준비하러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른바 ‘대목장’이 열린다. 일제시대 장날에는 곡물, 과일, 야채, 직물, 종이, 짚, 목기, 죽기, 비료, 농기구, 문방구, 술, 과자, 어류, 소금, 성냥, 비누, 알사탕, 영국산 면포 등 다양한 물품이 출시되었다.

1938년 조사에 따르면 용인에는 김량장과 백암장의 두 곳에 장이 열리고 있었으며 풍덕천장은 중간에 폐기된 듯하다. 장시의 수에서 용인을 포함한 경기남부 대부분의 군현에서는 1914년의 상황과 비교해 1-2 장 정도가 감소 또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장시의 개시일이 재조정되기도 하지만 수원성내장, 이천장, 안성장, 김량장, 오산장, 경안장 등 주요 장시는 과거의 개장시기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한가지 변화라면 종래 음력으로 계산되던 개시일이 소화12년인 1937년을 기해 총독부령으로 양력으로 조정되었다는 점인데, 아마도 표 III-16에 기재된 개시일은 양력의 것으로 생각된다.⁹⁶⁾

표 III-16. 경기도 용인 인근의 재래시장 일람, 1938

시장명	소재지	개시일	거래액
京 安	廣州郡 廣州面 京安里	3-8	619,887 圓
老 谷	都天面 老谷里	4-9	2,751
昆 池 岩	實村面 昆池岩里	3-8	4,305
分 院	南經面 分院里	4-9	46,343
新 長	東部面 新長里	4-9	24,845
松 坡	中垵面 松坡里	4-9	197,000
盆 唐	突馬面 盆唐里	2-7	60,576
驪州邑內	驪州郡 驪州面 下里	5-10	213,630
梨 浦	金沙面 梨浦里	1-6	109,000
太 平 里	加南面 大平里	3-8	343,500
利 川	利川郡 利川邑 官庫里	2-7	510,897
玄 方	柏沙面 玄方里	3-8	16,545
午 川	麻長面 午川里	3-8	22,380
長 湖 院	漢淸面 梧南里	4-9	160,826
薪 炭	利川邑 官庫里	常設	9,440
金 良	龍仁郡 龍仁面 金良場里	5-10	513,276
白 岩	外西面 白岩里	1-6	302,737
安 城	安城郡 安城邑 場基里	2-7	1,092,000
注 川	一竹面 注川里	3-8	77,000
竹 山	一竹面 竹山里	5-10	809,100

96) 文定昌, 1941, 『朝鮮の市場』, 日本評論社, 10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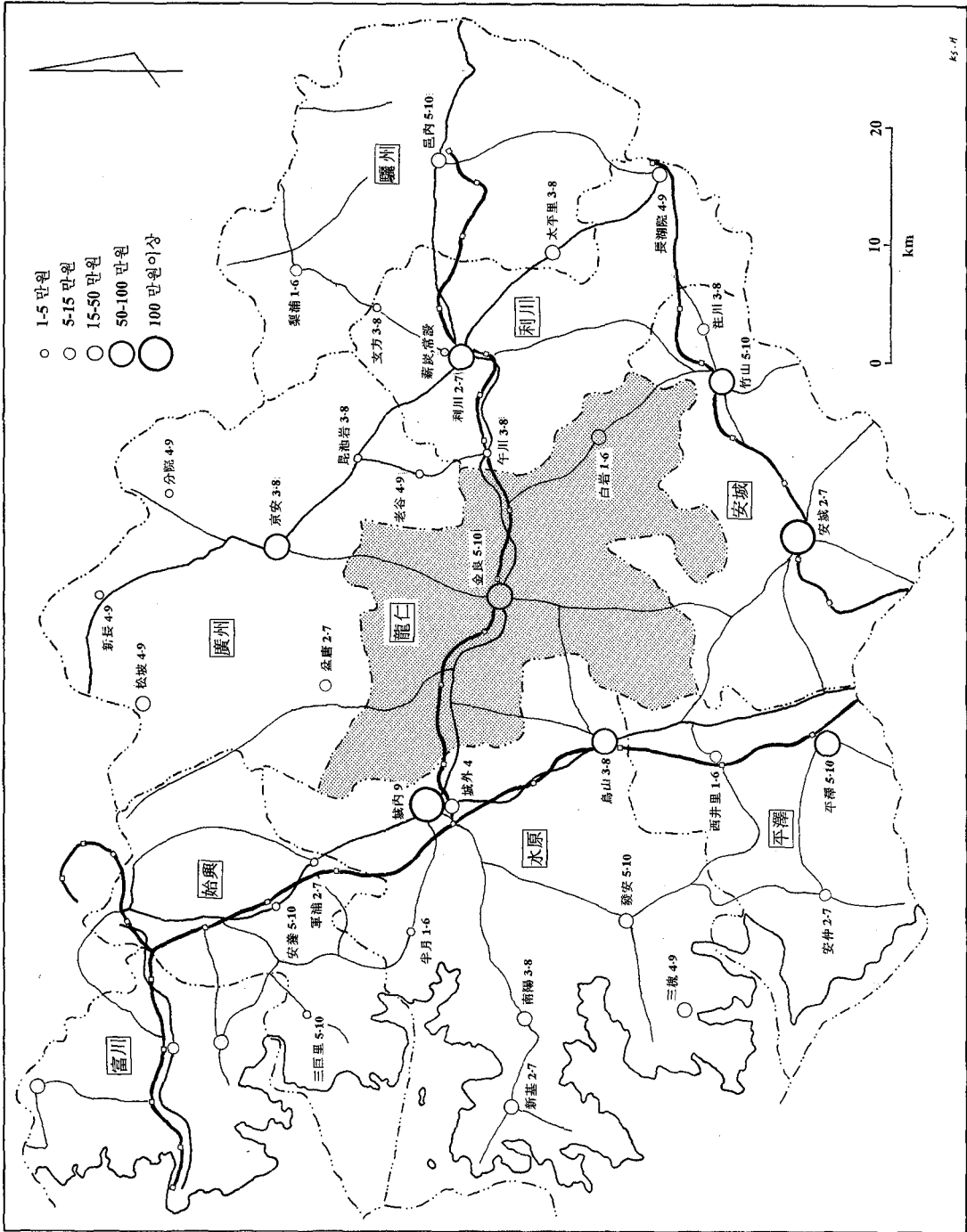
平澤	平澤郡 平澤邑 平澤里	5-10	746,620
西井里	松炭面 西井里	1-6	118,000
安仲	梧城面 安仲里	2-7	115,420
城內	水原郡 水原邑 北水町	4-9	1,323,355
城外	水原郡 水原邑 北水町	4-9	329,869
半月	半月面 乾水里	1-6	30,980
南陽	陰德面 南陽里	3-8	294,786
新基	松山面 沙江里	2-7	249,170
三槐	雲汀面 朝岩里	4-9	278,678
鳥山	城湖面 鳥山里	3-8	913,400
發安	鄉南面 發安里	5-10	290,178
安養	始興郡 西二面 安卷里	5-10	48,180
軍浦	南面 堂里	2-7	44,580
三巨里	秀岩面 陵谷里	5-10	4,500

자료 文定昌, 1941, 『朝鮮의市場』, 日本評論社, 241-5쪽.

시장의 규모는 거래액, 출시인구, 물화를 공급하는 배후지의 규모, 결절성, 접근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1930년대 말의 시장상황을 자세히 조사한 文定昌은 거래액에 따라 시장을 4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우선 1萬圓 미만의 시장은 과거에는 변성했으나 후에 교통상황의 변화, 관공서의 이전, 경쟁적인 새로운 상업중심지의 등장으로 쇠퇴일로에 있는 것과 생김지 얼마 되지않은 것을 포함하며 주로 인근 주민이 생산한 채소, 쌀감, 곡물이 교환되는 형태의 장시로 보였다. 거래액 10萬圓 내외의 실적을 올린 시장은 소수의 상설점포를 보유한 2-3개 면에 걸친 교환의 중심지로, 교통로상의 결절점이나 면사무소, 경찰서, 금융조합 등 관공서가 위치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부분의 재래시장을 지칭하였다.

거래액 20萬圓에서 50萬圓 안팎의 시장은 군청소재지의 중추적인 장시를 포함한다. 다수의 상설점포를 포함해 장날에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노점을 포함하는 물자교역의 중심지로 세력권 또한 넓은 장시라 하겠다. 김량장과 함께 수원의 오산장, 평택의 평택장, 안성의 죽산장, 이천의 이천장, 광주의 경안장 등을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백암장의 거래 규모는 30萬圓을 약간 상회하는 선이었다. 거래액 100萬圓 이상의 장시는 2-3 군에 걸친 세력권을 가진 시장으로 물화의 집산이 활발한 고차 상업중심지라 하겠다. 안성 장거리의 안성장과 수원 성내장이 경기남부의 시장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⁷⁾ 광주의 경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장시는 경부선, 수려선, 안성선의 철도와 이에 평행하게 달리는 도로에 연해 입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교통이 물자교환과 상업발달의 동맥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III-8).

97) 文定昌, 1941, 『朝鮮의市場』, 日本評論社, 137-9쪽.



65-4

그림 Ⅲ-8. 용인 인근의 제례시장 분포, 1938

4. 해방이후의 교통과 상업의 변천

해방과 함께 용인은 새로운 도약의 단계를 밟는 듯했으나 뒤이은 한국전쟁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이 일시나마 정지해버리고 말았다. 전란 당시에 판교와 풍덕천을 지나는 과거의 向京大路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였다. 용인의 유일한 협궤철도였던 수려선은 광복후 수인선과 함께 1946년 5월 1일 국유화되었다. 전시동안 임시 정지상태로 남아있던 수려선은 한국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활동을 개시하여 1954년 한해 동안 화물 29,335 톤 가량을 수송하였다. 경기와 영서남부의 자원반출을 목적으로 출발한 수려선은 해방과 함께 여객수송 및 산업철도로 성격을 바꾸게된 것이다.⁹⁸⁾

한국전쟁 직후 수려선을 통한 교통상황을 검토해보면, 우선 여객의 수송과 관련해 목적별 통행에서는 일반이용자가 247,664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통학생 41,725명, 통근자 4,030명으로 집계되었다. 간이역별 통학생 수는 신갈과 용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화물은 전체 869건에 14,114톤이 운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려선 전체구간에서 용인역이 담당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수려선 운행을 통한 수익은 종착역인 화성역과 여주역,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이천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용인내에서는 용인역이 349,000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III-17).

표 III-17. 수려선의 여객 및 화물취급 상황, 1954

역	여 객				화 물		수 입		
	통학	통근	일반	계	건수	톤	여객	화물	계
華城	8,300	420	51,714	60,334			717,208		717,208
遠川	未調査								
新葛	21,625	880	18,760	41,263	44	566	137,810	8,106	145,916
漁汀			10,049	10,049			61,831		61,831
龍仁	15,900	2,730	38,479	57,109	601	7,795	313,236	35,848	349,084
陽智			8,112	8,112	60	900	67,512	198	67,710
霽日			7,269	7,269	10	150	58,033	34	58,067
午川			17,672	17,672	14	154	146,967	2,200	149,167
西山			7,287	7,287	12	148	74,280	2,793	77,073
利川			36,892	36,892	50	1,659	370,175	35,060	405,235
梅柳			13,534	13,534	10	130	124,460	1,170	125,630
驪州			37,896	37,896	68	2,612	457,857	40,462	498,319
계	41,725	4,030	247,664	297,419	869	14,114	2,529,442	125,871	2,655,313

자료: 京畿道誌編纂委員會, 1954, 『京畿道誌』中卷, 454-5쪽.

98) 水驪線의 성격규정에 관해서는 蘇博志의 2000년 서울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水驪線 鐵道の性格變化에 關한 研究』 참조.

6년이 지난 1960년 여객의 목적별 교통량으로는 통학이 114,550명, 통근은 3,180명, 일반통행은 1·2등석을 이용한 승객 6,839명과 3등석 이용객 318,008명을 합해 총 442,577명으로 집계되었다. 화물유통에서는 영업용화물 12,548톤, 일반화물 12,533톤, 수입화물 15톤, 부용화물 4,920톤으로 집계되었는데, 벼 1,408톤, 쌀 3,546, 잡곡 777톤, 짚과 보리제품 41톤, 장작 143톤, 목재 474톤, 소금 30톤, 해조류 110톤, 비료 115톤, 시멘트 1톤, 수입양곡 15톤, 군용품 150톤, 노선용품 3,855톤, 부용품 1,065톤, 기타 5,738톤 등 총 17,468톤에 이르고 있다.⁹⁹⁾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화물 중 중요한 것으로는 쌀, 보리, 콩, 잡곡, 곡분, 석분, 생선, 염간어, 명태, 해초, 소금, 설탕, 야채, 생과, 된장, 간장, 식료, 주류, 연초, 약재, 면포, 종이, 성냥, 석유, 신탄, 도자기, 가구, 자리, 가마니, 비료, 소가죽, 한우, 흑연, 석탄, 목재, 석재, 기와, 석탄, 못 등 종류가 극히 다양하였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무래도 곡물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야채, 건어물 등 식료품이었다. 신탄과 목탄은 수원으로 집결하였고 그 주요 산지는 용인이었다.¹⁰⁰⁾ 1972년 1월 10일 鐵道廳은 수려선의 기관차가 노후하다는 이유로 객차운행을 정지시키고 화물만을 운송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1972년 3월 30일부터 일부 구간이 폐선되었고 5월 5일부터 龍山軌道株式會社의 인부 33명이 선로제거에 나서 근 2개월 후인 7월에는 수원-여주간 철로가 완전히 철거되기에 이르렀다.¹⁰¹⁾ 수려선의 철거는 기존에 협궤철도가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자동차교통의 도약으로 많은 부분 상실한데 그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날 수려선의 자취는 곳곳에 남아있는 철로와 궤도자리에 남아있다(사진 III-7).

해방 후 용인의 근대 도로교통체계의 형성을 위한 노력은 정치적 혼란과 직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잠시동안 중단되었다. 용인이 전국적인 경제체제로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1960년대의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마련과 1968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도를 비롯한 지방도로의 건설은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다. 해방이후 도로는 國道, 地方道, 市道와 郡道를 포함한 市郡道로 구분되었다. 국도는 서울과 도청소재지 또는 도청소재지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지칭하며 지방도는 도청소재지와 군청소재지를 잇는 도로를 의미한다. 시군도에서 시도는 시 행정구역간의 국도 및 지방도를, 군도는 군·面間 도로, 면간 도로 또는 이에 부수된 도로를 통칭한다(표 III-18).

99) 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86, 『水原市史』, 1253쪽.

100) 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86, 『水原市史』, 1257-8쪽.

10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1986, 『水原市史』, 1262-63쪽.



사진 III-7. 수려선의 궤도자리: 1931년 가설된 수려선은 수원역을 출발하여 신갈, 김량장, 양지, 이천 등을 경유하여 여주에 이르는 연장 73.4 km의 증기 및 가솔린 병용의 궤간 0.762m에 불과한 협궤철도였다. 경기내륙의 동서간 교통로로 중요하였던 수려선은 자동차교통시대의 도래와 함께 1973년 폐지되었다. 노선을 따라서는 곳곳에 과거 궤도가 놓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표 III-18. 해방후 도로의 구분

도로구분	소구분	유 형
國 道		서울과 도청소재지, 도청소재지간 도로 및 그 외의 주요도로
地 方 道		도청소재지와 군청소재지간 도로 및 그 외의 주요도로
市 郡 道	市 道	시 행정구역간의 국도 및 지방도
	郡 道	군·면간 도로, 면간 도로 및 이에 부수된 도로

자료 韓國道路公社, 1981, 『韓國道路史』, 186쪽.

용인의 國道 중 기흥면 영덕과 남사면 추계를 잇는 28.6km 구간은 수원과 원주를 연결하는 노선의 일부로 1954년 7월에 개통되었다.¹⁰²⁾ 같은 해 용인을 경유하는 주요 지방도로로는 서울과 용인간 45,923km의 도로를 포함해 광주와 용인의 22,413km, 용인과 진천사

102) 京畿道, 1979, 『경기도행정지도』.

이 41,496km, 용인과 평택사이 34,460km, 용인과 백암의 18,610km, 안성과 백암간 28,743km, 송전과 오산을 잇는 13,960km의 노선이 있었다.¹⁰³⁾ 일제강점기에 신작로의 등장과 수려선의 건설로 확립된 동서방향의 도로축은 1967년 수원으로 경기도청이 이전되면서 비중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세부적인 교통망패턴을 보면 용인의 도로는 폭 4.8m 이상의 간선인 수원-원주간 국도가 주축이되고 노폭 2.4-4.8m의 지방도가 2차적인 축을 형성하는 형태라할 수 있다. 지방도는 노면이 다져지지 않은 험로를 포함한다. 면사무소와 재래시장은 이들 지방도상에 입지하고 있다. 마을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는 우마차로와 소로로 구성되며 이는 실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동로라 하겠다. 신갈, 어정, 삼가, 김량장, 신평, 양지, 제일 등을 포함하는 수려선의 간이역은 그 자체가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결절점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양지, 김량장, 신갈은 철도, 국도, 지방도의 교차점에 입지하고 있는 관계로 접근도에서 타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남서부에서는 이동면사무소인 송전이 주요 결절점이 되고 있으며 동남부에서는 외사면의 백암리가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III-9).

도로망의 형태와 함께 道路密度는 국토발전이나 지역개발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도로의 총연장을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나눈 단위면적당 교통로의 길이가 도로밀도인데, 일반적으로 도로밀도는 해당지역의 인구규모 및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¹⁰⁴⁾ 1961년에 발행된 용인군의 제1회 통계로는 1960년 당시 國道 29km와 地方道 120km의 총연장 149km의 도로망이 용인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었으며 이는 모두 비포장이었다.¹⁰⁵⁾ 남부의 고삼면이 안성군으로 편입된 이후의 첫 통계인 1963년의 상황을 보면 용인의 도로는 국도와 지방도 모두 비포장 도로였으며 총연장 173km 가운데 국도가 29.7km, 지방도는 143.3km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된 통계를 바탕으로 단위면적당 도로 밀도를 계산해본 결과 용인군은 0.29km/km²의 밀도를 기록하였다. 면별로는 백암리에 소재지를 두고있는 외사면의 0.5km/km²가 가장 높은 밀도치에 해당되며 신흥교통중심지인 신갈리가 속해있는 기흥면이 그 다음으로 0.45km/km²의 도로밀도를 기록했다. 반면 북동부의 포곡면은 0.13km/km²의 빈약한 도로망체계를 갖추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9).

103) 京畿道誌編纂委員會, 1954, 『京畿道誌』中卷, 419-20쪽.

104) 김형국, 1997, 『한국공간구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38쪽.

105)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龍仁郡誌』, 4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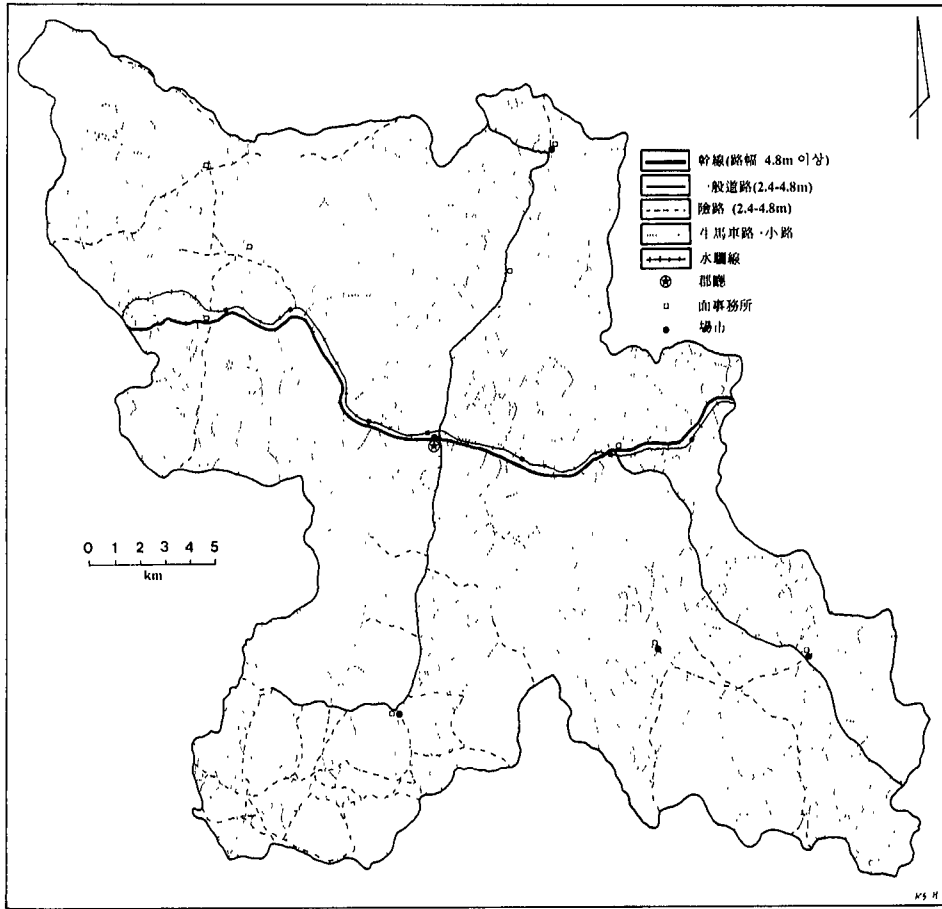


그림 III-9. 용인의 도로망, 1956

표 III-19. 용인의 도로현황, 1963-1969

면	연도	고속	國道	國(포)	國(비)	地(비)	郡(비)	총(포)	총(비)	총연장	도로밀도
용인면	1963				8.8km	13.2km			22.0km	22.0km	0.38km/km ²
57.3km ²	1969		8.3km	0.7km	7.6	13.2	2.0km	0.7km	22.8	23.5	0.41
포곡면	1963					5.2			5.2	5.2	0.13
41.6km ²	1969					5.2			5.2	5.2	0.13
모현면	1963					8.0			8.0	8.0	0.14
58.6km ²	1969					8.0	2.5		10.5	10.5	0.18
구성면	1963				4.3	7.3			11.7	11.7	0.29
39.7km ²	1969	4.3km	4.3		4.3	7.3	3.5	4.3	15.2	19.4	0.49
수지면	1963					10.7			10.7	10.7	0.21
50.4km ²	1969	0.8				10.7	4.5	0.8	15.2	16.0	0.32
기흥면	1963				6.3	14.7			21.1	21.1	0.45

46.7km ²	1969	8.3	7.1	4.1	2.9	8.1	6.5	12.5	17.5	30.0	0.64
남사면	1963					9.7			9.7	9.7	0.15
63.5km ²	1969	3.6				9.7	13.0	3.6	22.7	26.3	0.41
이동면	1963					12.0			12.0	12.0	0.19
63.1km ²	1969					12.0	12.5		24.5	24.5	0.39
원삼면	1963					24.2			24.2	24.2	0.39
61.6km ²	1969					24.2	4.5		28.7	28.7	0.47
외사면	1963					32.4			32.4	32.4	0.50
64.2km ²	1969					11.3	7.2		18.5	18.5	0.29
내사면	1963				10.2	5.8			16.0	16.0	0.27
58.3km ²	1969		10.0		10.0	5.8	6.5		22.3	22.3	0.38
계	1963				29.7	143.3			173.0	173.0	0.29
605.0	1969	17.1	29.7	4.9	24.9	115.6	62.7	21.9	203.1	225.1	0.37

자료 용인군, 1970, 『제10회 통계연보』, 102-3쪽; 1963, 『제3회 통계연보』, 2, 54쪽.

통계상으로 1969년은 1963년과 비교해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도로의 총연장이 약 52km 늘어 225.1km가 되었고 따라서 면적의 증감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밀도 또한 0.29km/km²에서 0.37km/km²로 약간 증가하였다. 京釜高速道路의 일부구간(17.1km)이 용인을 통과한다는 점 외에 주목되는 사항은 도로포장율의 변화로서 앞선 통계에서는 도로 전 구간이 비포장으로 남아있었는데 반해 6년 후에는 고속도로의 전 구간과 국도의 일부 구간인 4.9km에 대해 포장이 이루어졌다. 1969년 시점에서 용인은 17.1 km의 고속도로를 포함해 29.7km의 국도, 115.6km의 지방도, 62.7km의 군도를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면별 도로밀도는 기흥면(0.64km/km²), 구성면(0.49km/km²), 원삼면(0.47km/km²), 용인면(0.41km/km²), 남사면(0.41km/km²)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며 북동부의 모현면과 포곡면이 낮은 밀도치를 갖고있다. 도로밀도는 대부분의 면에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사면, 이동면, 구성면에서는 단위면적당 0.2km 이상의 증가가 기록되었다. 예외적으로 외사면은 단위면적당 0.2km의 감소가 기록되었다. 도로 총연장도 이와 비슷한 순서로 길게 나타나며 포장도로의 연장은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기흥면, 구성면, 남사면, 수지면에서 높게 기록되고 있다. 도청소재지간을 연결하는 국도의 연장은 내사면, 용인면, 기흥면, 구성면의 순으로 길게 나타난다.

이미 제시한대로 1960년대 말 도로망패턴의 가장 큰 변화는 경부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이 용인을 지나게된 점으로 인터체인지가 들어선 신갈을 포함해 고속도로에 의한 북서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시점은 아마도 용인 교통사의 절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교통과 함께 비록 폐기 직전이기

는 하지만 수려선의 철도교통이 공존했던 유일한 기간이기 때문이다(그림 III-10). 또 한편으로는 비록 복잡한 거미줄망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로의 기능이 자동차교통의 심화로 점차 약화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용인지역의 교통근대화가 결실을 맺는 단계에 접어든 듯한 감이 있다. 재래시장과 행정중심지를 잇는 도로가 전체적인 도로망의 형태를 결정짓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등장과 함께 비록 형태와 양식은 다르지만 노선의 방향과 위치에서는 구 京都路로 복귀되고 있어 도로의 강한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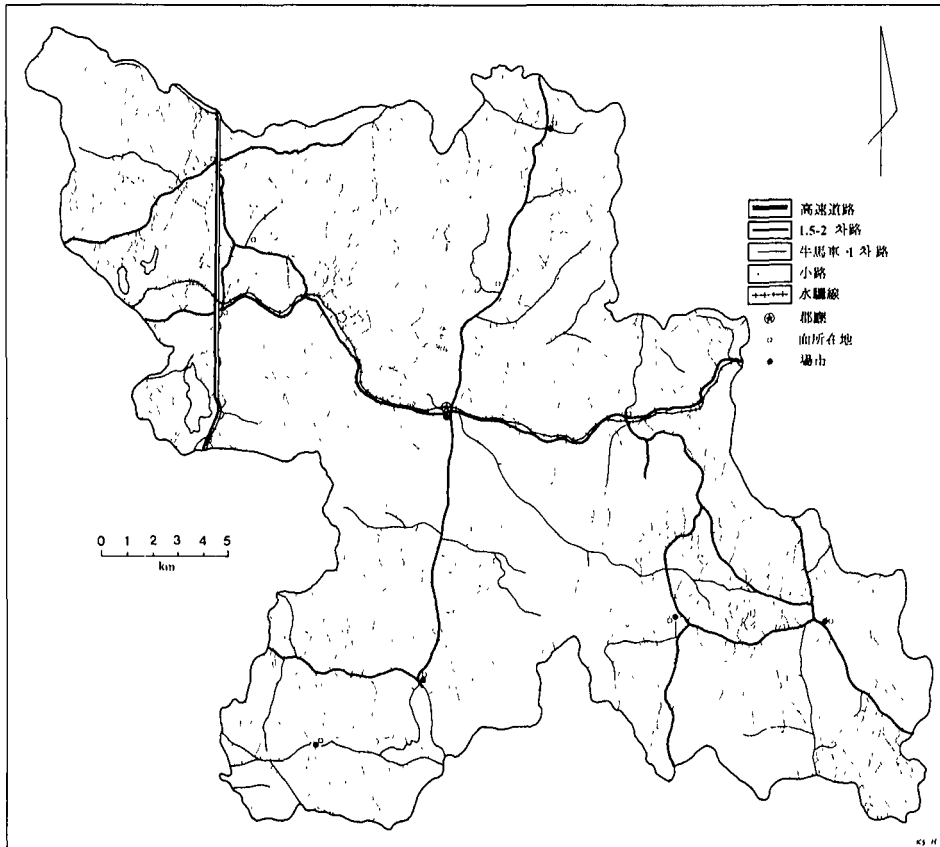


그림 III-10. 용인의 도로망, 1970

1963년 통계상으로 취업인구 가운데 運輸, 通信, 保管業으로 분류되는 인구는 남성 144명과 여성 27명으로 나타났다. 면별로는 용인면이 남성 68명, 여성 12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다. 남녀를 합계한 결과를 보면 용인면 다음으로 이동면 27명, 포곡면 15명, 내사면 15명, 구성면 12명, 수지면 7명, 모현면 4명, 외사면 4명, 기흥면 3명, 남사면 2명, 원삼면 2명이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⁶⁾ 교통과 관련된 통계

중 가장 직접적인 차량에 관한 수치를 보면, 1963년 용인에는 貨物車 83대를 포함해 33대의 乘合車와 2대의 乘用車가 운영되고 있었다. 화물차 가운데 82대가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승합차는 전체가 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전체적으로 자가용 차량은 화물차 한대에 불과하다. 승용차 역시 공용이 전부였다. 당시 버스회사 1개 업체에 종업원 107명과 버스 33대가 여객 수송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화물회사로는 2업체, 3대의 차량, 172명의 종업원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¹⁰⁷⁾

交通에 종사하는 就業人口는 이후 1970년까지 약간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성 156명에 여성 22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가장 많은 수의 교통관련 산업별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용인면의 경우 남성 97명에 여성 8명으로 총 105명이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⁰⁸⁾ 車輛은 총 60대로 1963년 비해 오히려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안에는 화물차 35대, 승용차 24대 승합차 1대가 포함되며, 目的別로 구분하면 官用이 승합차 5대, 화물차 3대, 승합차 1대 등 총 9대로 나타났으며, 自家用은 승용차 2대, 화물차 1대, 영업용은 승용차 17대와 화물차 31대를 기록하고 있다. 業體로는 택시회사 1개 업체에 차량 17대, 종업원 17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⁹⁾

交通과 通信은 전산업시대의 경우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체제하에서 운영되었는데, 정도가 약간 달라졌을 뿐 상황은 196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이는 郵便物の 接受와 配達이라는 일차적인 지표를 가지고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일례로 1963년과 1969년 사이 용인내 우체국이 취급한 우편물은 접수에서 26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배달은 336.1%의 대폭적인 성장을 나타냈다. 우표의 판매에서는 307%의 증가가 있었다. 면별로는 1963년의 통계상으로 용인면이 접수(59,452)와 배달(132,673)에서 타 지역을 압도하고 있어 군청소재지로서의 중심성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암리에 면사무소를 둔 외사면이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우편물 처리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69년에도 용인면은 용인 전체 우편물 접수의 39%인 289,983 건을, 외부에서 들어온 전체 우편물의 38.4%인 734,543건을 배달하여 중심적인 입지가 오히려 강화된 느낌이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기흥면으로 접수의 12.9%, 배달의 12.7%를 담당하였다. 남사면의 경우 배달은 13.5%로 기흥면보다는 높지만 접수에서는 5.6%를 담당하는 선에 지나지 않고 있다. 포곡면과 구성면은 용인 전체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에서 0.2%, 0.1%를 각각 처리하여 통신과 관련한 기능이 저조한 편이다(표 III-20).

106) 용인군, 1963, 『제3회 통계연보』, 9쪽.

107) 용인군, 1963, 『제3회 통계연보』, 57쪽.

108) 용인군, 1970, 『제10회 통계연보』, 32쪽.

109) 용인군, 1970, 『제10회 통계연보』, 109쪽.

표 III-20. 우편물 취급상황

면	연도	普通接	普配	特殊接	特配	小包接	小配	계접수	계배달	우표류
용인	1963	51,985	126,359	7,188	5,054	279	1,260	59,452	132,673	409,907
	1969	278,565	722,575	10,774	10,598	644	1,370	289,983	734,543	1,234,995
포곡	1969			1,328	1,328	71	71	1,399	1,399	54,956
모현	1969	29,666	74,551	2,329	2,074	105	235	32,100	76,860	177,351
구성	1969			1,233	1,233	32	32	1,265	1,265	59,100
수지	1969	25,989	77,070	2,700	2,852	116	212	28,805	80,134	155,447
기흥	1963	28,014	87,765	2,117	2,292	69	257	30,200	89,314	101,715
	1969	91,379	235,420	4,292	6,537	197	520	95,868	242,477	470,192
남사	1969	38,794	254,026	2,864	3,900	104	547	41,764	258,473	273,612
이동	1963	30,151	77,125	2,554	2,469	74	365	32,779	79,959	119,122
	1969	53,103	114,570	3,359	3,238	180	437	56,642	118,245	351,738
원삼	1969	39,526	126,546	3,204	3,722	142	558	42,872	130,826	213,298
외사	1963	54,826	91,005	3,856	3,536	149	481	58,831	95,295	232,986
	1969	88,310	126,442	4,637	4,350	321	699	93,268	131,491	492,486
내사	1963	18,164	39,882	1,825	1,610	48	224	20,037	41,716	60,350
	1969	56,816	135,186	2,644	2,862	79	396	59,539	138,444	280,083
계	1963	188,140	422,136	17,540	14,961	619	2,587	201,299	438,957	924,080
	1969	702,148	1,866,386	39,364	42,694	1,991	5,077	743,503	1,914,157	3,763,258
증가율		273.2%	342.1%	124.4%	185.4%	221.6%	96.3%	269.4%	336.1%	307.2%

자료 용인군, 1970, 『제10회 통계연보』, 113쪽; 1963, 『제3회 통계연보』, 59쪽.

배달되는 우편물 중에는 新開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통계입수가 가능한 1963년도의 상황을 보면 용인의 신문구독 규모는 龍仁公報 20,000부, 朝鮮日報 440부, 東亞日報 33부, 京鄉新聞 11부, 韓國日報 114부, 서울新聞 37부, 大韓日報 5부, 코리아리퍼블릭 2부, 기타 中央紙 98부, 地方紙 48부, 日曜新聞 1부 등 총 20,789 부수에 이르고 있다(표 III-21). 신문은 전국규모의 정보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서 구독규모의 차이는 정보전달의 직접적인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공보와 지방지를 제외한 순수 중앙지의 구독규모에서 용인면이 218부로 가장 많은 수가 배급되고 있었고 이는 용인 전체 740부의 29.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다음으로는 외사면이 107부로 14.5%, 수지면이 80부로 10.8%, 이동면이 67부로 9.1%, 내사면이 65부인 8.8%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낮은 비율은 포곡면의 1.8%로 단지 13부의 중앙지가 구독되고 있었을 뿐이다. 인접한 모현면은 3.4%로 약간 높지만 이 역시 두 번째로 낮은 비율에 해당한다.

표 III-21. 신문보급상황

면	龍仁公報	朝鮮日報	東亞日報	京鄉新聞	韓國日報	서울新聞	大韓日報	코리아리퍼블릭	기타中央紙	地方紙	日曜新聞	계
용인	2,180	77	18	3	12	6	5	1	96	48		2,446
포곡	1,220	9		2	1	1						1,233
모현	1,480	18	1	1	5							1,505
구성	1,460	30	2		18							1,510
수지	1,320	8	4	2	66							1,400
기흥	1,480	29						1			1	1,511
남사	1,780	28	1		9							1,818
이동	1,680	65	1		1							1,747
원삼	2,100	47										2,147
외사	2,480	72	5			28			2			2,587
내사	1,460	57	1	3	2	2						1,525
기관	1,360											1,360
계	20,000	440	33	11	114	37	5	2	98	48	1	20,789

자료 경기도용인군, 1963, 『통계연보』, 95쪽.

통신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電話의 가설상황을 보면 1963년 당시 김량장, 신갈, 송전, 백암, 양지 등 5개소의 우체국에는 관공서 65, 사설단체 19, 일반 128, 공중 6, 기타 6 등 총 224선이 등록되어 있었다(표 III-22). 이후 1969년 용인에는 총 143km에 달하는 통신선이 구축되었으며 이는 용인면과 모현면 사이의 26km를 포함해 구성면과 기흥면의 38km, 남사면과 이동면의 38km, 내사면과 외사면의 41km를 합한 수치로서, 용도별로는 一般通信線이 49km, 行政線이 76km, 警備線이 18km에 달한다.¹¹⁰⁾ 우체국도 마북리, 풍덕천리, 왕산리, 삼계리, 봉무리, 고당리에 추가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전화가입도 224선에서 59.8% 증가된 358선으로 늘어났다. 증가율면에서 관공서용 전화가 26.5% 증가에 그친 반면, 사설단체용 전화선은 42.1%, 일반선은 38.3%, 공중전화선은 116.7%로 각각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전화이용 빈도도 1963년의 8,833회에서 6년 후인 1969년에는 89,745회로 무려 900% 이상의 증가를 나타냈다. 내용면에서는 무료 보통전화가 1,569회에서 253회로 줄어든 대신, 유료 보통전화와 긴급통화의 빈도가 4,089회와 31회에서 각각 75,127회와 14,465회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요금은 90,788원에서 3,481,227원으로 373%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였다.¹¹¹⁾

110) 용인군, 1970, 『제10회 통계연보』, 일반현황.

111) 용인군, 1970, 『제10회 통계연보』, 112쪽; 1963, 『제3회 통계연보』, 58쪽.

표 III-22. 전화가설현황

우체국	연도	소재지	관공서	사설단체	일반	공 중	기타	계
용인면	1963	金良場里	32	12	74	1		119
	1969		59	24	80	1	58	222
구성면	1969	麻北里				1		1
수지면	1969	豊徳川里				1		1
모현면	1969	旺山里	1			2		2
포곡면	1969	三溪里				1		1
기흥면	1963	新萬里	27	7	11	4	6	55
	1969		10		48	1		59
남사면	1969	鳳舞里				2		2
이동면	1963	松田里						
	1969					1		1
외사면	1963	白岩里	2		36			38
	1969		9		33	1		43
원삼면	1969	高塘里				1		1
내사면	1963	陽智里	4		7	1		12
	1969		5	3	16	1		25
계	1963		65	19	128	6	6	224
	1969		83	27	177	13	58	358
증가(%)			26.5	42.1	38.3	116.7		59.8

자료 용인군, 1963, 『제3회 통계연보』, 58쪽; 1970, 『제10회 통계연보』, 111쪽.

라디오와 TV의 보급율은 정보통신의 전개상황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는 이들 매체가 지니는 문화전파의 파급효과가 그 만큼 막대하기 때문이다. TV의 보급을 먼저 살펴보면 1963년 현재 용인면의 2대가 전부였고 1965년에 이르러서도 6대로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그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69년이 되면 보급의 범위와 규모가 다소 늘어났는데 용인면의 33대, 기흥면의 15대, 이동면의 2대 내사면의 3대를 포함해 총 53대의 수상기가 보급되었다. 라디오는 비교적 널리 보급된 실정이다. 1963년 1,200대가 1965년에는 40% 증가한 1,683대로 증가한데 이어 1969년에는 1965년에 비해 350% 늘어난 7,579대의 보급이 있었다. 가구당 보급율을 보면 1963년 0.07대에서 1965년 0.1대로, 1969년에는 0.46대로 각각 증가되었다. 지역별 보급율의 차이를 보면, 포곡면이 0.1대의 가구당 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모현면, 수지면, 이동면 공히 0.09대로 용인 내에서는 비교적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원삼면은 0.02대로 낮은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1965년 역시 포곡면이 0.18대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모현면의 0.16, 용인면의 0.14가 뒤를 잇고 있다. 최저치는 원삼면의 0.02대였다. 마지막 시기인

1969년에 이르면 모현면이 가구당 0.61대의 라디오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기흥면이 0.58대, 포곡면이 0.56대로 뒤를 쫓고 있다. 수지면은 0.31대로 가장 낮은 비율을 접하였다(표 III-23).

표 III-23. Radio와 TV 보급율, 1963-1970

면	Radio						TV		
	1963	家口當	1965	家口當	1969	家口當	1963	1965	1969
용인면	153	0.07	316	0.14	1,246	0.54	2	6	33
포곡면	111	0.10	203	0.18	581	0.56			
모현면	109	0.09	189	0.16	699	0.61			
구성면	66	0.06	130	0.12	554	0.49			
수지면	114	0.09	121	0.10	554	0.31			
기흥면	86	0.06	133	0.09	816	0.58			15
남사면	102	0.07	112	0.07	504	0.32			
이동면	144	0.09	171	0.07	648	0.40			2
원삼면	45	0.02	41	0.02	674	0.38			
외사면	156	0.07	167	0.08	848	0.39			
내사면	112	0.05	100	0.08	455	0.38			3
계	1,200	0.07	1,683	0.10	7,579	0.46	2	6	53

자료 용인군, 1963, 『제3회 통계연보』, 94쪽, 1965, 『제5회 통계연보』, 113쪽, 1970, 『제10회 통계연보』, 169쪽.

해방이후 經濟開發期에 들어와서도 장시는 농촌에서는 중추적인 상업거래기관으로 지역민의 매매교환을 위한 중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새로운 문물이 소개·전파되는 경로로 중요했고 通信, 社交, 娛樂의 현장으로 기능하였다. 농민 상호간 현장 체험을 통해 얻은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유익한 장소인 동시에 가극과 활동사진 등 많은 볼거리도 제공되었다. 한편으로는 음주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장시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 인구성장, 교통상황의 변화를 통해 수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해방후 용인의 상업은 혼란한 정국과 뒤이은 전란으로 인하여 쇠퇴일로에 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침체는 1950년대 美軍援助經濟에 이어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점차 정상궤도로 재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한국전쟁후 용인의 시장은 연 거래액 42,480,000원 규모의 정기시장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인근의 광주, 수원, 인천, 여주, 이천, 안성, 평택, 화성, 시흥에 존재한 재래시장의 총 거래액 중 7.7%에 달하는 규모였다. 품목별을 보면 농산물의 비율은 9.1%로 7.9%를 기록한 잡화와 함께 전체 거래액 중 용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산물(6.4%), 직물(2.7%), 축산물(3.8%) 등은 상대적으로 특화가 부진한 물품으로 나타났다(표 III-24).

표 III-24. 용인 인근 재래시장의 물품거래 실적, 1954

지역	총거래액	농산물	수산물	직물	축류	잡화
용인군	42,480,000	17,890,000	2,130,000	1,640,000	6,870,000	13,950,000
	7.7 %	9.1 %	6.4 %	2.7 %	3.8 %	7.9 %
광주군	71,157,000	6,037,000	740,000	13,370,000	47,000,000	4,010,000
수원시	107,310,000	19,060,000	10,950,000	13,800,000	68,800,000	86,700,000
인천시	79,665,000	67,600,000	2,850,000	4,600,000	5,255,000	6,360,000
여주군	33,323,000	6,855,000	2,895,000	4,912,000	16,596,000	2,065,000
이천군	64,920,000	21,410,000	3,310,000	8,900,000	20,300,000	11,000,000
안성군	45,030,000	17,660,000	3,080,000	7,930,000	5,860,000	10,500,000
평택군	8,840,000	3,300,000	120,000	2,320,000	1,280,000	1,130,000
화성군	77,885,000	29,230,000	6,000,000	530,000	2,825,000	39,300,000
시흥군	21,470,000	7,600,000	1,010,000	3,500,000	8,200,000	1,160,000
계	552,080,000	196,642,000	33,085,000	61,502,000	182,986,000	176,175,000

자료 京畿道誌編纂委員會, 1954, 『京畿道誌』中卷, 670쪽.

전후 용인의 정기시장은 기존의 김량장과 백암장에 더하여 모현면의 왕산장, 원삼면의 원삼장, 이동면의 송전장 등 총 5기로 증가하였다. 상설시장화가 하나의 추세로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정기시장의 활성화는 다소 의외인 감은 없지 않지만 당사가 전쟁으로 인해 사회기간설비의 상당부가 파괴되어 경제를 밑바닥부터 재건해야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그리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과거에도 임진왜란과 호란과 같은 전쟁을 겪은 이후 장시발달이 촉발된 예가 있기 때문이다. 장시수의 증가는 비단 용인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니었고 주변 지역도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던 현상이다(그림 III-11). 이들 시장은 철도, 국도, 지방도를 통해 연결되어 행상은 물론 구매자들도 장시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1961년에는 일제의 市場規則을 대신해 새롭게 市場法이 法律 第704號로 제정·공포되었는데 이 법률에 의거해 시장은 세 형태로 구분되기에 이른다. 먼저 제1호시장은 일정한 시설을 구비한 구획된 지역의 常設市場을, 제2호시장은 기존의 定期市場을, 제3호시장은 20인 이상의 영업자가 동일 건물 안에서 매매교환을 하는 商街나 百貨店을 지칭하게되었다.¹¹²⁾ 1963년의 장시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 용인은 지역경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도약을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된다. 3기 이상을 넘지 못하던 장시의 수가 한 개 면에 하나의 비율로 늘어났는데 그만큼 수요의 최소요구치(threshold) 범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인구밀도와 시장간의 거리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시장분

112)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 『韓國農村市場의 制度와 機能研究』, 農業經濟研究報告 88, 1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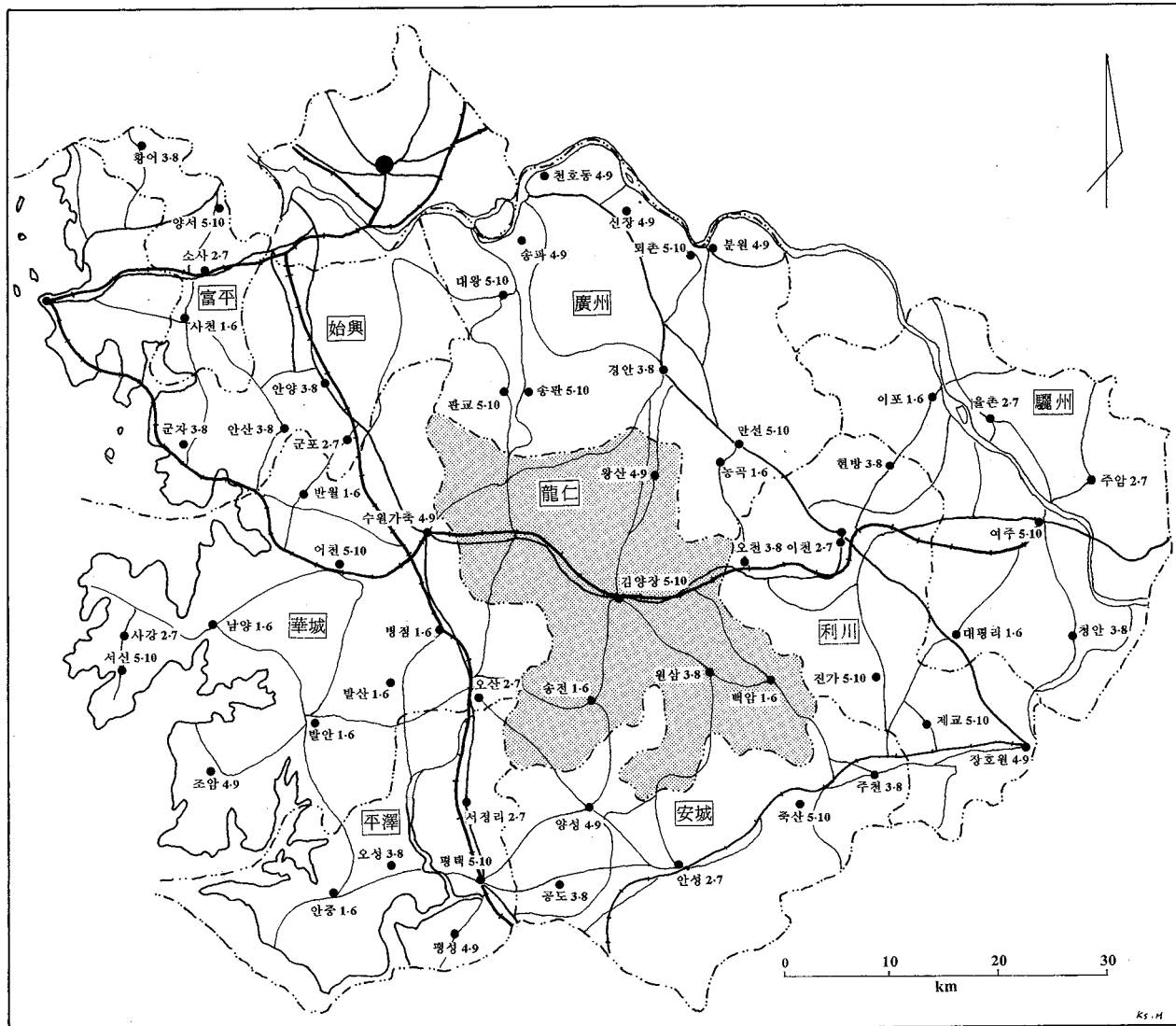


그림 Ⅲ-11. 용인 인근의 재래시장 분포, 1954

포의 밀도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이다.¹¹³⁾ 당시 용인의 장시는 예외 없이 면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였으며, 특히 군청소재지에 개시되던 김량장과 동남부의 중심지인 백암장에는 家畜市場도 열리고 있었다(표 III-25).

표 III-25. 용인의 시장상황, 1963

장시	소재지	개시일	가축시장
金良場	龍仁面	5·10	1
旺山	慕賢面	4·9	
鳳舞	南四面	4·9 / 2·7(1967년)	
松田	二東面	1·6	
高塘	邊三面	3·8	
白岩	外四面	1·6	1

자료 경기도 용인군, 1963, 『봉계인보』, 60쪽.

시장은 교통발달과 시장수요의 확대, 즉 인구증가에 따라 후대로 오면서 성격을 달리 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현상은 정기시장의 상설시장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용인의 경우 1970년까지는 정기시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대대적인 변화는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교통로의 증설과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1970년대 중반이후의 현상으로 판단된다.¹¹⁴⁾ 그러나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지방도시의 성장,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포함한 近代化·都市化의 영향으로 용인의 정기시장은 기능과 역할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우선은 농산물 유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정기시장의 기능이 크게 위축된 반면, 상설점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¹¹⁵⁾

당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읍·면 소재지의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중추기능이 강화되면서 상가 또는 상설점포의 증설은 불가피하였으며 시장사에서는 이때가 전통시장과 근대시장의 접이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상황은 地域景觀내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¹¹⁶⁾ 용인도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주변에는 이미 각종 조합을 포함해

113) G. William Skinner, "Marketing and Social Structure in Rural China," *Journal of Asian Studies* 24 (1964), 3-43.

114) 常設市場化 추세는 다음의 논문에서 예견되고 있다. James H. Stine, "Temporal Aspects of Tertiary Production Elements in Korea," in F.R. Pitts (ed.), *Urban Systems and Economic Development* (Eugene, OR: University of Oregon Press, 1962), 68-88.

115) 1970년대를 전후한 시기의 定期市場의 機能變化에 대해서는 이재하·홍순완의 책 (『한국의 場市: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민음사, 1992) 제 4장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정기시장의 변화 요인으로 저자가 들고있는 요인으로는 都市化, 交通發達, 代替市場의 擴充, 商業的 農業的 發達과 農産物 流通機構의 變化, 大衆媒體의 普及 등이 있다.

116) 趙炳贊, 1992, 『韓國市場經濟史』, 東國大學校出版部, 335-6쪽.

교육시설, 의료시설, 관공서, 우체국, 사진관, 양장점, 수예점 등의 점포가 많이 들어서 있었다(사진 III-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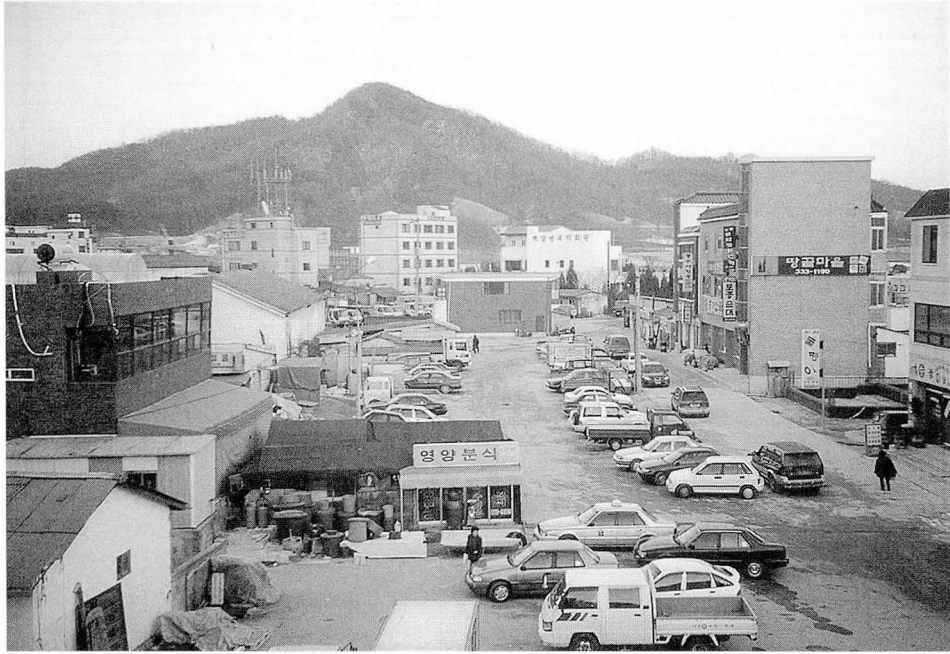


사진 III-8. 백암장 : 조선시대에 排觀場 혹은 排甘場으로 불리던 백암장은 1914년까지는 죽산소 속이었다가 이후 행정구역개편과 함께 용인으로 편입되어 동남부의 교통·상업·행정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개시일은 매달 1일 초장이 열리고 이후 4일 건너 개장하는 5일 장이었다. 가축시장을 겸한 백암 정기시장은 해방이후 경제개발기를 거치면서 상설시장으로 변모하였다.

1969년말 현재 용인에는 공설점포 28동과 사설점포 436동을 포함한 총 464동의 상업용 점포가 있었으며 493명의 점원이 운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매업용 점포는 용인면의 6동과 원삼면의 1동을 포함한 전체 수가 7동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소매업용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1963년의 수치와 비교할 때 점포수는 70%, 점원은 47.6%의 증가에 해당된다. 면별 점포수로는 용인면이 177동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외사면 72동, 기흥면 56동, 원삼면 56동, 내사면 20동, 남사면 18동, 수지면 16동, 이동면 14동, 구성면 13동, 포곡면 11동, 모현면 11동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26).

점포의 업태별 구성을 보면 보다 자세한 상황을 포착해낼 수 있다. 1969년의 상황을 보면 용인에는 의류(20), 양복(14), 가구(7), 화장품(4), 문방구(19), 시계(8), 서적(5), 사진(13), 서비스(41), 자전거포(15), 연료(9), 수산(5), 곡류(12), 기물(4), 철물(9), 대서(11), 고무화(9), 연초(25), 재목(4), 기타(33), 잡상(158), 유류(10), 기계류(6), 수선(10), 과일류(2), 직

물(7) 등에 관여하는 총 457개의 업체가 존재하였다.117)

표 III-26. 용인의 상설점포, 1969

면	총 계				도 매				소 매			
	계	사실	공실	점원	계	사실	공실	점원	계	사실	공실	점원
용인면	177	173	4	200	6	6		11	171	167	4	189
포곡면	11	7	4	14					11	7	4	14
모현면	11	10	1	15					11	10	1	15
구성면	13	11	2	17					13	11	2	17
수지면	16	13	3	16					16	13	3	16
가흥면	56	46	10	62					56	46	10	62
남사면	18	16	2	21					18	16	2	21
이동면	14	13	1	15					14	13	1	15
원삼면	56	56		25	1	1		14	55	55		11
외사면	72	71	1	88					72	71	1	88
내사면	20	20		20					20	20		20
계1969	464	436	28	493	7	7		25	457	429	28	468
계1963	273	273		334					273	273		334
증가율	70.0%	59.7%		47.6%					67.4%	57.1%		40.1%

자료 용인군, 1970, 『제10회 통계연보』, 117쪽. 1963, 『제3회 통계연보』, 61쪽.

용인의 정기시장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한다. 1976년 초에 조사된 통계를 보면 용인에 소재한 6기의 장시 가운데 모현면의 왕산장과 남사면의 내기장이 이미 폐기되어 김량장, 송전장, 원삼장, 백암장 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동차교통시대를 맞아 왕산장은 광주의 경안장이나 김량장에, 내기장은 안성장이나 김량장에 세력권을 넘겨준 듯하다. 농촌인구의 변화, 도로밀도 및 포장율의 증대에 따른 소비자의 기동성 증가, 소매규모의 증대로 정기시장은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던 것이다.118) 김량장과 백암장은 가축장으로 소와 돼지의 출시가 있었다. 상설시장화 추세

117) 용인군, 1970, 『제10회 통계연보』, 118-9쪽. 참고로 1963년의 통계를 보면 식료(16), 음료(3), 수산(2), 의류(16), 문방구(3), 자동차(9), 연료(2), 곡류(9), 기물(5), 가구(11), 철물(4), 육류(13), 미용(15), 하숙(5), 시계(7), 약종(25), 의업(15), 서적(6), 대서(12), 고무화(10), 사진(14), 연초(76), 양복(7), 재목(3), 과일류(3), 기타(18), 잡상(159), 여관(4), 유류(1), 화장품(8), 기계류(2), 수선(2), 직물(10), 서비스(12) 등에 종사하는 총 507 업체가 영업중이었다. (용인군, 1963, 『제3회 통계연보』, 62쪽).

118) Brian Berry, *Geography of Market Centers and Retail Distribu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에 맞추어 이동상인과 좌상이 공존하는 양태를 보여준다. 행상의 경우 이동시에는 도보의 초보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버스, 트럭, 자전거, 오토바이, 수려선, 우마차 등을 이용하였다. 이용객은 적게는 400명에서 많게는 3000명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전평의 수치상으로 김량장에는 상설점포가 장내 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7).

표 III-27. 용인의 정기시장, 1970-1975

장시	소재	개시	건평	실부지	기축장	거래액	고정상인	이동상인	이용자	소	돼지
金良場	용인	5-10	1650평	4882평	1000평	6550천원	204명	218명	3940명	150두	340두
旺山場	모현	2-7	撤市								
內基場	남사	2-7	撤市								
松田場	이동	1-6	23평	1266평		1700	29명	41명	400명		
遠三場	원삼	3-8	19평	872평		3010	23명	42명	400명		
白岩場	외사	1-6		837평	500평	17080	40명	30명	600명	180두	250두

자료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 『韓國農村市場의 制度和 機能研究』, 農業經濟研究報告 88, 372쪽.

김성훈은 장당 평균거래액을 기준으로 1970년대 중반의 재래시장을 100만원 미만의 영세시장(marginal market), 1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기초시장(standard market),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중급시장(intermediate market), 1000만원 이상의 중심시장(central market)으로 구분한 바 있다.¹¹⁹⁾ 이 분류체계에 따르면 용인에는 영세시장이 없는 대신 송전장과 원삼장이 기초시장, 김량장과 백암장이 중급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그림 III-12). 거래액 규모에서 추출한 경기남부 재래시장의 중심시장은 안성장, 평택장, 오산장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장은 개시일을 달리해 경쟁관계를 해소하고 있다. 안성장은 수원장과 함께 조선시대이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줄곧 중심적인 위치를 지켜온 대표적인 정기시장이라 할 수 있다. 용인의 재래시장은 이들 대장시와 서울이라는 거대장시의 영향을 받으며 일상생활권을 형성해왔으나 근대화와 도시화라는 새로운 시대상황 앞에서 미래를 위해 과거를 건설적으로 재정립하지 않을 수 없는 기로에 서게되었다.

1967), 5, 8.

119)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7, 『韓國農村市場의 制度和 機能研究』, 農業經濟研究報告 88, 20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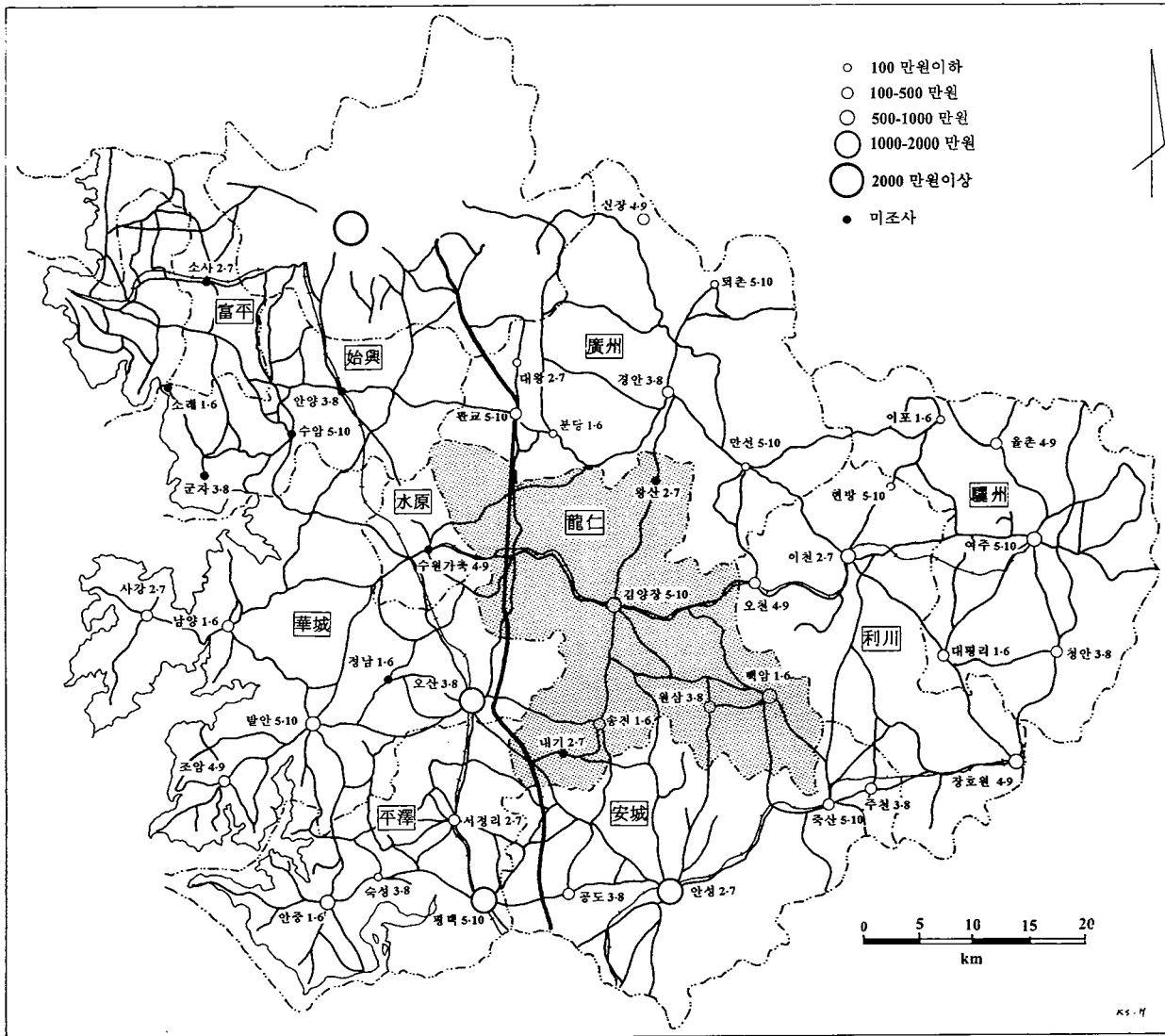


그림 Ⅲ-12. 용인 인근의 재래시장 분포, 1970-75

IV. 龍仁의 聚落

촌락은 한 가족의 거주공간인 가옥이 모여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전통적인 생활공동체의 최소단위이다. 우리가 '마을'이라고 일컫는 촌락의 역사는 인간이 정착생활을 시작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 규모는 서너 가구부터 수백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리학에서는 촌락이 도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촌락이 성장하여 도시로 발달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촌락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도시와 촌락의 구분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양자의 구별의 기준이 되어온 것은 인구규모와 밀도, 행정적 지위, 경제기반, 도시적 기능이나 시설의 유무 등이나,¹⁾ 국가나 지역의 성격에 따라 그 기준이 상이하므로 촌락과 도시의 구분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된 서구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이 촌락과 도시를 구분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도 촌락과 도시의 구분이 모호한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龍仁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용인은 특히 최근 들어 비대해진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의 주거 및 공업기능을 분담하게 되었고 도시민들의 여가활동의 장으로서도 널리 활용되면서 촌락의 경관뿐만 아니라 기능, 구조 등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촌락을 이루는 주체인 주민의 구성상에 있어서도 외지인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토박이의 비율이 외지인의 그것보다 낮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농민이 주를 이루는 생활의 기본단위이자 전통적인 향촌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오랜 세월동안 유지되어온 지역공동체였던 용인의 촌락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모두 그 순수성과 고유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화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지방의 그것과 구분되는 용인 촌락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용인의 촌락이 선사시대부터 최근까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해 왔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용인의 촌락을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눈 다음, 구체적인 예를 중심으로 그 입지와 경관, 형태와 구조, 그리고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촌락의 유형구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가장 널리 이용되는 기능에 따른 분류를 통해 구읍취락, 농촌, 교통촌, 시장촌 등으

1) Carter, H., 1990, *Urban and Rural Settlements*, Longman, pp.5-8.

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루고자 하는 동족촌은 앞의 기능상의 분류로는, 대부분 농촌에 속하나 아직까지 과거 용인촌락의 모습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므로, 따로 독립시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취락의 형성과 발달

1) 선사시대-고려시대의 취락

용인은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우리 조상들의 생활무대로 가장 일찍부터 이용되어 온 한강유역에 속해 있어 일찍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의 先史時代 住居址가 발견된 바는 없으나, 모현면 갈담리,²⁾ 남사면 봉무리,³⁾ 이동면 덕성리,⁴⁾ 이동면 천리 구수동,⁵⁾ 원삼면 목신리,⁶⁾ 양지면 평창리⁷⁾ 등지에서 石器時代 유물들이 발견되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석기시대 유적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그 입지 상에 있어서 뚜렷한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대부분이 용인을 관통해 흐르는 慶安川·振威川과 소하천인 木新川, 秋溪川 등 하천 변에 분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하천에서 그리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先史時代 사람들이 하천 변을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매우 선호했다는 의미이다. 이들이 물가를 그들의 거주지로 택한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先史時代人들의 중요한 식량이었던 어류를 쉽게 잡을 수 있고, 어류 외에도 하천 변에는 풍부한 동식물이 서식해 채집 및 수렵생활을 통해 식량의 확보가 가장 유리한 곳이었다. 둘째는 선사시대인들이 사용하였던 연장의 주요재료인 돌을 구하기가 제일 좋은 곳이 물가였다. 선사시대인들은 대개 流水에 의해 마모된 단단한 강돌로 석기를 제작하였으므로 물가는 연장의 원료공급처인 동시에 제작소 역할을 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리하였다. 셋째는 하천이 그들의 移動路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⁸⁾ 선사시대인들은 수렵과 채집을 위해 수시로 이동하였는데, 다른 곳에 비해 식량이 풍부하고 지형이 평탄

2) 갈담리 갈월마을과 파담마을에서 각각 석기시대 유물이 수습되었다(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 문화유적지도 I』, 170쪽.).

3) 석영제 의 몸돌, 짚개 등이 수습되었다(경기도박물관, 1999, 앞의 책, 173쪽.).

4) 석영제 및 규암제 석핵이 수습되었다(경기도박물관, 1999, 앞의 책, 174쪽.).

5) 짚개, 굽개 등이 수습되었다(경기도박물관, 1999, 앞의 책, 175쪽.).

6) 석영제 석기 및 박편이 수습되었다(경기도박물관, 1999, 앞의 책, 177쪽.).

7) 다수의 석영제 소형석기와 소량의 호른펠스제, 반암제 석기가 수습되었다(경기도박물관, 1999, 앞의 책, 179쪽.).

8) 藤岡謙二郎, 1955, 『先史地域及び都市域の研究- 地理學における地域變遷史的研究の立場』, 柳原書店, 111쪽.

하여 이동이 용이한 하천 변이 주요 이동로로 사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일시적인 거주장소도 하천 변에 집중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선사시대유적들이 하천 변에 주로 분포하는 것은 용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원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⁹⁾

또한 표 IV-1과 같이 용인의 곳곳에서는 靑銅器時代에 조성된 것으로 믿어지는 支石墓와 立石이 발견되어, 그 주변에 선사시대의 주거지가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유적들의 위치를 석기시대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유운리 유물출토지¹⁰⁾·봉무리 석기출토지¹¹⁾·상하리 지석묘¹²⁾ 등과 같이 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하천 변에 위치한 것도 있으나, 맵리 지석묘·사암리 지석묘와 선돌·두창리 선돌·초부리 용범출토지·중리 지석묘·정수리 석부출토지 등 상당수는 계류가 관통해 흐르는 평탄하고 넓은 골짜기에 입지한 것이 많다.

즉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는 석기시대의 주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당시 본격화된 농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농경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지역에 정주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주기적인 이동을 하던 석기시대보다는 신중한 탐색과정을 거쳐 영구적인 주거지를 선정하였을 것이며, 이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은 생존과 직결된 안전의 문제였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자연재해와 외부인의 침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협요소를 줄이는 데는 하천 변보다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고 주위가 산이나 구릉지로 둘러싸인 골짜기가 유리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자연재해 중에 농사는 물론 인명까지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는 水害였으며, 하천 변은 수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곳에 자리잡아야 했다. 또한 주위가 개방된 하천 변보다는 고도가 높고 주위가 산이나 구릉지로 위요된 골짜기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에 더욱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표 IV-1. 용인의 청동기시대 유적

분류	명칭	소재지
지석묘	마성리 지석묘	포곡면 마성리
	유운리 지석묘	포곡면 유운리 87-88
	모현 지석묘	모현면 왕산리 498
	중리 지석묘	구성면 중리
	상하리 지석묘	구성면 상하리 387

9) 서정석, 1997, “京畿地域의 先史古代遺蹟”, 『京畿地域의 郷土文化』(下), 精神文化研究院, 574-578쪽.

10) 慶安川 변에 위치해 있다.

11) 振威川의 지류 변에 입지해 있다.

12) 新葛川 변에 입지해 있다.

지석묘	상하리 지석묘	구성면 상하리 387
	사암리 지석묘	원삼면 사암리 안곡
	맹리 지석묘	원삼면 맹리 234
	근삼리 지석묘	백암면 근삼리
	주북리 지석묘	양지면 주북리 임원
입석(선돌)	유운리 선돌	포곡면 유운리 평촌
	창리 선돌	남사면 창리 감바위골
	사암리 선돌	원삼면 사암리 내동
	두창리 선돌	원삼면 두창리 주내
유물출토지	유운리 유물출토지	포곡면 유운 2리
	초부리 鎔范출토지	모현면 초부리 89-85
	봉무리 석기출토지	남사면 봉무리 도장골
	정수리 石斧출토지	양지면 정수리

자료: 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문화유적지도 I』, 167-179쪽.

三國時代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중부에 위치한 용인은 高句麗·百濟·新羅의 접경지대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컸다. 고구려가 남쪽으로, 또는 백제가 신라가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용인을 포함한 한강 유역을 반드시 점령해야 했다. 이런 연유로 본래 백제의 영토였던 용인은,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南征하여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용인을 駒城縣이라 명명한 뒤에는 고구려의 영토에 예속되었고, 그 후 잠시 백제에 의해 수복되었으나, 553년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한 후로는 신라의 통치를 받았다. 이렇게 용인은 삼국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적지 않은 城이 분포한다. 본래 城은 방어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나, 邑治와 촌락의 위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삼국시대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읍치 인근의 산이나 구릉지에 반드시 유사시에 대비한 2~3곳의 山城을 축조하는 것이 상례였고, 촌락 주변의 要害處에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성을 쌓고 양식을 보관해 놓아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¹³⁾ 또한 축성에는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며 그 노동력 동원의 상당부분은 인근 촌락의 주민들에 의존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취락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는 현재로서는, 城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3) 이에 대해 柳成龍은 『西厓集』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我國郡邑 凡山勢稍斗絕處 無不有古城基地 一邑或二三處 多者五六處 是知自三國以降 以及高麗爭戰之際 不但郡邑之居 必據險地 雖村落民居 處處保險 置公私積蓄於其中 敵來則清理人守 敵退則下山耕種 實保民守國之長策也”(『西厓集』卷15, 雜著, 山城說)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인의 城址는 寶蓋山城¹⁴⁾, 할미성¹⁵⁾, 台峰山城¹⁶⁾, 行軍이土城¹⁷⁾, 處仁城¹⁸⁾ 등이 있으며, 이중 보개산성과 할미성, 태봉산성과 행군이 토성은 서로 인접해 있다.¹⁹⁾ 따라서 서로 인접해 있는 성들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축조되었으며,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보개산성과 할미성은 남한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온 산줄기의 주요 봉우리인 할미봉(349m)과 석성산(471m)의 산정부에 위치해 있다. 할미봉과 석성산을 중심으로 반경 5km 내에, 표 1에서 열거한 17곳의 유적 중 7곳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²⁰⁾으로 미루어 보아, 이 일대가 선사시대부터 상당한 인구가 거주한 용인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지리적·전략적 중요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산성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할미봉과 석성산이 용인의 중심부에 우뚝 선 산봉우리인 까닭에 여기에서 용인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용인의 중심부로서의 이 일대의 역할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조선시대 龍仁縣의 治所가 언남리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 석성산이 용인의 鎭山 역할을 해왔다는 점 등이 그 증거이다. 한편 태봉산성과 행군이 토성은 용인에서 가장 넓은 들 중 하나인 淸溪川 변의 충적지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삼국시대 軍事 移動路로 이용되었을 것으로²¹⁾ 추정되는 양지-백암 간 도로변의 전략적 요충에 자리하고 있다. 이 일대에도 청미천 변의 충적지에서 주변 구릉지로 파고 들어간 골짜기에 맹리 지석묘·사암리 지석묘와 선돌·두창리 선돌 4곳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일대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인구 면에서나 군사적인 면에서 중요성을 지닌 곳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용인의 촌락은 계속 성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등 조선시대의 地理志를 통하여 단편적인 기록만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려시대 용인에는 處仁·高安·大谷·木岳·蹄村²²⁾·陽良 등 6개의 部曲과 秋溪²³⁾의 1개 鄉이 존

14) 石城山城이라고도 하고, 포곡면 마성리에 위치해 있다.

15) 老姑城이라고도 하며, 구성면 동백리에 있다.

16) 원삼면 좌항리에 있다.

17) 원삼면 맹리 행군이에 있다.

18) 남사면 아곡리에 있으며, 그 축성시기에 있어서 삼국시대 혹은 고려시대의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고려 高宗 18年(1231)에는 김윤후장군이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고군을 이곳에서 물리쳤다.

19) 직선거리로 보개산성과 할미성은 약 1.5km, 태봉산성과 행군이 토성은 약 500m 떨어져 있다.

20) 마성리 지석묘, 유운리 지석묘, 중리 지석묘, 상하리 지석묘, 주북리 지석묘, 유운리 선돌, 유운리 유물출토지 등이다.

21) 5-6세기 경 고구려가 남방진출에 힘을 기울일 때 전진기지로 이용된 곳이 충주였는데, 양지-백암 간의 도로는 한강유역과 충주를 잇는 주요통로의 일부였다(崔永俊, 1990, 『嶺南大路』,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42-44쪽).

22) 고안, 대곡, 목악, 제촌 등 4개의 부곡의 원소속에 대해서는 廣州소속이었다가 양지현으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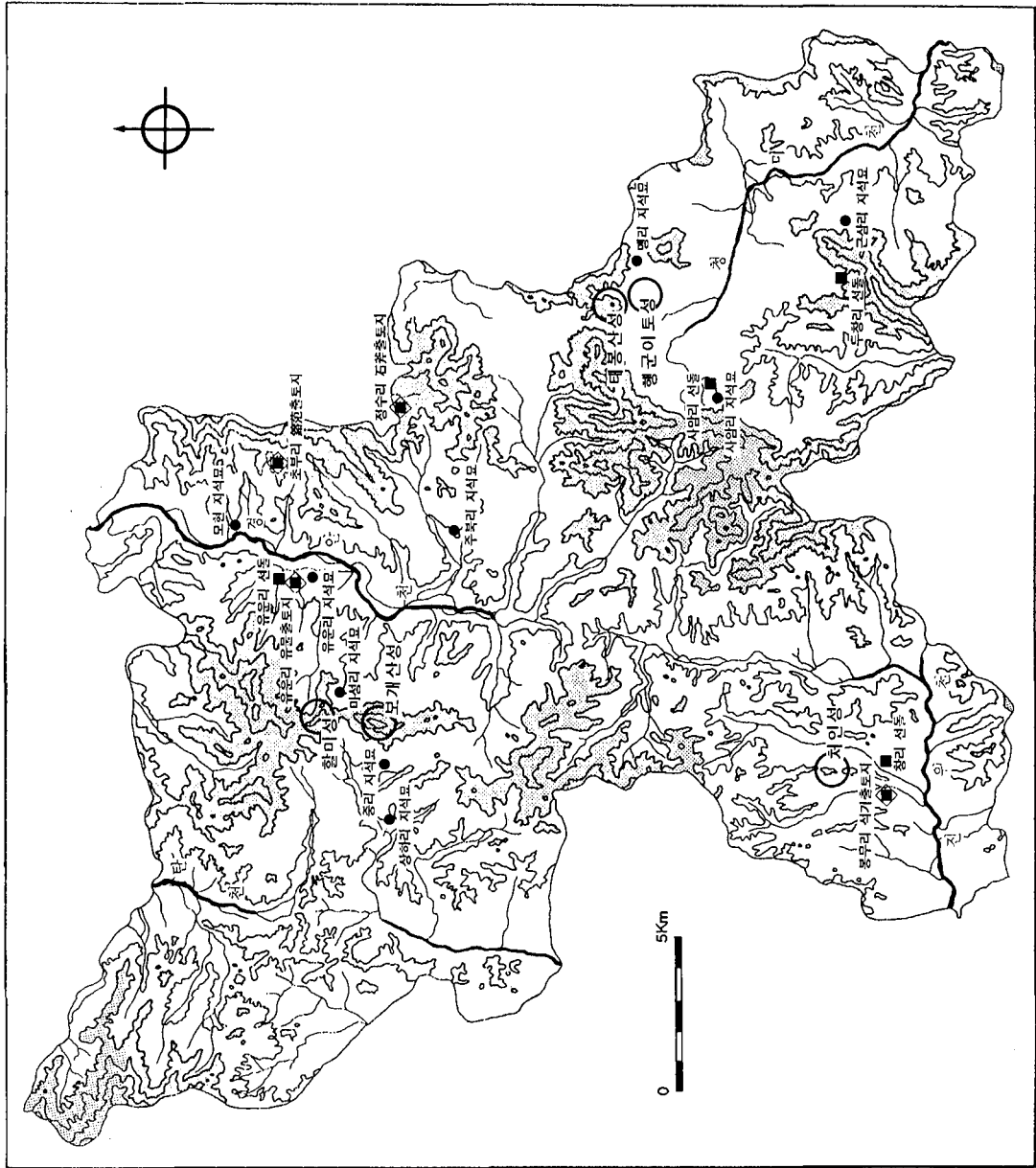


그림 IV-1. 용인의 청동기 유적과 성지의 분포

속되었다는 기록과(『世宗實錄地理志』, 陽智縣), 竹州소속이었다가 양지현으로 이속되었다는 서로 다른 기록(『新增東國輿地勝覽』卷8, 陽智縣)이 있다.

23) 본래 廣州소속으로, 太宗 13년(1415년) 양지현에 속하게 되었다(『世宗實錄地理志』, 陽智縣).

재하였다. 부곡과 향은 신라 때부터 존재했던 행정구역의 하나로, 그 성립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說이 있으나, 신라 때는 田丁이나 戶口의 규모가 縣이 되기에 부족한 곳에 향 또는 부곡을 두어 그 소재하는 邑에 속하게 하였으며,²⁴⁾ 고려 때에는 후삼국통일전쟁에서 패배한 집단이나, 고려 왕조에 반역을 일으킨 집단의 거주지에 부곡이나 향을 설치하는 예가 많았다.²⁵⁾ 용인에 존재했던 향과 부곡은 그 설치경위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나, 조선 초의 변질과정을 통해 그 성격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의 부곡과 향들은 고려말 조선초를 거치면서 군현으로 승격하거나, 원래 소속된 군현에서 다른 군현으로 이속되면서 해당 군현의 일부를 이루는 방식으로 변동되고,²⁶⁾ 또는 원래 소속된 군현에 그대로 묶여 있으면서 直村으로 변화되었다.

용인의 향과 부곡들은 앞의 두 유형에 속하는데, 먼저 水原소속이었던 처인부곡은 1397년 단독으로 현으로 승격되어 한 동안 존속되다가 1413년 龍駒縣과 합쳐져 용인현이 되었다.²⁷⁾ 역시 수원소속이었던 양양부곡도 1399년 양지현으로 승격되었으나, 그 규모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1415년 廣州소속이었던 추계향과 고안·대곡·목악·제촌 등 4개 부곡을 예속시켜 郡勢를 유지케 하였다.²⁸⁾ 이러한 변질과정을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 용인의 부곡들은 처인부곡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군과 현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전정과 호구 등이 소규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남사면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인부곡은, 고려말 조선초에 이르면 하나의 현으로 승격될 수 있을 정도의 인구와 경지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남사면 아곡리에 남아 있는 處仁城은 고려시대 처인부곡의 행정중심지 및 邑城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²⁹⁾ 다른 여러 부곡과 달리 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처인부곡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양양, 고안, 대곡, 목악, 제촌부곡은 각각 현재의 양지면 일대, 백암면 백봉리·고안리 일대, 원삼면 죽릉리·문촌리 일대, 원삼면 목신리·학일리 일대, 안성시 일죽면 당촌리·능곡리 일대로 추정되며, 추계향은 양지면 추계리 일대로 생각되는데, 각각 부곡과 향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24) 『新增東國輿地勝覽』卷7, 驪州牧, 古跡條, 登神莊.

“今按新羅建置州郡時 其田丁戶口未堪爲縣者 或置鄉或置部曲 屬于所在之邑”

25) 朴宗基, 1980, “高麗時代 鄉·部曲의 變質過程”, 『韓國史論』6, 72-83쪽.

26) 朴宗基, 1990, 『高麗時代 部曲制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204쪽.

27) 『世宗實錄地理志』, 龍仁縣.

28) 『世宗實錄地理志』, 陽智縣.

29) 車勇杰, 1998, “처인성터의 구조와 성격”, 『고려시대의 용인』, 용인시, 40-42쪽.

표 IV-2. 용인의 토성과 망성

姓氏	龍仁縣	陽智縣
土姓	秦李宋龍殷(이상 龍駒) 李徐池葉金康(이상 處仁)	安朴柳文(高安) 安(秋溪)
亡姓	-	朴李金(이상 高安) 李池(이상 秋溪)

자료 『世宗實錄地理志』.

한편 『世宗實錄地理志』에는 표 IV-2와 같이 용인의 土姓과 亡姓이 기재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성씨들은 고려 이래의 기록과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 각 도에서 올린 문서를 근거로 작성되었는데, 토성이란 고려 초 성씨의 分定時 그곳에 토착하면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유력한 씨족 또는 그곳을 본관으로 하면서 邑司를 구성하였던 성씨집단을 의미하며, 망성은 종래의 토성이 소멸되거나 타지로 이주하여 당시에는 이미 그 곳에 없는 토성을 가리킨다.³⁰⁾ 따라서 표 2에 기재된 용구현, 처인현, 고안부곡, 추계향의 토성과 망성들은 고려시대 각 지역의 지배층을 이루던 성씨집단이라 할 수 있다.

2) 조선시대 이후 취락

국토공간 상 용인이 지니는 중요성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더욱 증대되었다. 조선을 건국한 李成桂는 서울을 왕도로 정하고, 왜구의 위협이 덜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지대에 새 왕조의 간선도로가 놓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삼국시대 이래 군대의 이동로로 이용되었고, 麗末에는 왜구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稅穀輸送路로 이용되었던 한강과 낙동강 水路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따라 새로운 간선도로를 개발하였는데, 이 도로가 漢江과 東萊를 연결하는 이른바 嶺南大路였으며, 용인을 관통해 지나갔다. 즉 조선시대 이후 용인은 서울로 통하는 길목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감에 따라 촌락의 발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비교적 다양한 자료가 남아 있어 용인의 촌락의 발달과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먼저 취락 발달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인구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표 IV-3은 조선시대 시기별로 인구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각각의 통계자료가 조사의 완전도와 정확도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이용해 조선시대 용인의 인구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나, 각 시기 별로 인구의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30) 李樹健, 1984,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34-36쪽.

표 IV-3. 조선시대 용인의 인구 추이

시기	龍仁縣		陽智縣	
	戶數	口數	戶數	口數
세종연간	457	1,168	346	609
18세기 후반	4,859	21,119	1,685	9,557
20세기 초	6,477	25,307	2,084	10,081

자료 『世宗實錄地理志』,
『戶口總數』,
政府財政顧問本部, 1907, 『韓國戶口表』.

『世宗實錄地理志』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초기 용인의 인구규모를 살펴보면, 용인현이 1,168명으로 양지현의 609명에 비해 인구가 2배 가까이 많았으나, 인근의 광주·이천·죽산·음죽·양성·여주·안성 등의³¹⁾ 군현들에 비해서는 두 현 모두 인구가 적은 편이었다. 특히 양지현은 경기 남부의 군현 중에서 지평·진위·안산³²⁾ 등과 함께 인구가 가장 적은 축에 속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新增東國輿地勝覽』陽智縣 題詠條의 ‘땅이 궁벽하고 사람이 드물어 고요하며 시끄럽지 않다’³³⁾ 등의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용인현의 경우, 조선전기 일부지역이 왕실의 수렵장으로 이용되기도 했는데,³⁴⁾ 이것은 당시 인구가 적었다는 증거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인구의 증가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왕실의 수렵장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로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들어 용인의 인구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비교에 무리가 따르지만, 세종 연간의 그것에 비해 18세기의 인구는 용인은 10배 이상, 양지는 5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호수는 용인은 18배, 양지는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무렵의 戶數를 기준으로 전국의 고을들의 크기를 32개의 범주로 구분해 놓은 丁若鏞의 『經世遺表』를 통해 용인·양지현의 인구규모를 다른 군현과 비교해 보면, 용인은 안성·괴산·보령·영천 등과 함께 4천 호 이상 4천5백 호 미만의 범주에 속해 전국적으로 중간 규모의 군현에 속하였고, 양지는 안산·가평·음성·진해·정읍 등과 함께 2천 호 이상 2천5백 호 범주에 속해 인구규모가 적은 군현에 속하였다.³⁵⁾

31) 『세종실록지리지』에 기재된 광주·이천·죽산·음죽·양성·여주·안성의 인구는 각각 3,110·3,898·2,118·1,088·1,210·1,144·1,763명이었다.

32)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지평·안산·진위의 인구가 각각 515·588·535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33) 『新增東國輿地勝覽』卷8, 陽智縣 題詠條.

34) 『世宗實錄』卷29, 世宗 17年 10月 己酉條.

『世祖實錄』卷29, 世祖 14年 1月 己丑條.

『成宗實錄』卷252, 成宗 6年 9月 甲戌條.

표 IV-4. 18세기 용인 및 인근 군현의 인구밀도와 읍인구율

군 현	면적(km) ¹⁾	인구(명)		인구밀도 (명/km ²)	읍인구율(%)
		전체	읍구 ²⁾		
용 인	385	17,929	1,188	46.6	6.6
양 지	165	8,662	1,267	52.5	14.6
과 천	141	13,812	2,331	98.0	16.9
여 주	638	26,021	2,348	40.8	9.0
광 주	896	54,709	4,108	61.1	7.5
죽 산	246	20,903	1,927	85.0	9.2
음 족	161	7,824	677	48.6	8.7
이천	312	22,544	1,701	72.3	7.5

- 1) 오늘날의 지형도를 이용, 조선후기 행정구역을 복원하여 계산한 값이다.
 - 2) 읍치 주변에 거주하던 인구의 수로, 예를 들어 용인은 邑內面, 양지는 縣內面, 과천은 縣內面의 인구수이다.
- 자료 『輿地圖說』.

표 IV-4는 『輿地圖說』의 인구자료를 이용해, 인근 군현과 용인의 인구밀도, 그리고 전체 인구 중 읍의 인구를 계산한 것이다. 1km² 당 인구밀도는 용인과 양지가 각각 46.6명과 52.5명으로, 인근 군현에 비해 낮은 수준에 속하였다. 전체 인구 중 邑治 주변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을 보여주는 邑人口率은 용인이 6.6명, 양지가 14.6명으로, 용인은 읍인구율이 인근지역 중 가장 낮아 비교적 인구가 고르게 분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데 반해, 양지는 과천 다음으로 읍인구율이 높아 읍치를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 18세기 용인의 면리와 면 별 인구

군 현	면	리	인구(명)
龍仁縣	邑內面	남동, 북동, 교동	1,031
	東邊面	수상동, 수중동, 수하동	914
	西邊面	일리	416
	駒興面	마분리, 진과리	376
	水眞面	수상동, 수하동	1,826
	枝內面	상리, 수하동, 하동, 호천동, 의곡, 덕동, 영릉리	1,783
	器谷面	농사동, 공세동, 지곡동, 보라산리, 한의동, 서근천동	1,802
	水餘面	서동, 북동, 소학동, 남동, 호동, 남곡동	2,359
	蒲谷面	수상동, 수동동, 수하동	2,231
	慕賢村面	수하동, 수하동	1,928
	縣內面	완장동, 화동, 중동, 창동	1,290
	道村面	상동, 하동	781

35) 『經世遺表』卷4, 天官修制, 郡縣分等.

龍仁縣	西村面	일리	435
	南村面	진목동, 방목리, 궁동, 원암동	930
	上東村面	덕의동, 목동, 천동	1,188
	下東村面	송전동, 어비동, 묘봉동, 묘산동, 모산동, 시미동	1,829
陽智縣	邑內面	암곡리, 교동리, 흥문리, 등원리, 남대원리	1,166
	朱東面	공세동리, 산막동, 우래곡, 도아지리, 좌찬리, 추계리, 유점리, 금곡리	1,358
	古北面	약산리, 상가리, 하가리, 염치리, 산후리, 유역리	604
	古西面	지곡리, 주곡리, 갈산리, 대평리	848
	古東面	월노동, 향림리, 쌍령리, 봉지곡, 삼은리, 화산리, 봉황리	1,515
	木岳面	목악리, 학일리	315
	朱西面	신평리, 반정리, 정문리, 송동리, 마전리, 식지곡리, 어득리	738
	朱北面	정수리, 대대리, 흑암리, 박성곡리	862
	朴谷面	청계리, 박석곡, 신창리	827
	高安面	백동리, 주천리, 상리, 중리, 봉리, 평리	974
	蹄村面	국동리	350

자료 『戶口總數』.

한편 이 시기에 이르면 표 IV-5와 같이 용인현은 16개 면 54개 리, 양지현은 11개 면 53개 리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촌락의 전체적인 짜임새가 갖추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면 별 인구규모에 있어서는 2,359명(龍仁縣 水餘面)에서부터 315명(陽智縣 木岳面)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1,136명 정도였다. 또한 한 개 면에 소속된 洞里의 수에 있어서도 1개(용인현 서변면·서촌면, 양지현 제촌면)부터 8개(양지현 주동면)까지 다양하였다.

용인의 인구는 18세기 이후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촌락도 성장을 거듭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6은 1789년에 간행된 『戶口總數』와 1914년 일제에 의한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있기 전인 1912년에 발간된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기재되어 있는 용인현의 동리 수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표 IV-6. 18-20세기 초의 용인현의 촌락수의 변화

면	1789년(동리 수)	1912년(동리 수)
邑內面	남동, 북동, 교동(3)	북동, 남동, 언동, 마곡(4)
東邊面	수상동, 수중동, 수하동(3)	수청동, 덕수동, 동막, 백현, 중동, 하지석, 상지석, 수원동(8)
西邊面	일리(1)	이현, 독정리, 보수원(3)
駒興面	마분리, 진과리(2)	갈곡, 내기, 갈천, 상촌, 미동, 신촌, 역촌, 상관곡, 하관곡(9)
水眞面	수상동, 수하동(2)	죽전동, 토월동, 원천동, 동막리, 손기리, 고분현, 서봉동, 신리, 정평리, 성북동(10)

枝內面	상리, 수하동, 하동, 호천동, 의곡덕동, 영통리(6)	상리, 하리, 의상, 의하, 덕동, 영통(6)
器谷面	농사동, 공세동, 지곡동, 보리산리, 한의동, 서근천동(6)	상갈천, 중갈천, 하갈천, 내서천, 외서천, 농사동, 고매동, 공세동, 한의동, 보리동, 지곡(11)
水餘面	서동, 룡동, 소학동, 남동, 호동, 남곡동(6)	서동, 역동, 북동, 유곡, 방축동, 금천리, 어매곡, 임원리, 고진리, 소학동, 하리, 대촌리, 동진리, 삼삼리, 호동, 예진리, 고업리, 매곡(18)
蒲谷面	수상동, 수동동, 수하동(3)	신원리, 유실, 소운동, 전곶리, 신대, 가실, 동막, 이성동, 부곡, 허문, 냉천, 영곡, 마가실, 성저리, 둔전, 두계동, 당곡, 도사리(18)
慕賢村面	수하동, 수하동(2)	오산리, 우명동, 원촌, 왕림, 동산리, 고매곡, 상마산, 하마산, 개일리, 모산리, 관청리, 왕곡, 비담리, 갈월리, 부곡, 초하리(16)
縣內面	완장동, 화동, 증동, 창동(4)	완장동, 아곡, 남산리, 창동, 방축동, 월곡, 화동(7)
道村面	상동, 하동(2)	삼인리, 상동, 산정동, 내기, 수세동(5)
西村面	일리(1)	원포, 봉명동, 외동천, 동막, 사후(5)
南村面	진목동, 방목리, 궁동, 원암동(4)	원암동, 아곡, 전곶리, 방목동, 진목동(5)
上東村面	덕의동, 묵동, 천동(3)	묵동, 덕성동, 천동, 원촌, 서동(5)
下東村面	송전동, 어비동, 묘봉동, 묘산동, 모산동, 시미동(6)	시미동, 모산동, 묘산동, 묘봉동, 어비동, 송전동(6)
총 계	54	136

자료 『戶口總數』.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 覽』(이인영, 1991, 『내고장 용인 地誌總覽』, 용인문화원, 300쪽에서 재인용).

약 120년 사이에 동리 수가 2.5배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료의 정확도를 고려한다 해도 동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것은 이 기간 동안의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촌락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의 인구증가치를 감안한다면, 동리 수의 증가가 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경지의 개간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촌락이 완전히 새롭게 생성된 데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촌락의 이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곡·수여·현내면 등과 같이 기존의 촌락명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에 새로운 촌락명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구홍·수진·모현촌면 등과 같이 기존의 촌락명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촌락명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경지의 개간 등으로 완전히 새롭게 촌락이 생성된 것도 있겠지만, 따로 촌락명을 붙일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았던 기존의 촌락이 일정규모에 이르면서 독립된 촌락명을 얻은 것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후자의 경우도 기존의 촌락이 성장하여 여러 개의 촌락으로 分洞되면서 본래의 이름이 쓰이지 않게 된 결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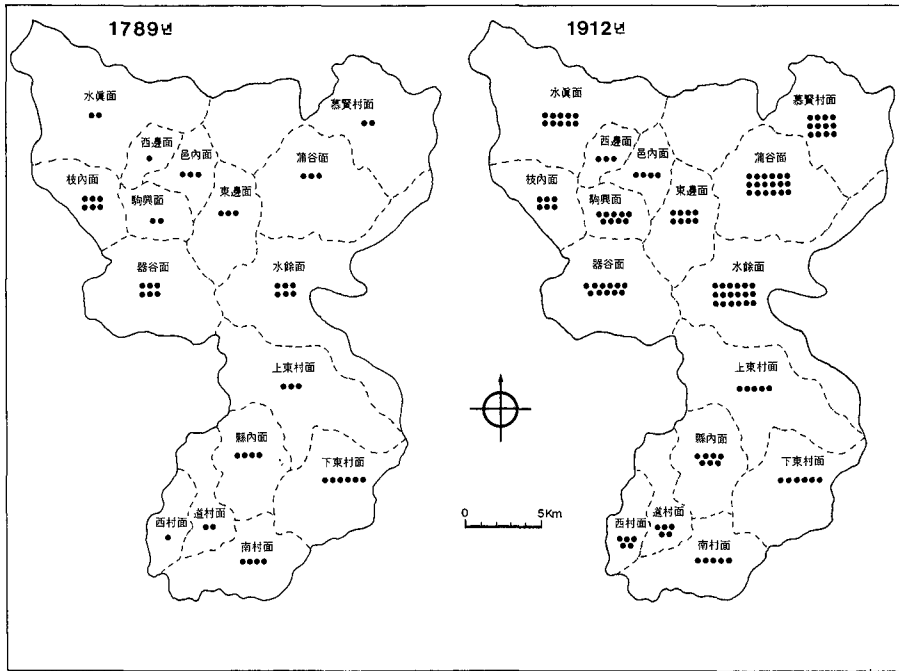


그림 IV-2. 18~20세기초 용인현의 촌락수 변화

또한 이 기간 동안의 동리수의 증가상황을 면별로 분석해 보면, 읍내·지내·남촌·상동촌·하동촌면 등은 변화가 없거나 약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구흥·수진·수여·포곡·모현촌면은 3배 이상 늘어나 면별 동리 수 증가폭에 있어서 큰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7. 일제시대 이후 용인의 인구

년 도	가 구 수	인 구 수
1925년	14,190	75,910
1944년	15,587	84,984
1964년	16,996	105,785
1974년	19,131	107,687
1984년	32,035	149,114
1994년	66,962	209,682
1999년	119,996	359,406

자료 朝鮮總督府, 1926, 『簡易國勢調査結果表』, 5쪽.
 朝鮮總督府, 1944, 『人口調査結果報告』, 20쪽.
 龍仁郡, 1965, 『통계연보』, 10쪽.
 龍仁郡誌編纂委員會, 1990, 『龍仁郡誌』, 22쪽.

일제시대 이후 최근까지의 용인의 인구추이를 정리하면 표 IV-7과 같다. 용인의 인구는 일제시대 이후 1980년대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매년 인구증가율 10% 내외의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인구유출로,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촌락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농촌지역과는 판이한 양상이다. 즉 1980년대 이후 서울·인천 등 수도권의 대도시들이 인구의 집중으로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근지역으로 각종 산업시설과 인구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용인도 이를 분담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조상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이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던 용인의 촌락들은 급속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표 IV-8. 1970년 이후 용인의 면별 인구변화

면	1970년	1985년	1999년	증감율(%)	
				1970-1985년	1985-1999년
용인면 ¹⁾	13,538	37,075	75,560	173.8	103.8
포곡면	5,620	13,087	24,310	132.9	85.8
모현면	6,250	8,384	18,160	34.1	116.6
구성면	6,355	11,965	26,028	88.3	117.5
수지면	6,637	10,417	102,068	57.0	879.7
기흥면	10,384	26,969	61,648	160.0	128.6
남사면	9,009	8,336	7,662	-7.5	-8.1
이동면	8,529	10,532	13,405	23.5	27.3
원삼면	9,763	7,766	7,505	-20.5	-3.4
외사면 ²⁾	11,816	10,418	10,530	-11.8	1.1
내사면 ³⁾	6,947	8,838	12,530	27.2	41.8
계	94,848	153,787	359,406	62.1	133.7

1) 용인면은 1979년 용인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96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됨에 따라 용인읍이 중앙동·역북동·유림동·동부동으로 분할되었다. 1999년도 통계는 4개 동의 인구를 합한 통계치이다.

2) 1996년 3월 1일 외사면이 백암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1996년 3월 1일 내사면이 양지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자료 경제기획원, 1972, 『1970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통계청, 1987, 『1985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용인시, 2000, 『용인시 통계연보』.

1970년대 이후의 면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표 IV-8 참조),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용인 전체의 인구는 1970-1985년 사이에 62.1%가 증가했으며, 1985-1999년 사이에는 무려 133.7%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일부 면들은 인구가 줄곧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면들도 그 증가폭에 있어서 격차가 심하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구증감양상에 따라 용인의 면들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면인데, 백암·원삼·남사면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모두 용인의 남단에 위치한 면들로, 서울과의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로에서도 벗어나 있어 상대적으로 외지인의 유입이 적었고, 공장 등 산업시설의 유치도 드물어 여전히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곳이다. 이에 따라 1970년까지 인구수에 따른 면 별 순위에서 각각 2·4·5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가 많은 곳이었으나, 그 후 계속 인구가 감소하여 1999년 현재 가장 인구가 적은 곳으로 변하였다. 둘째 유형으로는 모현·이동·양지면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인구가 증가하긴 했으나, 용인 전체의 인구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인구순위에 있어서도 큰 변동이 없었다. 셋째 유형은 용인 전체의 인구증가율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는 구성·포곡면으로, 경부·영동고속도로가 관통해 지나가는 등 교통조건이 양호하여 공장·물류창고 등이 들어서고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어 외지인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인구순위에서 1970년에는 각각 8·11위였으나 1999년에는 4·5위로 뛰어 올랐다. 넷째 유형인 용인면과 기흥면은 일찍부터 용인의 중심지역할을 수행해 와서 본래 인구가 많았으며, 1980년대부터 공업단지가 건설되어 1970-1999년의 30년 동안에도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마지막 유형은 인구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수지면으로, 1985-1999년의 15년 사이에 무려 9배 가까이 늘어나 현재 12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조성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인구변화양상은 촌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직도 농업에 강하게 의지하고 있는 첫째 유형의 촌락들은 고유의 문화와 경관을 간직하고 있으나 이농에 따른 인구의 감소로 점차 활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둘째와 셋째 유형의 촌락들은 외적인 면에서 옛 모습이 많이 남아 있으나, 내적으로는 주민들의 생업변화와 외지인의 유입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넷째 유형의 촌락들은 일찍부터 농업 외적 기능이 강한 촌락들이 많았으며, 현재는 촌락이라기 보다는 도시적인 색채가 강한 취락으로 변모하였다. 다섯째 유형은 기존의 촌락을 밀어내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면서 기존의 촌락들은 대부분 소멸되었다. 한편, 최근 들어 용인 전 지역에 걸쳐 서울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곳에는 이른바 전원주택단지가 건설되어 새로운 촌락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사진 IV-1. 전원주택단지 : 수지읍 고기리의 전원주택건설 광경으로 구릉지를 깎아 주택지를 조성하고 있다.

2. 읍취락

邑聚落은 조선시대 府·牧·郡·縣 등 지방행정기관의 소재지로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인 守令이 주재하며 지방행정을 담당하던 곳이었으며, 동시에 鄉廳을 통해 지방행정을 보좌하고 일정부분 자치권을 행사하던 在地勢力의 정치활동의 장이기도 하였다. 즉 읍취락은 수령에 의한 지방지배기능과 재지세력에 의한 자치기능의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행정적 중심지였다. 뿐만 아니라 읍취락은 군사적·종교적 기능도 지니고 있었고, 지역내 물자의 집산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여기에 지역의 최고교육기관인 學校가 설치되어 있었다.

舊邑聚落이란 이러한 읍취락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읍에 소재하고 있던 행정기관이 폐쇄 혹은 이전으로 인하여 읍의 행정적 기능을 상실한 취락을 말한다.³⁶⁾ 용인에서는 용인현 소재지였던 현재의 구성면 彦南里 일대와 양지현 소재지였던 현재의 양지면 陽智里 일대가 구읍취락에 해당한다.

조선후기 용인현과 양지현의 읍취락은 각각 중 5품(현령)과 중 6품(현감)의 품계를 가진 관원이 주재하던 곳이었다. 용인 구읍은 1413년(태종 13년) 처인현과 용구현을 합쳐

36) 李琦錫, 1968, “舊邑聚落에 관한 研究-경기지방을 중심으로”, 『地理學』 3(1), 34쪽.

용인현을 만든 다음 治所를 이 곳에 둔 이후 1895년(고종 32년) 지방관제의 개혁에 따라 용인현을 郡으로 고치고 군청소재지를 水餘面 金良場里 巢鶴洞으로 옮길 때까지 용인현의 읍치였다. 양지의 읍치락은 여러 차례 변화하는데, 고려 때에는 藤村³⁷⁾이었으며, 조선 초에는 古西面 鳳林山 아래의 酒谷里³⁸⁾로 이전했다가, 1470년(성종 원년)에는 다시 朱東面 金箔山 아래³⁹⁾로 옮겼으며, 1564년(명종 19년)에 서쪽으로 10리 정도 떨어진 定水山 아래 현재의 양지리 일대에 읍치를 정하였다.⁴⁰⁾ 양지현 읍치는 1914년 일제에 의해 단행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지가 용인에 합쳐지면서 구읍이 되었다.

이들의 입지를 살펴보면, 먼저 용인 읍치락은 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흘러가는 炭川의 지류인 駒興川을 앞에 두고 해발 170m 내외의 구릉지를 북동쪽으로 파고 들어간 골짜기에 자리잡았다. 인근의 보정리에는 탄천 변에 비교적 넓은 들이 나타나, 용인 읍치락이 자리잡은 곳은 주위가 구릉지로 둘러싸여 평지가 협소하다. 하지만 당시 읍치락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제일의 조건으로 작용했던 風水의 측면에서 검토할 때 이상적인 입지인 이른바 背山臨水·藏風得水에 부합되는 곳이다. 방어의 측면에서도 주위가 열린 개활지보다는 훨씬 유리하였으며, 특히 멀지 않은 곳에 삼국시대 축조한 할미성이 자리잡고 있어 유사시에 대피가 가능하다는 점도 입지선정에 고려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도로였던 서울과 동래를 잇는 嶺南大路가 읍치락 바로 앞을 통과해 지나간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용인이 서울의 길목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요 교통로에 인접한 곳에 읍치락이 들어서는 것이 당연하였을 것이다.

양지 읍치락은 해발 300m 내외의 산지에 의해 둘러싸인 작은 분지 안에 입지해 있으며, 주위 산지에서 흘러나온 계류가 읍치락 앞쪽에서 모여 陽智川을 형성하여 서남쪽으로 빠져나간다. 읍치락 전면에 펼쳐져 있는 들은 넓지 않은 편이나, 용인 읍치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1899년에 간행된 『陽智郡邑誌』에는 ‘물이 깊지 않으나 맑고 깨끗하고, 들이 넓지 않으나 비옥하여 사람이 살만한 곳’⁴¹⁾이라고 읍치락의 입지를 표현하고 있다. 풍수의 측면에서도 용인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이 곳 역시 영남대로가 취락 앞을 지나가 교통의 측면에서도 유리한 입지였다. 그러나 주변에 城이 없고 봉수도 떨어져 방위에 어려움이 많은 입지였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읍치락이 많이 피해를 겪었다.⁴²⁾

37) 어느 곳인지 확실치 않으나, 현재 양지면 양지리에 藤村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어 이 곳이 아닌가 추정된다.

38) 현재의 안성군 고삼면 신창리 샘실 일대로 추정된다.

39) 현재의 양지면 추계리 일대이다.

40) 『陽智郡邑誌』(1899년), 事蹟條.

41) 『陽智郡邑誌』(1899년), 事蹟條.

42) 『陽智郡邑誌』(1899년), 事蹟條.



사진 IV-2. 양지 구읍터: 양지 관아건물들이 자리잡고 있던 곳으로, 현재는 복지회관이 들어서 있다.

조선시대 읍치는 성곽의 유무에 따라 성곽 읍치와 비성곽 읍치로 구분된다. 이 두 유형의 읍치는 형태와 구조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는데, 특히 성곽 읍치는 성곽이 취락의 평면적 확대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면형태가 대체로 집합·응집형태를 띠며,⁴³⁾ 성문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성내의 도로형태가 취락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⁴⁴⁾ 하지만 두 유형 모두 대체로 자연조건에 순응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京畿灣에 면한 군현을 제외하면, 북방민족이나 왜구의 침입에 대한 우려가 적었기 때문에 성곽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⁴⁵⁾ 용인현과 양지현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용인·양지 읍취락의 형태는 지형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교통로의 영향도 강하였다. 1910년대에 간행된 1:50,000 지형도를 통해 두 읍취락의 형태를 살펴보면, 용인 읍취락은 전면을 지나가는 영남대로 변을 따라 가옥들이 帶狀으로 들어서 있고, 구릉지를 파고 올라간 골짜기에는 계류를 따라 난 길 양쪽으로 가옥들이 불규칙하게 밀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街村과 塊村⁴⁶⁾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43) 김철수, 1985, “한국 성곽도시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國土計劃』 20(1), 87쪽.

44) 張承一, 1993, 『朝鮮後期 京畿地方의 都會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5) 山田正浩, 1978, “李朝時代の邑- 其の構成要素と機能”, 『歴史地理研究と都市研究』(下), 大明堂, 93쪽.

고 할 수 있다. 양지 읍취락은 취락 전면을 지나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한 쪽, 즉 양지바른 구릉지 남사면과 평지가 만나는 부분에 가옥들이 불규칙하게 들어서 塊村을 이루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용인의 읍취락에 비해 밀집도가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읍취락은 행정·경제·군사·교육·종교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어 일반 촌락과는 다른 경관 및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시설로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官衙가 있었는데, 관아는 몇 개의 건물로 나누어진다. 수령이 공무를 집행하고 기거하는 東軒,⁴⁷⁾ 그 외 관리들이 행정사무를 보는 吏廳, 재지세력들의 자문기관인 鄉廳, 여행하는 관리들을 위한 客舍, 죄인을 수용하는 獄舍 등이 그것이다. 또한 지방경제의 중심이 되는 市場, 군사적 기능을 위한 軍器庫·軍糧庫, 교육기관인 鄉校, 종교적 기능을 지닌 城隍壇·社稷壇·厲壇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읍취락을 구성하는 이러한 시설물들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치되었는데, 그 규칙은 風水地理說과 周禮 考工記⁴⁸⁾에 따라 도시를 건설한 수도인 서울의 예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곳, 즉 主山 기슭의 가장 밝고 生氣가 넘치는 이른바 明堂에 궁궐을 건축했듯이 읍취락에서도 가장 명당에 관아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주례고공기의 원칙에 따라 자연조건과 허락한다면 읍취락에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前朝後市⁴⁹⁾와 左廟右社⁵⁰⁾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 전국 읍취락의 공간구조는 자연조건과 규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하였다. 현재 용인·양지현의 구읍취락에는 鄉校 외에 당시의 건축물이 남아있지 않아 조선시대 읍취락의 공간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각종 邑誌와 古地圖를 통해 복원해 보면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읍취락의 공간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용인의 경우, 法華山 줄기의 구릉지를 등지고 중앙에 관아가 남서향으로⁵¹⁾ 자리잡고 있었고, 그 동쪽에 객사가 있었다. 객사의 동북쪽에는 孔子와 유학의 선현들을 모시는 文廟가 있는 향교가 남향으로⁵²⁾ 들어서 있었고 관아의 서북쪽에는 土地神 및 穀物神에게

46) 塊村이란 가옥이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는 촌락의 형태를 말한다.

47) 이는 다시 수령이 공무를 수행하는 外東軒과, 기거하는 內東軒(內衙)로 나뉘어 진다.

48) 『周禮』는 중국 西周시대의 이상적인 정치행정체도를 집대성해 놓은 것으로, 그 중 卷 10이 「冬官考工記」이다. 「동관고공기」는 국가의 토목·공업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의 수도를 설계하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49) 궁궐의 앞쪽에 조정 즉 행정기관을 배치하고, 뒤쪽에 시장을 배치한다는 원칙으로 서울의 경우 뒤쪽에 산이 가로막혀 있어 後市의 원칙은 따르지 못하였으며, 지방의 읍취락도 대개 마찬가지였다.

50) 궁궐의 좌측에 종묘를 배치하고, 우측에는 사직단을 둔다는 원칙이다.

51) 『龍仁縣邑誌』(英祖 대)에 癸坐丁向이라 기록되어 있다.

52) 『龍仁縣邑誌』(英祖 대)에 子坐午向이라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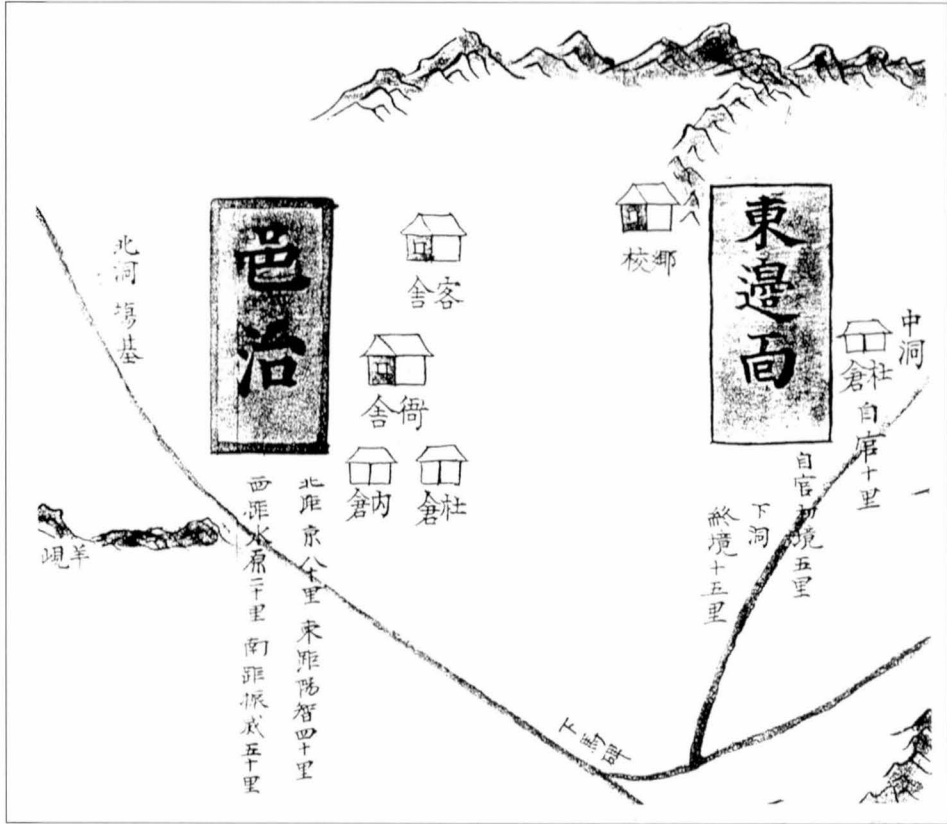


그림 IV-3. 19세기 지방지도의 용인현 읍치부분

제사를 올리는 사직단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좌묘우사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믿어진다. 관아의 북쪽에는 고을의 안녕을 비는 성황단이 모셔졌고, 서북쪽에는 거두어 줄 자손이 없이 죽은 사람들의 혼령을 위로하는 여단⁵³⁾이 있었다. 그리고 관아의 동쪽인 北洞에는 장터가 있었는데,⁵⁴⁾ 英祖 대에 간행된 『龍仁縣邑誌』에 기록된 邑內場이 바로 이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3) 지금의 구성면 보정리 부근이다.

54) 1872년에 제작된 『地方地圖』에 표시되어 있다.

표 IV-9. 용인현 읍취락의 주요 건물 구성

구분	건물	규모	비고
官衙	內衙	17칸	수령과 그 가족의 주거공간
	行廊	3칸	
	大門	1칸	
	外東軒	5칸	수령이 공무를 수행하는 건물
	東庫	3칸	창고
	西庫	3칸	창고
	內三門	3칸	각종 행정업무건물과 동헌 사이의 문
	外三門	3칸	관아의 정문
	公須	10칸	현의 회계사무를 관장하는 건물
	冊房	3칸	책을 보관하는 건물
	鄉廳	4칸	座首, 別監이 집무하는 건물
	將廳	4칸	軍衙에 딸린 將校가 근무하는 건물
	作廳	20칸	衙前들이 집무하는 청사
	官奴廳	2칸	관노비들이 모여 있는 곳
使令廳	5칸	관아 使令들이 모여 있는 곳	
客舍	客舍	10칸	
	大門	3칸	
鄉校	聖殿	3칸(대청 3칸)	孔子和 현인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
	神門	3칸	성전 입구의 문
	典祀廳	3칸	제사를 준비하는 건물
	祭器庫	3칸	제기를 보관하는 창고
	明倫堂	3칸	강학공간
	東齋	4칸	학생들이 공부하고 숙식하는 건물
	西齋	4칸	"
	外三門	3칸	향교의 정문
紅箭門	1칸	홍살문	

자료 『龍仁縣邑誌』(1871년).

한편 1871년의 『龍仁縣邑誌』를 통해, 읍취락의 주요 구성요소인 관아·객사·향교의 건물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IV-9와 같다. 기록에 따라 일부 건물들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輿地圖書』에는 객사건물이 大廳 3칸, 東軒 6칸, 西軒 6칸 등 총 15칸으로 기록되어 있어 자주 수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객사는 '용인이 작은 고을임에도 불구하고 王都와 인접해 있고 남북으로 통하는 길목인 까닭에 밤낮으로 모여드는 대소 빈객이 여기를 경유하지 않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⁵⁵⁾ 그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조선시대 내내 日本으로 가는 通信使 일행은 용

55) 『新增東國輿地勝覽』卷10, 龍仁縣 樓亭條.

인현의 객사에서 하루 밤을 묵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행 길에는 대개 서울을 출발하여 良才驛에서 일박을 한 뒤 용인의 객사에서 이틀째 밤을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상행 길에는 竹山에서 자고 그 다음 날은 용인에서 유숙하는 경우가 많았다.⁵⁶⁾

양지현 읍취락의 공간구조도 용인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데, 金箔山자락에 관아가 남동향으로⁵⁷⁾ 들어서 있으며, 그 동쪽에 객사, 동북쪽에 향교가 역시 남동향으로⁵⁸⁾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관아의 서쪽에 사직단이 있었고, 사직단의 서북쪽에 여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읍취락의 남서쪽에 위치한 御院山에는 祈雨祭壇이 있었고, 북쪽에는 성황단⁵⁹⁾이 있었으며, 읍취락의 바로 서쪽인 朱東面에는 介川場⁶⁰⁾이 있었다.

1872년에 제작된『地方地圖』(그림 IV-4참조)를 이용하여 양지현 관아의 건물구성을 복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관아의 왼쪽에 독립되어 있던 獄舍를 제외하고는 관아의 건물군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된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관아의 정문인 2층 門樓로 이루어진 外三門을 통해 관아로 진입하면 왼편에 作廳이 있었고, 오른편에는 將廳과 奴房이 들어서 있었다. 이들을 통과하면 5칸으로 지어진 內三門을 만나게 된다. 내삼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東軒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왼편으로는 수령이 먹을 음식을 장만하는 官廳이 담에 기대어 위치하였다. 그리고 동현 오른편으로는 刑吏들이 근무하는 刑吏廳이 있었으며, 이를 지나 맨 뒤쪽으로 들어가면 중앙에 內衙가, 그 왼쪽으로는 三室이 있었다. 또한 양지향교는 구조나 건물배치 면에서 용인향교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건물규모에 있어서 용인의 그것보다 더 컸다.⁶¹⁾ 한편 향교는 읍취락의 중심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입지하기 때문에 향교를 중심으로 校洞이라는 작은 촌락이 형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책임자인 典校를 비롯하여 향교를 관리하거나 향교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용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과거 향교가 있던 촌락을 현재도 향교말이라 부르고 있다.

56) 申維翰, 『海游錄』上, 己亥 4月.

申維翰, 『海游錄』下, 己亥 12月.

金世濂, 『海槎錄』, 丁丑年 3月.

『癸未東槎日記』, 2月.

金指南, 『東槎日錄』, 11月.

趙職, 『海槎日記』, 癸未年 8月.

任守幹, 『東槎日記』, 辛卯年 5月.

57) 『陽智縣邑誌』(英祖 대)에 壬坐丙向이라 기록되어 있다.

58) 『陽智縣邑誌』(英祖 대)에 亥坐巳向이라 기록되어 있다.

59) 성황단은 시기에 따라 그 위치가 달리 기재되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縣 북쪽에, 영조 대의 『陽智縣邑誌』와 『輿地圖書』에는 현 서쪽에, 1899년의 『陽智郡邑誌』에는 현 동쪽으로 기록되어 있어 몇 차례 이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0) 개나리장이라고도 불리웠으며, 읍취락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지금의 양지면 제일리에 있었다.

61) 표 IV-9와 같이 용인향교는 성전·명륜당·진사청 등 주요 건물이 각각 3칸이었으나, 양지향교는 각각 7칸 반·12칸 반·6칸이었다(『陽智縣邑誌』(1871년)).



그림 IV-4. 19세기 지방지도의 양지현 읍치부분



사진 IV-3. 양지향교 : 대성전·명륜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용인현과 양지현의 읍취락은 일반 농촌과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경관과 공간구조도 상당히 달랐다. 그러면 주민 구성에 있어서는 일반 농촌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표 IV-10을 통해 살펴보자.

표 IV-10. 용인·양지 주민의 직업별 구성(1909년)

군	면	주민의 직업별 구성비율(%)										
		官公吏	양반	유생	상업	농업	어업	공업	광업	일가	기타	무직
용 인 군	읍내면	6.5	0.9	0	10.0	82.7	0	0.9	0	0	0	0
	모현면	0.1	0	0	0.7	99.0	0	0.1	0	0	0	0
	구룡면	0.5	1.6	0	2.1	96.3	0	0	0	0	0	0
	동변면	0	0	0	0	96.7	0	3.3	0	0	0	0
	지내면	0.2	0.7	0	1.1	98.2	0	0	0	0	0	0
	수여면	0.1	0.3	0	6.4	92.9	0	0.2	0	0	0	0
	포곡면	0	0	0	0.4	99.4	0	0	0	0	0.1	0
	기곡면	0	0.1	0	0	99.9	0	0	0	0	0	0
	서변면	1.9	2.9	2.9	4.8	88.6	0	0	0	0	0	0
	수진면	0.1	0	0	1.3	98.4	0	0.1	0	0	0	0
	상동면	0	0	0	8.2	90.9	0	0.8	0	0	0.2	0
	하동면	0	0	0	4.6	95.0	0	0.4	0	0	0	0
	남촌면	0	0	0	4.1	95.3	0	0.5	0	0	0	0
	서촌면	0	0	0	6.6	89.8	0	3.6	0	0	0	0
	도촌면	0	0	0	6.1	93.4	0	0.4	0	0	0	0
현내면	0.3	0	0	3.9	93.4	0	2.4	0	0	0	0	
양 지 군	읍내면	1.9	1.6	1.2	3.1	94.2	0	0	0	0	2.7	0
	주서면	0.6	0.9	1.2	5.9	92.6	0	0	0	0	1.5	0
	주북면	1.1	0.6	0.6	1.1	95.5	0	0	0	0	3.4	0
	고동면	0.3	0.3	0.3	2.1	96.3	0	0	0	0	1.6	0
	고서면	0.5	0	1.4	2.4	91.5	0	0	0	0	6.1	0
	고북면	0.7	0.7	2.0	2.7	94.6	0	0	0	0	2.7	0
	박악면	0.4	0.8	0.8	0.4	94.4	0	0	0	0	5.2	0
	주동면	0.9	2.3	5.1	4.2	84.3	0	1.4	0	0.9	9.3	0
	고안면	0.4	0.4	0.4	1.3	96.6	0	0	0	0	2.1	0
박곡면	0.7	0.7	0.7	6.2	91.1	0	0	0	0	2.7	0	

자료 이현창, 1997, 『民籍統計表의 해설과 이용방법』,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200쪽.

표 IV-10은 内部警務局이 1909년에 조사해 그 이듬해 발간한 『民籍統計表』를 이용하여, 용인·양지군의 면 별 주민의 직업구성비를 정리한 것이다. 이중 용인군 읍내면과 양지군 읍내면은 각각 읍취락을 포함하고 있는 면인데, 이 두 면 주민의 직업구성비율을 살

펴보면, 용인군 읍내면은 官公吏가 6.5%, 상업인구가 10%로, 그 비중이 다른 면에 비해 월등히 높아 행정 및 상업중심지로서의 읍취락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면에 비해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하역도, 전체의 8할 이상을 차지해 대다수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지군 읍내면의 경우 관공리의 비율은 가장 높지만, 상업과 농업인구비율은 다른 면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를 통해, 조선 말까지도 용인·양지현의 읍취락은 소수의 관리와 상인을 제외하고는 농민들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주민구성 상으로는 주변의 일반 농촌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구성으로 미루어 볼 때, 용인과 양지의 읍취락은 행정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가장 탁월하였으며, 다른 기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당시의 모든 읍취락이 이와 같지는 않았다. 監營·留守府·牧 등 고급관리가 배치되었던 읍취락에는 관원의 수도 많았을 뿐 아니라 양반, 부유한 지주와 상인 등이 많이 거주하였으며, 교육기관, 오락시설, 각종 서비스 기능 등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수한 농민의 숫자가 적었다.⁶²⁾ 기능면에서도 이러한 大邑들은 행정 기능 외에 상업과 수공업을 바탕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IV-11. 일제시대 읍삼면·내사면·수여면의 인구변화

구분	시기별 인구 및 증가율		
	1925년	1944년	증가율(%)
읍 삼 면	4,662	4,950	6.2
내 사 면	5,919	6,443	8.9
수 여 면	8,658	11,362	31.2
용인군 전체	75,910	84,984	12.0

자료 朝鮮總督府, 1926, 『簡易國勢調查結果表』, 5쪽.
朝鮮總督府, 1944, 『人口調查結果報告』, 20쪽.

조선시대까지 용인·양지현의 행정중심지 역할을 하던 읍취락은 각각 1895년 용인현이 군으로 바뀌면서 그 군청소재지가 水餘面 金良場里로 옮겨가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개편으로 양지가 용인에 합쳐지면서 舊邑聚落이 되었다. 용인현과 양지현의 읍취락은 각각 邑三面⁶³⁾과 內四面의 면소재지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었으나, 읍취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던 행정기능이 축소되면서 한 동안 침체상태에

62) 최영준, 1990, 『嶺南大路』,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412-415쪽.

63) 1931년 구성면으로 개칭되었다.

빠지게 된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로, 구읍취락이 포함된 읍삼면·내사면과 새로운 군청소재지가 된 수여면의 일제시대 인구추이를 정리한 표 IV-11을 제시하고자 한다. 1925년부터 1944년까지의 약 20년간 읍삼면과 내사면의 인구증가율은 용인군 전체의 그것에도 못 미쳤던 반면, 수여면은 용인군 전체 인구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인구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제시대 이후 용인과 양지 구읍취락의 변화양상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것은 행정기능 축소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라 일제에 의해 새로이 개설된 교통로와의 관련성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기인하였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가장 먼저 교통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신작로의 개수와 철도부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여기에는 전통적인 교통로의 기능축소라는 의도가 숨어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인현의 읍취락 발달에는 취락 전면을 관통해 지나가며 서울과 동래를 연결하던 영남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용인구간을 통과하던 영남대리는, 일제가 1905년 京釜線 철도를 부설하고, 용인을 가로질러 1908년부터 경부선이 통과하는 수원과 경기 내륙의 거점인 이천을 잇는 신작로를 건설하면서, 그 기능을 크게 상실하게 된다. 원래 이 신작로는 용인 구읍취락을 통과할 계획이었으나, 구성 유림의 반대로 노선이 新葛里를 지나가도록 변경되었는데,⁶⁴⁾ 이에 따라 구읍취락이 가지던 교통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은 대부분 신갈리로 이전되었으며, 이것이 구읍취락의 쇠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1931년에 개통된 水驪線 철도 역시 구읍을 거치지 않고 신갈리·어정리를 경유하여 김량장리로 가는 노선으로 건설되어 용인 구읍취락의 쇠퇴에 일조를 하였다.

용인 구읍취락이 일제시대 내내 침체 일로에 있었던 반면, 조선시대까지 용인의 그것에 비해 규모나 기능 면에서 열세에 있었던 양지의 구읍취락은, 행정기능은 상당 부분 상실했지만 교통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 소지역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였다. 양지 구읍취락의 교통기능이 강화된 데에는 수원-이천 간의 신작로와 水驪線 철도가 구읍취락의 전면을 통과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신작로는 구읍취락의 외곽을 직선으로 지나도록 건설되었는데,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들이 신작로 변으로 이전되고 새로운 가옥들이 길을 따라 들어섬으로서 塊村의 형태를 띤 구읍취락에 街村의 형태를 띤 새로운 촌락이 결합되게 되었다. 수려선 철도는 다시 신작로의 외곽으로 신작로의 노선과 평행선을 이루며 부설되었다. 여기에 陽智驛이 설치되면서 역광장과 신작로를 직각으로 연결하는 길이 형성되었고, 이 길을 따라 양옆으로 새로운 街村이 형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일본인 가옥, 양조장, 과자점 등이 자리잡았다.⁶⁵⁾ 즉 양지 구읍취락은 용인의 그것과 달리 일제시대에 들

64)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998, 『駒城而誌』, 134쪽.

65) 제보 : 고제현(74세), 양지면 양지리.

어외서도 교통기능이 강화되면서 꾸준히 확장된 것이다.



사진 IV-4. 용인 구읍의 비석군: 관리들의 선정비·영세불망비 등을 한 곳에 모아 놓았다.

현재 용인과 양지의 구읍취락은 1950-60년대의 혼란기와 그 후 도시화·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시대 읍치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한 곳에 모아 놓은 관리들의 善政碑·善德碑·永世不忘碑 등 碑石群과 鄉校만이 그 흔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들은 특히 1970년을 전후하여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도로망의 확충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인근에 각종 생산 및 유통업체, 연구소와 연수원 등이 자리잡게 되어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취락의 규모도 급성장하였으며, 중심부에는 각종 상점과 서비스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게 되어 도시적 색채를 강하게 띤 취락으로 변모하였다.

3. 농촌

농촌은 주민들이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촌락으로, 용인 촌락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앞의 표 IV-10에서 살펴보았듯이 20세기 초까지는 용인 인구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이전까지도 큰 변화가 없었다.⁶⁶⁾ 최근 들어 농촌 인구가 많이 감소하였고 전체 산업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

촌락 중 농촌이 지닌 중요성은 거의 변함이 없다.

용인의 농촌이 어떠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지, 즉 농촌의 입지조건을 살펴보자. 촌락의 입지는 마을이 형성되는 시기에 한 번 정해진 후에는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마을의 입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을이 처음 조성될 당시 주민들의 自然觀·卜居觀 등 환경에 대한 가치인식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마을의 입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오늘날의 가치관이 아닌, 터를 잡을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살펴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농촌의 입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농촌의 존립기반인 농업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살아있는 생물을 생산하므로 자연환경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으며, 따라서 자연조건은 농촌의 입지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자연조건에는 지질·지형·기후·식생·토양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들 중 용인과 같은 좁은 지역적 범위 내에서 지역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그 때문에 농업과 농촌입지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지형조건일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卜居觀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조선후기의 실학자 李重煥의 『擇里志』에도 ‘살 곳을 택할 때에는 처음에 地理를 살펴보고 다음에 生利·人心·山水를 돌아본다’⁶⁷⁾는 기록이 있으며, 許筠 역시 『閑情錄』에서 ‘생활의 방도를 세우는 데는 반드시 먼저 지리를 선택해야 한다’⁶⁸⁾고 지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때 지리란 風水的인 색채가 짙지만 대체로 지형조건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물의 조건과 地勢가 강조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조건 측면에서 용인 농촌의 입지를 살펴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지형면에 따라 촌락의 입지를 분류하면, 크게 山地입지, 河谷입지, 海岸입지, 沖積平野입지, 礫地입지, 扇狀地입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용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산지의 기준으로 통용되는 해발 200m 이상의 지역에는 촌락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해안이나 대지, 선상지는 물론 큰 강이 없으므로 넓은 충적평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구릉성 산지와 곡저평야가 번갈아 나타난다는 점, 대소하천의 발원지라는 점 등 용인의 지형적 특징을 고려하여, 용인 촌락의 입지를 지세와 하천의 규모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자 한다.

66) 1970년 현재, 용인의 총인구 94,834명 중 농업인구가 81,324명으로, 전체 인구의 85.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67)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68) 許筠, 『閑情錄』卷16, 治農, 擇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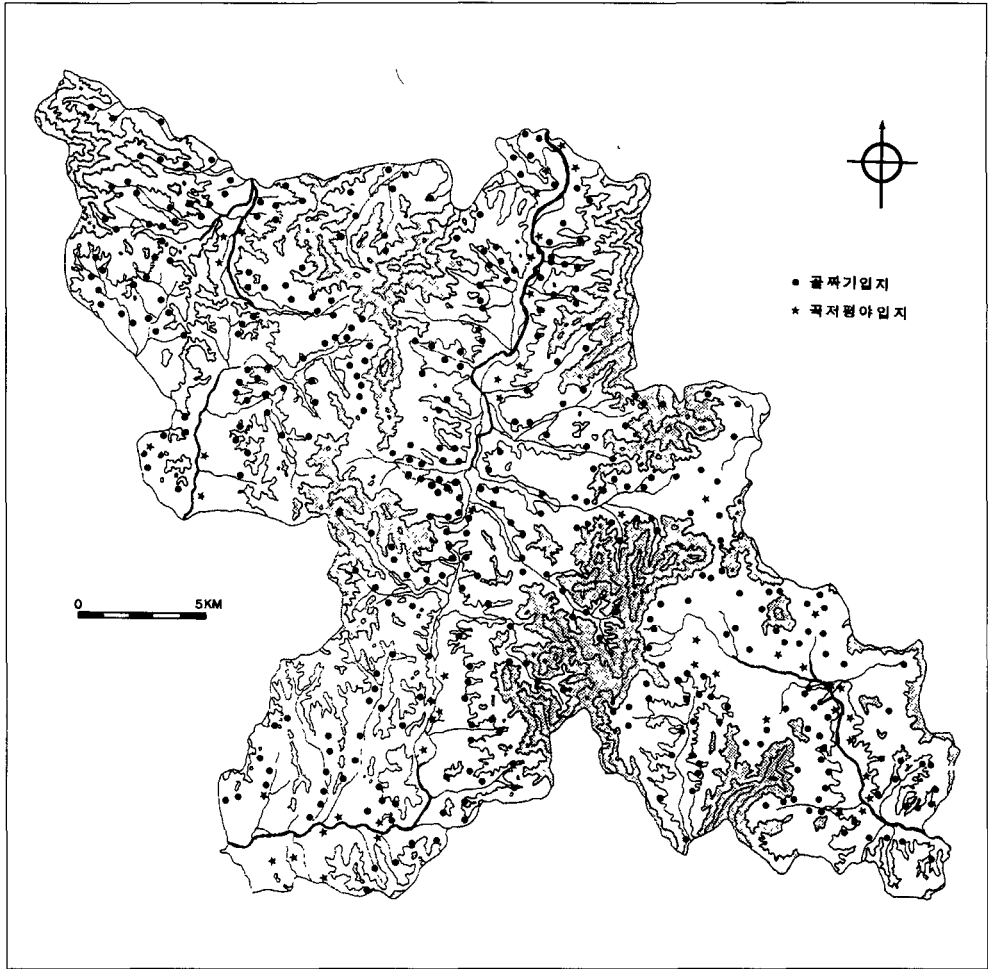


그림 IV-5. 용인의 촌락입지: 산간골짜기 입지와 꼭저평야 입지로 대별된다.

첫째 유형은 하천 최상류부인 산간골짜기에 촌락이 자리잡은 것이다. 용인의 산지들은 대개 해발 400m 내외로 높지 않은 편이며, 꼭저평야 쪽으로 내려오면서 낮은 구릉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 구릉 사이에는 크고 작은 골짜기가 발달해 있으며 산지에서 발원한 계류들의 이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간골짜기가 촌락의 입지로 이용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촌락의 입지는 골짜기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골짜기가 좁고 길게 구릉지를 파고 들어간 경우에는, 대개 계류 변의 좁은 평지를 앞에 두고 구릉지의 기슭, 즉 골짜기의 한 쪽 편에 치우쳐 촌락이 입지하며, 그 예로는 기흥읍 고매리 원고매와 지곡리 기외집말, 모현면 오산리 본동, 이동면 묘봉리 상리와 덕성리 삼배울, 남사면 완장리 웃말과 방아리 아리실 등을 들 수 있다. 골짜기가 비교적 넓거나 전체적으로

盆地 모양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배후산지에서 흘러나온 계류들이 만나는 부분의 바로 뒤쪽의 높은 부분에 촌락이 입지하며, 역북동 지장실, 구성면 마북리 상마리, 포곡면 금어리 쇠대실, 백암면 백봉리 백동, 이동면 화산리 요산동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표 IV-12. 지형을 반영한 용인의 자연마을 명칭

지형	명칭	마을명
골짜기	곡(谷)	三朴谷·館谷·武台谷·上柳谷·下柳谷·龍海谷·海谷(용인시), 葛谷·館谷·上館谷·下館谷·龍水谷·羅谷·德谷·鳳谷·芝谷(기흥읍), 棠谷·英谷·釜谷(포곡면), 內谷·陵谷·旺谷·上芙蓉·下芙蓉(모현면), 麻谷·長者谷·草堂谷(구성면), 衙谷·月谷·花谷·通谷(남사면), 上盤谷·下盤谷·時美谷(이동면), 稼谷·衙谷·內水谷·外水谷·朴谷·谷栗(백암면), 南谷·龍谷·金谷·岩谷·月谷(양지면)
	골	불당골·새능골·사기막골(기흥읍), 아랫마골(구성면), 배나무골·동막골·아래손골·윗손골·중손골·방축골(수지읍), 병목골·가무랑골·불당골·사기막골·상덕골·종이골·중덕골·하덕골(이동면), 맹골·샘골·안골·고초골(원삼면), 지령골(백암면), 은이골·무랑골·산막골(양지면)
	실	지장실(용인시), 가실 쇠내실 어매실 마가실·유실(포곡면), 아리실(남사면), 넓실·모래실(원삼면), 석실(백암면), 배실(양지면)
	계(溪)	三溪·杜溪(포곡면), 長溪·溝溪(백암면), 秋溪(양지면)
평야	坪(坪)	湫坪·坪玉·新坪(용인시), 蔓坪·湫坪·梧坪(기흥읍), 坪村(포곡면), 長田坪·後坪(모현면), 柳坪(남사면), 杜坪·宗坪·坪村·長坪·坪栗(백암면), 坪村(양지면)
	벌	벌말(구성면), 벌터(원삼면), 벌터(양지면), 벌말(백암면)
	들	정자들(수지읍), 미록들(원삼면)

이와 같은 산간골짜기 입지는 용인의 촌락 입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용인의 자연마을 명칭 중 촌락이 입지하고 있는 지형을 반영하고 있는 이류들을 모두 정리한 표 IV-12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표를 보면, 곡저평야에 촌락이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하는 평·들·벌 등이 들어간 촌락명칭에 비해 산간골짜기에 촌락이 들어서 있음을 뜻하는 곡·골·실·계 등의 촌락명칭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인의 촌락 중 많은 숫자가 산간골짜기에 입지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산간골짜기는 산지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농경에도 매우 유리한 촌락입지였다. 왜냐하면 촌락 주위를 둘러싼 산지나 구릉지에서는 연료·건축재는 물론 다양한 식료를 획득할 수 있었고, 마을 앞을 흐르는 계류 변에는 큰 강변에 비해서 훨씬 좁지만 범람의 위험이 적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 농사를 짓기에도

적당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적절한 물의 공급이 그 성패를 좌우하는 벼농사의 경우에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강변의 평야지대보다 이러한 곳이 훨씬 유리하였다. 그 까닭은, 강변의 경우 대규모 수리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한 일제시대 이전까지 관개에 어려움이 많았던 데 비해, 골짜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어가 쉬운 계류를 이용해 狹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벼농사를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李重煥도 강가에 사는 江居는 ‘農利를 겸한 곳이 드물어, 혹 지세가 낮아서 물에 잠기면 수확을 볼 수 없고 강물이 깊고 크면 관개가 마땅치 않으며, 가뭄과 큰 물이 쉽게 들어 와서’⁶⁹⁾ 마을의 입지로 적당치 않은 반면, 골짜기에 거주하는 溪居는 ‘평온한 아름다움과 깨끗한 경치가 있고 관개와 耕農하는 이익이 있어’⁷⁰⁾ 가장 바람직한 삶터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입지는 병화와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에도 적당한 곳이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적지 않은 외침을 받아왔으며 내부적으로도 많은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특히 조선중기 이후 심해진 당쟁과 사화를 계기로 사대부층을 중심으로 이상향을 동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싹트기 시작하더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는 일반 민중들도 이에 동참하여 避兵·避世地의 탐색이 본격화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마을의 입지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피병·피세지의 탐색과정에 구체적인 마을 입지의 기준을 제시해 준 것으로, 道家의 이상향을 형상화한 ‘靑鶴洞 傳說’과 민간에서 많이 신봉하던 『鄭鑑錄』 등 각종 ‘秘訣類’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도가의 청학동과 비결류의 이른바 保身之地는 지형적으로 서로 닮은꼴이며, 모두 산간골짜기에만 존재하는 곳이었다. 왜냐하면 청학동은 李仁老의 『破閑集』 등에 입구가 매우 좁은데 반해 입구를 들어서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비교적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는 마치 호리병을 거꾸로 놓힌 듯한 분지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비결류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신지지의 전형적인 모형도 한 쪽 면만 병목(bottle-neck)과 같은 좁은 입구로 외부로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방향은 급경사의 山斜面으로 차단되어 있는 협곡 내지 분지이며 그 안에 좁은 입구로 빠져나가는 하천이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곳은 입구가 좁고 경사져 있어 바깥쪽에서는 안쪽이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으며 안쪽은 넓지는 않지만 완경사면이 펼쳐져 있어 농경지로 일구어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최상의 피난처임이 분명하다. 그 예로 奉化 琴氏가 세거해 온 기흥읍 고매리 신고매를 들 수 있다. 봉화 금씨들은 조선조의 갖은 전란을 피해 가장 깊숙한 골짜기인 이 곳에 정착하였으며, 그래서 이 마을을 피난골이라 부르기도 한다.⁷¹⁾ 한편 양지면 남곡리 은이골도 조선 말 천

69)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70)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71) 용인문화원, 2000, 『器興邑誌』, 1286쪽.

주교 박해를 피해 들어온 천주교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마을이다.⁷²⁾

한편 산간골짜기 입지는 우리 조상들이 삶의 터전을 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쳤던 風水說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明堂에도 부합된다. 일반적으로 명당의 形局은 뒤쪽의 主山을 중심으로 좌우에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이들 산지에서 발원한 계류가 명당 좌우에서 흘러나와 명당 앞쪽의 평지를 흐르는 소하천에 합류하고 그 너머에는 다시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형국은 넓은 평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주로 계류 변의 골짜기나 분지에 분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산간골짜기는 우리 조상들이 가장 선호했던 촌락의 입지라 할 수 있고, 용인의 촌락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용인 촌락입지의 두 번째 유형은 하천 중상류부의 곡저평야에 촌락이 입지하는 것이다. 용인은 진위천·청미천·탄천·경안천 등 경기남부 주요하천의 중상류부에 해당하는데, 이들 하천 변에는 대부분 지질구조선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곡저평야가 나타난다. 광활한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 대하천 하류의 충적평야와는 달리 이들 곡저평야는 폭이 좁고 긴 편이나, 하천 최상류부의 골짜기에 비해서는 훨씬 넓고 평탄하기 때문에 들이나 벌이라 불린다. 곡저평야에 들어선 촌락의 예로는, 표 IV-12에 열거한 마을⁷³⁾들과 함께, 표 IV-13의 마을들을 들 수 있다.

표 IV-13. 곡저평야에 입지한 촌락

유역별	마을명
진위천	신창·성리·비룡·쌍괴·송전·수역리(이동면), 후촌동·중북동·염심동·신촌·순지·외암동(남사면)
청미천	가재·황토재(원삼면), 태평촌·백암·물안이·외수곡·신대촌·봉리(백암면)
경안천	둔전·두계울(포곡면), 한뼘이·파담·월촌·외개일·독산(모현면)
탄천	소실·이현(구성면)

곡저평야는 넓고 기복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토양이 하천의 운반물질이 쌓인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옥한 편이므로, 농경지로 이용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산간골짜기에 비해 범람의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촌락들은 하천 변이나 곡저평

72) 달레(安應烈·崔爽祐 譯), 1980, 『韓國天主教會史』(中), 46쪽.

73) 표 IV-12의 평·벌·들 등이 들어간 명칭을 가진 마을 중 구성면 동백리 벌말과 같이 곡저평야로 간주하기 어려운 곳에 입지한 마을도 있으나, 대부분은 현지답사 또는 지도를 통해 하천 변의 곡저평야에 입지한 마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야의 한 가운데보다는 주변 구릉지로 이어지는 界面部의 환경사면을 따라서 입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곳은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수해의 염려가 없고 양지바르며 지하수면이 낮아 음료수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금이라도 넓은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지보다는 환경사지에 촌락이 들어서서 것이 유리하였다. 풍수적으로도 촌락의 전면이 훤히 열려있어 산간골짜기에 비해 위요된 감은 적지만, 뒤쪽으로 구릉지에 기대어 있어 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촌락입지인 背山臨水에 부합된다. 『林園經濟志』에서 우리나라의 名村 중 하나로 꼽고 있는 琵琶湖⁷⁴⁾도 이러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비파호는 앞쪽으로 경안천 변의 넓은 들을 전면에 두고 뒤쪽으로 구릉지를 등지고 있으며 마을 좌우로 작은 구릉지를 끼고 있는데, 조선시대부터 南氏들이 세거하면서 비옥한 곡저평야를 논으로 개간하고 경안천에 보를 막아 관개함으로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⁷⁵⁾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곡저평야의 한 가운데나 하천 바로 옆에 입지한 촌락도 있는데, 청미천 변의 원삼면 미평리 미륵뜰·백암면 백봉리 별말, 진위천 변의 이동면 시비리 비룡·남사면 전궁리 염심동·진목리 순지와 신촌 등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이들 촌락 중 미륵뜰은 1922년 홍수 때 마을 일부가 파괴되었고,⁷⁶⁾ 염심동·순지·신촌은 1925년·1946년 등의 홍수로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일제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당했으나, 1960년대를 전후해 하천 변에 제방을 쌓으면서 그 피해가 크게 감소하였다.⁷⁷⁾ 하지만 이들 촌락에서는 아직도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1~2m 정도 터돋음이 되어 있는 가옥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염심동·순지·신촌 등 세 마을은 모두 진위천 변의 넓은 충적지에 인접해 들어서 있지만, 과거 홍수피해의 정도와 빈도는 상당히 달랐다. 그 까닭은 육안으로 구분이 힘들지만, 범람원 상에 자리잡고 염심동보다 충적단구 상에 들어서 있는 순지·신촌의 해발고도가 1~2m 정도 더 높기 때문이다.⁷⁸⁾ 다시 말해서 염심동이 순지·신촌에 비해 침수가 잦았고 그 피해도 더 컸으며, 이에 따라 마을 규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서 현재 순지와 신촌이 각각 130·70 여 가구로 구성 되어 있는 반면, 염심동은 20 여 가구에 불과하다.

74) 현재의 모현면 갈담리 파담이다.

75) 徐有渠, 『林園經濟志』, 相宅志 卷2, 八域名基, 名基條開條.

76) 미륵뜰은 다시 앞말과 뒷말로 나누어지는데, 당시 고도가 낮은 뒷말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그후 東洋拓植會社가 이 일대에서 砂金を 채취하면서 뒷말을 돌음으로서 홍수피해가 감소했다고 한다(제보 : 이홍주(66세), 원삼면 미평리 미륵뜰).

77) 제보 : 임대선(72세), 남사면 진목리 순지.

78) 이의한, 1999, “辰威川 中流의 沖積段丘”, 『地理學研究』 33(2), 101쪽.



사진 IV-5. 진목리 순지의 우물: 곡저평야에 위치한 마을의 우물은 파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수질도 떨어진다.

이와 같이 곡저평야 한 가운데 위치한 촌락은 산간골짜기나 구릉지 기슭에 위치한 촌락에 비해 한 두 가지 불리한 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상수도시설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음료수를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그 수질도 좋지 않았다. 그것은 지하수위가 낮아 우물을 파기도 힘들 뿐 아니라 수질도 곡저평야를 복류하는 지하수가 산간골짜기의 계류나 샘물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농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수해뿐만 아니라 한해의 피해도 심했다. 곡저평야를 관통해 흐르는 하천은 산간골짜기를 흐르는 계류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쉽지 않을 뿐 더러 하천에 비해 곡저평야가 높은 곳에 위치하므로 이를 극복하고 물을 공급하는 것은 근대적인 양수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위의 순지·신촌 일대와 같이 곡저평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충적단구 상에 위치한 농경지는 상습적으로 가뭄의 피해를 입었다.⁷⁹⁾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하천제방의 축조로 홍수피해가 줄어들고, 상류에 대규모저수지가 건설되어 안정적으로 관개용수를 공급받게 되면서 곡저평야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농경지로 변하였다.

촌락의 형태는 먼저 가옥의 밀집도에 따라 集村과 散村으로 나누어지며, 집촌은 다시

79) 이의한, 1999, 앞의 논문, 101쪽.

그 가로망의 조직과 마을의 기하학적 형태에 따라 塊村·列村·路村·環村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용인의 농촌은 거의 전부가 집촌이며, 집촌 중에서도 괴촌이 지배적이다. 괴촌은 가옥이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용인의 농촌이 대부분 집촌 그 중에서도 괴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용인의 농촌들이 대부분 무계획적으로,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용인의 농촌들은 대개 처음에는 한 두 가구로 시작하여 수백년 동안 그 자손들이 분가하고 간헐적으로 새로운 가구가 이주하여 하나의 마을을 이루게 된 것이므로, 계획적인 가옥의 배치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새로운 가구가 생겨날 때마다 한 채씩 땅의 생김새와 토지소유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옥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괴촌이 형성되었다.

둘째로, 촌락의 입지와 관련한 지형적 원인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용인의 농촌은 대개 산간골짜기나 곡저평야에 자리잡고 있다. 산간골짜기의 경우, 주위가 산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평지에 비해 가옥을 짓기에 적당한 대지는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조금이라도 평탄한 땅은 되도록 농경지로 확보해야 했으므로 가옥이 불규칙하게 밀집하였다. 또한 곡저평야의 경우, 수해를 회피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곡저평야 내부보다는 곡저평야와 구릉지가 만나는 계면부를 택하여야 했으므로, 구릉지 기슭에 가옥들이 집중하였다.

셋째는 농업형태와의 관계이다. 후술하겠지만, 용인의 농업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밭농사위주에서 벼농사위주로 점차 변화되는데, 이러한 벼농사 위주로의 농업형태의 전환이 集村化를 조장하였다. 그것은 벼농사의 특수성에 기인하는데, 벼농사는 다른 농사와 달리 수리시설의 축조·관리에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고 이앙기 등 특정시기에 집중적인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노동력의 조직화·공동화가 필수적이며, 이것이 집촌화를 촉진시키는데 커다란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넷째는 동족결합력의 영향이다. 동족결합력이 괴촌화의 절대적인 동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동족촌은 거의 대부분이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조상숭배전통, 상속제도에 의한 경지규모의 영세화 등에 의해 宗家를 중심으로 괴촌의 형성하고 있다. 현재 용인 同族村의 대부분은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해체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상당수의 농촌이 동족촌의 범주에 속하였으며, 이들은 예외 없이 괴촌의 형태를 띠고 있다.

농업활동은 지형·토양·기후조건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따라 재배작물의 종류, 토지이용의 형태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농경지의 이용상태를 크게 논과 밭으로 나누어 왔고, 이에 따라 농촌은 논농사가 탁월한 촌락과 밭농사를

주로 하는 촌락으로 대별되며, 이것들을 각각 米作村 또는 畚作村, 그리고 川作村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농경지 이용의 차이는 촌락의 형태와 경관 등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사회구조 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용인의 경우, 조선시대의 경지면적을 논과 밭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IV-14와 같다. 용인과 양지 모두 경지면적이 조선전기에 비해 조선후기 들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실제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⁸⁰⁾ 그보다 중요한 점은 조선시대 줄곧 용인의 농경지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중이 밭의 그것보다 다소 낮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제시대 이후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표 IV-15 참조), 1911년에 이미 논면적이 밭면적을 상회하여 논이 밭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논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용인의 농촌을 경상·전라도의 농촌과 같이 조선시대부터 벼농사가 탁월했던 전통적인 미작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제시대 이후에는 벼농사가 농업의 주를 차지해 왔음은 분명하다.

표 IV-14. 조선시대 용인의 논·밭 면적(結數) 및 비율(%)

군 현	세종 연간 ¹⁾			18세기 후반 ²⁾		
	논면적 (비율)	밭면적 (비율)	총면적	논면적 (비율)	밭면적 (비율)	총면적
용 인	2,246(22.2)	3,742(77.8)	5,988	1,313(27.8)	3,406(72.2)	4,719
양 지	水田差少		2,068	485(48.1)	524(51.9)	1,009

1) 『世宗實錄地理志』에는 논과 밭 구분 없이 전체경지면적만 기록되어 있으며, 대신 논·밭의 비율이 표시 되어 있는데, 용인·양지의 논·밭 비율은 각각 水田居八分之三強·水田差少로 기재되어 있다. 용인의 경우는 비율을 봉해 필자가 세산해 본 값이다.

2) 元限付結數이다.

자료 『世宗實錄地理志』.

『輿地圖書』.

표 IV-15. 일제시대 이후 용인의 논·밭 면적(町步) 및 비율(%)

시기	논면적(비율)	밭면적(비율)	계
1911년	5,167.0(57.7)	3,793.2(42.3)	8,960.2
1962년	9,423.3(61.0)	6,022.7(39.0)	15,446.0
1980년	9,583.2(64.7)	5,222.3(35.3)	14,805.5
1999년	8,672.4(62.3)	5,237.1(37.7)	13,909.5

자료 朝鮮總督府, 1912, 『朝鮮總督府統計年報(明治44年度)-附錄』, 1쪽.

용인군, 1963, 『統計年報』, 15쪽.

농수산부, 1982, 『1980 농업조사-진국편』, 354쪽.

80) 『世宗實錄地理志』 단계의 結數와 그 이후의 結數는 結負制의 변천으로 그 단위나 내용이 달랐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야기되었을 수도 있다.

표 IV-16. 조선 후기 용인의 제언

군 현	명 칭	위 치	규모(尺) ¹⁾				용리면적 (石落)	비고 ²⁾
			둘레	길이	너비	깊이		
용인현	伐吾洞堤堰	구흥면	505	178	130	5.3		①②
	禡岐洞堤堰	수진면	530	168	120	4.3		①②
	笠洞堤堰	지내면	467	230	84	4.2		①②
	衙洞堤堰	현내면	720	170	180	5.2		①②
	廟洞堤堰	현내면	550	278	196	3.8		①②
양지현	檢丹堰 ³⁾	고안면	207	97	70		26	①②③④
	機勿谷堰	고안면	326	115	71		35	①②③④
	文頭錄堰	고안면	243	81	62		29	①②③④
	三穴山堰	縣南50리	586	166	165	4.0		①②
	狗洞堰	縣南60리	727.5	178.2	167.2	2.0		①②
	三隱堤堰	고동면	282	91	59		27	③④
	佳望谷堤堰	고북면	319	103	65		31	③④

- 1) 제언의 규모는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기재된 규모는 용인현은 『輿地圖書』, 양지현은 『輿地圖書』와 『陽智郡邑誌』의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 2) ①은 英祖 연간에 발간된 『龍仁縣邑誌』와 『陽智縣邑誌』에 기재된 것이며, ②는 『輿地圖書』에, ③은 1871년(高宗8년)의 『陽智縣邑誌』, ④는 1899년(高宗36년)의 『陽智郡邑誌』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 제언이다.
- 3) 檢丹堰은 1871년 기록부터 黔丹堰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 『龍仁縣邑誌』(英祖 연간)
 『陽智縣邑誌』(英祖 연간)
 『輿地圖書』
 『陽智縣邑誌』(1871년)
 『陽智郡邑誌』(1899년)

미작촌은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에 있어서 전작촌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그 중 가장 뚜렷한 것은 벼농사의 전제조건인 적절한 관개수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이며, 이는 다시 저수지·보·양수장 등 관개수의 확보시설과 수로·수문 등 관개수의 운반시설로 구분된다. 조선시대까지 용인에서 사용된 수리시설은 泮와 堤堰이었다. 당시 제언은 보에 비해 축조 및 관리에 엄청난 노동력과 재력이 필요한 관개시설이었는데, 표 IV-16은 『輿地圖書』 등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 후기 용인의 堤堰을 정리한 것이다. 조선 후기 용인에 존재하였던 제언이 모두 기록되었다고는 믿기 힘들지만, 당시로서 비교적 규모가 컸던 제언은 약 10여 개소 남짓했고 제언 한 개소 당 평균용리면적도 30石落 정도여서, 오늘날 용인의 제언과는 그 숫자나 규모 면에서 모두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제언은 현내면⁸¹⁾에 2개소, 고안면⁸²⁾에 3개소가 분포하여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었는데, 현내면의 경우 完庄

81) 현재의 남사면 아곡리·창리·완장리 일대이다.

川 변의 곡저평야를, 고안면의 경우 汕溪川 유역의 곡저평야를 관개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 용인 전역에서, 즉 산간골짜기와 곡저평야를 가리지 않고 보다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던 관개시설은, 축조 및 관리가 제언에 비해 용이한 보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이후, 특히 1960년대부터 곳곳에 대규모저수지가 건설되면서, 관개수 확보시설이 보에서 저수지로 전환되었고, 이것이 농촌경관의 변화에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예로, 1910년대 · 1963년 · 1996년에 각각 제작된 1:50,000 지형도를 통해 진위천 변의 곡저평야에 자리잡고 있는 남사면 진북리 · 전궁리 · 방아리 일대의 경관변화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1910년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진위천이 자유곡류를 하며 이 일대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여 흘러가다가 순지 서북쪽에서 유로가 2개로 잠시 나누어지며, 월경동⁸³⁾에 붓 미쳐서 다시 합류한다. 진위천 변의 범람원은 각강동 앞쪽과 신촌동북쪽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뒤쪽으로 펼쳐진 충적단구 역시 모두 논으로 개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일대와 주변에 저수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이들 논은 모두 보를 이용해 관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⁸⁴⁾ 보의 위치는 지도상으로 나타나지 않아 파악이 곤란하나, 진위천 본류보다는 보를 막기 쉽고 경사를 이용해 물을 논으로 운반하기 용이한 진위천의 지류들에 더 많은 보들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순지 · 신촌 · 외암 · 각강 등을 잇는 길은 폭이 좁은 소로였다.

약 50년이 흐른 1963년의 지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진위천이 자유곡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그 유로가 상당히 바뀌었다. 이는 인공적인 유로변경이 아닌 그간의 수 차례의 홍수로 인한 것으로, 중북동 동쪽에서 유로가 2개로 갈라졌다가 서쪽에서 다시 하나가 되며, 신촌 북쪽에서 다시 한 번 分流했다가 합쳐져서 하나의 유로를 통해 평택쪽으로 흘러간다. 농경지에 있어서는 신촌 동북쪽의 황무지가 이 기간 동안 대부분 논으로 개간되었고, 각강동 앞쪽의 황무지도 모두 논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농경지는 여전히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그 형태도 불규칙하고 규모도 일정치 않았다. 또한 이 시기에 이르면 방아리 방축골에 저수지⁸⁵⁾가 건설되어 방아리 일대의 농경지를 관개할 수 있게 되었고, 각강동과 신촌 사이의 충적단구 상에도 小溜池가 축조되

82) 현재의 백암면 고안리 일대이다.

83) 원래 용인 땅이나, 1983년에 평택으로 편입되었다.

84) 주로 보를 이용해 관개했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85) 이 저수지는 1940년에 축조된 것이라(李 宰 勳 편, 1991, 『내 고향 용인 地誌總覽』, 용인문화원, 55쪽), 1910년대 지형도에는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저수지가 위치한 마을의 시명이 1910년대에 방축동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시대이전에도 小溜池가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것이 관리부실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망치되다가 1940년에 이를 바탕으로 방축골저수지가 건설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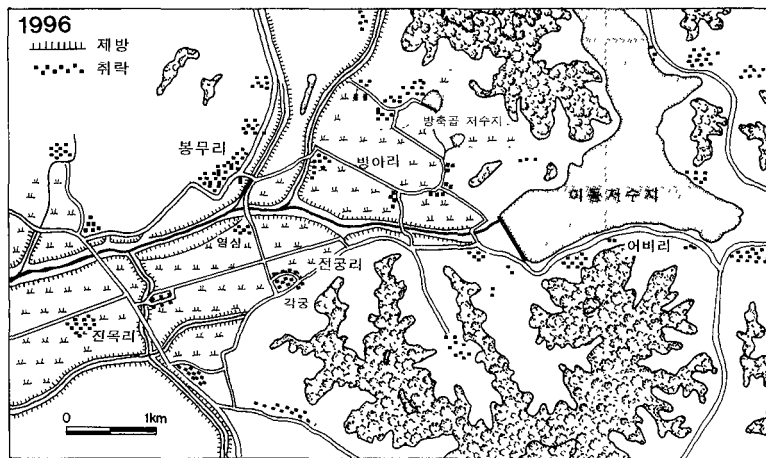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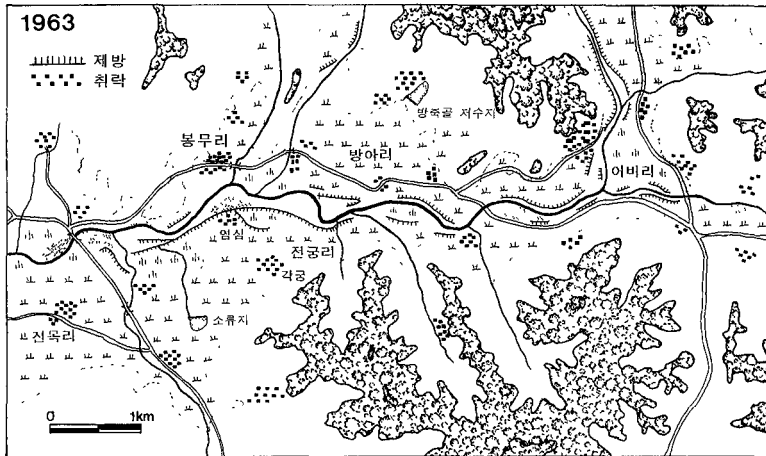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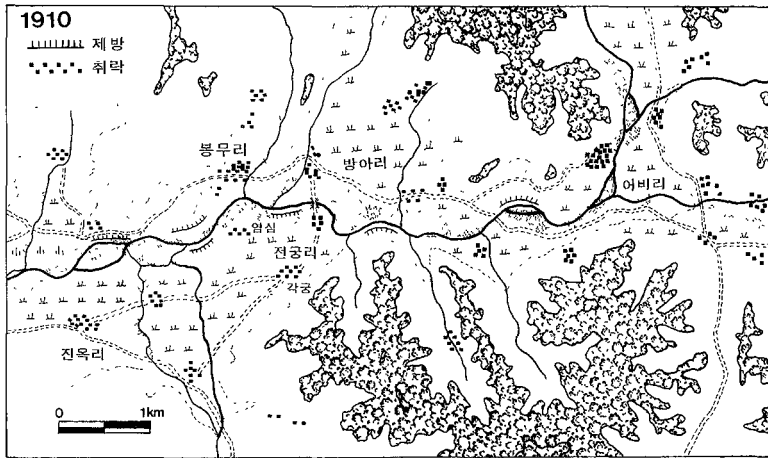


그림 IV-6 진위천 변 진목리·전궁리·방아리 일대의 경관변화

어 관개용수의 확보에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이 일대의 넓은 농경지를 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므로, 관개수의 대부분은 계속해서 보를 이용해 확보하였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1910년대의 지형도에서 각궁의 동북쪽, 진위천 바로 옆의 범람원상에 존재하던 마을⁸⁶⁾이 1963년의 지형도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마을은 도촌삼거리라 불리던 곳으로 주막·푸주간 등을 포함해 6가구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었다고 한다.⁸⁷⁾ 한편 일제시대에 비해 마을 간을 잇는 길이 상당히 확장되었고, 신촌과 봉명리 수세동 사이에는 진위천을 건너는 다리가 놓여졌다.

1963년 이후 최근에 이르는 약 30년 간은 가장 변화가 많았던 기간이다. 자유곡류하던 진위천은 장기간의 하천정비로 인해 유로가 직선화되고 고정되었으며, 진위천 본류는 물론이고 각 지류를 따라서도 제방이 쌓여져 범람의 위험성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진위천의 상류부에 이동저수지라는 대규모 저수지가 건설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어비리를 비롯한 수 개의 마을이 수몰되긴 했으나, 진목리·전궁리 일대는 안정적으로 관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자연히 그동안 사용되던 보는 대부분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저수지 완공과 더불어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농경지의 규모⁸⁸⁾와 형태가 통일되어 농경지경관도 크게 변화하였다. 지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로 인해 과거의 농경지형태를 닮아 구불구불하고 복잡하던 수로망도 직선화·단순화되었다. 마을간을 잇는 도로는 물론 마을 안길도 모두 확·포장되었고, 농로도 농기계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남사면 진목리·전궁리·방아리 일대의 약 90년에 걸친 경관변화과정은, 보 중심에서 저수지 중심으로 수리체계가 전환된 용인의 다른 곡저평야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산간골짜기의 농촌들도 이 시기에 많은 경관변화를 경험했으나, 농경지 경관에 있어서는 곡저평야의 그것에 비해 변화가 적은 편인데, 그 이유는 수리체계의 전환이 곡저평야의 농촌에 비해 적었다는 점보다는 지형적인 특색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산간골짜기는 곡저평야에 비해 지형적인 장애가 많아 대규모 경지정리 및 수로정비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등고선을 따라 만든 불규칙한 농경지 형태와 구불구불한 수로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용인 농촌의 마을경관은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그 원형을 복원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용인 전역에 걸친 현지조사를 통하여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용인 농촌은 자연적 입지조건, 주민의 구성 등 촌락

86) 1910년도의 지도에는 자연마을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마을 옆에 전궁리라 표시되어 있어 전궁리에 속한 마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87) 제보 : 임대선(72세), 남사면 진목리 순지.

88) 는 한 배미가 900평 단위로 정리되었다.

의 특성에 따라 그 경관구성요소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유사한 경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마을의 경관변화가 마을내부보다는 진입로개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해 마을입구부분 즉 洞口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과거의 마을경관 특히 마을입구의 경관을 복원해 보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의 동구를 구성하던 경관요소로는 장승·숫대·돌무지·당산목·마을숲·정자·각종 비각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들 중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예도 있지만 둘 이상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진 IV-6. 동구의 경관요소(1): 노거수로 이루어진 숲과 비석군이 복합되어 나타난다(모현면 초부리).



사진 IV-7. 동구의 경관요소(2): 한 그루의 노거수와 입석이 복합되어 나타난다(포곡면 유운리).

용인의 마을입구에는 유난히 인공적으로 조성된 마을숲이 위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 주요한 예로, 양지면 주북리 숲원이의 경우 마을 앞의 흐르는 주북천을 따라서 300m 길이의 숲이 있었고, 모현면 일산리 내개일과 남사면 진폭리 순지에는 마을과 마을 전면의 들판 사이에 길게 숲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현재 거의 파괴되거나 일부만 남아있다. 한편 모현면 초부리 상부곡, 이동면 서리 상반곡은 현재도 마을입구에 노거수로 구성된 숲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마을숲은 과거 마을을 수호하는 상징물로서 주민들의 신앙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허한 곳을 막아주는 풍수적인 역할, 마을의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 마을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시각적인 차단물로서의 역할, 防風林과 護岸林으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숲은 아니나, 운학동 별학과 같이 마을 중심이나 입구에 독립된 노거수가 서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나무를 당산목 또는 정자나무라 불렀으며, 역시 신앙의 대상인 동시에 이를 중심으로 한 작은 광장은 마을주민들의 휴식 및 회합공간이기도 하였다. 한편 유교적인 색채가 짙었던 일부 동족촌의 경우, 주민들의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 마을의 위세를 자랑하기 위한 상징물들이 마을입구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내사면 송문리의 孝子門과 旌閭, 모현면 능원리의 효자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마을 안의 경관요소들은 동구의 그것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나, 안길이 지금보다 매우 좁고 구불구불했다는 점, 식수원인 우물이 한 두 곳 이상 반드시 존재하였고 이 우물에다 제사를 지내는 마을이 많았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지대하였다는 점, 마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금에 비해 가옥의 밀집도가 훨씬 높았으며,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공터가 있으면 놀리지 않고 텃밭으로 이용하는 등 마을내부의 토지이용도 매우 집약적이었다는 점 등이 지금과는 다른 점들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마을경관의 변화가 마을내부보다는 동구에 집중된 것은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신작로 개설, 여기에다 토속신앙을 미신으로 간주하는 서양종교의 침투와 정부의 의식개혁운동 등도 한 몫을 하였으며, 유교적 경관의 황폐화는 동족집단의 와해에서 비롯된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마을경관의 변화에 무엇보다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다. 먼저 새마을운동의 초기 단계에 이루어진 생산기반 사업은 마을진입로와 안길, 농로의 확장과 포장을 가져왔는데,⁸⁹⁾ 이로 인해 당시까지 남아 있던 동구의 전통경관요소들이 상당수 파괴되었고, 마을 안길도 자동차가 진입할 정도로 넓혀지고 곧아졌다. 생산기반사업에 이어진 촌락공간구조개선사업은 공공시설의 건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마을마다 동구를 중심으로 마을회관·공동창고·노인정·공동구판장 등의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즉 새마을운동은 용인 농촌의 마을경관을

89) 金德鉉, 1989, “最近 韓國村落의 景觀變化에 대한 理解”, 『문화역사지리』 1, 33쪽.

획일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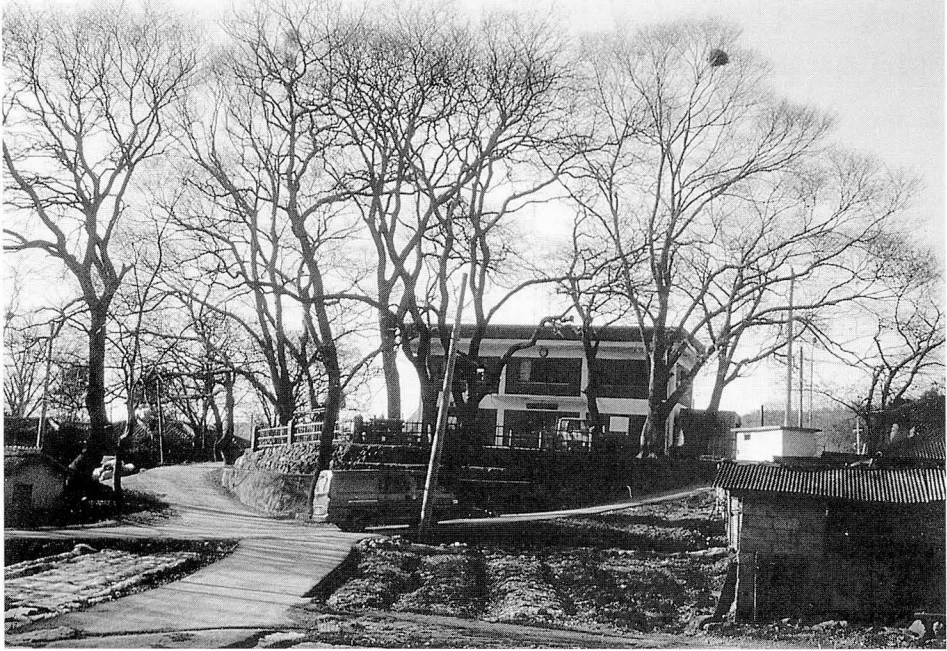


사진 IV-8. 모현면 갈담리 갈월의 마을회관: 동구의 마을 숲 안에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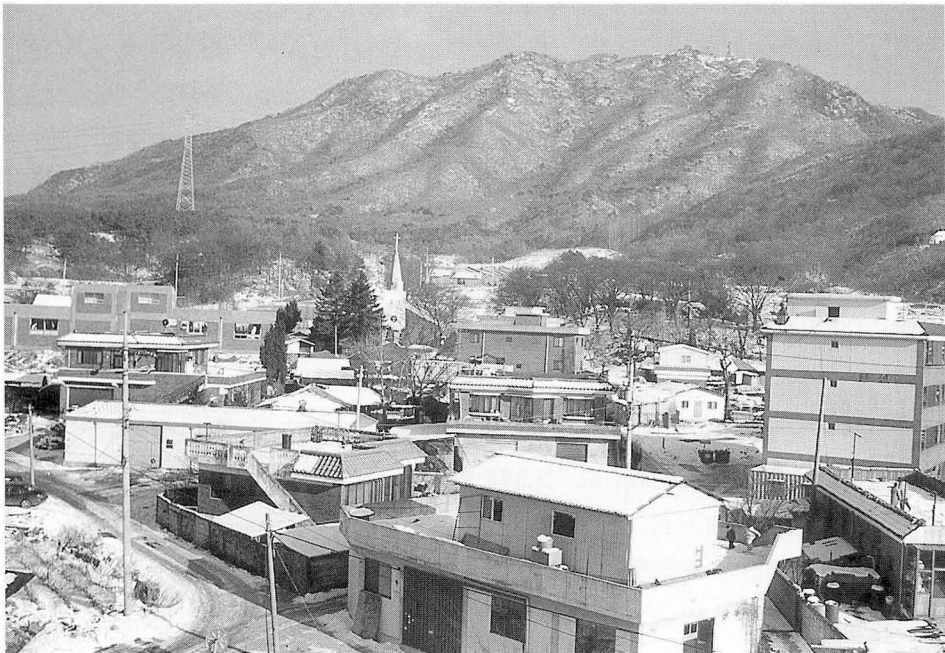


사진 IV-9. 구성면 중리 내촌의 경관변화: 소규모 공장과 창고,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 전통적인 농촌의 경관이 크게 변화되었다.

1980년대 이후 구성면·기흥읍·수지읍·포곡면 등 용인의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속화된, 외지인의 유입은 용인농촌의 마을경관에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인구의 증가로 마을 내부에 일반 농가와와는 외형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공동주택과 이른바 전원주택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소규모공장이나 유통창고 등 이질적인 시설들이 마을 주변은 물론 안쪽까지 파고들고 있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4. 교통촌과 시장촌

물산과 사람이 이동하는 도로·수로·철도 등 교통로 변의 요지에는 일찍부터 촌락이 발달하였고, 이들 촌락은 지금까지 살펴본 농촌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총칭하여 交通村이라 부르기로 한다. 또한 교통로의 결절점이나 연계지점에 농민들이 모여 잉여물을 판매하고 비자급품을 구입하는 場市를 바탕으로 형성된 촌락인 市場村은 입지·기능 등의 면에서 교통촌과 매우 유사하며, 교통촌이 시장촌으로 발달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둘을 묶어 함께 다루고자 한다.

교통촌은 교통로의 유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수상교통로 변에 입지한 촌락이며, 다른 하나는 육상교통로 변에 입지한 촌락이다. 지금처럼 육상교통로가 발달하지 못했던 조선시대까지는 강과 바다를 이용한 수상교통이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고, 특히 큰 강은 내륙수로서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핏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배가 오르내리는 큰 강변의 곳곳에는 상선이 기항하여 물자를 내리고 싣는 河港聚落이 발달하였으며, 도로가 강을 만나는 곳, 즉 도하지점에는 나룻배가 다니는 나루터가 있었고 이 나루터를 중심으로 渡津聚落이 형성되었다. 용인에도 많은 하천이 분포하나, 모두 하천의 상류부에 해당하므로 하폭이 좁고 수심도 얕아, 상선이 용인까지 溯江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대부분의 하천은 나룻배를 사용하지 않고도 도하가 가능했기 때문에 하항취락이나 도진취락이 형성되지 않았다.

반면 조선시대에 영호남의 길목으로 비유될 정도로 육상교통로 상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용인에는 서울-동래간의 영남대로 등 주요 도로변에 많은 교통촌들이 발달하였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교통촌으로는 驛院聚落이 있었는데, 역원취락이란 驛과 院을 중심으로 형성된 촌락을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역은 마필과 역졸을 갖추고 관리 내왕시 편의 제공·공문서와 공물의 운송·사신의 영송 등을 담당하는, 원은 관리와 일반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기관이었는데, 용인에는 良才道 소속⁹⁰⁾의 駒興驛·金嶺驛·佐贊驛⁹¹⁾ 등 세 곳의 역과, 普施院·弘化院·金嶺院·承寶院⁹²⁾ 등 네 곳의 원이 있

90) 正祖 연간에 양재도가 폐지되면서 迎華道 소속으로 바뀐다.

91) 구흥·금령·좌찬역은 각각 현재의 기흥읍 신갈리 역말·역북동 역말·원삼면 좌향리 좌전

었다. 이 중 원들은 17세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쇠락의 길을 걸었고,⁹³⁾ 대신 17·18세기 이후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로 변을 따라 酒幕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주막촌은 행상이나 여행자들에게 술과 식사,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하였는데, 교통의 중심지였던 용인에는 표 IV-17과 같이 많은 수의 주막촌이 분포하였다.

표 IV-17. 조선 후기 용인의 주막의 분포

縣	面	酒幕名	위 치	한글이름	縣	面	酒幕名	위 치	한글이름
용인	읍내면	사거리주막	남동		용인현	하동촌면	비우리주막	시미동	
	동변면	어정포	중동				곽기주막	어비동	
	서변면	보수원주막	보수원				장서리주막	어비동	
	구흥면	갈천주막	갈천리		양지현	읍내면	교동주막		교동주막거리
		갈곡주막	갈곡				용곡주막		뱀의실주막
	수진면	풍덕천주막	토월리			주동면	용곡점주막	평촌	용고리주막
		원천주막	원천리			고서면	적회우주막	하갈리	적중모루
	지내면	옹암주막	상리	독바위주막			평촌주막	대평리	벌말
		석현주막	상리	돌고개주막		고동면	봉지곡주막	봉지곡	바디실주막
		독현주막	의상	독고개주막			주북면	대대주막	대대리
산의실주막		의상		박성리주막		박성리		치우개주막	
수여면	역동주막	역동		박곡면		원대주막	청계리	원터거리	
	신점리주막	북동	새술막주막	고안면		별당주막	입동(笠洞)	벌터주막	
	직동주막	서동	골은골주막	제촌면	가양지점	당촌	강재주막		
	호동주막		범앙골주막		당촌점	당촌	당미력이		
포곡면	두계리주막			원삼면	장등주막	가좌리	긴등주막		
	신원리주막				외창주막	창동리			
모현촌면	犁串주막	원촌리	보십고지주막		미륵당주막	문촌리			
	상석자포주막	고매곡리	웃돌자개주막	원일면	옹암주막	좌찬리			
	하석자포주막	관청리	아랫돌자개주막		좌찬주막	좌찬리			
창동주막	창동	창말주막	태평촌주막		행군리				
현내면	월곡주막	월곡	다리골주막	근일·이면	울리점	평율리	뱀이주막		
	완장동주막	완장리	완쟁이주막		병전점	아송리	떡전거리		
도촌면	삼가리주막	수세동		근삼면	대평촌주막	석곡리			
상동촌면	천동주막	천동	샘골주막		흙다리주막	노동리	흙다리주막		
	노곡주막	원촌	노루실주막						

자료 李仁宰 편, 1991, 『내 고장 용인 地誌總覽』, 용인문화원, 244-299쪽.

에 위치하였다.

- 92) 보시원·홍화원·금령원·승보원은 위치는 각각 구성면 보정리 연원·기흥읍 신갈리 원기·역북동·백암면 박곡리 원터로 추정된다.
- 93) 1530년(中宗 25년)에 간행된『新增東國輿地勝覽』 용인·양지현의 驛院條에는 이들 원의 명칭과 위치가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1760년대(英祖 연간)에 간행된『輿地圖書』의 경우, 용인현의 驛院條에는 역만 기재되어 있으며, 양지현의 역원조에는 承寶院의 위치와 함께 ‘今廢’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미 이 시기에 용인의 원은 모두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시장촌의 바탕이 된 조선시대 場市는 상설시장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부근의 농민과 상인들이 모이는 定期市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전통적인 농업사회의 농촌 시장이 정기성을 지니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생산자와 교역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의 농촌시장의 수요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만한 이익을 거둘 수 없지만, 開市日을 정기화하면 상인들이 여러 시장을 순회하면서 충분한 이익을 얻게 된다. 또한 순회중개인에게는 시장의 정기성이 자신의 상품에 대한 판로를 제한된 장소와 특정한 날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든 시장의 정기성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를 줄이는 방법이 된다.⁹⁴⁾ 조선시대 장시의 효시는 15세기 말인 成宗 때 전라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⁹⁵⁾ 경기도의 경우 서울로 수송되는 물자가 증도에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시의 개설이 금지되었고 한양과 개성의 커다란 시전이 주변 장시의 성장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비해 장시의 발달이 지체되었지만, 17세기 이후에는 경기도에도 장시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⁹⁶⁾ 『林圀經濟志』에 의하면 용인에는 당시 縣內場·金良場·道村場·介川場·排甘場 등 5곳의 장시가 존재하였는데, 모두 5일을 주기로 하는 정기시장이었다. 그러나 19세기말까지만 하더라도 몇몇 대상을 제외한 지방의 장시에는 상설점포가 거의 없어서 장이 과한 후에 행상과 주민들이 흩어지면 거의 빈터가 되었기 때문에⁹⁷⁾ 시장촌의 발달은 일제시대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믿어진다. 일제시대 이후에는 용인의 시장망에 변동이 일어나 현내장·도촌장·개천장이 쇠퇴하고 대신 豐德川場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제 교통촌과 시장촌의 입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역촌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그 위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교통로를 따라 대략 하루 보행거리인 30리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입지하였다. 역촌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변에 입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용인의 금령역과 좌찬역도 원칙대로 영남대로에 연해 위치하였는데, 금령역은 구성쪽에서 覓祖峴⁹⁸⁾을 넘고 나면 길 왼편에 남쪽으로 구릉지를 등지고 북쪽으로 급학천을 면하여 자리잡고 있었으며, 좌찬역도 양지쪽에서 좌찬고개를 넘으면 길 왼편의 구릉지 기슭에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구흥역은 대로에서 약 1km 이상 떨어진 후미진 곳에 들어서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는 良才驛·連原驛·聊城驛의 사례⁹⁹⁾에서도 찾아볼 수 있

94) Skinner, G. W., 1964, Marketing and Social Structure in Rural China,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24(1), pp.10-11.

95) 정승모, 1992, 『시장의 사회사』, 웅진출판, 54쪽.

96) 李憲稔·金鍾赫, 1997, “京畿地域의 市場變動”, 『京畿地域의 郷土文化』(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1-195쪽.

97) 李憲稔·金鍾赫, 1997, 앞의 논문, 192-193쪽.

98) 메주고개라고도 한다.

듯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¹⁰⁰⁾ 역의 위치는 정부에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주민도 배치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흥역을 대로에서 떨어진 곳에 입지시킨 데는 가장 중요한 입지조건인 교통조건보다 우선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구흥역을 용인현의 읍치에 인접하여 배치해야 했으나, 신분상 身良役賤인 驛民을 사대부와 관료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읍치 인근에 거주시킬 수 없어 이들을 격리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여기에는 역촌이 교통기능을 목적으로 설립된 촌락이지만, 구체적인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당시 우리 조상들이 선호했던 전통적인 촌락입지조건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 증거로 좌찬역이 있었던 좌전마을의 입지를 살펴보면, 바로 길옆이긴 하나, 당시 선호하였던 촌락입지인 배후와 좌우가 구릉지에 둘러싸이고 앞으로 작은 시내가 흘러가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구흥역이 있었던 역말은 큰길에서 마을이 보이지 않아 ‘피난골’이라 불릴 정도인 삼태기 모양의 골짜기 안에 들어서 있다.¹⁰¹⁾

한편 조선시대 원촌은 대다수가 대로변에 입지하였고, 나머지는 大邑의 성문 밖, 나루터, 궁벽한 산간소로, 3-4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 등에 들어섰는데,¹⁰²⁾ 용인의 원촌 중 보시원·금령원·승보원은 영남대로변에, 홍화원은 수원·양성으로 통하는 石隅路변에 자리잡고 있어 도로변에 설치한다는 원촌의 입지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령원은 금령역과 이웃하여 위치하였는데, 이렇게 역과 원이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어 하나의 교통취락을 성립시킨 것은 드문 예이다. 이곳은 여러 길이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에 힘입어 정기시장이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18~19세기부터 지방중심지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원촌의 기능을 계승한 주막촌 역시 원촌과 마찬가지로 도로변이나 도로의 교차점, 고개 아래, 도하지점, 역원 부근 등에 입지하였다. 표 IV-17에서 언급한 주막들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주막촌으로는 사거리주막¹⁰³⁾·삼거리주막,¹⁰⁴⁾ 고개 아래에 자리잡은 주막촌으로는 돌고개 아래의 석현주막¹⁰⁵⁾·박석고개 아래의 신원리주막¹⁰⁶⁾·무네미고개 아래의 노곡주막¹⁰⁷⁾, 그리고 도하지점에 위치한 것으로는 경안천변의

99) 양재역·연원역·요성역은 각각 대로에서 약 500m·2km·1.5km 떨어져 있다(崔永俊, 1990, 『嶺南大路』,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64쪽.).

100) 柳馨遠, 『礪溪隱錄』卷22, 兵制後錄, 郵驛條.

101) 제보 : 엄병섭(87세), 기흥읍 신갈리 역말.

102) 崔永俊, 1990, 앞의 책, 281쪽.

103) 현재의 구성면 언남리 남동에 있었다.

104) 남사면 봉명리 삼거리에 있었다.

105) 기흥읍 영덕리 석현에 있었다.

106) 포곡면 신원리에 있었다.

107) 이동면 천리 노곡에 있었다.

석자포주막¹⁰⁸⁾ 등이 있었다. 또한 보수원주막과 원대주막은 보시원과 승보원이 폐쇄됨에 따라 그 자리를 이어 받은 것이며, 역동주막과 좌찬주막은 각각 금령역과 좌찬역에 이웃하여 입지한 주막촌이었다. 이와 같이 용인의 주막촌과 역원취락은 매우 유사한 입지를 보이나, 그 분포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역원취락은 관 주도로 그 입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영남대로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규칙적으로 분포하는데 반해, 민간주도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막촌은 영남대로변 뿐만 아니라 중로·소로변을 가리지 않고 들어섰으며,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일수록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한편 이러한 주막촌의 급속한 발달은 전통적인 촌락입지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도로를 전염병과 잡귀의 통로이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도덕한 것들이 전파되는 길로 생각하여 노변의 거주를 기피했던 전통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¹⁰⁹⁾

조선후기의 정기시장은 대개 지역중심지 역할을 하던 읍치 부근, 또는 도로의 결절점이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대로변에서 열렸는데, 용인의 5곳의 시장 중 縣內場¹¹⁰⁾·介川場¹¹¹⁾은 각각 용인현과 양지현의 읍치 인근에 자리잡고 있었고, 排甘場¹¹²⁾·金良場은 영남대로와 이에 연결되는 聯路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道村場¹¹³⁾은 振威路변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일제시대 이후 발달하기 시작한 豐德川場도 개수된 신작로변에 들어섰다. 그 분포패턴을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하천을 중심으로 한 生活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용인을 관통해 흐르는 주요 하천인 탄천·경안천·청미천·진위천 그리고 福河川의 상류가 되는 추계천 유역에 각각 현내장·김량장·백암장·도촌장·개천장 등 한 개소씩의 시장이 분포하고 있다.¹¹⁴⁾ 즉 주민들의 생활권과 거의 일치하는 하천의 流域圈마다 하나의 장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장은 장터를 수용해야 하므로 넓은 광장을 필요로 하나, 교통의 요지에 점유되지 않은 넓은 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장터의 입지로 선호된 것이 하천변의 둔치였다. 둔치는 큰 물이 지면 잠기는 단점이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점 때문에 대지나 농경지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의 토지이용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공터로 남아 있는 것이 보통이다.¹¹⁵⁾ 이러한 연유로, 용인의 시장은 모두 하천변에 위치해 있으며,¹¹⁶⁾ 둔치를 장터로 이용하고 이보다

108) 모현면 왕산리 석자포에 있었다.

109) 崔永俊, 1990, 앞의 책, 281-289쪽.

110) 邑內場이라고도 불렸으며, 구성면 마복리 북동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11) 양지면 제일리 제일에 있었다.

112) 白岩場으로 백암면 백암리 백암에 위치해 있다.

113) 남사면 봉무리 내기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114) 일제시대에는 현내장 대신 풍덕천장이 탄천유역의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115) 정치영, 1999, “경상남도의 촌락”, 『慶尙南道の 郷土文化』(上),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61쪽.

116) 현내장은 탄천의 지류인 구흥천변에, 김량장은 경안천의 지류인 금학천변에, 도촌장은 진위

비고가 높은 하천을 따라 나 있는 도로변에 촌락이 입지하였다.

다음으로 교통촌과 시장촌의 형태 및 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역촌은 19세기 후반 이후, 원촌은 그보다 빠른 17세기 이후 그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였으므로, 그 형태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그러나 구흥역과 좌찬역이 있었던 기흥읍 신갈리 역말과 원삼면 좌항리 좌전은 용인의 다른 역원취락에 비해 형태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토대로 추정해볼 때 역원취락은 塊村이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들 촌락이 여행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국가의 계획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국가는 이들 촌락민들의 상업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국가에서 지급한 驛屯土와 院主田만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도록 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자급자족위주의 농촌과 다를 바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 농촌과 유사한 촌락형태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상업활동을 위해 노변을 따라 가옥이 들어설 필요가 없었다.

역촌과 원촌의 구조를 살펴보면, 역촌은 驛館이 중심이 되고, 말을 사육·관리하는 시설과 大車·便車·曲車 등 각종 수레를 보관하는 시설, 그리고 역리·역졸·역노 등 역의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가옥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원촌은 여행객이 숙박하는 원집과 馬房과 약간의 일반가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역촌은 원촌에 비해 보다 오랫동안 존속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증언 등의 통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구조를 복원할 수 있는데, 좌찬역의 경우는 다음과 같았다(그림 IV-7 참조). 마을 입구의 들에는 탑이 서 있었고, 이를 지나면 里門이 자리잡고 있어 이문거리라 불렸다. 탑의 형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도로표식인 동시에 민간신앙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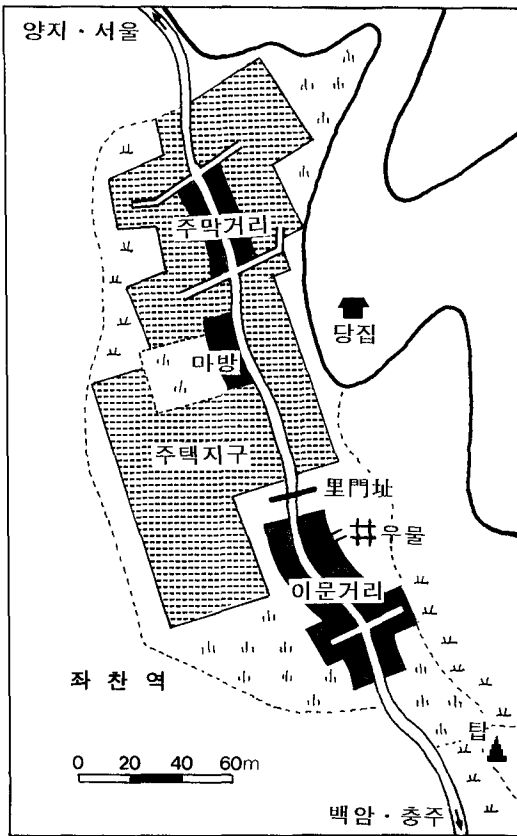


그림 IV-7. 좌찬역의 구조

천변에, 백암장은 청미천변에, 개천장은 추계천변에, 풍덕천장은 탄천의 지류인 풍덕천변에 각각 자리잡고 있다.

은 마을 전체의 출입문 역할을 했으며, 이곳에서 여행자들을 검문하였을 것이다. 통행자를 검색하여 범죄자를 체포·호송하고 流移民을 방지·포획하는 일도 역의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이다.¹¹⁷⁾ 이문거리 다음에는 우물이 있었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역의 핵심시설인 馬房이 있었으며, 그 주위에 일반가옥들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서 있었다. 驛館 등 관아 건물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나, 마을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좌찬역의 역관은 일본을 오가는 通信使일행이 쉬어가거나 식사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였을 것이다. 한편 마을 동쪽의 구릉지에는 당집이 있었으며, 도로를 따라 주막들이 들어서 있는 주막거리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19세기 후반이후 역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그 상당부분을 주막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마을에서 좌찬고개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頌德碑 등 비석 3기와 음각이 되어 있는 암벽 2개가 서 있었는데, 1972년 좌향2저수지가 건설되면서 수몰되었다. 이와 같이 비석군이 노변에 설치되는 것은 흔한 사례로,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충효사상을 고취시키는 교육적 기능과 더불어 간접적인 도로표지의 역할도 지니고 있었다.¹¹⁸⁾ 구흥역의 경우에도 마을 중앙에 수령이 많은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고, 마을 뒤쪽의 구릉지에는 돌무지와 당집이 아직도 남아 있다. 느티나무는 세종 연간에 도로변 매 10리마다 亭子木을 조성케 하였을 때¹¹⁹⁾ 최우선적으로 선택된 수종으로, 도로경관을 대표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마을의 堂山木으로서 주민들의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돌무지 역시 도로표지이자, 민간신앙물로서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돌무지 위에 돌을 올려놓고 지나온 여정의 안전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남은 여정의 무사를 기원하였다. 또한 마을 북쪽의 약간 떨어진 ‘뒷별’에 주막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한 채도 남아 있지 않다.

주막촌은 역원취락과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그 대부분이 중심가로를 따라 가옥들이 배치되어 있는 街村을 이루고 있었으며, 촌락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 구조도 매우 단순하였다. 그러나 그 규모에 있어서는 두 세 채의 주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촌락이라 하기엔 너무 규모가 작은 주막촌부터 그 길이가 수 백 미터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였다. 용인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주막촌으로는 금령역과 금령원의 기능을 이어받은 현재의 삼가동·역북동일대의 역동주막·신점리주막·직동주막¹²⁰⁾ 등이었다. 이들은 인근에 김량장을 끼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교통의 결절점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었으므로,¹²¹⁾ 조선후기 이래 상업 및 교통중심지로 급성장을 거듭하여

117) 李悌幸, 1989, “우리나라의 驛制와 畿甸地方 驛站攷”, 『畿甸文化』 6, 26쪽.

118) 崔永俊, 1990, 앞의 책, 323쪽.

119) 『世宗實錄』卷93, 世宗 24年 9月 癸巳條.

120) 1881년 일본에 파견되었던 紳上遊覽團 일행이 머물 정도로 규모가 컸던 주막이었던 같다(李憲永, 『日樞集略』地, 辛巳年 8月.).

121) 『林圀經濟志』相宅志 卷2, 八域名基에는 金嶺村을 ‘緣溪地沃宜耕稼 賓旅輻湊有場市 可資財貨’



사진 IV-10. 구흥역말의 당집

용인현의 읍치보다 더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결국 용인군청이 이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 시장촌의 형태는 주막촌과 마찬가지로 街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것이 더 발달한 경우에는 비교적 규칙적인 종횡의 가로망이 형성되고 이 가로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건물들이 충전되어 도시와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된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형성 초기에는 상설점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장이 서지 않은 날에는 공터가 되는 장터와 이를 둘러싼 몇 채의 주막으로 구성되었으며, 장터에 비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假家가 설치되어 있는 시장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능이 강화된 시장촌의 경우에는 장터에 영구적인 점포가 들어서고, 음식점·술집·여관 등 각종 서비스시설들이 갖추어져 도시를 연상케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말기에 폐쇄된 것으로 믿어지는 현내장과 개천장¹²²⁾은 전자의 구조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며, 김량장·백암장 등 계속 발전한 시장촌은 후자에 속한다.

라 묘사하였다.

122) 현재 양지면 제일리 제일에는 '장터거리'라는 지명만 남아 있고, 그 밖의 시장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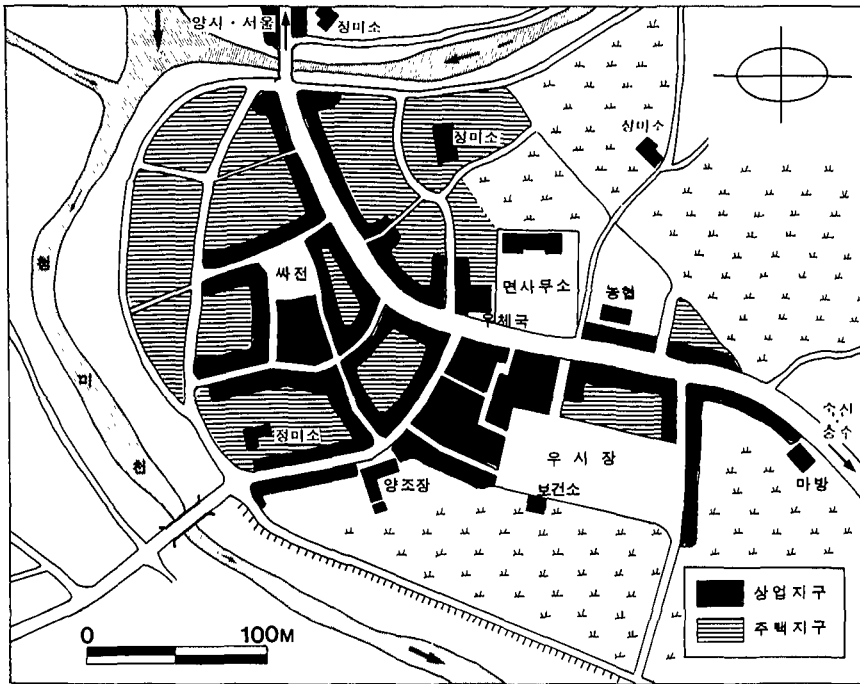


그림 IV-8. 백암장의 구조

백암장의 예를 통해 시장촌의 구조를 좀더 자세히 고찰해 보자. 백암장은 청미천 본류와 박곡리 쪽에서 흘러나온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청미천이 굽이쳐 흐르고, 동쪽으로는 양지-죽산간의 영남대로(123)가 지나간다. 다시 말하면 하천과 도로 사이에 시장촌이 들어서 있는 것이다. 원래 시장은 청미천 쪽에 치우쳐 열렸는데, 현재는 이곳에 상설점포들이 좁은 도로를 따라 양쪽으로 밀집해 시장골목을 이루고 있으며, 시장의 중심부였기 때문에 ‘배개미 속장’이라 불리고 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는 쌀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싸전이 있었고, 동쪽에는 牛市場이 열렸다. 우시장은 백암장과 같은 날짜에 열렸고, 용인 전역은 물론 이천·안성·죽산·음성 등지에서도 장꾼들이 올 정도로 규모가 컸다. 한편 영남대로 변에는(124) 馬房이 위치하여 장꾼들이 이곳에 소와 말 등을 맡기고 숙박을 하기도 하였다. 백암장은 일제초기에 이미 거래액 면에서 김량장을 능가할 정도로 큰 시장이었고, 일제시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상설점포도 더욱 증가하였고, 여러 곳의 정미소와 일본인이 운영하는 양조장(125) 등이 들어섰

123) 현재는 17번 국도이다.

124) 현재의 종합복지회관 근처이다.

125) 1930년대에 건립되었고, 현재도 그 위치 그대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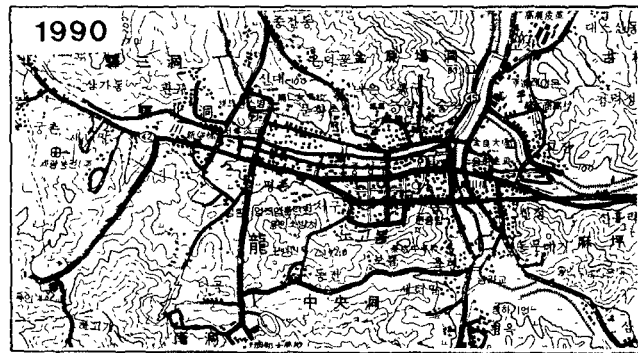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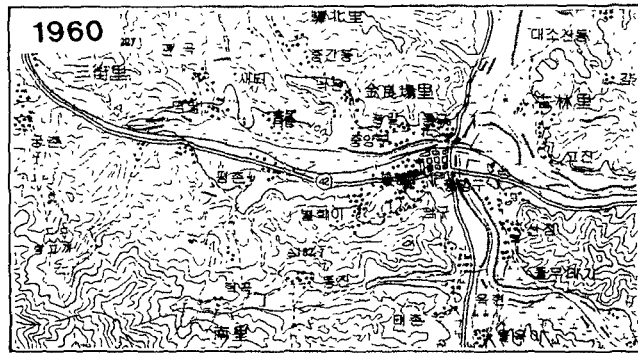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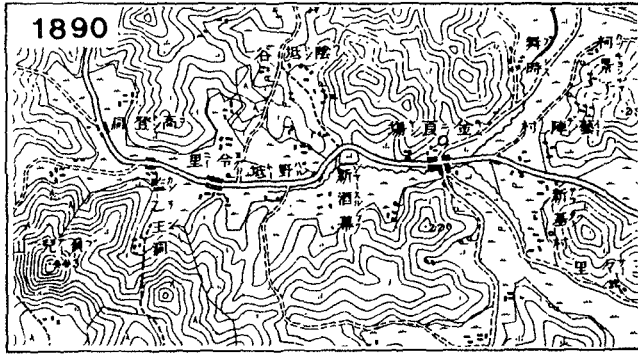


그림 IV-9. 김량장의 성장

으며, 일반가옥의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 또한 이때부터 외사면의 면소재지로서, 상업 및 교통중심지 뿐 아니라 행정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면서 면사무소¹²⁶⁾·우체국 등 각종 공공건물들이 곳곳에 들어서게 되었다. 현재 백암장은 거의 常設市場化되었지만, 아직도 1·6일에 장이 열려 정기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날의 노점은 과거의 우시장 자리의 공터에 개설되고 있다.

한편 김량장은 네거리를 중심으로 십자로 상에 발달한 시장촌이었는데, 일제시대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리고 시장을 중심으로 건물의 고층화와 밀집화, 각종 교육·문화·서비스시설들의 집중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 시장촌은 도시화의 핵이 되고 있다.

5. 동족촌

동족촌은 일반적으로 '同一한 조상으로부터 파생되어 동성동본의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을 또는 지방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상태'¹²⁷⁾, 혹은 '하나 또는 두 세 개의 동족집단이 자연을 바탕으로 일정지역에 공존하는 것이다'¹²⁸⁾라고 규정되고 있다. 동족촌에 관해서는 1960년대부터 地理學을 비롯하여 人類學·社會學·建築學 등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으며,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족촌에 대한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채 同姓部落·集姓村·同族聚落·同族部落·同族마을·氏族村落 등이 혼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족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러 성씨가 함께 거주하는 일반촌락과 달리 동족촌이 가지는 특징적 요소로는 혈연(씨족의 유대감), 장소(지리적 유대감), 주민의 의식구조 등을¹²⁹⁾ 들 수 있다. 곧, 동족촌은 地緣이라는 기초 위에 血緣이라는 끈으로 맺어진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로서의 삶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동족촌은 이러한 독립된 생활의 기초공간으로서 자연촌¹³⁰⁾을 단위로 응집하고 있다. 용인의 경우도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아, 동족촌의 단위는 행정촌이기보다는 그 하위의 자연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26) 원래 우체국 근처에 있다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127) 善生永助, 1935, 『朝鮮の聚落』(後編), 朝鮮總督府, 1쪽.

128) 李鍾弼 外, 1983, 『嶺南地方 固有聚落의 空間構造』, 嶺南大 出版部, 117-118쪽.

129) 최영준, 1997,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길사, 355쪽.

130) 자연촌은 근래까지도 행정 혹은 학술 용어로 '자연부락'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部落이란 용어가 일본에서는 천민집단 거주지를 칭하는 것으로, 일본인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해왔다 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기초적인 생활 단위이며 주민들이 인식하는 범위로서의 촌락을 의미하는 자연촌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동족촌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名門巨族의 동족촌을 대상으로 하여 단일촌락 혹은 수 개의 촌락을 중심으로 외형적 형태와 구조, 동족의 분화 과정 등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동일문화권 혹은 市·郡 등과 같은 지역생활권을 단위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물론 동족촌을 살펴보는 데 있어 단일 촌락단위에서 동족의 비율, 마을의 형태와 공간구조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생활권이라는 더 큰 단위를 중심으로 중심 성씨의 통혼권과 소유범위, 移居 혹은 입향의 경제적 배경, 중심인물의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용인의 동족촌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용인 내부는 물론 인접지역과의 관계, 용인 내에서의 각 촌락간의 연고관계, 각 성씨의 사회적·정치적 지위의 변동과정 등을 거시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인의 동족촌은 15~17세기에 걸쳐 기존의 世居 성씨, 혹은 용인으로 移居한 유력한 士族 등 몇 개의 성씨를 중심으로 성립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지역생활권 내에서 일정규모의 정치적·경제적 세력권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력간에는 긴밀한 사회·경제적 관계가 내재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1) 동족촌의 형성

동족촌의 발생 및 발달의 주된 배경으로는 男系長子 우선의 상속제도, 朱子家禮의 보급과 禮學의 발달, 宗法的 가족제도의 수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경들은 대체로 17세기에 보편화되는 현상으로, 이들이 서로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조선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족촌은 대체로 17세기 이후에 형성되어 18·19세기를 거치면서 보편화되었다.¹³¹⁾

일반적으로 동족촌은 입향조가 정착하면서 바로 형성된다고 보기보다는, 입향조가 정착한 이후 개간과 점유 등을 통해 확보한 토지를 기반으로 그 후손이 증가하고 이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비로소 그 모습을 갖추게 된다. 또한 동족 구성원의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진출이 계속되면서 기존 촌락에서 인근지역으로의 확산과 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동족촌이 계속 발전하여 한 지역에서 확실한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토대와 사회적 지위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경제적 기반은 소유 농경지와 노비 등 노동력의 증대를 통해, 사회적 지위는 중앙관계로의 진출뿐만 아니라 유력 사족과의 통혼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었다.

131) 정진영, 1991, “조선후기 동성마을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 『한국사론』 21, 국사편찬위원회, 40-42쪽.

표 IV-18. 전국 유명 동족촌의 발생연대

()는 비율(%)

시기 지역	500년 이상	500년 미만 -300년 이상	300년 미만 -100년 이상	100년 미만	불명	계
전국	207 (12.3)	646 (38.3)	351 (20.8)	23 (1.4)	458 (27.2)	1,685
경기도	27 (11.5)	85 (36.2)	70 (29.8)	2 (0.8)	51 (21.7)	235

자료 善生永助, 1935, 『朝鮮の聚落』(後篇), 218쪽.

용인을 포함하는 경기도의 동족촌 발생연대를 살펴보면(표 IV-18 참조), 500~300년 된 동족촌이 36.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것은 전국비율인 38.3%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300~100년 된 동족촌의 비율은 경기도가 전국의 그것에 비해 9% 가량 높아, 비교적 역사가 짧은 동족촌이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중기 이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를 겪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왕도에 가까운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부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이 지역 동족촌들이 새롭게 재편되면서 빚어진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족촌의 규모에 있어서도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나타난다.

표 IV-19. 유명 동족촌의 호수별 규모(1930년)

구분 도별	150호 이상		100~149호		60~99호		30~59호		30호 미만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경기도	5	2.1	10	4.3	45	19.1	108	46.0	67	28.5	235	13.9
충청북도	8	6.0	16	11.9	48	35.8	47	35.1	15	11.2	134	8.0
충청남도	6	4.6	21	16.0	51	38.9	36	27.5	17	13.0	131	7.8
전라북도	8	8.7	10	10.9	26	28.2	42	45.7	6	6.5	92	5.5
전라남도	22	9.3	33	13.9	66	27.9	96	40.5	20	8.4	237	14.1
경상북도	35	14.2	55	22.3	76	30.7	62	25.1	19	7.7	247	14.7
경상남도	26	19.3	32	23.7	45	33.3	27	20.0	5	3.7	135	8.0
황해도	6	4.2	20	14.0	41	28.7	62	43.3	14	9.8	143	8.5
평안남도	7	6.3	15	13.4	26	23.2	51	45.5	13	11.6	112	6.6
평안북도	11	22.9	18	37.5	17	35.4	2	4.2	0	0	48	2.8
강원도	9	11.4	7	8.9	32	40.5	29	36.7	2	2.5	79	4.7
함경남도	4	6.3	12	19.1	18	28.6	22	34.9	7	11.1	63	3.7
함경북도	3	10.4	2	6.9	7	24.1	11	37.9	6	20.7	29	1.7
총계	150		251		498		595		191		1,685	100

자료 善生永助, 1935, 『朝鮮の聚落』(後篇), 193-194쪽.

표 IV-19는 전국의 유명 동족촌 1,685개의 호수별 규모를 정리한 것인데, 60호 이상의 대규모 동족촌의 비율에서 경기도는 전국의 어느 道보다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60호 미만의 중·소규모 동족촌은 타도에 비해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역시 서울을 둘러싼 郊지역에 해당하는 경기도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가 어느 특정 세력에 의해 점유되기보다는 다양한 세력에 의해 주도권이 분점되어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중기 이후 사회와 당쟁으로 인한 빈번했던 정치세력의 교체, 상업발달과 인구증가 등 사회변동 등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집단적인 동족촌 형성이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지방과는 구별될 수 있는 용인을 포함한 경기도 일대의 동족촌의 특징은 서울을 둘러싼 교지역이 족세가 번성한 모든 씨족이 관직을 매개로 경쟁적으로 진출했던 곳이므로 많은 다양한 씨족이 그 근거를 이 지역에 두고 있었던 반면, 영남을 비롯한 타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응집력이나 사회적 지명도는 떨어지는 씨족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된다.¹³²⁾ 바꾸어 말하면 대규모의 동족촌을 이루는 大姓과 名門巨族의 분포가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 중·소규모의 동족집단과 취락을 형성하면서 각 집단간의 생활양식과 경제적·문화적 수준에 있어서는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보편적 수준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동족촌의 형성과정과 분화를 살펴볼 때에는 누가·언제·어디에서·어떠한 배경과 연유로 해당 마을에 정착하였는지, 또 그 성씨 집단이 기존의 마을 주민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마을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동족촌 형성의 시초가 되는 입향조의 거주지 선정과정은 대개 입향조 본인과 그의 父나 祖 혹은 子의 혼인관계를 통해 추적이 가능한데,¹³³⁾ 그 까닭은 입향조가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을 거주지로 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자신의 처가나 외가 혹은 그 이전에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곳을 거주지로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체로 관직이나 학문에 뛰어난 인물이 입향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용인지역에서는 표 IV-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개의 주요 성씨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동족촌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성씨들이 상호간 혼인을 통해 인척관계 또는 정치적 연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의 성장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龍仁李氏는 용인의 土姓이었다. 앞절의 표 IV-2와 같이 용인에는 여러 土姓이 있었지만, 이들 토성 가운데 대부분은 여말선초의 사회변화와 조선초기의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畝

132) 박병련, 1997, “경기지역의 성씨와 씨족”,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37쪽.

133) 이해준, 1996, “공동체 생활”,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30-131쪽.

표 IV-20. 경기남부 주요성씨의 시기별 정착

	麗末 土姓	15세기 정착	16세기 정착	17세기 정착
龍仁	龍仁 李氏	迎日 鄭氏 延安 李氏	漢陽 趙氏 韓山 李氏	海州 吳氏 牛峰 李氏
始興	安山 金氏	晉州 姜氏	昌寧 成氏	文化 柳氏 潘南 朴氏 德水 張氏
廣州	廣州 李氏			平山 申氏 羅州 丁氏

자료 이성무·정만조·이영준·최봉영, 1999, “朝鮮時代 近畿地方의 文蹟·遺物·遺蹟 調査研究”, 『朝鮮時代史學報』10, 181쪽.

族으로 전락하였으며 그 중 土姓土族으로 온존한 성씨는 龍仁李氏뿐이었다. 용인이씨는 조선시대 문과급제자를 계속적으로 배출하면서 중앙으로 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용인지역에서 명문거족으로 자리매김 하였다(표 IV-21).¹³⁴⁾

표 IV-21. 조선시대 용인지역 문과급제자의 본관성씨 및 시기별 추이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합계	비고	세거지*
용인 李씨	8	7	13	33	28	89	土姓	포곡면 유운리 신원리 수지면 풍덕천리
연안 李씨	1	1	3	1	2	8		모현면 동림리·갈담리·초부리 내사면 추계리
해주 吳씨		1	3	1	1	6		모현면 오산리 원삼면 학일리·죽릉리·목신리 외사면 박곡리
경주 金씨	1	1	1	1	1	5		용인면 호리 기흥면 영덕리·하갈리·신갈리 구성면 죽전리 모현면 초부리 남사면 진목리 내사면 주북리·제일리
곡부 孔씨		1		1	3	5		
우봉 李씨			3	1		4		이동면 천리
남원 尹씨		1	1	2		4		
한양 趙씨		1			2	3		용인면 역북리 포곡면 영문리 기흥면 보라리
고령 朴씨	1	1			1	3		
단양 禹씨				3		3		

134) 정만조, 1996, “조선시대 용인지역 사족의 동향”, 『한국학논총』19, 76쪽.

전주 李씨			1	1	1	3	용인면 마평리 포곡면 마성리 수지면 성북리 이동면 어비리 원삼면 사암리 외사면 근삼리
청송 沈씨		1		1	1	3	수지면 이의리
풍천 任씨				3		3	
한산 李씨	1	1				2	기흥면 지곡리
덕수 李씨			1		1	2	기흥면 영덕리
나주 丁씨		1	1			2	
안동 金씨			1	1		2	
청주 韓씨				1	1	2	구성면 상하리 기흥면 보라리 지곡리 원삼면 독성리
함안 趙씨				2		2	

자료 鄭萬祚, 1996, “朝鮮時代 龍仁地域 士族의 動向”, 『韓國學論叢』19, 105쪽의 부록-3의 자료에서 합계 2인 이상의 성씨를 정리하였음.

*는 『京畿道誌』下卷(1957)에 정리된 동족촌의 분포에서 해당 성씨의 세거지를 열거하였다.

한편 용인이씨 외의 성씨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용인으로 이거해 온 이들로, 이들의 이주동기에는 특히 혼인관계에 의한 연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대체로 연고관계에 의한 입향 후, 정치적·사회적 진출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지역 내에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용인이씨를 제외하고 용인출신의 과거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성씨로는 연안이씨, 해주오씨, 경주김씨 등의 순서인데, 이는 이들 성씨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외, 용인지역의 주요한 성씨로 꼽히는 영일정씨(135)는 15세기에 모현면으로 이거해 왔다. 이들은 정몽주의 묘소를 이곳으로 옮기면서(136) 정착한 것으로 전해지

135) 迎日[延日] 鄭氏는 『高麗史』列傳에 등재된 襲明을 증시조로 하는데, 그는 고려 인종조와 의종조에 걸쳐 언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의종조에는 樞密院 知奏事에까지 이른 인물이었다. 襲明 이후 이렇다할 관직진출자를 배출하지 못한 영일정씨는 고려말 정몽주의 활약으로 가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몽주(1337~1392)가 조선 건국과정에서 건국주체세력과 마찰로 제거됨으로써 가문은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 가문이 재기하는 것은 정몽주의 복권과 궤를 같이 하였다. 조선 태종은 권근의 요청에 따라 정몽주를 영의정으로 추증하는 동시에 문충공이라는 시호를 내려 그의 충절을 기렸다. 그 이후 정몽주의 묘소 이장을 용인으로 하게 됨에 따라 모현면 일대에서 영일정씨가 자리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정만조, 1996, “조선시대 용인지역 사족의 동향”, 『한국학논총』19, 76-78쪽).

고 있지만, 그보다는 당시의 사회적 관례를 통해 추정해 볼 때 혼인관계에 의한 연고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몽주의 장남인 宗誠의 처가는 竹山 朴氏¹³⁷⁾ 朴仲容의 집안으로 여말선초의 유력한 士族 가문의 하나로 죽산에 세거하던 집안이었다. 당시의 죽산과 용인의 지리적 근접성과 자녀균분상속 등의 사회적 배경으로 추정해 볼 때, 영일정씨가 모현면에서 자리를 잡고 세거할 수 있게 된 경제적 기반이 죽산박씨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¹³⁸⁾

또한 15세기 모현면에, 迎日(延日) 鄭氏와 함께 이거해 온 延安李氏¹³⁹⁾는 입향조인 이석형이 정몽주의 손자인 鄭保의 사위가 되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석형의 아들 渾은 용인이씨와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용인일대에서 지배세력의 일원으로써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다소 세력이 침체되었다가 17세기 이후 延龜와 貴의 가계가 閹閹¹⁴⁰⁾을 형성하게 되었다. 15세기 무렵 용인지역의 용인이씨, 연안이씨, 영일정씨 등의 사족들은 대개가 중앙의 훈구계열로써 활동하였으며, 그것은 그들의 통혼관계가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⁴¹⁾

16세기에 용인으로 이거한 성씨로는 한양조씨와 한산이씨가 있다. 건국 초 개국공신에 책봉되는 등 가문의 성세를 보이던 한양조씨는 이후 楊州일대에서 세거하였는데, 이들의 일부가 용인으로 이거한 것은 대체로 15세기 중반 이후였다. 용인으로 이거한 계파는 인근 경기도 남부지역의 유력 성씨인 남양홍씨, 여흥민씨, 한산이씨, 죽산박씨 등과 혼인관

136) 고려말 충신 정몽주의 묘소는 원래 개성의 豐德에 있었으나 태종 6년(1406) 3월 현재의 위치인 모현면 능원리 문수산 기슭으로 옮겨 부인 경주 이씨와 합장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풍덕에 묘를 썼다가 후에 고향인 경상도 영천으로 遷葬할 때 면레행렬이 수지읍 경계에 이르자 앞에 세워둔 銘旌이 바람에 날려 현재 묘소의 위치에 떨어져 안장하였다 한다.

137) 용인에서 죽산박씨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근삼리·근곡리 일대로 동족촌의 형성시기가 약 400~600여년 전으로 추정되며(『京畿道誌』, 1957), 이곳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죽산군에 속한 곳이었다. 『朝鮮의聚落』後篇(朝鮮總督府, 1935, 222-223쪽)에서는 유명한 동족촌의 하나로 백암면 옥산리를 들고 있으며, 竹山 朴氏가 41戶(254名), 同姓 以外の 호수가 7戶(36名)를 차지하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138) 정만조, 1996, 앞의 논문, 76-78쪽.

139) 연안이씨는 당 중랑장 이무를 시조로 하는 3계의 계파가 祖先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분리된 채로 가계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3개 계파 가운데 용인에 세거한 계파는 賢呂系의 계통이었다. 이 가문이 성장한 계기는 賢呂系(判少府監派)의 7대손인 李宗茂 때로, 고려말 안변 일대에서 세거하다가 이성계의 휘하에서 활동한 것을 계기로 개국공신으로 책봉되었고, 이후 工曹典書를 역임하였다. 용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이주계기는 宗茂의 손자인 李石亨(1415~1473)이 정몽주의 손자인 鄭保의 사위가 된 것이다. 이석형의 묘소는 모현면 능원리 문수산 자락 정몽주의 묘소 옆에 자리하고 있다.

140) 閹閹은 조선전기 집권세력으로 이해된다. 별열은 양반에서 분화된 최상위 계층으로 지속적으로 관인을 배출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세습하는 가문을 말한다(차장섭, 1997, 『조선 후기별열연구』, 일조각, 1쪽).

141) 정만조, 1996, 앞의 논문, 81쪽.

계를 맺었으며, 이는 한양조씨가 중앙정치에서 비중을 높여가며 활동할 수 있었던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한산이씨는 조선전기 대표적인 거족의 한 가문으로 교하, 마전 등지에서 세거하다가 용인으로 이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산이씨 12世인 李耜가 주목되는데, 그는 용인 기흥의 보라리에 세거했던 한양조씨와 학통 및 통혼관계를 맺었으며 조광조 중심의 사림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기흥읍 지곡리 일대에 세거지를 형성하였으며 선산김씨·여주이씨·인천채씨·함중어씨 등과 혼인관계를 맺었다.¹⁴²⁾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용인지역 내 士族의 판도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용인이씨와 연안이씨가 이 시기에 이르러 정치적으로 크게 부상하고, 이와 함께 새로운 이거사족으로 해주오씨와 우봉이씨 등이 정착하게 되었다. 해주오씨의 경우 연안이씨와의 혼인관계가 이곳으로 정착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또한 우봉이씨는 용인 천동 일대에 정착한 후 노론의 핵심가문으로 중앙의 집권별열세력과 중첩된 혼맥관계를 형성하였으며, 李緯에 이르러서는 京畿士林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봉이씨의 초기 세거지역할을 하였던 용인의 천동일대는, 李緯가 고양의 화전 일대에 생활기반을 가지면서 세거지로 보다는 선영으로서의 의미를 더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한편 18세기에 들어오면, 용인 내의 名門閥閥인 용인이씨와 연안이씨 문중의 경우 顯達한 집안은 京中이나 경기도 내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예가 늘어났다. 이들은 묘소만 용인에 둔 채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楊州·坡州·廣州 등 서울의 근교로 거주지를 확대하여 갔다.¹⁴³⁾ 이에 따라 선영을 돌보면서 본래의 기반을 지키는 것은 아무래도 문중 내에서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지 못했던 후손집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점은 세거지를 떠나지 않고 선조의 사당과 유물을 지키면서 종손을 중심으로 族的 결속을 강화해가던 영남지방의 사족세력과 확연히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¹⁴⁴⁾ 반면 16세기에 그 족세를 드러냈던 한양조씨(기흥읍 보라리)와 한산이씨(기흥읍 지곡리), 그리고 해주오씨의 추탄공파(모현면 오산리) 후손들은 士禍와 朋黨으로 인해 중앙의 정권으로부터 소외되어 정치활동이 위축되었으며, 그들의 세거지를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동족촌을 형성하였다.

142) 정만조, 1996, 앞의 논문, 86-87쪽.

143) 이성무·정만조·이영춘·최봉영, 1999, “朝鮮時代 近畿地方의 文蹟·遺物·遺蹟 調査研究”, 『朝鮮時代史學報』 10, 168쪽.

“용인이씨만 하더라도 宜顯(英祖代 영의정)·在協(正祖代 좌의정)과 崇楛·在學·奎鉉·普赫·普溫 등이 용인을 떠났고 연안이씨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였다.”

144) 정만조, 1996, 앞의 논문, 97-98쪽.

표 IV-22. 용인지역 주요성씨의 시기별 성쇠와 세거지

구분 姓氏	시기별				주요 통혼성씨	동족촌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龍仁 李氏	李光時	▲	李世白▲ [老論]		竹山 朴氏·幸州 奇氏	수지읍 풍덕천리 기흥읍 영덕리
迎日 鄭氏	鄭夢周	▼	▲		淸州 韓氏·延安 李氏	모현면 능원리
延安 李氏	李石亨	▼	李廷龜▲	가평이주	迎日 鄭氏·龍仁 李氏	모현면 갈담리·동림리·초부리
漢陽 趙氏		趙光祖▲			龍仁 李氏·南陽 洪氏 驩興 閔氏·竹山 朴氏	기흥읍 보라리·지곡리 용인시 역북동
韓山 李氏		李 紱▲			善山 金氏·驩州 李氏 仁川 蔡氏·咸從 魚氏	기흥읍 지곡리(기외집말)
海州 吳氏			吳允謙▲ [西人]	吳斗寅▲ [老論]	咸陽 呂氏·全義 李氏 豐川 任氏·潘南 朴氏 豐壤 趙氏·淸州 韓氏 坡平 尹氏	모현면 오산리 본동 기흥읍 서천리(외서천) 원삼면 학일리·죽릉리·목신리
牛峰 李氏			李 緯▲ [老論]		驩興 閔氏·潘南 朴氏 海州 吳氏·安東 金氏 光山 金氏·南陽 洪氏	이동면 천리 원촌(院村)
	훈구계열	사림계열				

자료 이성부·장만조·이영춘·최봉영, 1999, "朝鮮時代 近畿地方의 文蹟·遺物·遺蹟 調査研究", 『朝鮮時代史學報』 10, 168쪽.

2) 동족촌의 입지와 구조

용인에서 동족촌의 마을 입지는 일반 민촌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역사가 오래 동족촌의 경우, 교통로변이나 평야 등 외부로 개방된 곳에 입지하기 보다는 독립적이고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곳에 오롯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되도록이면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마을 터를 잡았으며, 마을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마을 숲을 조성하는 경우도 많았다. 촌락의 입지에 대해서는 앞의 농촌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으므로 구조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고 개별 마을 단위로 살펴보고자 한다.

동족촌은 사회구조의 질서가 마을 구조에 반영되어 비교적 명확한 공간질서를 가지면서, 전통 마을의 전형을 이룬다.¹⁴⁵⁾ 촌락의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주거지로서의 가옥·길·농경지·임야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반 촌락과는 달리 동족촌은 가옥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공간과 亭子·精舍·書堂·齋室¹⁴⁶⁾·祠堂 등의 수기·의례공간¹⁴⁷⁾에

145) 한필원, 1996, "전통마을의 환경생태학적 해석-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원티마을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7), 122쪽.

146) 김지민, 1997, "전남지방의 재실건축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3), 124쪽.

齋室은 제사시 제수를 장만하고 제례질차를 논의하고 또한 많은 후손들의 숙박을 위해 마련

서 그 특징적인 면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동족촌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성씨의 종가와 주거지가 풍수나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곳, 즉 그 지역의 가장 높고 밝은 곳이나 마을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고, 하층민 혹은 분가한 후손들은 점차 촌락이 확대됨에 따라 외곽에 자리잡게 된다.¹⁴⁸⁾ 다시 말해서 마을 입향조의 주택인 종가가 중심이 되고 그곳을 중심으로 취락이 팽창하는 형태를 지니게 되며, 종법이나 계층간의 확연한 위계성이 나타나게 된다. 종가는 대체로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격식과 규모가 잘 갖추어져 있어 대외적으로도 그 마을의 위세를 과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근본이념으로 한 사회였으므로, 사회지도층을 형성하였던 계층인 양반들이 거주하는 동족촌에는 유교적 이념이 반영된 공간으로서 앞에서 열거한 다양한 의례장소(儀禮場所)와 수기장소(修己場所)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용인의 동족촌의 형성과정, 입지, 공간구조 등을 몇 개의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용인의 동족촌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① 구성면 중리 내촌

석성산의 서쪽 산록에 자리하고 있는 구성면 중리의 자연촌 중 하나인 내촌 마을은 현재 星州 李氏·濟州 高氏·南陽 洪氏 등 여러 성씨가 거주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호수를 차지하는 성주이씨는 400여 년전 楊洲로부터 13대조(총재공파)가 이거해 오면서 용인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성주이씨의 묘역보다는 제주고씨의 그것이 더 오래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성주이씨가 이거해 오기 전에 제주고씨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입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성산의 능선이 마을 후면으로 이어져 있으며, 마을 좌우로는 낮은 언덕이 감싸고 있어 비교적 넓은 들이 펼쳐져 있는 전면만 개방되어 있는 곳에 마을이 들어서 있다.

1970년대 내촌은 성주이씨 15호, 제주고씨 10호, 남양홍씨 5호 등 50여 호가 농업을 위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¹⁴⁹⁾ 그러나 그 후 마을 앞을 지나가는 과거의 영남대로

된 공간으로, 곳에 따라 문중의 모임이나 서재 같은 강학기능을 하는 곳도 있다. 건물에는 선조를 추모하는 상징적 의미의 ‘추원’, ‘영모’ 등의 현판이 걸린다.

147) 김덕현, 1991, “유교적 촌락경관의 이해”,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211-213쪽.

의례공간이란 조상숭배와 존현숭덕의 상징적 의미가 행해지는 공간으로, 祠堂·祠宇·齋室 등이 있다. 수기공간은 유교적 교양인 및 독서인으로서 사대부들의 생활양식을 잘 반영하는 공간으로 亭子·精舍·書堂 등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 내부적으로는 마을 주민의 정체감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문화적 우월을 과시하는 역할도 하였다.

148) 이규성·김일진, 1993, “한국 전통마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2(1), 17쪽.

가 확포장되어 서울·수원·용인 등지와 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이들 지역으로 통근하는 외지인의 유입이 늘어나고, 각종 공장과 창고 등이 마을 안팎에 들어서게 되자 과거의 마을경관이 크게 훼손되었다. 현재는 13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 내에 가구·시계·기계·식품 등 13곳의 소규모공장과 창고,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 수 개棟과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으며, 동족촌에서 나타나는 증가·재실 등 전형적인 공간요소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중리의 자연마을 중 외촌은 1970년대 약 25가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마을은 내촌에서 分家한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마을이었다. 일반적으로 마을이 후손의 증가와 새로운 이주민의 유입 등으로 대지의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 분가 혹은 새로운 농경지의 개간 등을 통해 분화하게 되고, 이 경우 원래의 마을에는 내(안)○○·전(앞)○○·상(윗)○○ 등의 명칭을 붙이고 새롭게 형성된 마을에는 외(바깥)○○·후(뒤)○○·하(아래)○○ 등으로 명명하는 것이 보통인데, 중리의 내촌과 외촌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이 지명은 設村의 先後 혹은 마을의 분화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도 한다.

한편 중리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7월 초하루에 석성산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마을 주민들은 주산인 석성산의 山神에 의해 마을이 보호되고 축복을 받는다고 믿으며, 이 때문에 정중하고 신성하게 산신제를 올린다.

② 모현면 오산리 본동

용인에서 두드러지는 분포를 나타내는 성씨로는 해주오씨(150)를 들 수 있다. 해주 오씨는 모현면과 원삼면 일대에서 그 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모현면에서는 오산리, 원삼면에서는 학일리·죽릉리·복신리에 해주오씨 동족촌이 형성되어 있다. 용인에 세거하는 해주오씨는 고려말 大護軍을 지냈던 吳希保가 만년에 원삼면 학일리 일대에 정착한 것이(151) 그 기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모현면 오산리 본동 일대에 해주 오씨가 살게 된 것은 16세기 후반 希保의 玄孫인 吳希文이 연안이씨와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이곳으로 이거

149) 제보 : 李秉直(89세)·李洋燮(60세), 용인시 구성면 중리 내촌.

150) 해주 오씨는 고려의 건국과 관련하여 왕건을 적극 후원한 해주 지방출신의 호족세력으로, 고려초기부터 太祖功臣, 在京官人 및 土着吏族 등을 거치면서 分派된 것으로 본다(龍仁郡, 1990, 『龍仁郡誌』, 1214-1216쪽). 해주 오씨가 용인에 정착하기 전에는 廣州 土塘이나, 竹山, 陽城 등지에서 세거하였으며, 임진왜란 이전에는 가문의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해주 오씨가 용인에 정착할 때 吳希文의 처가인 연안이씨에서 상당정도의 재산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오희문이 남긴 『鎖尾錄』에서 그는 외가인 충북영동에서 나고 자랐으며 그 때까지도 가세가 넉넉치 않았음을 술회하였다(정만조, 1996, “조선시대 용인지역 사족의 동향”, 『한국학논총』19, 89-90쪽).

151) 龍仁郡, 1990, 『龍仁郡誌』, 1216쪽.

한 뒤부터로, 원삼면 일대에 비하여 그 시기가 뒤늦었다. 하지만 오산리 일대에 정착한 해주 오씨는 希文의 아들인 允謙 이후 크게 번성하여 윤겸을 派祖로 추탄공파를 이루었다. 이들은 인근의 연일정씨(능원리)·연안이씨(능원리·갈담리)·의령남씨(갈담리·과담) 등과 계속적인 통혼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봉당으로 인해 정치적 활동이 위축되면서, 해주 오씨 추탄공파는 모현면 오산리 일대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세거하게 되었다. 이는 영일정씨가 17세기 후반 이후 정몽주 묘소 일대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능원리 일대에 동족촌을 형성하면서 족세를 지켜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吳山이라는 지명은 삼학사의 한 명인 오달제¹⁵²⁾의 묘소에서 연유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그보다는 해주오씨 문중소유의 산지가 이 일대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吳씨가 많이 거주하는 골짜기란 의미에서 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오산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자연촌인 본동, 양지말, 사기막이 합쳐졌는데, 본동의 경우 일제시대에는 40여 가구였으며, 1970년대에는 20~3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 오씨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본동은 수지읍와 광주를 잇는 큰 길에서 법화산 쪽으로 깊게 파고 들어간 좁은 골짜기를 따라 계류를 가운데 끼고 들어서 있다. 마을이 능선의 북사면에 자리하고 있어 '응달말'이라 불리기도 했는데, 오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을이기 때문에 '본동'이라 개칭하였다.¹⁵³⁾ 마을은 계류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릉지로 바로 이어지는 동쪽보다는 평탄지가 넓게 나타나는 서쪽 편에 더 많은 가옥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동족촌에서는 마을의 중심에 위치하는 宗家가, 본동의 경우에는 가옥들도 적고 마을 입구에 해당하는 현재의 마을회관 우측, 즉 계류의 서쪽에 있었다. 그 까닭은 종가가 계류의 서쪽에 자리잡게 되면 계류의 동쪽보다도 쉽게 남향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훨씬 긴 일조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마을의 중심부나 가장 높은 곳보다는 가장 밝은 곳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종가가 계류의 동쪽, 마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옮겨져 있으며, 종가 바로 옆으로 채실·사당이 들어서 있고, 그 뒤쪽 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해주오씨의 始祖壇이 건립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최근에 건립되거나 개축된 것인데, 이와 같이 종가·사당·채실 등 문중의 위세를 나타내는 건물을 새로 크고 화려하게 건립하는 동족촌들이 최근 들

152) 오달제(吳達濟, 1609~1637)는 본관이 해주이고, 호는 추담(秋潭)으로 전적·병조좌랑·정언·지평·수찬을 거쳐, 1636년 부교리가 되었다. 병자호란 때 화친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윤집(尹集)·홍익한(洪翼漢)과 함께 청나라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였다. 세상에서는 이들을 三學士라고 하여 그들의 절개와 충성을 높이 기리게 되었다.

153) 이인영 엮음, 1991, 『내고장 용인 지지총람』, 용인문화원, 184쪽.



사진 IV-11. 오산리 본동 사당 : 종가 옆에 자리한 사당과 사진 왼쪽으로 멀리 해주 오씨 시조단이 보인다. 시조단과 사당 등은 5년전에 새롭게 조성되었다.

어 전국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용인에서도 모현면 능원리 능골[종가], 수지읍 고기리 손기마을[재실·사당] 등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주민들 중 바쁘고 고달픈 도시 생활 속에 상실해 가는 자기정체성을 자신의 뿌리인 고향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으기도 하고, 재력을 가진 출향인들이 고향을 위해 새로운 상징공간을 조성하거나 쇠락한 기존의 상징공간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해주오씨의 묘역은 본동 마을 뒷산과 본동과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양지말 뒷산에 나뉘어져 있는데, 전자에는 오희문, 오윤겸 등의 묘소가, 후자에는 삼학사의 한 명인 오달제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본동 마을 뒷산의 묘역의 앞쪽에는 이례적으로 연못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묘역이 오리穴에 자리하였기 때문에¹⁵⁴⁾ 오리의 생활터전이 될 만한 연못을 만들어 줌으로써 풍수적으로 완전한 형국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에 있었다.

154) 제보 : 오세윤(68세),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본동.



사진 IV-12. 오산리 해주오씨 묘역 : 오희문·오윤겸 등 해주오씨의 묘역이 구성되어 있다. 풍수형국이 오리혈이기 때문에 묘소 앞에 연못을 조성하였다고 전해진다.

③ 모현면 능원리 능골

능원리 능골은 迎日 鄭氏의 동족촌으로, 정씨의 입향시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5세기 초반무렵으로 추정된다. 입향의 계기는 고려 말 충신 정몽주 선생의 묘소를 이곳으로 이장하면서 移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몽주의 아들인 宗誠의 처가와의 관련성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내용은 앞에서 정리한 바 있다.

능골은 숫돌봉의 동쪽 끝자락인 구릉지와 경안천 지류인 능원천 사이의 비교적 넓은 평지에 자리잡고 있어 농경지를 일구어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능원천을 따라 수지와 광주를 연결하는 큰 길¹⁵⁵⁾이 마을 앞을 통과하고 있어 교통조건도 유리한 편이다.

마을의 공간구조를 살펴보면, 우선 마을입구의 능원천 변에는 정몽주 묘소와 관련한 下馬碑가 있으며, 도로변에는 정한영 효자비¹⁵⁶⁾가 건립되어 있다. 이처럼 충신·효자·열녀 등을 기리기 위한 旌闈는 마을입구의 길가에 자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을 안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서면, 마을 중앙부에 신축한 규모가 큰 한옥이 나타나는데, 이 건

155) 43번 국도이다.

156) 모현면 능원리에 소재하며, 1639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송시열이 찬하였으며 김수증이 서했다는 기록이 있다(경기도 박물관, 1999, 『경기문화유적지도 I』, 171쪽).

물이 영일정씨의 종가이다. 건립된 지 오래지 않아, 비록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종가의 위치는 과거 그대로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능골의 종가는 마을의 중심이나 가장 높고 밝은 곳에 자리잡는 일반적인 종가의 입지원칙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며, 가옥의 보수·증개축 등의 과정을 거쳤지만 위치의 관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동족촌의 종가는 가장 오랫동안 보존되며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마을 북서쪽에는 정몽주 선생을 배향하는 충렬서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충렬서원(157)은 선조대에 건립되어 광해군대에 사액서원이 되었으며, 정몽주 외 정보, 이시직, 오달제를 추가 배향하고 있다. 동족촌에서의 서원은 문중의 자제들의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선현을 봉사하고 가문의 권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마을 바깥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마을의 가장 높은 부분인 솟돌봉 기슭에 위치해 있다.

한편 능원천 건너의 내곡(안골) 문수산 아래에는 정몽주 선생의 신도비와 묘소가 있으며, 묘소 앞으로 재실인 영모재가 자리잡고 있다. 정몽주 묘소가 있는 영일정씨 묘역에는 정씨 묘소 외에 이석형의 묘소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¹⁵⁸⁾ 이는 영일정씨와 연안이씨의 친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능원리는 최근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도로(43번 국도)가 확장되고, 태세를 넘어 분당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정비됨에 따라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지인이 많이 이주해 오면서 주민구성과 村落景觀 등의 측면에서 동족촌으로서의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 즉 마을 전면의 도로변을 따라서는 상가건물들이 늘어서게 되었고, 마을 안쪽으로도 창고·아파트 등이 기존의 가옥들을 밀어내고 속속 자리잡고 있다.

157) 1576년(선조 9)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정몽주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창건 후 광해군대에 사액되었으며, 정보(鄭保)·이시직(李時稷)·오달제(吳達濟)를 추가 배향하고 있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1871년(고종 8)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 1911년 유림에서 祠宇를 중건하였고, 1956년에 강당을 복원하고 1972년 전체를 보완신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우에는 정몽주·정보·이시직·오달제의 위패를 배향하며, 강당은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화합 및 학문 강론장소로 사용되고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2권, 639쪽).

158) 이석형의 묘가 정몽주의 묘 옆에 위치한 연유에 대하여 전해 오는 일화가 있다. 정몽주의 묘를 이장할 때 바람에 날린 명정이 떨어진 곳은 사실 현재의 이석형의 묘자리였다. 이 때 정몽주의 후손이며 이석형의 부인인 영일정씨가 이곳이 명당이라는 말을 듣고 친정집보다는 시택 가문을 일으키려고 밤새 이곳에 물을 길어다 부었다. 다음날 정몽주탈 모시려고 광중(塲中:시체를 묻는 구덩이)을 보니 물이 가득 차 있어 할 수 없이 옆 언덕에 묘를 썼고, 뒤에 그 자리에는 영일정씨가 남편인 이석형을 모셨다고 한다(고제희, 1996, 『한국의 묘지기행-선현을 만나러 가는 길 1』, 도서출판 자작나무, 183-184쪽).



사진 IV-13. 능원리 충렬서원 : 포은 정몽주를 비롯하여 정보·이시직·오달제를 배향하고 있다.



사진 IV-14. 능원리 안골에 자리한 정몽주와 이석형의 묘소 : 왼쪽이 정몽주, 오른쪽이 이석형의 묘이다.



사진 IV-15. 재실(齋室) : 정몽주 묘소 앞에 재실인 永慕齋가 자리하고 있다. 1980년대 묘역 가까이 있던 민가 등을 이전시키고, 신도비각·재실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④ 모현면 갈담리 갈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현면 일대에 연안이씨가 移居하여 정착한 것은 15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 용인에서 연안이씨가 세거하는 곳은 모현면의 동림리·갈담리·초부리 일대이며, 특히 갈담리 갈월마을은 전통적인 마을경관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으며 동족촌의 해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연안이씨가 세거하는 동림리·갈담리·초부리 등은 그 입지상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모두 산지에서 하천쪽을 향해 열린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동림리는 모현면과 포곡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지에서 능원천 쪽으로 열린 골짜기에 들어서 있으며, 갈담리와 초부리도 發梨峰(514m)·老姑峰(573.6m)·正光山(563m)을 잇는 산맥에서 서쪽의 경안천을 향해 열린 골짜기 안에 촌락들이 입지하고 있다. 이들 골짜기는 비교적 넓고 평탄하여 큰 규모의 마을이 들어설 정도로 공간이 충분할 뿐 아니라, 상당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계류를 통해 식수와 농업용수의 획득도 용이하다.

갈월 마을은 노고봉과 정광산의 마루에서 뻗어 나온 두 개의 산줄기 사이로 형성된 계곡 내에 위치하며, 마을을 지나 경안천 쪽으로 갈수록 계곡의 폭이 넓어지고 그 경사도 완만해져서 마을 전면에 해당하는 이곳을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다. 마을에 생활용수 및

관계수를 공급하는 계류인 갈담천은 동서방향으로 마을을 통과한 후 경안천으로 유입되는데, 마을 위쪽의 골짜기에 1950년대 말 갈월저수지¹⁵⁹⁾를 축조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다.¹⁶⁰⁾

갈월마을은 다시 아랫말과 윗말로 나뉘어 지는데, 그 사이 즉 윗말의 초입에는 느티나무 노거수로 이루어진 숲이 갈담천 변에 조성되어 있다. 이 숲은 다목적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풍수적으로는 갈담천을 따라 숲이 조성되어 있어 수구막이의 역할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휴식 및 집회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숲 안에는 계류를 이용한 공동빨래터와 소규모 공동목욕탕이 있었으며, 현재는 마을회관이 이 곳에 자리잡고 있다. 즉 이 숲은 상징적인 공간이었음은 물론 주민들의 중요한 공동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다.

마을 내부로 들어가면 좁은 골목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 사이사이로 가옥들이 들어서 있다. 특히 가옥들을 이어주는 셋길은 길 입구에서 보면 가옥의 담으로 가로막힌 막다른 길로 보이지만 끝까지 들어가면 길이 꺾어지면서 대문과 연결되는 이른바 고살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갈월에는 마을 곳곳에 파종가가 존재하여 마을의 중심이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들 파종가들은 모두 주변 가옥과는 뚜렷하게 구분될 정도로 규모가 크며, 가옥 내에 사당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 다소 변형되기는 했지만, 그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갈월마을을 둘러싼 농경지는 대체로 연안이씨가 소유하고 있으며, 타 성씨가 보유하고 있는 예는 많지 않았다.¹⁶¹⁾ 이것은 移出한 부재지주가 토지의 매각보다는 임차나 소작 등의 형태로 경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각의 경우에도 동성의 마을 주민간 거래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여기에는 동족민들이 문중 내지 혈연 중심적 사고의 영향으로 타성씨나 외지인에 대해 배타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온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농경지 뿐 아니라 마을의 중심부나 상징적인 곳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타성씨의 점유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159) 갈월저수지는 갈담리 갈월부락 새마을회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

160) 그림 IV-21(모현면 갈담리의 가옥향과 평면형태)의 마을지도 참고.

161) 용인시청에서 조사한 2000년「지번별조사」에서 확인하였다. 갈담리 갈월마을을 대상으로 지번과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연안이씨가 소유한 농경지와 임야 및 대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갈월마을에는 마을공동소유(갈월마을 새마을회)의 농경지와 溜池(갈월저수지)가 있었으며, 연안이씨 사당공과 중중소유의 임야와 농경지도 있었다. 그 외에 전주 류씨 진사공과·복천공과 중중소유, 용인이씨 첨사공과 중중소유의 토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2000년 7월).



사진 IV-16. 갈담리 이계희씨 집의 사당 :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은 가옥의 오른쪽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⑤ 양지면 송문리 송동·반정

양지군 주서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송동(162)·정문(163)·반정(164) 일부를 병합하여 松洞과 旌門의 이름을 따서 松門里라 하였다. 송동(松洞)에는 옛부터 송씨(165)가 많이 살고 있었으며, 송동 마을 입구에는 陝川 宋氏의 효자문이 있다. 정문은 용인-양지간 도로에 접하여 있으며, 반정 마을로 진입하는 입구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반정은 양지천의 작은 지류를 따라 골짜기에 입지하고 있으며 마을 입구는 좁지만, 마을로 들어서면 산으로 둘러싸인 盆地形을 이루어 아늑하고 독립적인 마을공간이 확보된다. 이 마을은 全州 柳氏가 세거하는 마을로 16세기 전만 무렵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의 懸祖로는 조선중기 충신 유복립(166)을 들 수 있으며, 그가 이 마을에서 출생하였다는

162) 옛날 이 마을 일대에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소나무 문을 세우면서 유래한 지명으로 전한다 (이인영, 1991, 『내고향 龍仁 地誌總覽』, 용인문화원, 238쪽).

163) 정문(旌門)이 있는 마을이라 유래한 지명으로, 유복립(柳復立)의 정려각이 있다.

164) 마을 뒷산에 큰 소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소반과 같다고 하여 ‘盤亭’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165) 제보에 의하면 陝川 宋씨가 먼저 이 마을 일대에서 터를 잡고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 지명이 송동으로 불리워진 것은 ‘소나무 문(松門)’에서 유래한 松洞이지만, 송씨의 거주에 관한 제보와 마을 입구에 있는 효자문[孝子學生宋之源之門] 등으로 볼 때 송씨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宋洞이 바뀌어 松洞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점과 邑誌 人物條 등에서 기록이 발견되는 점으로 볼 때, 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17세기 후반과 18세기를 거쳐 전주 유씨 일가의 동족촌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문 마을에는 유복립의 정려각 뿐만 아니라 안동권씨 열녀문이 함께 세워져 있는데, 마을 입구에 자리한 이러한 충신·효자·열녀 등의 旌闈는 유교를 근본으로 한 조선시대의 사회적 이념으로 볼 때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문중의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드러내는 표식의 역할을 하였다. 마을회관 앞에 있는 숲에는 중가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관리가 허술하며 중손은 외지에 나가 거주하고 있다.¹⁶⁷⁾

반정에는 1970년대까지 약 50여 가구가 거주하였으며, 마을에서는 매년 골짜기 안쪽의 큰갓골에 있는 제당에 산제사를 지내고 있다.

⑥ 양지면 주북리 숲원이

숲원[林院]은 주북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로, 마을 주위로 마을숲이 길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마을은 ‘숲안이’로 불려지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숲을 경계로 하여 그 안쪽에 자리하였기 때문이다. 숲은 마을 전면으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주된 수종은 버드나무로 마을의 경계를 이루면서 길이가 약 300m에 달했다고 하나, 30여년 전 소멸되었다.¹⁶⁸⁾ 숲원이는 양지천의 지류인 대대천과 주북천이 합류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水口를 막아 마을의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을 숲을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마을숲은 외부로부터 마을을 시각적으로 가려주는 역할과 마을간의 경계, 주민의 휴식처 등으로도 기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을에는 풍수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는데, 마을의 형국이 두 하천이 합류하는 곳에 자리하는 行舟型이기 때문에 물에 뜬 배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돛대가 필요하며, 이에 마을 주민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마을 가운데에 돛대바위를 세웠다고 한다. 주북리 지석묘 앞에 서 있는 돛대바위는 높이 약 2m의 석조 조형물로, 풍수적 裨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숲원이 마을은 同姓 비율로 볼 때 김해 허씨가 가장 많은데, 해방 이전까지는 마을 전체 약 60여호 중 타성씨가 약 10여호에 불과할 정도로 김해 허씨가 많았다고 한다. 현재

166) 유복립(柳復立, 1558~1593)은 조선초기 문신 柳義孫의 후손으로, 본관은 全州이며, 자는 君瑞 호는 墨溪이다. 1558년 양지현 송문동에서 출생하여, 宗簿寺 主簿로 관도에 올랐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당시 진주성을 지키고 있던 외삼촌인 경상우도 관찰사 학봉 김성일 휘하에 들어가 왜군에 대비하였다. 이듬해 선조 26년(1593) 김성일이 성을 사수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병사하자, 이에 따라 유복립은 김천일, 고종후, 황진 등과 함께 진주성을 공격해 오는 왜군과 맞섰다. 왜군의 공세에 끝까지 맞서다 城이 함락되자 김천일 등과 자결하였다. 숙종 45년(1719) 대종백 민진후의 주청으로 이조참판으로 추증되고, 영조 5년(1729) 命旌되어 고향인 양지현 송문동에 정려문이 보존되어 있다.

167) 제보 : 柳 璠(70세), 양지면 송문리 반정.

168) 제보 : 許興九(80세), 양지면 주북리 숲원.

김해 허씨는 전체 약 180여호 중 30여호를 차지하고 있다. 김해 허씨가 이 마을에 입향한 것은 약 400여년전으로, 수원 정남면 일대에서 거주하다가 선조의 묘소를 조성하면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전면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마을 주변으로 소규모의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어,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촌락경관은 상당 부분이 소멸되었다. 제보에 의하면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마을이 폐허화되어 古家나 옛건물 등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⑦ 원삼면 맹리 맹골

원삼면 맹리는 건지산(411m)과 수정산(345m) 사이의 골짜기를 따라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맹리의 맹골(맹 2리)과 내촌(맹 3리)은 양천 허씨들이 世居하고 있는 동족촌으로 약 400년 전 처음 터를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맹골이란 지명은 孟氏가 살았다는 데서 유래하였다는 설과 孟子를 흠모했던 문사들이 ‘孟’자를 따서 칭했다는 설이 전해진다.



사진 IV-17. 원삼면 맹리 맹골 : 산록의 경사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위치하고 있는 마을은 좌우로 낮은 구릉에 의해 아늑하게 둘러싸여 있다.

맹골은 건지산을 주산으로 하여 南斜面의 산록에 입지하며, 마을의 좌우측은 낮은 구릉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마을의 가옥은 대부분 지면이 고르지 않은 경사면을 따라 입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로 진입하는 마을 안길도 자연적인 경사면을 따라 불규칙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안길은 나무 줄기가 가지를 뺀 형태가 되며, 그 길은 불규칙하게 들어선 가옥과 가옥을 연결하고 있다. 이처럼 맹골 마을은 가옥의 불규칙한 집합체를 이루면서 塊村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마을 앞으로는 양쪽 산에서 발원한 계류인 맹리천이 흐르고, 계류변에는 느티나무 마을 숲이 조성되어 있다. 이 숲은 마을 공동의 제례나 전통놀이가 행해지는 공간으로 마을 사람들의 신성한 숭배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제의와 축제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¹⁶⁹⁾ 한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구릉 중 좌청룡에 해당하는 언덕에는 600년된 은행나무, 느티나무 老巨樹가 자생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느티나무는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하는 수종으로, 수령이 오래되며 가지 퍼짐이 풍성해 정자나무로서 그늘을 제공하고 樹冠이 알맞은 높이로 넓게 형성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주로 토착신앙적인 의미를 갖는 당목(堂木)이나, 당산목(堂山木)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¹⁷⁰⁾ 맹리에서도 마을의 부녀자를 중심으로 ‘느티나무를 위해야 마을이 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백중날(음 7.15)을 기해 이 나무에 모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서낭제’가 행해져 왔다. 은행나무는 유교적 상징성과 관련되는 樹種으로 마을 이름이 불려지게 된 유래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유교의 聖人인 맹자를 흠모하던 문사들과 관련하여 상징적 의미로 식재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좌청룡에 해당하는 구릉은 맹골의 민속신앙적·유교적 상징성을 지닌 老巨樹가 있어 마을의 聖所空間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구릉의 말단부에는 맹리성결교회가 들어서 있어 전통경관과는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정산 아래 능안마을 안쪽으로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까지 조선의 문학을 선도한 양천허씨(陽川 許氏) 묘역이 있다. 이곳에는 초당 허엽(許曄, 1517~1580)¹⁷¹⁾과 아들인 허성(許箴, 1548~1612)·허봉(許篈, 1551~1588)의 묘가 있고,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許筠, 1569~1618)의 묘와 여류시인으로 당대를 풍미했던 허난설헌의 시비가 있어 일명 양천 허씨의 묘역이라 한다. 이 묘역은 양천허씨 초당공중회와 양천허씨 전적공파 종종 소유의 입야에 조성되어 있다.¹⁷²⁾

169) 김학범·장동수, 1994, 『마을숲』, 열화당, 18-19쪽.

170) 위의 책, 27쪽.

171) 허엽은 정실인 청주 한씨(淸州 韓氏)가 허성과 두 딸을 두고 세상을 일찍 떠나자 예조참판 김광보(金光輔)의 딸, 강릉 김씨를 맞아들여 허봉·허난설헌·허균을 얻었다. 허엽의 묘소와 신도비는 과천현 菊逸村에 있었는데, 1968년 이곳으로 이장하였다(고제희, 1996, 『선현을 만나러 가는 길 1-한국의 묘지기행』, 도서출판 자작나무, 222쪽).

172) 용인시청에서 조사한 2000년 「지번별조서」에서 확인하였다(2000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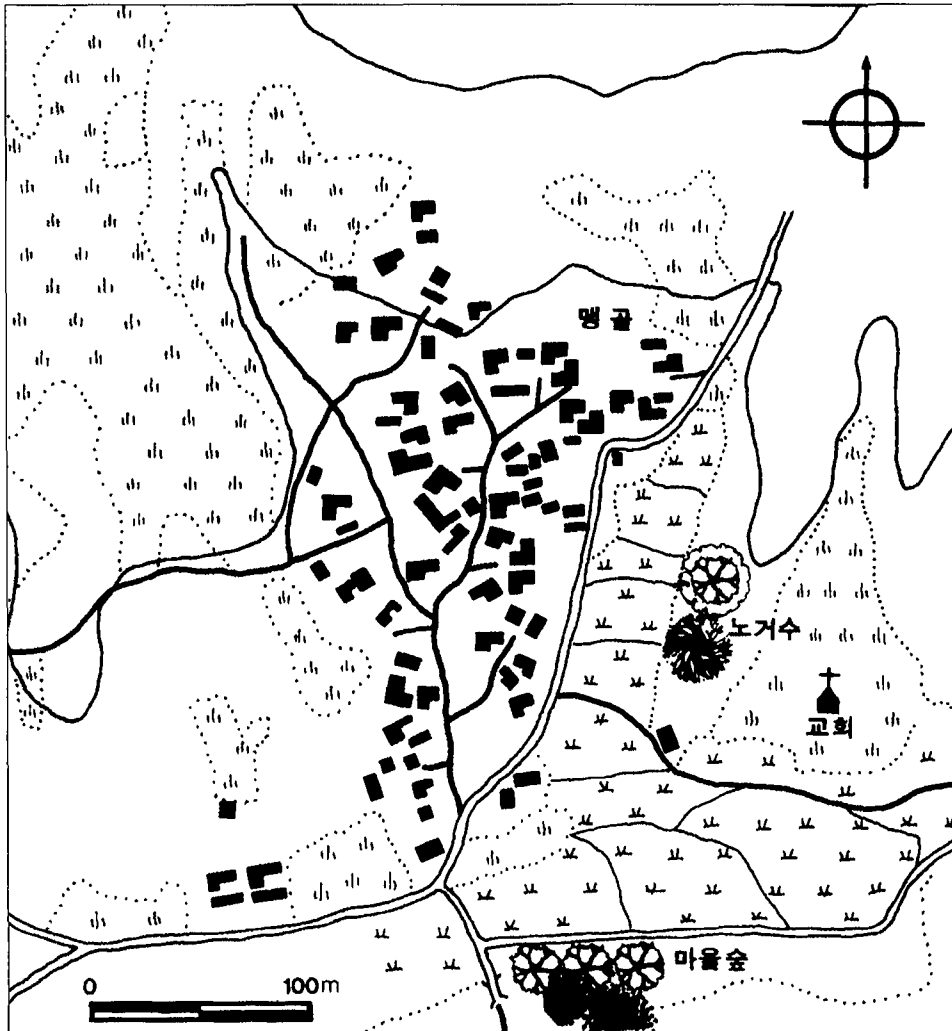


그림 IV-10. 원삼면 맹리 맹골의 마을구조

3) 동족촌의 해체와 변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인의 동족촌은 주로 17~18세기에 걸쳐 몇 개의 유력한 성씨의 세거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빈번한 정치적인 浮沈을 통해 顯達한 가문은 관직 혹은 인척관계와 결부되어 서울 혹은 그에 근접한 교지역으로 移居하였고,¹⁷³⁾ 당시 사회적·경제적 지위확보의 배경이 되었던 관료나 학자를 계속적으로 배출하지 못한 가

173) 이성무·정만조·이영춘·최봉영, 1999, “조선시대 근기지방의 문적·유물·유적 조사연구”, 『朝鮮時代史學報』10, 179쪽.

“18세기 이후 경기남부의 名閥이던 용인이씨와 언안이씨 문중에서 현달한 집안은 京中이나 경기도 내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예가 늘어났다.”

문은 先塋을 지키면서 용인에서의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되거나 위축되었다. 따라서 용인지역에는 先塋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의 동족촌이 주로 형성되었고, 족세를 발휘할만한 유력자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名人들의 묘소만이 가득한 ‘死去龍仁’으로 불리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용인지역에는 조광조·채제공·정몽주·이석형·오달제·남구만·유형원·이종무·허엽·허균 등 많은 인물들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묘소를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곳에는 후손들의 거주지가 분포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족촌의 촌락구조와 주민의식은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이후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이러한 동족촌의 변화는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외적인 측면은 촌락의 형태·구조·경관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용인의 동족촌은 특히 서울과 수원 등 대도시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관계로 소유농경지의 상당부분이 택지나 공업용지로 전환되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농업적 토지이용 대신 도시적 토지이용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여기에는 1980년대 들어 용인이 수도권 공업분산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¹⁷⁴⁾ 특히 용인의 서부와 북부에 해당하는 수지읍·구성면·기흥읍 일대의 동족촌들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 1970~80년대 공장의 급증, 최근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택지조성 등으로 촌락경관과 형태·구조 등 외적인 측면에서 도시적 요소에 잠식당하면서 전통적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 진위천, 경안천 그리고 청미천의 중·상류부에 위치하는 남사면·이동면·모현면, 원삼면 일대의 동족촌은 상대적으로 도시화의 영향이 적어 비교적 보존이 양호한 편이다.

동족촌의 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로는 전통적인 신분계층구조의 파괴, 동족위주의 주민구성의 해체,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와 생활양식의 근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족결합 의식은 약화되고, 과거의 수직적·계층적 신분관계는 수평적·평형적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동족민의 이출과 외지인 유입의 증가로 인해 마을 운영의 주도권 행사에 있어서도 동족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거나 아예 소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74) 권용우, 1991,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성장과 지역사회구조의 변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9쪽.

【별첨】 용인의 동족촌(175)

위 치	성 관	호수	형성시기	비고	위 치	성 관	호수	형성시기	비고
용인면 역북리	한양 趙씨	39	350년전		기흥면 고매리	봉화 금씨	30	미상	
용인면 남 리	전주 柳씨	21	300년전		기흥면 고매리·서천리	상주 황씨	32	미상	
용인면 마평리	전주 李씨	22	390년전		기흥면 지곡리·농서리	제주 고씨	20	미상	
용인면 마평리	전주 柳씨	41	300년전		기흥면 서천리	안동 권씨	20	미상	
용인면 호 리	경주 金씨	29	400년전		기흥면 영덕리	덕수 이씨	30	미상	
용인면 운학리	김해 김씨	38	330년전		남사면 북 통삼리	능성 구씨	120	미상	
용인면 운학리	남원 양씨	26	210년전		남사면 진목리	경주 김씨	30	미상	
용인면 운학리	밀양 박씨	25	270년전		남사면 원암리	襄陽 陳씨	30	미상	
용인면 운학리	전주 유씨	23	300년전		남사면 방아리	안동 권씨	29	미상	
용인면 유향리	밀양 박씨	25	270년전		남사면 아곡리	안동 권씨	31	미상	
포곡면 삼계리	김해 김씨	24	미상		이동면 송전리	파평 윤씨	23	250년전	
포곡면 영문리	한양 조씨	28	미상		이동면 송전리	咸從 魚씨	26	350년전	
포곡면 마성리	전주 이씨	28	미상		이동면 이비리	전주 이씨	20	미상	
포곡면 전대리	김해 김씨	24	미상		이동면 어비리	청해 이씨	21	180년전	
포곡면 유운리	용인 이씨	41	미상		이동면 어비리	강릉 김씨	37	540년전	
포곡면 신원리	용인 이씨	33	미상		이동면 덕성리	泗川 睦씨	26	450년전	
포곡면 신원리	전의 이씨	32	미상		이동면 덕성리	전주 蘇씨	21	500년전	
모현면 왕산리	안동 권씨	20	미상		고삼면 월항리	청주 한씨	31	570년전	안성
모현면 초부리	경주 김씨	29	미상		고삼면 월항리	서흥 김씨	27	510년전	안성
모현면 초부리	연안 이씨	26	미상		고삼면 쌍에리	茂松 윤씨	55	360년전	안성
모현면 오산리	해주 오씨	20	미상		고삼면 쌍에리	해주 최씨	65	400년전	안성
모현면 갈담리	연안 이씨	48	미상		고삼면 삼은리	전주 이씨	24	미상	안성
모현면 동림리	연안 이씨	30	미상		고삼면 봉산리	죽산 안씨	31	미상	안성
모현면 왕산리·능원리	연일 정씨	81	400년전		고삼면 대갈리	전주 이씨	34	미상	안성
모현면 매산리	광산 정씨	32	미상		고삼면 가류리	김해 김씨	25	미상	안성
구성면 마북리	파평 윤씨	40	450년전		고삼면 가류리	경주 鄭씨	24	미상	안성
구성면 청덕리	경주 이씨	20	미상		원삼면 사암리	전주 이씨	26	210년	
구성면 동백리	밀양 박씨	37	미상		원삼면 좌항리	평산 신씨	53	미상	
구성면 중 리	성주 이씨	27	미상		원삼면 가좌리	양천 허씨	40	330년전	
구성면 중 리	남양 홍씨	24	미상		원삼면 죽흥·목신·학일리	해주 오씨	160	500년전	
구성면 상하리	청주 한씨	24	미상		원삼면 두창리	泗川 睦씨	22	80년전	
구성면 보정리	남평 문씨	23	300년전		원삼면 두창리	경주 이씨	30	200년전	
구성면 죽전리	경주 김씨	30	미상		원삼면 蕉城里	청주 한씨	35	330년전	
구성면 죽전리	김해 김씨	23	미상		외사면 박곡리	해주 오씨	23	300년전	백암
수지면 풍덕천리	용인 이씨	30	300년전		외사면 백봉리	전주 이씨	30	250년전	백암
수지면 신봉리	기계 俞씨	30	120년전		외사면 옥산리	죽산 박씨	77	600년전	백암
수지면 성북리	전주 이씨	40	370년전		외사면 옥산리	전주 이씨	34	300년전	백암
수지면 하 리	청주 한씨	60	200년전		외사면 근삼리	죽산 박씨	30	500년전	백암
수지면 이의리	청송 심씨	50	270년전		외사면 근삼리	전주 이씨	20	300년전	백암
수지면 고기리	경주 이씨	50	250년전		외사면 근곡리	죽산 박씨	20	400년전	백암
기흥면 신갈리·영덕리	경주 김씨	62	미상		내사면 추계리	연안 이씨	30	200년전	양지
기흥면 신갈리·영덕리	김해 김씨	35	미상		내사면 송문리	전주 유씨	45	260년전	양지
기흥면 보라리	한양 조씨	40	미상		내사면 식금리	제주 고씨	20	180년전	양지
기흥면 보라리·지곡리	청주 한씨	20	미상		내사면 제일리	경주 김씨	20	270년전	양지
기흥면 지곡리	한산 이씨	35	미상		내사면 주북리	김해 허씨	40	360년전	양지
기흥면 지곡리·공세리	밀양 박씨	52	미상		내사면 주북리	경주 김씨	20	200년전	양지
기흥면 고매리	남양 홍씨	34	미상						

자료 京畿道, 1957, 『京畿道誌』(下卷).

175) 이 자료는 1957년에 발행된 『京畿道誌』 下卷에 수록된 경기도 동족집단의 분포 중 용인지역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물론 40여 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 실제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면도 나타나지만 과거의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자료의 성격과 조사과정 및 배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용인의 가옥

星湖 李瀾은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첫째로 먹는 것이고, 둘째는 입는 것이며, 셋째는 거처할 집’이라고 하였다.¹⁷⁶⁾ 과연 성호에게 집은 음식이나 의복보다 중요성이 낮았을까?

집은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임종할 때까지 평생을 머무는 안식처인 동시에 재물을 저장하는 공간이며 때로는 작업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집은 인간이 문명적 요소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문화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집을 짓는데 가장 많은 재력을 투입하고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는 이유도 가옥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¹⁷⁷⁾

가옥은 지리학뿐만 아니라 건축학·인류학·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지리학에서는 가옥의 부분들을 기술적 측면이나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연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형태와 지역적 분포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는 점에서 인접학문과 성격을 달리한다. 다시 말하면 지리학은 가옥을 오랜 세월에 걸쳐 지역주민의 생활사에서 소멸되지 않고 보존된 문화유산으로 보고 가옥의 형태와 기능을 연구함으로써 文化地域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¹⁷⁸⁾

한국지리학계에서는 전통가옥을 民家와 동일시하고 상류층의 주거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점에서 상류층 가옥까지 전통가옥으로 중요시하는 건축학과 성격을 달리한다. 즉 局地的 자재를 사용하여 비전문가인 건축주나 친지들이 직접 지은 단순한 구조의 가옥이라야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고급자재를 들여오고 설계와 造營을 전문가의 손을 빌려 완성한 상류층 가옥은 지역문화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사적 측면에서 볼 때 단순한 기술수준을 토대로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 짓는 집은 원시형 가옥의 범주에 해당되고, 훈련받은 기능인이 기본구조를 설계하고 건물의 외벽, 지붕, 내부장식물은 기능공의 손에 맡겨 완공한 집을 풍토적 가옥(vernacular house)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¹⁷⁹⁾ 용인의 경우를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면소재지, 시장 취락 등지에는 목수, 미장이 등 집짓기를 업으로 삼는 기능자들이 있었음을 용인의 답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마을 주민 스스로가 지은 집만을 전통가옥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지역을 대표하는 가옥의 형은 부유한 상류층의 주거는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176) 『星湖僿說』10 人事門 瓦屋.

177) Sullivan, L., 1994, "Common Houses, Culture Spoor," in *Re-reading Cultural Geography*(ed. by K.E. Foote and Others), Austin: Univ. of Texas Press, pp.82-83.

178) Jackson, J.B., 1984, *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s*, New Haven: Yale Univ. Press, p.92.

179) Roberts, B.K., 1996, *Landscapes of Settlements: Prehistory to the Present*, London: Routledge, pp.69-70.

두 간짜리 오막살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형태와 구조상 표준이 될만한 수준의 가옥이라야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용인과 같이 다양한 성씨의 사대부들이 세거해 온 곳에서는 연구대상 가옥을 서민층 농가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용인에 분포하는 취락들 가운데 상당수가 양반가문의 同族村이지만 문화재급 대저택은 많은 편이 아니며 빈농의 오막살이 역시 매우 드물었고 주민 대부분이 중농 농가 수준의 평범한 가옥에 거주하였기 때문이다.

용인의 주거문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검토한 후 2000년 2월부터 6월까지 8회에 걸쳐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마을은 약 40여 개로서 기능상 농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조선시대의 驛村과 院村, 시장촌, 舊邑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답사과정에서 용인의 도시화가 정도를 넘어서서 그 혼란상은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전 지역에 걸쳐 傳統景觀을 뒤바꿔 놓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도시화에 따른 주민의 가치관 변화가 경관에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수지읍·구성면·양지면·기흥읍·모현면·용인 시가지 등 서울과 가까운 북서부 일대는 분당을 거쳐 밀려오는 도시화의 파장과 시가지의 飛地的 擴大(urban sprawl) 현상 때문에 기존 취락이 해체 또는 소멸되고 산이 깎여 계곡을 메우는 공사로 인하여 인공의 평지가 조성되었다. 다만 서울과의 거리가 비교적 먼 진위천 상류와 청미천 유역 분지들은 비교적 자연 및 전통문화경관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이들 지역에도 도시화의 영향이 이미 침투된 상태이다. 따라서 용인의 가옥조사는 도시화 이전인 1970년대를 전후한 原景觀의 復元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는 기존의 연구성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¹⁸⁰⁾

본 조사에서는 용인 시가지 1개동, 기흥읍 2개리, 수지읍 3개리, 구성면 2개리, 모현면 6개리, 포곡면 2개리, 양지면 5개리, 남사면 5개리, 이동면 3개리, 원삼면 6개리, 백암면 3개리 등 38개 마을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원삼면, 남사면, 양지면, 모현면과 수지읍의 산간계곡에서는 조사가 용이하였으나 도시화가 진행된 기타 지역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1) 전통가옥 발달의 배경

문화지역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물질적 문화속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¹⁸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생활과의 관계를 가장 뚜렷하

180) 용인의 가옥에 대한 기존의 연구물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 文化財管理局, 1985,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 용인군, 1990, 『龍仁郡誌』.
- 龍仁文化院, 1998, 『駒城面誌』.
- 龍仁文化院, 2000, 『器興邑誌』.

181) Cosgrove, D. and Daniels, S.(ed), 1989,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Cambridge Univ. Press, p.1.

게 나타내는 주거는 지역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속성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거경관은 하나의 문화적 이미지인 동시에 구조적, 상징적 환경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경기도는 하나의 인위적 행정구역에 불과하면서도 곳에 따라 인접한 도와 자연적 경계로 구분되어 왔으며, 수 백년간 인접지역과 다른 역사적 배경 하에 고유의 문화전통을 축적해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경기도는 영남, 호남, 판서 지방처럼 고유의 전통문화를 뚜렷하게 육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전국각지의 문물이 교통로를 따라 수렴되거나 이곳의 문화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러므로 경기도의 문화를 독창성이 결여되었다고 폄하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각 지방의 문화요소가 경기도에 통합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다. 소위 ‘京畿型’가옥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통하여 성립된 것이다.

경기도에는 ㄱ자형을 기본형으로 하면서 一자형 또는 ㄴ자형 부속채를 가진 가옥형이 탁월한데, 그밖에도 ㄷ자형, ㄹ자형 및 여러 가지 변형된 가옥형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경기지방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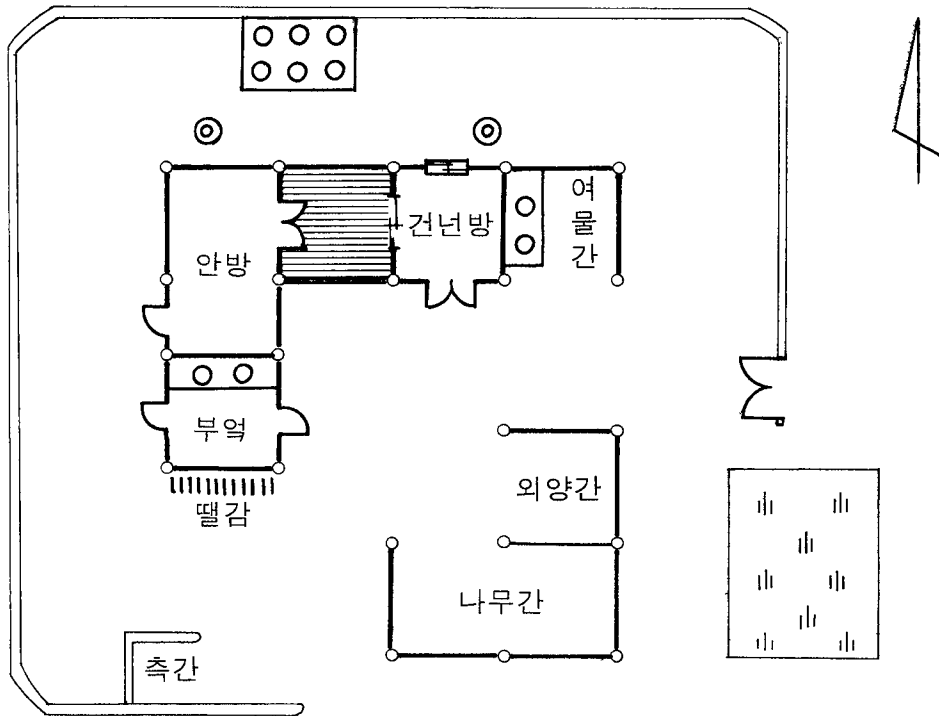


그림 IV-11. 모식적인 경기형 농가의 평면도: ㄱ자형 안채와 부속채로 구성되며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이 배치되고 부엌은 안방에 이어져 있다(朱南哲, 1994, 『韓國住宅建築』, 一志社, 80쪽).

(1) 자연적 배경

전통가옥은 입지하는 장소의 자연조건에 따라 건축재·가옥의 규모, 형태, 구조, 坐向 등이 달라진다. 이 책의 자연환경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인은 남북방향의 산지들 사이로 谷底平野 들이 帶狀으로 발달하였고 백암분지와 진위천 유역만이 북쪽으로 높은 산지를 등지고 놓여있다. 이러한 지형조건은 취락 및 가옥의 입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용인에는 600m 이상의 높은 산은 별로 없으나 300~500m의 산지들이 뚜렷한 脈勢를 유지하며 남북방향으로 놓여 있는데 급경사를 이룬 산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용인의 산지들은 말단부에 기복이 완만한 구릉을 형성하고 있어 취락 발달에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산지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넓은 평야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탄천, 경안천, 진위천 유역에 띠 모양의 평야가 발달하고 이들 하천에 직각으로 합류하는 여러 지류들을 끼고 동서방향의 소규모 곡저평야도 발달하였다. 이러한 계곡들은 탄천·경안천·진위천 본류에 비해 수해의 위험이 적고 아늑하기 때문에 일찍이 곡저평야에는 취락들이 입지하였다. 한편 백암분지, 양지분지 등은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더욱 좋은 취락터를 제공하였다.

비·바람·기온·일조량 역시 가옥의 입지와 지역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용인의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를 약간 상회하여, 수원, 평택, 안성 등 인근 시군에 비해 100mm 정도 많은 편인데, 이는 용인 일대에 분포하는 500m급 산지에 비구름이 차단되어 내리는 地形性降雨과 관련이 있다. 용인은 앞의 자연환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 중앙부에서 발원하는 여러 개의 소하천 발원지로서 가뭄의 피해가 적은 동시에 수해도 적은 지방이지만 간헐적으로 심한 한발과 수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1939년에는 20세기 최악의 旱魃이 경기 일원에 발생하였던 바 이때 용인군 인접지역의 연 강수량을 보면 성환 437.2mm, 여주 507.8mm, 장호원 530.9mm였다.¹⁸²⁾ 즉 용인 일대의 강수량은 500mm내외에 불과했던 것이다. 1940년에는 전년도와 반대로 최악의 수해가 발생하였는데 간이 측후소 측정자료에 의하면 용인은 경기도 내 강수량의 최고치인 2,213.6mm를 기록하였으며 서울, 수원·광주·이천 일대에도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렸다.¹⁸³⁾ 1985년의 강수량은 1,409mm였는데, 5월부터 10월까지의 강수량이 연 평균치의 80%에 달하였다. 특히 7·8·9 3개월에 집중호우가 내렸으며¹⁸⁴⁾ 그후에도 몇 차례 폭우가 쏟아져 진위천 유역의 진목평, 백암분지, 경안천하류에 수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용인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용수의 획득이 용이하면서도 수해가 적은 可居地로 꼽혀왔다.

182) 國立地理院, 1984, 『韓國地誌』(地方篇 I), 409쪽.

183) 國立地理院, 1984, 『韓國地誌』(地方篇 I), 35쪽.

184) 용인군, 1985, 『龍仁郡誌』, 15쪽.

경기도의 탁월풍은 서북풍이며 용인도 도내의 타지방과 차이가 없다. 12월초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랭건조한 서북풍이 불기 때문에 전통가옥들은 이 바람을 고려하여 조영되었다. 지형적으로 산지를 끼고 있는 백암분지와 진위천 유역을 제외하면 거의 전 지역이 서북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전통 취락 대부분은 서북풍에 노출되는 경안천, 탄천의 평야면보다 동서방향으로 열린 하천의 소지류 계곡내에 입지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마을의 고기들은 남향, 동남향, 서남향으로 들어앉은 背山臨流型이 많았다. 물론 계곡에 따라 서향, 동북향가옥들도 있으나 그 수는 주목을 끌 정도는 아니다.

(2) 문화·역사적 배경

프랑스의 비달학파(Vidalian School)의 지리학자들은 자연환경이 인간의 문화창조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집을 지을 때 건물의 형태와 구조는 인간의 가치관과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자연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¹⁸⁵⁾ 이러한 관점은 앞에서 언급한 풍토적 가옥의 개념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서 농토를 배경으로 성립되는 건축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농가는 농민의 휴식공간인 동시에 생활용구, 귀중품, 농기구, 곡물, 가축 등을 보관, 수용하는 기능을 보유하기 때문에 소유주의 편의에 따라 구조와 공간배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가옥의 형태와 구조는 문화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성립되며, 일단 형성된 국지성 가옥의 유형은 수세기 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 보존된다.¹⁸⁶⁾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용인의 전통가옥은 농경문화가 시작된 신석기시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오랜 진화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으로 사료되는데,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건축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 변화는 과거의 건축양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불명의 건축양식이 침투하여 기존의 건축문화유산을 소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늘날 목격되는 용인의 전통가옥들은 거의 조선후기의 건축물과 식민지시대에 지어진 것들이며, 이 가옥들의 造營樣式도 물론 조선시대의 것이다. 그러므로 용인의 가옥을 논할 때 조선후기부터 최근의 도시화 이전까지를 염두에 두어도 무방하겠으나 가옥 양식의 발달이 상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발달과정을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옥은 정착생활을 하는 인간집단만이 보유하므로 가옥의 발달은 농경문화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¹⁸⁷⁾ 농경문화의 기원을 新石器時代로 보고 있는 바 용인에서는 신석

185) Brunhes, J., 1952, *Human Geography*(trans. from French by E.F.Row), London: George G. Harrap. p.48.

186) Roberts, B.K., 1996, *Landscapes of Settlements: Prehistory to the Present*, London: Routledge, p.74.

187) Jackson, J.B., 1984, *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s*, New Haven: Yale Univ. Press, p.91.

기시대의 토기가 모현면 왕산리의 하안단구에서 출토되었고, 청동기시대(기원전 3~5세기경)의 유적인 支石墓가 모현면 왕산리와 양지면 주북리에 남아있는¹⁸⁸⁾ 사실로 보아 경안천 유역은 선사시대에 이미 취락이 존재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초기 농경시대의 취락들은 대체로 하안단구나 산록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장소들은 수해의 위험이 적고 담수어와 패류의 채집, 배후산지에서의 식물성 식료채집과 수렵 활동이 편리한 곳이다. 당시의 주거는 대부분 원추형 지붕이나 사면체형 지붕을 가진 반지하식 주거(竪穴)였다.¹⁸⁹⁾ 이러한 집들은 원형 또는 方形의 평면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장자리에 기둥을 비스듬히 박고 기둥 끝을 중앙으로 모은 후 묶었다. 그리고 기둥 위를 역새, 갈대 등을 엮어 둘러박으면 지붕 겹 벽체가 완성되었는데, 농경이 시작되면서 벚짚이나 조짚 등으로 대체되었다. 집의 바닥은 반지하식이며 출구는 경제활동의 무대가 되는 들과 강쪽으로 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것은 배산임류의 입지였다고 볼 수 있다.

철기시대에 이르러 반지하식 주거는 주상주거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철제기구를 사용하여 목재를 다듬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나무기둥을 뼈대로 삼아 수직벽체를 세우고 기둥 위에 경사진 지붕을 덮는 가옥이 등장하였다. 벽체는 나무가지나 수수대 등을 엮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세우고 그 안팎으로 흙을 바르는 방법이 이용되었으며, 이 방법은 최근까지 농가 건축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고려 성종 14년(995)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일대는 廣州牧 소속 龍駒縣이라 일컬었는데 이 지역은 주요 교통로가 통하는 요지였다. 고려시대의 용인은 수도 개성과 가깝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개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왕도로부터의 문화적인 영향은 가옥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漢陽定都를 계기로 용인은 王都와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다. 용인은 한양 남쪽 100리 이내의 권역에 속하는 南郊로서 성종실록에 ‘朝士農莊畿內居多’라 한 바와 같이 한양의 명문사족들이 농장과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¹⁹⁰⁾ 郊지역은 도성이라는 대소비시장인 동시에 비료(인분)공급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토지이용이 집약적이었다. 즉 한양부근 郊지역의 농부들은 과·마늘·오이·호박 등의 채소농사로 일반 밭농사에 비해 다섯 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¹⁹¹⁾

일찍이 관직에 뜻을 두었던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도성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였던 바, 용인은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과는 1일 생활권에 속하였다. 그리고 용인과 인접한 수원부와 광주부는 군사·행정의 요지였으며 이천·죽산·안성·남양·평택 등은 경제적으로

188) 한국고고학연구회, 1984, 『韓國考古學地圖』, 68쪽, 99쪽.

189) 金元龍, 1977, 『韓國考古學概說』, 一, 志社, 131-132쪽.

190) 『成宗實錄』 권20 3년 7월 甲子條.

191) 김용섭, 1970, 『조선후기농업사연구』(1), 일조각, 169쪽.

중요한 고을들이었다. 그러므로 용인에는 여말·선초부터 많은 사대부들이 정착하여 世居해왔다. 그런데 용인은 남부지방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므로 임진왜란 등 전란시에는 외적의 이동로가 되었으므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경기지방은 거의 초토화되었는데, 17~18세기의 전후복구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옛 취락이 복구되거나 새로운 취락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 시기에 우리 나라의 전통가옥, 특히 중농가옥의 형태와 구조가 완성되었다.¹⁹²⁾ 따라서 용인에 현존하는 전통가옥의 형태와 구조 역시 17~18세기에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연환경,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같은 용인 지역 내에서도 건축양식에 약간의 지역차이를 보이게 되었을 것이다.

2) 용인지방 가옥의 특성

(1) 건축재와 가옥의 질

서양학자들은 동북아시아를 목재건축문화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¹⁹³⁾ 집을 짓는데 실제로는 목재 이외에도 흙, 돌, 회, 수수깡, 대나무, 벚짚, 억새, 갈대, 기와, 너와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다. 물론 목재는 기둥, 대들보, 서까래 등 가옥의 뼈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축재이며, 마루, 문, 가구 등의 재료로도 널리 쓰인다. 전통가옥의 건축재로 쓰인 목재로는 소나무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으나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오동나무 등도 외양간, 디딜방아간, 측간 등의 기둥감으로 사용되었다. 목재의 크기와 질은 가옥의 규모와 질을 좌우하였으므로 상류층 주택일수록 기둥, 서까래, 대들보 등에 고급목재를 사용하였다. 용인지방에는 산지가 많아 목재의 공급은 용이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옥의 벽체는 수수대, 갈대, 대나무 등이 쓰였다. 용인에서도 일부 야산에 산죽이 자라지만 건축재로 사용할 만큼 풍부하지는 않다. 갈대는 진위천, 경안천 등 하천의 저습지에서 자라지만 이것 역시 풍부한 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수수대였는데, 주민들은 수수대를 자리처럼 엮어 벽체로 세우고 안팎으로 진흙을 발라 벽을 두껍게 만들었다(사진 IV-18). 상류층 가옥은 벽의 하단부를 돌로 쌓고 윗 부분에는 백회를 발랐다. 용인에서는 중농형 가옥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집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에 지은 집들 중에는 진흙에 짚을 섞어 섞고 이를 틀에 넣어 찍어낸 후 벽에 건조시킨 흙벽돌 집이 보인다. 이러한 집들은 가옥의 뼈대가 되는 목재를 덜 사용하였다.

192) 金鴻植, 1992, 『韓國의 民家』(1), 한길사, 56쪽.

193) Gourou, P., 1975, *Man and Land in the Far East*(Trans. from French by Beaver, S.H.), London: Longman, pp.178-179.



사진 IV-18. 우물마루: 남사면 진목리 박씨종가댁.



사진 IV-19. 가옥의 벽체 : 갈담리 갈월마을 이영희씨 집의 벽체이며, 나뭇가지를 엮은 다음 진흙을 발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돌은 건물의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 석주, 디딤돌, 축대, 장독대, 우물, 구들장, 담벽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조정에서는 다듬은 돌의 사용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서민층 가옥에서는 주춧돌, 디딤돌 등에 그러한 돌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용인에는 주민 구성상 사대부들이 많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모현면 갈담리와 능골, 구성면 북동, 양지면 교동, 원삼면 문촌리 등 여러 同族村에는 잘 다듬은 돌을 석주·주춧돌·계단·우물·담장 재료로 사용한 가옥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대표적인 석재는 화강석인데 용인에서는 원삼면, 양지면 일대가 대보화강암의 분포지역이다. 이 암석은 板狀節理가 발달하여 채석이 용이하고, 또 약간의 가공가정을 거치면 건축재로 사용할 수 있다.

용인의 전통가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석재는 편마암계 암석들이다. 얇고 판판한 돌은 구들장으로, 두껍고 큰 돌은 주춧돌, 댓돌 등으로, 기타 잡석은 돌담을 쌓는데 사용하였다. 모현면 갈담리에는 이러한 돌담으로 연속되는 고살이 남아있다(사진 IV-20).



사진 IV-20. 모현면 갈담리의 돌담

흙은 주로 벽체, 구들장, 부뚜막 등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였는데, 종류별로는 진흙, 멩개, 석비레, 백토 등으로 구분된다. 백암면, 원삼면, 양지면 일대와 같은 화강암지대에는 화강암의 심층풍화 결과 두꺼운 진흙층이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곳에서는 석비레와 백토도 생산된다. 강변 저습지에 퇴적되는 멩개는 입자가 작고 부드러우기 때문에 벽을 바르는

데 쓰였다.

星湖는 “백성은 짚으로 지붕을 잇지만 10년이 지나면 기와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또 짚은 우마의 사료가 되므로 짚으로 이엉을 만들면 손해를 본다. 초가는 불이 나면 온 마을이 화재를 입을 우려가 크니 기와로 지붕을 바꾸도록 해야한다¹⁹⁴⁾”고 하였다. 우리는 전통가옥의 질을 평가할 때 지붕의 재료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草家は 빈곤의 상징이고 瓦家は 부와 상류신분의 상징으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기와는 무겁기 때문에 이것을 지붕으로 삼자면 그 무게를 지탱할 만한 기둥, 대들보, 서까래가 필요하므로 지붕보다는 오히려 가옥의 뼈대를 가지고 가옥의 질을 논해야 마땅할 것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신분에 걸맞는 체모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기반을 다지고자 노력하였으며¹⁹⁵⁾ 그러한 인식을 반영한 대표적인 생활요소는 그들의 주거였다. 주민들이 양질의 주거를 마련하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문화적인 수준이 따라야 했다. 조선시대 용인주민의 경제적 토대는 토지였고 부수적으로 상업의 뒷받침이 있었다. 18세기 후반 용인의 경지면적을 보면 용인현은 4,719結, 양지는 1,010결이었으며 그 당시 죽산현에 소속이었던 원삼면과 백암면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는 적어도 7,000여 결을 상회하였을 것이다.¹⁹⁶⁾ 이는 경기도 내에서 4위의 경지면적에 해당되는 수치로서 인근의 이천, 안성, 죽산을 능가하는 것이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용인은 수해와 한발의 피해가 적을뿐더러 토지가 비옥하며 서울의 南郊에 위치하여 집약적 농경이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한양과의 교류에 관심이 많았던 사대부들이 세거해왔으므로 한양에 버금가는 주거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40여개 마을을 답사하면서 100년 이상 된 가옥 가운데 기와집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초가집의 경우에도 사용된 재목의 질이 비교적 양질이며 가옥의 규모도 중농수준 이상이 많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린 것이다. 20세기초 경상남도 의령군 1개면과 진주군 4개면의 가옥을 조사한 문헌을 보면 약 1,800호 가운데 瓦家は 6호에 불과하였던 바,¹⁹⁷⁾ 이는 용인에 비해 그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이다.

(2) 가옥의 평면형태와 공간배치

가옥의 평면형과 공간배치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제·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성 파악의 열쇠가 된다. 우리 나라 전통가옥의 평면형태를 남부는 一자형, 중부는 ㄱ자형, 동부산지는 田자형 등으로 일반화는 것도 이러한 점에 근거를 두고

194) 『星湖僿說』 권10 人事門 瓦屋.

195) 李樹健, 1980,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7쪽.

196) 『輿地圖書』上, 龍仁縣, 陽智縣, 利川都護府, 竹山縣 田結.

197) 『慶尙南道 宜寧郡 上田面 戶口調査表』光武7年.

『慶尙南道 晉州郡 家戶案』光武8年10月 (奎17044).

있다. 그러나 지역별 가옥형태를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실제로 용인의 40여 개 마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림채를 기준으로 볼 때 ㄱ자형이 탁월하기는 하나 우리 나라 각 지방에 분포하는 여러 가지 형의 가옥이 거의 대부분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인을 대표하는 가옥형은 ㄱ자형(곱패집)이다. 그러나 一자형, 二자형, ㄷ자형, ㄹ자형 등 남부지방과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옥들이 용인에는 분포한다. 심지어 완벽하지는 않으나 동부산간지방에서 볼 수 있는 복렬형 가옥도 간혹 보인다.

一자형 가옥은 본래 차령산맥 이남지방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용인에도 이러한 가옥이 약간 남아있다. 이는 아마도 용인이 충북 진천·충주, 충남 천안·아산 등지와 가깝고 문화적인 교류도 활발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시대 민가의 理想型은 흔히 ‘草家三間’이라 하였으나 대부분의 영세농이나 소작농 가옥들은 초가 2칸 오막살이였다.¹⁹⁸⁾ 20세기초 진주군 청암면(458호)·정수면(104호)·실천면(498호)·삼장면(452호), 함양군 마천면(590호)의 家戶案을 보면 가옥의 평균 間은 청암면 2.98, 정수면 2.89, 실천면 2.68, 삼장면 2.6, 마천면 2.34칸이었다. 그리고 2칸 집의 비율은 청암면 14.8%, 정수면 30.8%, 실천면 37.6%, 삼장면 46.9%, 마천면 68.5%에 달하였다.¹⁹⁹⁾ 같은 시대 용인의 가옥 자료가 없어 사실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나 용인에도 외거노비나 소작농의 가옥 가운데 2가 오막살이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런데 경남에서는 지금도 2칸 오막살이 또는 증개축한 유사민가가 남아 있으나²⁰⁰⁾ 오늘날 용인에서는 그러한 집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로 미루어 용인의 민가는 남부지방의 그것에 비해 다소 규모가 컸던 것으로 사료된다.

김홍식은 농촌의 가옥을 소농가옥(5칸 미만), 중농가옥(10칸 내외), 대농가옥(15칸 이상)으로 구분하고 부유한 사대부의 저택은 25칸 이상에 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19세기부터 건축양식의 변화가 일어나 집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경향이 나타나 지방의 권문세가는 물론 중농의 살림집 역시 규모가 커지고 평면형태도 다양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19세기말~韓末에는 신분제도가 철폐됨에 따라 경제력만 따르면 누구나 큰집을 지을 수 있었으나 목재의 공급이 여의치 못하여 벽돌·유리·시멘트·철제 등을 쓴 새로운 건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²⁰¹⁾ 용인은 한양에 가까워 민도가 높고 경제적 뒷받침이 있었으므로 타지방에 비해 건축양식의 변화가 뚜렷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198) 曹成基, 1991, “韓國中部型 民家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학회논문집』7(3), 82쪽.

199) 『慶尙南道 晉州郡 家戶案』光武8年10月(奎17044).

『慶尙南道 咸陽郡 家口案』光武8年 10月(奎17045).

200) 최영준, 1999, “경상남도의 가옥”, 『慶尙南道の 傳統文化』(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85-386쪽.

201) 김홍식, 1992, 『韓國의 民家』(1), 한길사, 56쪽.

용인의 一자집은 대체로 3~5칸형 살림채와 부속채로 구성되었던 바, 남부지방과 비교할 때 이 정도의 규모는 중농가옥 수준에 해당된다. 그러나 一자집은 수지면 고기리, 원삼면 문촌리 등지에 소수가 남아있을 뿐 보편적으로 분포하지는 않는다. 수지면 고기리의 손기봉씨 집은 반겹집형 가옥이다. 동류하는 탄천지류의 곡저평야에 앉은 이 집은 3칸 살림채와 2칸 정도의 부속채로 구성된 서향가옥이다. 건물벽은 백회로 발랐고 본래 초가였던 지붕을 슬레이트로 개량하였다. 대문을 들어서면 왼쪽으로 한 칸 정도의 우물마루가 있는데 마루의 반은 벽으로 차단하여 청방을 만들었으며, 마루 안쪽으로 안방을 배치했다. 마루 및 안방 다음에 부엌, 그 다음에 건넌방이 있어 중앙 부엌형 가옥구조를 이루고 있다. 부속채는 담장에 의지하여 지었는데 부속채는 최근에 지은 것이며 헛간, 변소, 나무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지면 고기리 곡현마을의 李雨英씨 집 역시 중앙 부엌형 3칸집인데 근래 안방 앞의 봉당을 벽체로 둘러막아 외관상 一자형으로 보인다. 이 집은 깊은 계곡안에 위치하며 서북좌향으로 들어앉았기 때문에 봉당이 한랭한 겨울 바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구성면 중리에도 3칸집(소유자 불명)이 있는데, 이 가옥은 부엌·안방·옷방이 차례로 배치되고 방 앞에 뒷마루를 만들었다.²⁰²⁾ 이는 남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옥형이다 (그림 IV-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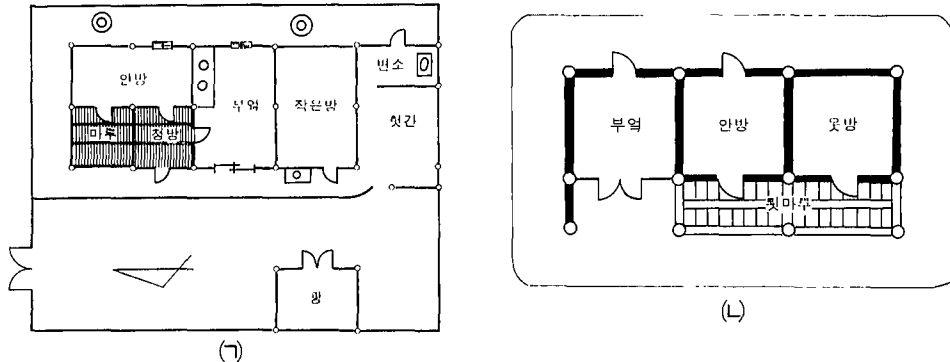


그림 IV-12. 一자집: 수지면 고기리 손기봉씨 집(가), 구성면 중리의 가옥(나)

一자형 살림채와 부속채가 二자형, 튼 一자형, 또는 튼 ㄷ자형으로 배치된 가옥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남사면 신촌에서 다소 목격되었다. 문시령 마을의 이용호씨 집은 안채가 정면 4칸, 측면 2칸의 두줄백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관상 동부산지의 겹집처럼

202) 용인문화원, 1998, 『駒城而誌』, 155쪽.

건물의 폭이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줄백이집'은 구조적으로 기둥을 세줄로 세워 평면이 겹집처럼 두줄로 구분되는 집을 말하며 발생시기는 오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부엌과 안방의 뒤쪽은 지붕개량을 하면서 늘린 것으로 보인다.²⁰³⁾ 안방마루와 부엌사이에는 섯문이 있어 상을 차려 이 문으로 들여보내기 쉽게 만들었다(그림 IV-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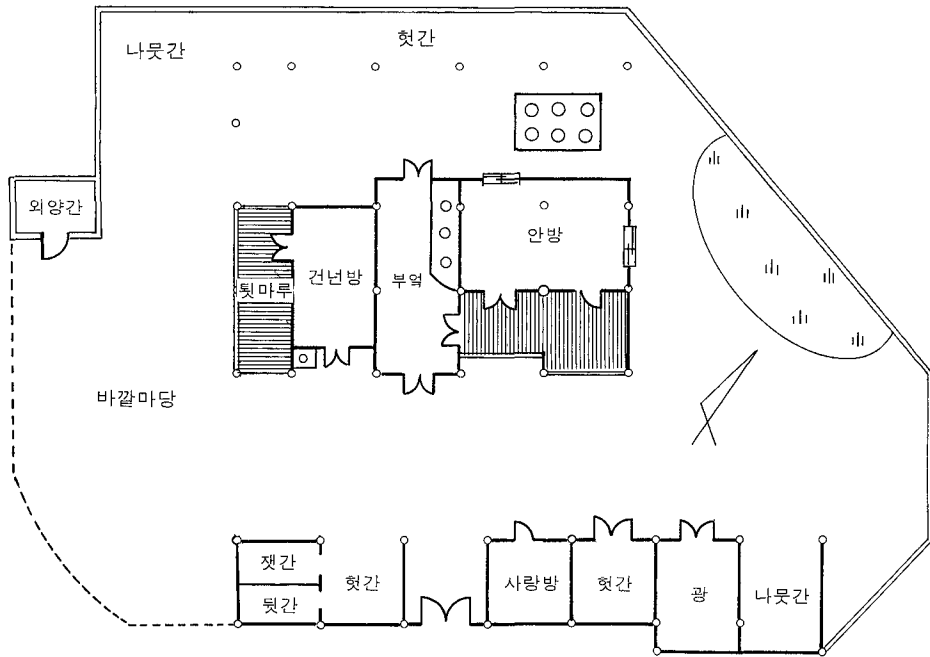


그림 IV-13. 二자형 가옥: 원삼면 문촌리 문시랑 마을 이용호씨 집

튼 ㄱ자형 가옥은 一자형 안채와 丨자형 부속채가 ㄱ자형을 이룬 집이다. 이러한 가옥은 원삼면 문시랑 마을의 황무성씨 집, 같은 마을의 서정현씨 집을 들 수 있다. 서정현씨 집은 4칸 전퇴집으로 평4량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 현재 이 집은 남아있지 않다. 1985년의 조사기록을 보면 서씨의 집은 19세기 중엽에 지은 것으로 안채는 한 가운데에 두 칸짜리 안방, 오른쪽에 건넌방, 왼쪽에 부엌이 있었으며 안방의 앞에는 마루를 두었고 부엌에는 부엌광을 만들었다고 한다. 헛간채는 3칸 추가로서 외양간이 두 칸이었고 한 칸은 헛간이었다고 한다.²⁰⁴⁾

황무성씨의 집은 一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가 튼 윈 ㄱ자형을 이루고 있다. 안채는

203) 김홍식, 1992, 『韓國의 民家』(1), 한길사, 242-243쪽.

204) 문화재관리국, 1985, 『韓國民俗綜合報告書』16(住生活編), 25-27쪽.

본래 4칸 전퇴집이지만 근래 창고를 증축하였다. 즉 중앙의 부엌 우측에 뒷마루를 통해 출입하는 안방과 옷방, 그리고 좌측에 건넌방이 있다. 사랑채는 윗쪽으로부터 잣간, 외양간, 대문간, 사랑방, 나뭇간 등이 배치되었으며 변소는 잣간안에 있다(그림 IV-14). 황무성 씨 집 안채와 같이 중앙부엌형 가옥은 본래 남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다.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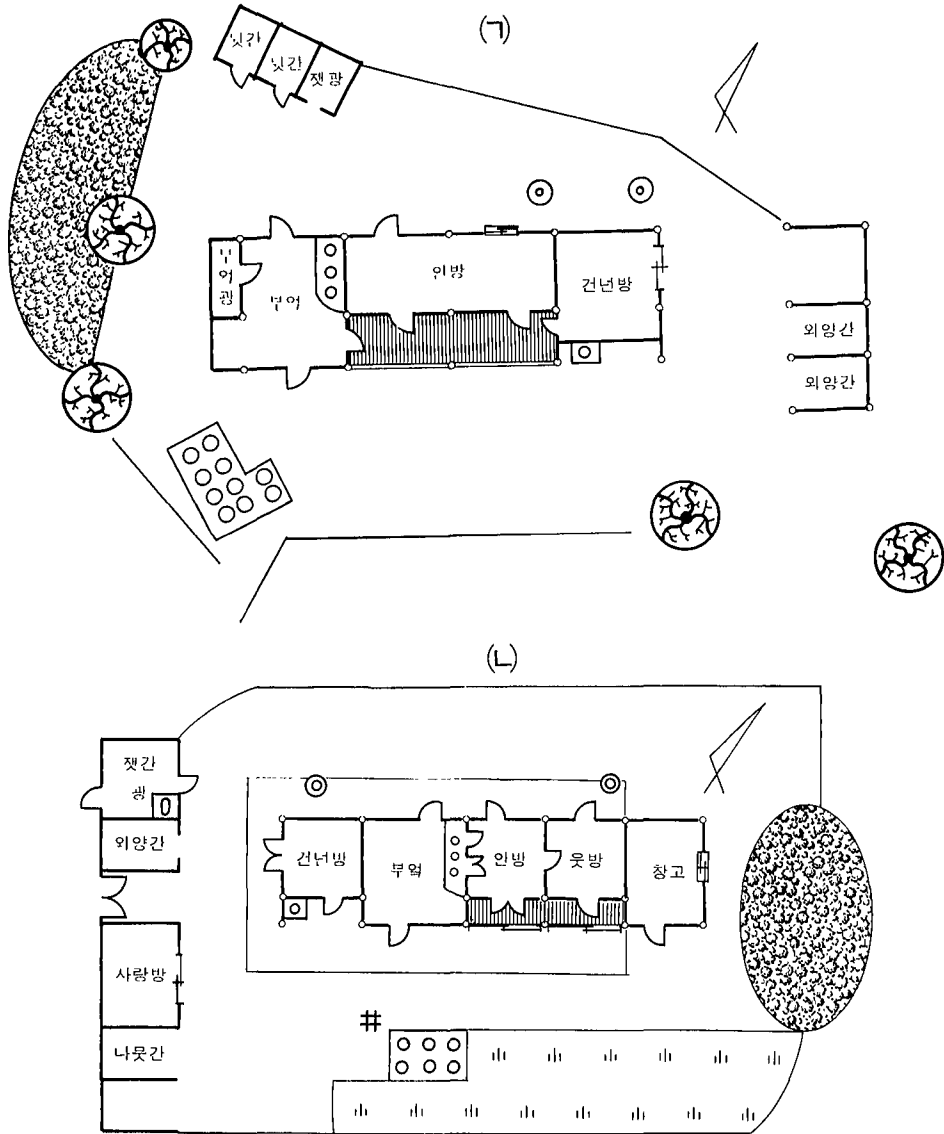


그림 IV-14. 뜰 ㄱ자형 가옥(출처: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985): 문시량 마을 서정현 씨 집 (가), 문시량 마을 황무성 씨 집(나)

205) 문화재관리국, 1985, 『韓國民俗綜合報告』16(住生活編), 27-28쪽.

—자형 건물 세체가 튼 ㄷ자형으로 배치된 가옥은 본래 남부지방에 주로 분포하며 용인에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원삼면 목신리 신촌에 이러한 가옥들이 다소 남아있다. 안성과 가까운 목신천 곡저평야 좌측 완사면에 입지하는 조씨집 안채는 전형적인 남부형 —자집으로 머리쪽의 옷방으로부터 안방과 부엌이 배치되어 있으며 두 개의 방 앞에 툇마루가 놓여 있다. 사랑채는 나무간, 외양간, 헛간, 사랑방이 차례로 배치되며, 문간채는 대문에서 우측으로 두 간의 광과 측간이 있다. 본래 초가였던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꿔 지붕의 물매가 급하다.

ㄱ자형 가옥(곱패집)은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한 대표적인 가옥형이다. 이 가옥형은 고려 및 조선시대 한반도의 정치·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한 경기지방에서 발달한 살림집으로서 타지방 가옥과 달리 도시형 또는 중상류형 가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²⁰⁶⁾ 다시 말하면 경기도에서는 —자형 집은 가난한 집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한편 남부지방에서는 —자집이 4칸으로 확대될 때까지 옷방 머리에 끝방을 덧붙이는데, 이는 부엌안에 부엌광을 두거나 부엌에 잇달아 외양간을 만드는 지방에서 흔히 목격된다.²⁰⁷⁾

ㄱ자형 가옥은 일반적으로 중앙에 넓은 마루(대청)를 두고 양쪽에 안방과 건넌방을 배치하며 부엌은 안방에서 보를 꺾어 그 아래에 만든다. 이러한 형의 가옥은 曲家型가옥의 기본형으로서 —자형 棟을 연결하면 ㄷ자형이 되고 ㄷ자형 棟을 붙이면 ㄱ자형으로 발전한다. 이와 같이 棟과 棟이 완전히 결합되어 집중형 가옥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으나 용인에는 ㄱ자형과 ㄷ자형이 마주보는 맞곱패형, ㄱ자 안채에 —자형 부속채를 배치하는 튼 ㄷ자형, ㄷ자형 앞에 —자형 부속채를 두는 튼 ㄱ자형 등 다양한 가옥형이 분포한다 (그림 IV-15).

이러한 곡가형 가옥들은 건물 중앙에 반폐쇄적 내지 폐쇄적인 안마당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근세에 이르러 형성되기 시작한 大農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²⁰⁸⁾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중농의 비율이 타지방보다 높았던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에서는 농촌사회의 신분구성이 재편성되는 과정을 겪게되었던 바 경제적 수준에 상응하는 가옥의 造營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농민들이 주택의 고급화를 통하여 자신들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주거규범에 동류화하려는 시도에서 비롯하였다.²⁰⁹⁾ 정확한 통계수치의 근거는 없으나 조선 후기 용인에는 주민 구성상 사대부의 비율이 높았고, 남부지방과 서해안 및 내륙지방으로 통하는 주요 상업로들이 수렴되어 교역을 통한 이익을 취하는 데에도 유리하였다. 또한 한양과의 문화교류도 활발하여 양반과 평민간의 문화적인 격차도 타지방에 비해 적었

206) 野村孝文, 1981, 『朝鮮の民家』, 京都: 學藝出版社, 148-149쪽.

207) 文化財管理局, 1985, 『韓國民俗綜合報告書』16(住生活編), 25쪽.

208) 文化財管理局, 1976,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7(忠清北道), 397-398쪽.

209) 曹成基, 1993, “韓國中部地方 民家の 平4棟 構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9(11), 46-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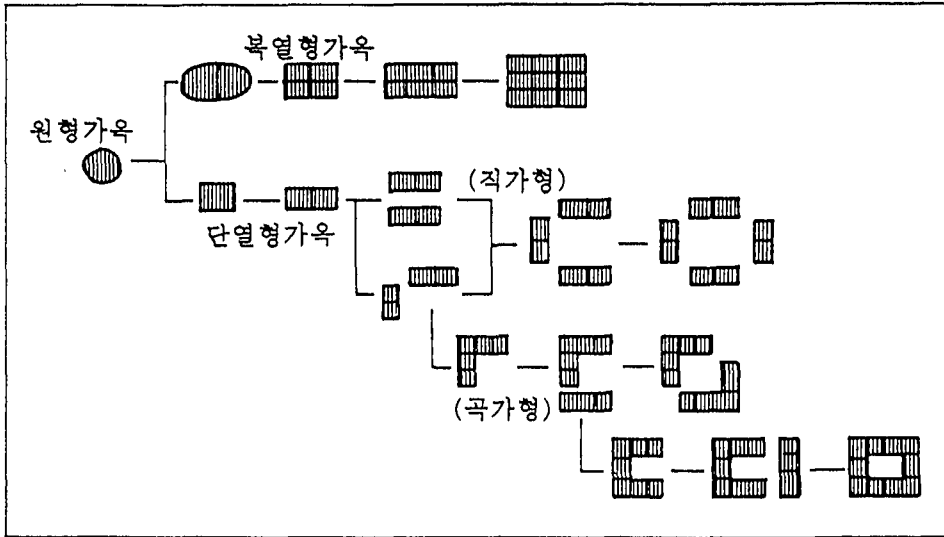


그림 IV-15. 가옥형의 진화과정(자료 『경기지방의 향토문화』(상), 1997, 405쪽)

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요인들은 주민들의 주거문화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믿는다.

ㄱ자형 살림채 외에 부속건물이 전혀 없는 가옥들이 상당히 많이 목격되었으나 대부분은 부속건물들이 소멸된 것들이다. 『器興邑誌』에 수록된 가옥들의 경우를 보면 부속채들이 임지로 지어 구조가 허술하기 때문에 안채만을 스케치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가옥의 일부도 ㄱ자형 가옥에 포함시켜 설명하고자 한다(그림 IV-16).

양지면의 한학용씨 집은 양지향교 입구의 남향밭이 완경사면에 앉은 고가이다. 본래 맞꼭패집이었으나 사랑채가 소멸된 자리에 텃밭이 조성되었다. 내부가 심하게 개조되었으나 집주인의 제보를 토대로 원형을 복원하고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집은 2칸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건넌방, 좌측에 안방을 배치하였는데, 안방은 본래 두칸으로 나누어 옷방과 안방으로 구분되었던 것 같다. 안방에는 다락이 있다. 안방 앞에 달아낸 부엌은 한칸반의 크기로서 찬방과 찬광을 가지고 있다. 외벽의 아랫부분은 돌로 쌓고 윗부분은 회로 처리했으며 부엌을 판벽으로 둘러싼 것으로 보아 사대부의 주거였을 것으로 보인다.

기흥읍 신갈리의 엄병섭씨의 집은 70여 년 전에 지은 건물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5칸 전퇴집으로 본래 초가였으나 현재는 슬레이트로 개량하였다. 양지의 한학용씨 집과 매우 유사한 구조인데, 다만 부엌 아래에 아랫방을 달아놓고 부엌 안에 찬광이 없는 점이 다르다. 이 집이 위치하는 신갈 6리는 조선시대 구홍역의 소재지였으나 현재 아파트 단지가 조성중이어서 전통가옥은 거의 소멸되었다.

기흥읍 하갈리의 가옥(1947년 건축)은 5량 구조의 슬레이트집이다. 넓은 대청을 중심으

로 우측에 한간반 짜리의 안방, 좌측에 건넌방을 배치하고 안방에 이어 부엌과 광을 달아 지었다. 안방에는 다락벽장을 만들고 그 밑에 부뚜막을 걸었으며 안방의 우측에 비교적 넓은 뒷마루를 두었다. 건넌방에도 반간 넓이의 벽장을 짓고 대청원쪽을 끌어 수납공간을 만들었는데 이는 뒤주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광은 부엌 쪽에 외문, 마당 쪽에 쌍여닫이문을 달았으며 우물마루를 깔았다. 아마도 곡물을 비롯한 각종 식료품을 저장하였던 것 같다(그림 IV-16). 건물의 벽은 회로 처리했으며 9간에 달하는 중농형 가옥이다.²¹⁰⁾

그밖에도 ㄱ자형 가옥은 기흥읍 상갈리의 이씨집, 구성면 상하2리의 空家(청주 한씨 소유)·박씨집 등 상당수가 남아있으나 최근의 아파트건설의 영향으로 공가 내지 붕괴 직전의 폐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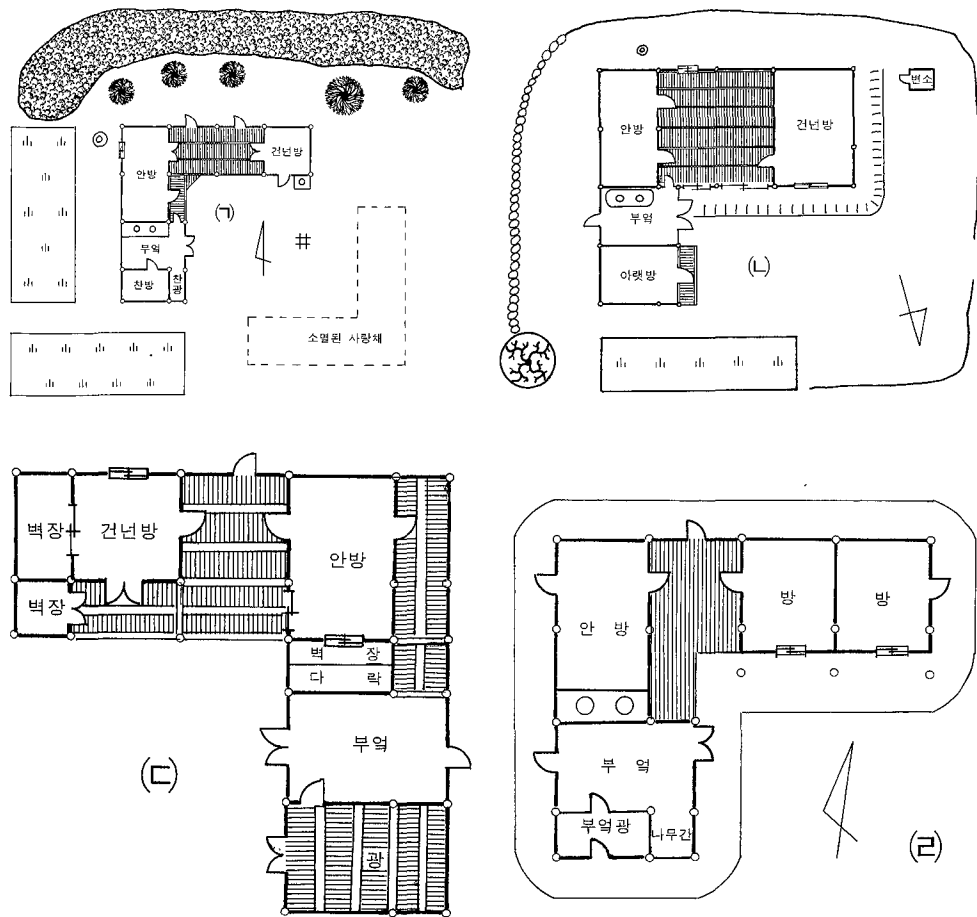


그림 IV-16. ㄱ자형 가옥: 양지면 한학용씨 집(가), 기흥읍 신갈리 엄병섭씨 집(나), 하갈리(다), 구성면 상하2리의 공가(ㄴ)

210) 曹成基, 1993, "韓國中部地方 民家の 平4椽 構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9(11), 116-117쪽.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부속채로 이루어진 튼 ㄴ자형 가옥은 양반층이나 중농이상 부농의 살림집이다. 용인에서 이러한 가옥들이 많이 분포하는 마을은 모현면 갈담리, 원삼면 문시랑마을 등이며 기흥읍 상·하갈리, 모현면 초부리, 능원리 능골, 구성면 중리 등은 도시화의 영향으로 전통가옥들이 소멸되었거나 크게 훼손되었다.

구성면 중리 내촌은 일찍이 수원 또는 서울에 통근하는 직장인들의 bedtown화가 시작된 마을로서 연립주택과 양옥들이 전통가옥을 소멸시키고 있던 바, 최근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되어 남아있는 몇 채의 전통가옥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 마을 이병직씨의 집은 네 간반 ㄱ자형 살림채와 一자형 문간채로 이루어진 가옥이다. 方形的 대지 북쪽은 숲이 우거진 구릉으로 막히고 동남쪽은 마을 앞의 들을 향하여 열려있다. 안채는 사랑구조의 본래 추가였던 것을 새마을 사업당시 슬레이트로 바꾸어 지붕의 경사가 매우 급하다. 다섯 칸짜리 안채는 중앙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안방, 우측에 건넌방을 앉혔으며, 넓은 부엌은 안방에 이어 달았다. 부엌에는 넓은 곡실(부엌광), 나무간, 뒤주 등이 달렸는데 뒤주는 문간채 쪽에 문을 내었다. 안채 벽을 회로 발랐으나 부엌은 판벽으로 처리하였다. 문간채는 대문을 중심으로 우측에 문간방, 좌측에 외양간, 나무간, 측간 등이 배치되었는데 외양간 바깥벽에 벧광을 만들었고 나무간에 다락을 만들어 농기구 등을 앉혔다.

모현면 능골의 정구씨 집은 넓은 대지의 중앙에 건물이 들어앉았고 안채 뒤와 사랑채 앞에 텃밭을 만든 고가이다. 서남향으로 앉은 살림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안방, 부엌, 헛간을 배치하고 좌측에 건넌방을 앉힌 5량구조의 기와집이다. 현재 주인이 거주하지 않아 붕괴직전의 상태이나 양질의 건축재를 사용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사랑채는 대문을 중심으로 좌측에 사랑방 등 두 개의 방과 우측에 세 개의 방과 측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텃밭자리에 행랑채가 있었으리라는 추측이 간다.

모현면 초부리의 이윤배씨 가옥, 기흥읍 영덕리의 가옥(가옥주 미확인), 원삼면 좌항리의 원상현씨 가옥, 남사면 전궁리 염삼동의 박종영씨 가옥과 창리의 이찬우씨의 가옥, 진목리 박씨 종가 등이 모두 튼 ㄴ자형 가옥에 속한다. 이 가옥들 가운데 박종영씨 집과 이찬우씨 집은 진위천 유역 평야면의 터돋움 위에 앉아 있다.²¹¹⁾ 이 평야지대의 집들은 대부분 남향이며 중대농가규모의 가옥들로서 곡물저장시설을 갖추었다. 창리의 이찬우씨의 집은 방형에 가까운 대지가 생나무 울타리로 둘러 싸였으므로 안채의 2칸 대청이 더욱 넓게 느껴지는 집이다. 사랑채의 중앙의 대문과 대청이 같은 방향으로 통하는데 대문 좌측에 방과 광, 오른쪽으로 곡간, 외양간, 측간 등이 배치되어 있다. 모현면 초부리의 이윤

211) 1991년 진위천의 범람으로 많은 가옥이 침수되었던 바, 이러한 수해는 몇 년마다 반복되었다. 그러나 상류 어비천에 二東저수지가 완공된 후 수해는 크게 줄었다.

배씨(입향조 종손)집은 100년 이상 된 고가이나 50여 년 전 일부가 개축되어 원형이 바뀌었다. 안채는 2칸반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건넌방과 나무간, 좌측에 안방과 부엌이 있다. 가옥이 북동향으로 앉았으며 안방의 바깥벽 쪽이 별을 많이 받게 되므로 이 쪽에 넓은 툇마루를 놓았다. 부엌에는 찬광과 쪽방(찬방)이 있다. 부속채는 2층 구조로서 다락 위에 각종 농기구, 명석 등을 얹었다.

원삼면 좌향리는 조선시대 영남대로상의 좌향역터이다. 이 마을에는 100여 년 전후의 고가들이 여러 채 남아 있는데 원상현씨 집은 150여 년된 고가이다. 이 집의 대지는 방형인데 동쪽은 옛 영남대로에 면한다. 안채는 정남향으로 앉았으며 3칸대청의 우측에 건넌방, 좌측에 2칸방과 부엌이 배치되었다. 사랑채는 부엌과 마주보는 동쪽에 남북방향으로 위치하여 ㄷ자가 남쪽으로 열린 형태를 띠고 있다(그림 IV-17).

ㄷ자형 가옥은 삼면이 건물로 둘러싸인 中庭을 갖춘 가옥으로 살림채와 사랑채가 결합되어 있다. 때로는 ㄷ자 앞에 一자형 부속채를 지어 ㄱ자형을 이루기도 한다. 대체로 건물의 규모가 크며 부유한 사대부의 주택들이다.

용인에서 이러한 가옥들이 분포하는 곳은 모현면 갈담리의 延安 李氏 동족촌, 원삼면 문촌리의 문시랑마을, 기흥읍 지곡리 등지에 주로 분포한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형 가옥은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두 채 정도만 있을 뿐이다.

기흥읍 지곡리의 ㄷ자형 고가는 경기도 민속자료 10호로 지정된, 李耜(1480~1533)선생이 살았던 고가이다. 본래 ㄷ자형 본채 앞에 一자형 행랑채가 놓여 있던 ㄱ자형 가옥이었으나 행랑채가 소실되어 남쪽이 트인 ㄷ자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 집은 ㄱ자형 안채와 1자형 사랑채가 결합된 것으로서 안채의 건넌방과 사랑채의 마루방 사이에 긴 셋방이 두 채의 결합점이다. 가옥은 전체적으로 기둥이 석 줄로 나란히 배열된 두줄박이 집이므로 건물의 폭이 넓다. 안채는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안방과 벽장, 좌측에 거름방(건넌방)이 있다. 대청 뒷벽으로 쌍여닫이문 두 개를 달았다. 안방의 바깥으로 긴 툇마루를 깔아 후원도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이 마루는 부엌 안까지 연결되어 부엌의 저장고 역할도 한다. 사랑채는 마루방, 사랑방, 벽장과 다락 등이 한 줄로 배열되었다. 마루방에는 사방으로 문이 있고 안방 역시 그러하여 사랑방에는 안마당, 마루방, 사랑채 툇마루로 출입이 가능하다. 사랑채 툇마루 끝의 공간은 서고로 이용되었다²¹²⁾(그림 IV-18).

맞춤패집은 경기형 가옥의 전형인 ㄱ자형 안채와 ㄷ자형 부속채로 이루어진 가옥으로 평면형이 ㄱ자를 이룬다. 棟과 棟사이에 대각선 방향의 공간이 있으나 中庭은 거의 건물로 둘러싸여 폐쇄된 공간이 형성된다. 이러한 가옥은 일반적으로 10칸 내외의 중농형 농가나 시장촌의 부유한 상인의 살림집에서 볼 수 있다. 용인에서 볼 수 있는 맞춤패집은

212) 용인문화원, 2000, 『器興邑誌』, 133-1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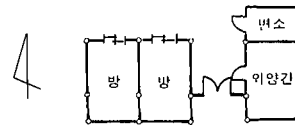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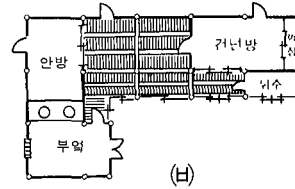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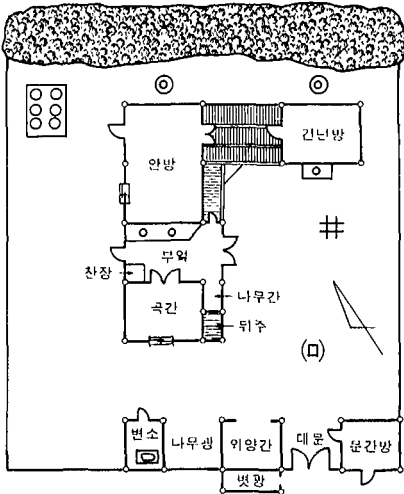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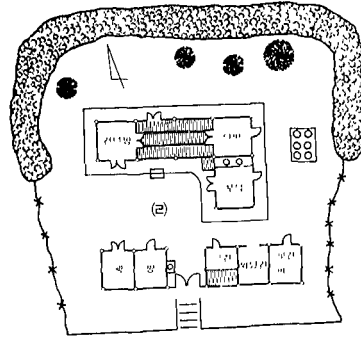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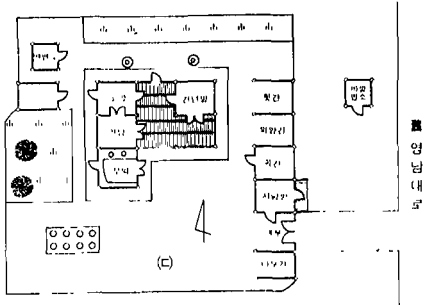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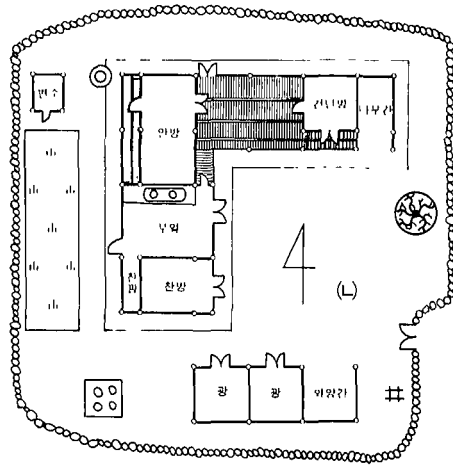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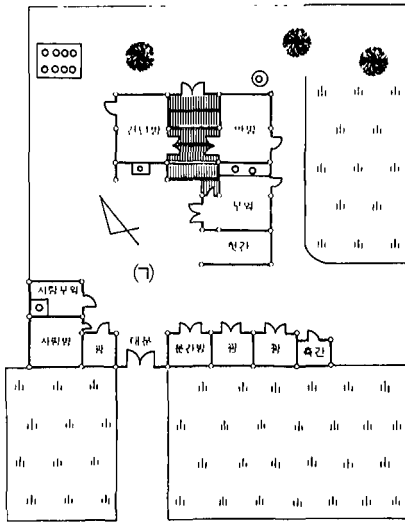


그림 IV-17. 뜰 ㄷ자형 가옥: 모현면 능골 정구씨 집(가), 모현면 초부리 이윤배씨 집(나), 원삼면 좌향리 원상현씨 집(다), 남사면 창리 이찬우씨 집(ㄹ), 구성면 중리 내촌 이병직씨 집(ㄷ), 기흥읍 영덕리의 민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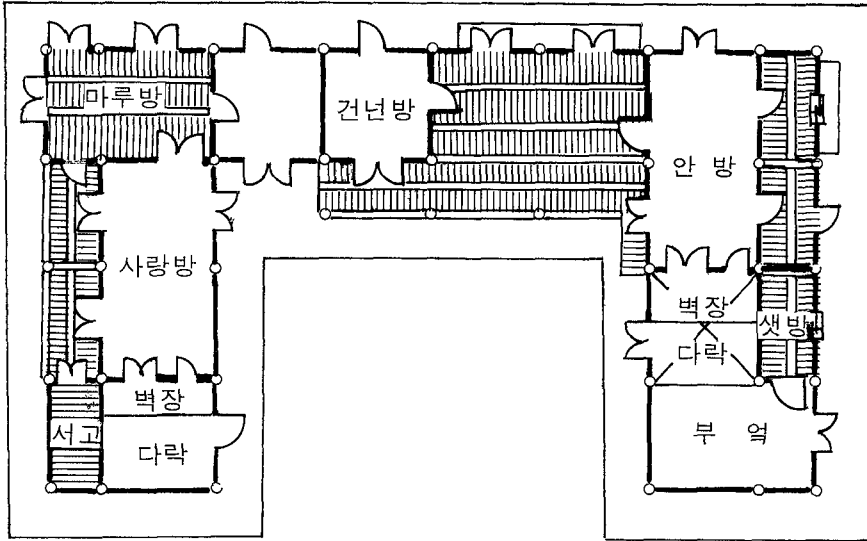


그림 IV-18. ㄷ자형 가옥: 지곡리 이자선생 고택

로는 모현면 갈담리의 이도희씨집, 초부리의 오씨집, 오산리의 최동화씨집, 기흥읍 하갈리의 ○○씨집 등이다.

모현면 갈담리의 이도희씨 집은 넓은 방형 대지에 왼 ㄱ자형 안채, 왼 ㄴ자형 사랑채가 맞꼭배집 형태를 이루며 사랑채 앞에 ㅡ자형 헛간채가 있다. 안채는 서남향으로 앉았다. 대지의 주위는 잡석으로 쌓은 돌담으로 둘러 막혔으며 서남쪽으로 난 출입구를 들어서면 바로 앞에 안마당으로 통하는 대문이 있고 우측에는 사랑채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즉 이 집에는 안마당, 사랑채마당, 바깥마당 등이 있다.

안채는 두칸 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안방 오른쪽으로 거름(건넌)방을 배치하였으며 안방 아래쪽으로 부엌과 찬방을 두었다. 안방, 건넌방, 대청의 뒤쪽에 모두 벽장을 설치했는데, 대청의 벽장은 조상 위패를 모신 사당 벽장이다. 사랑채의 중문 우측에 큰사랑, 대청, 작은 사랑방이 차례로 배치되고 윗쪽으로 부엌과 세 개의 광이 있어 대농가다운 규모를 갖추고 있다.

모현면 초부리의 오씨집은 방형의 대지에 안채를 북향으로 앉힌 중형농가이다. 안채는 다섯칸, 사랑채는 약 4칸 정도이다. 안채는 넓은 대청의 좌측에 건넌방, 오른쪽에 안방과 부엌을 배치하였다. 부엌에서 대청사이 뒷마루로 통하는 쪽문이 있는 점, 부엌에 찬광과 찬방을 둔 점은 용인 전통가옥의 특성이다. 사랑채 우측에는 중정과 바깥마당으로 통하는 문이 달린 청방이 있는데 이는 아마도 겨울에 곡물 저장고로 쓰이다가 여름에는 피서공간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산리의 최동화씨 집도 오씨 집과 비슷한 구조를 가

지고 있다.

기흥읍 하갈리의 가옥(가옥주 미확인)은 원 ㄱ자 안채와 원 ㄱ자 사랑채로 구성된 가옥이다. 앞에 열거한 가옥들과 안채의 구조가 비슷하나 마루 뒤에 사당 벽장을 설치한 점이 특이하다. 건넌방이 큰 이유는 아마도 광 등 저장고로 쓰던 공간을 방으로 개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마북리의 고 장옥진 화백의 집은 1880년대에 지은 고가로서 1986년에 보수한 기와집인데 안채는 팔작 지붕이고 사랑채는 우진각 지붕이다. 안채의 간 배치는 용인의 전형적인 ㄱ자 집과 다를 바 없으나 건넌방 앞에 뒤주를 설치한 점이 특이하다. 사랑채에는 넓은 사랑방과 뒷마루가 있으며 쌀광을 별도로 만든 점으로 보아 본래 중농형 농가였음을 알 수 있다.

남사면 진북리의 박씨 종가는 여섯칸 짜리 안채와 다섯칸 사랑채로 이루어진 중농농가이다. 안채는 3칸 대청을 중심으로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기와집이고 사랑채는 초가였던 것을 슬레이트로 개량한 건물이다. 중농답게 곡간이 돌리고 광도 갖추었다(사진 IV-21). 이동면 덕성리의 김서호씨 집도 박씨 종가와 유사한 간 배치를 보여주고 있으나 안채의 좌향은 서북향이다.

원삼면 학일리의 오형근씨 집은 약 90년 전에 지은 중대농 양반집으로 동쪽으로 앉아 있다. 대지가 비교적 넓으며 안채의 뒷마당에서 왼쪽 담장을 끼고 과수가 심겨진 텃밭이 있다. 안채는 기와집인데 2칸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안방, 좌측에는 건넌방이 배치되었다. 부엌은 안방에서 밀어내는데 찬방과 찬광이 붙어있으며 대청으로 드나드는 쪽문이 나 있다. 건넌방 바깥쪽으로 반칸 뒷마루를 놓고 그 반을 뒤주로 사용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사진 IV-22). 사랑채에는 2칸 사랑방과 문간방이 대문을 중심으로 좌우로 배치되어 있으며 대문에서 안채의 대청이 직선상에 놓여있다.

원삼면 맹리의 조승기씨 집은 학일리의 오형근씨 집보다 부속채의 규모가 더 큰 중대형 농가이다. 안채는 중앙의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안방, 좌측에 건넌방을 배치한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지만 사랑채는 서쪽으로 단 대문을 중심으로 윗쪽에 2칸 사랑방 좌측으로 담장을 끼고 문간방, 광, 3칸의 창고, 측간 등이 배열되어 있다(그림 IV-19).

용인에서는 완전한 ㄱ자형 대저택이나 ㄱ자형의 소규모 따리집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ㄱ자형 상류가옥은 서울과 경기 일원, 경상북도 동북부, 경주 일원에 그리고 따리집은 김포, 파주, 양주 등 경기 북서부와 황해도 일대에 널리 분포하는 가옥형이다. 전자와 달리 후자는 서민층 가옥으로서 마당의 규모가 2칸 내외에 불과하며 초가집이 대부분이다.

완전한 ㄱ자형 가옥은 없으나 ㄷ자형 건물에 一자 또는 ㄱ자형 부속채로 튼 ㄱ자형을 이룬 가옥들은 용인의 여러 촌락에서 확인된다. 원삼면 문촌리 문시랑 마을 및 좌향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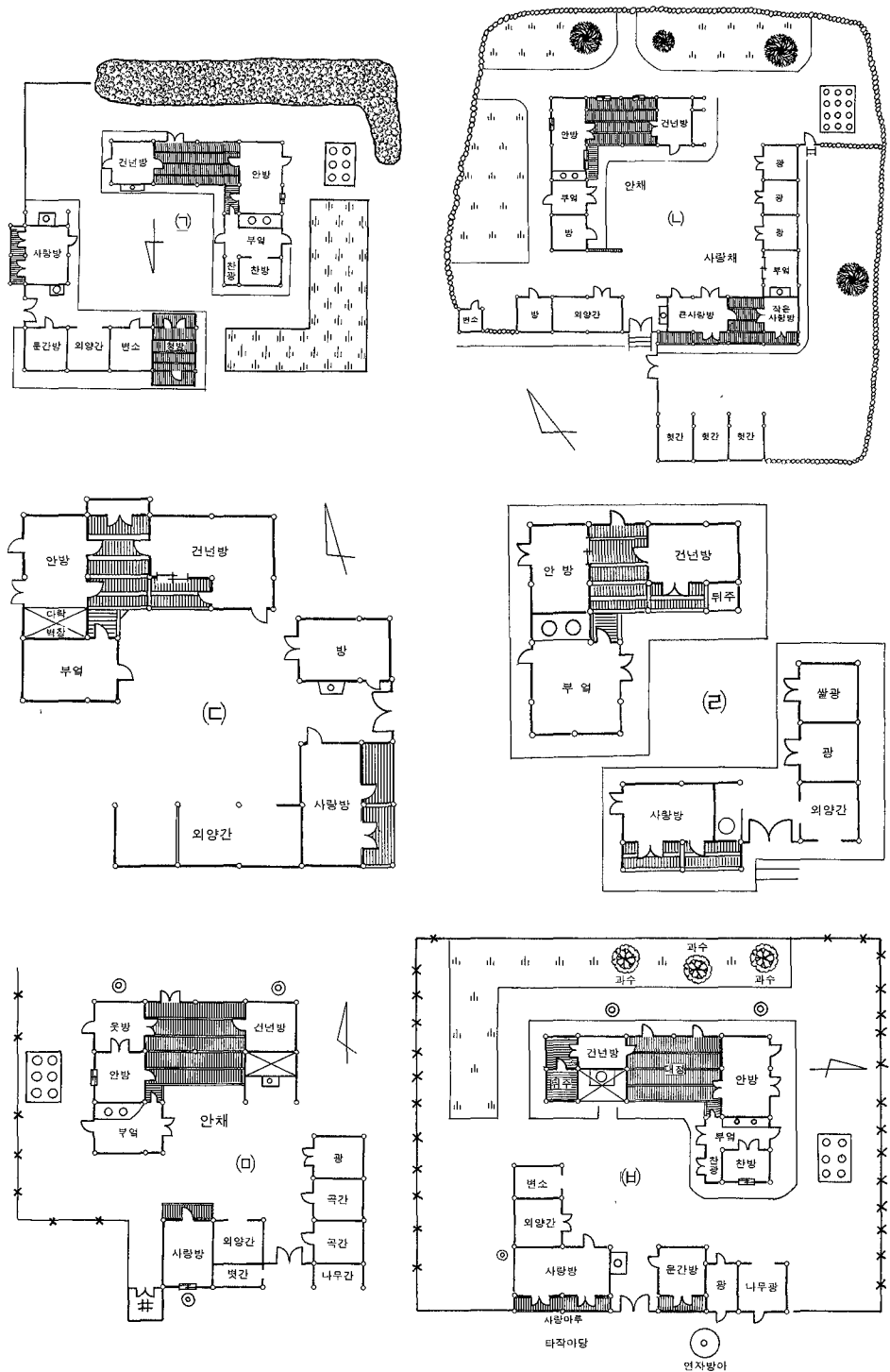


그림 IV-19. 맞곱패집: 모현면 초부리 오씨집(가), 모현면 갈담리 이도희씨 집(나), 기흥읍 하갈리 오씨 집(다), 기흥읍 마북리 장욱진씨 집(라), 남사면 진목리 박씨증가(마), 원삼면 학일리 오형근씨 집(바)



사진 IV-21. 남사면 진목리 박씨종가



사진 IV-22. 원삼면 학일리 오형근씨 집

모현면 갈담리와 초부리 등지에 이러한 폐쇄형 가옥 몇 집이 분포하는데 갈담리의 연안 이씨 입향조의 종가중 하나인 이계희씨 집과 문시랑 마을의 조길상씨 집이 가장 규모가 크다.

조길상씨의 집은 ㄷ자형 안채의 맞은 편에 왼 ㄱ자형 사랑채를 지었으며 안채와 사랑채 중간에 ㄱ자형의 토광과 우사를 배치하여 안마당과 사랑마당을 가진 튼 日자형의 평면공간을 이루고 있다. 안채의 좌향은 서북서향인데 이는 대지의 주변 지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안채는 중앙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안방을, 우측에 두 개의 건넌방을 두었으며 부엌은 안방에 달아 지었다. 안방의 바깥쪽과 건넌방의 밖으로 작은 뒷마루를 놓았으며 건넌방 앞에는 대청에 이어지는 마루가 있다. 건넌방 옆으로 넓은 광과 문간방이 배치되었으며 광과 건넌방 사이는 다락으로 연결된다. 사랑채는 모서리 부엌에서 오른쪽으로 뜰 아래 방과 마루방, 아래쪽으로 뒷마루가 달린 2칸 사랑방을 배치하였다. 이 집에는 측간이 두 채 있는데 안채 측간은 안채 부엌 윗쪽의 담장 옆에, 그리고 바깥 측간은 사랑채 바깥 마당 끝에 지었다.

대지의 남쪽으로 난 대문을 들어서면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이 나타나지만 이는 집주인(특히 여성)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방문객(남성)들은 우사를 끼고 왼쪽으로 돌아 사랑채로 향하도록 되어있다.

모현면 갈담리의 이계희씨 집은 안채와 사랑채가 ㄷ자형으로 결합되어 있고 ㄷ자 전면에 1자형 부속채가 앞을 막아 튼 口자를 이루고 있다. 이 口자보다 낮은 터에 一자형 행랑채가 있어 ㄷ자형 평면을 이룬다. 사랑채는 안채의 우측 담장 밑에 지었다. 행랑채 중앙의 대문간을 들어서면 바로 3칸 사랑채 대청과 사랑방이 있으며 사랑대청의 윗쪽으로 중문이 있어 안마당으로 통한다. 사랑채가 남향으로 앉은 반면에 안채는 서향을 취하고 있다. 안채의 건넌방이 두 칸인점으로 보아 이 집은 여성 3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IV-20).

(3) 가옥의 향

우리 선조들은 집을 지을 때 우선 터를 고른 후에 그 터에 앉힐 집의 방향을 정하였다. 터를 고르는 일을 卜居라 하는데, 북거에서 가장 중요시된 것은 陽基風水의 地理였다.²¹³⁾ 풍수에서는 이상적인 집터를 名基라 하였으며 그러한 장소는 대체로 배산임수형 입지였다. 즉 집터 뒤에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흐름이 완만한 냇물을 접함으로써 집 앞에 넓직한 국면이 전개되는 장소를 이상적인 陽宅의 자리로 본 것이다.

터고르기 다음으로 중시된 점은 가옥의 坐向인데 가장 선호된 것은 남향이다. 중국을

213) 『擇里志』卜居總論 地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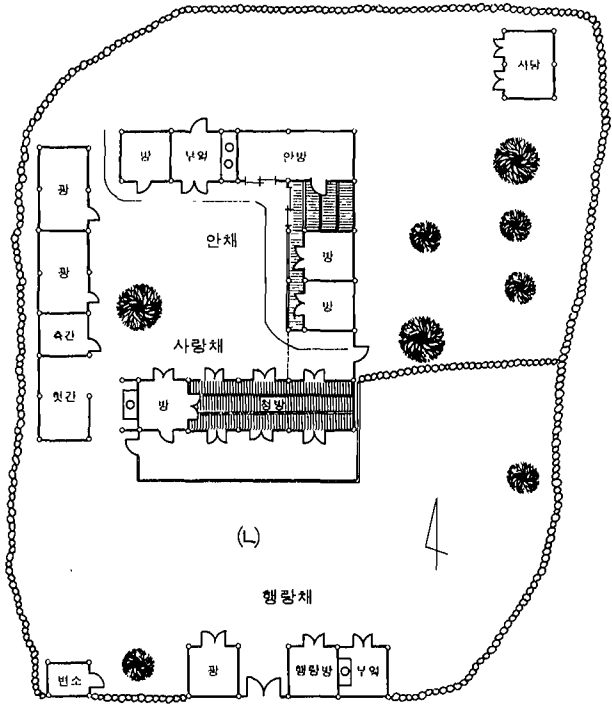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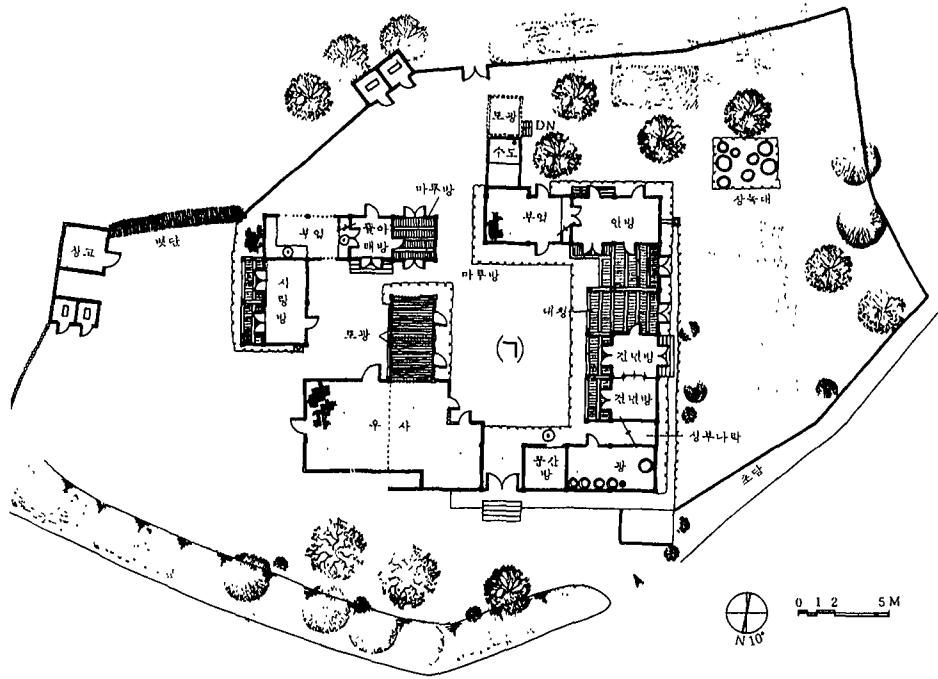


그림 IV-20. 튼 □자형 가옥: 원삼면 문시랑 마을의 조길상씨 집(7), 모현면 갈담리의 이계희씨 집(L)

비슷한 동양문화권에서는 음양의 법칙에 따라 동쪽을 陽, 서쪽을 陰으로 인식하였으며 왕을 태양의 아들에 비유했기 때문에 남중하는 태양에 정면으로 대할 수 있는 정남향은 신성한 坐向이라 하여 이 좌향으로 앉힐 수 있는 건물은 궁궐과 종묘건축에 한정시켰다. 그러나 성종대부터 개인주택에도 정남좌향 선택이 허용되었다.²¹⁴⁾

남향집은 양지바르고 여름철에는 동남풍을 받아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긴 겨울은 물론 무더운 여름을 나기에도 편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지형 조건 때문에 모든 가옥을 남향으로 지을 수 없을뿐더러 풍수에도 절대적인 남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대적 좌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마을에 따라 가옥의 향은 많이 다르다. 만일 중가를 비롯한 마을 세력자의 저택이 남향으로 지어지면 주위의 가옥들도 그러한 가옥의 영향을 받아 남향으로 취하는 예가 많다. 용인시 관내 주요 마을들의 가옥 좌향을 지형조건과 사회·문화적 조건을 참조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모현면 갈담리는 延安 李氏의 동족촌으로 최근 용인 일대를 휩쓸고 있는 개발 붐을 비교적 덜 받은 곳이다. 용인과 경안을 잇는 45번 국도에서 약 1.5km 동쪽의 계곡에 입지한 이 마을은 마을의 입구가 숲으로 덮인 낮은 구릉으로 가려있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마을의 동쪽에 노고봉(573.6m), 정광산(563m)등으로 이어지는 높은 산맥이 솟았으며 이 산지에서 발원한 갈담천이 마을 앞을 지나 서쪽으로 흘러 경안천에 합류한다. 마을은 대체로 해발 100~125m 사이의 완경사면에 입지하며 배산임수형을 이루고 있다. 이 마을은 240~250여 년전 연안이씨 문중의 3형제가 입향하여 설촌하였으며 그 3형제 후손들의 집은 튼 ㅁ자 구조를 가진 대저택으로 남아있다. 그 중 이계희씨의 집이 마을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이계희씨 가옥은 대청이 서향이며 나머지 두 저택들은 서남향이다. 따라서 이 마을에는 서남향 가옥이 많으며 남향 내지 동남향 가옥들은 중가들보다 나중에 지은 집들이다(그림 IV-21).

원삼면 문시랑 마을은 문수봉 남쪽 해발 105~130m의 산록완사면에 입지한 취락이다. 지질시대의 장기간에 걸친 침식작용으로 완사면의 동북쪽과 서남쪽은 비교적 낮은 곡저평야를 형성하였고 중앙부만이 동남방향으로 길게 뻗어 헛바닥 모양의 구릉지를 이루고 있다. 문시랑 마을은 동쪽의 새터 앞들에서 내려오는 개울과 서쪽의 안터골에서 내려오는 개울이 합류하는 수구막이로부터 구릉지의 서남쪽 사면에 길게 발달하였다. 따라서 이 마을의 가옥들은 대부분 서남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다만 구릉지 말단부의 가옥들만이 동남향으로 앉았다. 이 마을은 역사가 긴 전주 이씨 동족촌이었으나 지금은 이씨 이외에도 경주 정씨, 풍천 임씨 등 여러 성씨들이 살고 있다. ㄱ자, ㄴ자, 튼 ㄴ자, 튼 ㅁ자 등 여러 가지 평면형의 가옥들이 분포한다(그림 IV-22).

214) 崔 壹, 1989, “朝鮮時代 韓屋 變遷過程의 解釋方法에 관한 小論”,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1), 70쪽.



그림 IV-21. 모현면 갈담리의 가옥향과 평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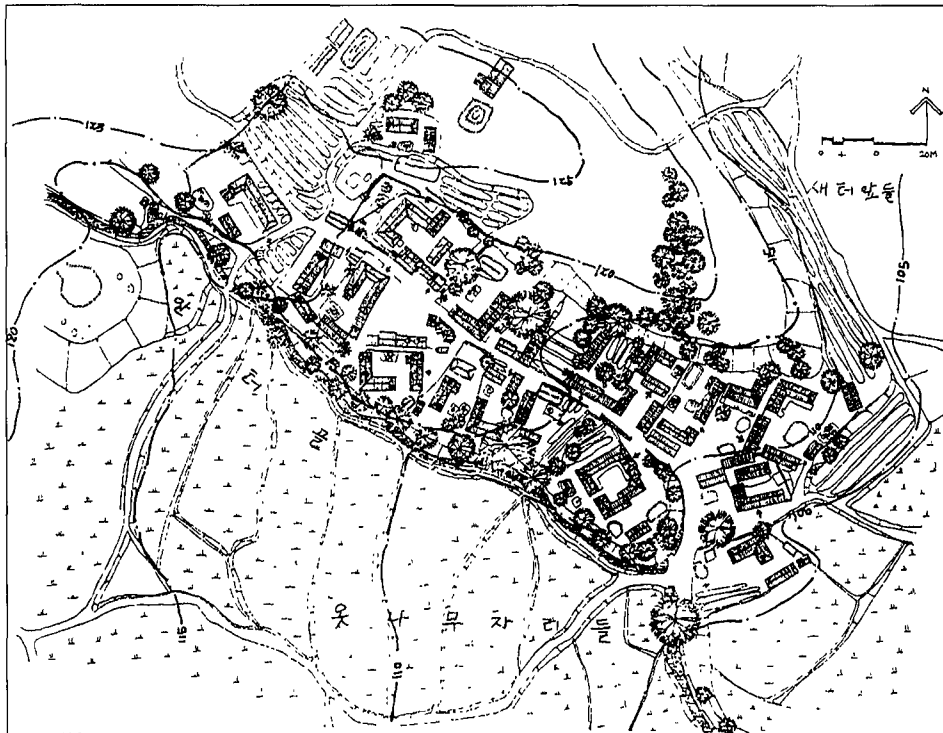


그림 IV-22. 원삼면 문촌리 문시랑 마을의 가옥향과 평면형태 (자료 『한국민속종합보고서』, 1985)

남사면 진목리는 해발 20m 내외의 진위천 유역 충적평야에 입지한 전형적인 野村이다. 그러므로 용인의 여타 마을과 달리 가옥의 향이 지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마을의 약 70여호 가운데 10여호는 개량형 양식 건물이며 전통가옥 가운데 서남향이 약 25호, 동남향이 약 20호, 그밖에 남향과 동향 가옥이 약간 분포한다. 서남향 가옥과 동남향 가옥의 대부분이 ㄱ자형 살림채와 ㄴ자 또는 一자형 부속채를 가진 농가들이다(그림 IV-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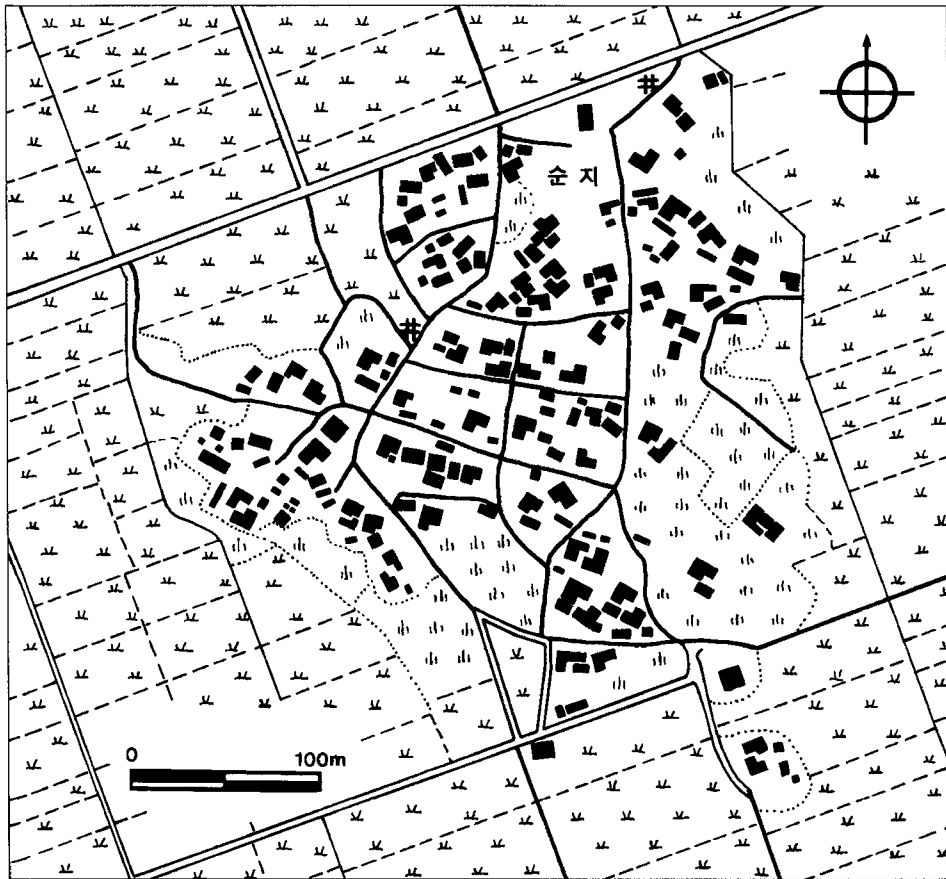


그림 IV-23. 남사면 진목리의 가옥향과 평면형태

(4) 지역별 가옥구조의 특성

용인의 전통가옥들은 ㄱ자형이건, ㄴ자형이건 또는 튼 ㅁ자형 이건 간에 중앙에 폐쇄형 공간인 中庭을 가지고 있다. ㄱ자형 가옥의 중정은 一자형 부속채 또는 담(돌담, 생울타리, 시멘트블럭 등)으로 둘러 막히고 ㄴ자 또는 ㅁ자형 가옥은 사면이 건물벽 또는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간이다. 이 중정은 비교적 아늑하기 때문에 가족만의 활동공간으로 중요시된다. 용인지방 전통가옥의 중정은 보통 4칸×4칸 내외의 규모이지만 모현면 능원리

의 연일 정씨 종가, 갈담리의 연안이씨(이도희, 이계희)의 저택, 원삼면 문시랑 마을의 전주 이씨집과 조길상씨집 등 일부 부유층 저택들은 5칸×5칸 이상의 넓은 안마당을 가지고 있다.

경기지방 가옥의 채(棟)별 구조를 보면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어 있으며, 중상류 층에서는 행랑채 또는 사당채를 갖추기도 한다. 가부장권이 강했던 조선후기에는 부유층에 한하여 혼인한 아들이 분가하지 않고 한 울안에 정착함으로써 3~4대가 함께 기거하는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부유층의 가옥들은 규모가 커지고 동시에 성별, 장유유서별, 신분별 공간분화가 이루어졌다.

안채와 사랑채는 집주인의 생활공간이며 안마당은 주택의 중심이 되었다. 행랑채 등 부속건물이 있는 집의 경우에 하위의 공간인 행랑채는 중문간 행랑채와 대문간 행랑채로 구분되어 전자는 유모·청직의 거주공간, 후자는 솔거노비의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안방·대청·건넌방·부엌 등으로 구성된 안채는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 외에도 부녀자들의 생활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 방어기능을 가지고 있었다.²¹⁵⁾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 안채는 여성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조영하였다. 즉 안채의 부엌과 안방은 동-서로 면하고 대청과 건넌방은 양기를 많이 받도록 가능한 한 남향을 취하였다. 안채는 안방·대청·부엌 등 간 수가 큰 공간들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와 형태에 있어서도 사랑채를 비롯한 다른 채에 비해 크고 웅장하였다. 한편 사랑채에는 부자 및 조부가 함께 기거하며 외부 손님들을 접대하는 사교공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²¹⁶⁾ 그러므로 사랑채는 대문과 가까운 곳에 배치되었다.

장유유서별 공간분화는 주인의 거주공간인 안채와 사랑채 안에서 이루어졌다. 안채의 경우 시어머니가 기거하는 안방은 며느리의 건넌방보다 클 뿐만 아니라 다락, 부엌 등이 갖춰지며 곡간의 열쇠와 귀중품을 보관하는 가구나 수장고 등이 비치된다. 사랑채의 경우에도 조부와 부친은 큰사랑에, 아들은 작은사랑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성별, 연령별 공간분화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튼 ㄷ자, 튼 ㄱ자형 가옥에서도 존재하였다. 다만 가옥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안방에 주인 내외가 기거하고 딸은 건넌방에, 그리고 아들은 사랑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용인과 같은 넓지 않은 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 가옥의 공간배치 및 구조상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자연환경의 차이와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통가옥의 평면배치와 구조를 보면 용인지역 내에서도 지역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용인시 중심부, 기흥읍, 수지읍, 모현면, 이동면, 포곡면 등 경안천·탄천·오산천 유역을 포함하는 북서부 지역과 청미천 유역의

215) 최영준, 1997, 『국토와 민족생활사』, 한길사, 439쪽.

216) 金光彦, 1988, 『韓國의 住居民俗誌』, 민음사, 102-109쪽.

원삼면·백암면 일대와 진위천유역 등 남부지역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들 양 지역 사이의 양지면은 접이지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자는 조선시대부터 용인현의 강역에 속했던 지방인 반면에 청미천 유역의 대부분은 죽산현에 속했고 일부는 양지현의 월경지였다가 1914년 초 행정구역 개편시 용인군으로 통합된 지역이다.

용인북부의 가옥은 ㄱ자(또는 원 ㄱ자)형 안채에 ㄴ자(또는 원 ㄴ자)형 사랑채로 구성된 맞꼭패집이 가장 많으며, ㄱ자형에 一자형 부속채를 가진 튼 ㄷ자형 가옥이나 ㄱ자형 살림집 한 채만 있는 집들도 있다. 살림채에는 넓은 대청과 안방, 건넌방이 있고 부엌은 대청로 넓다. 건넌방 앞의 마루 모서리에 뒤주를 설치한 중농형 가옥들이 많으며 대청에서 부엌으로 연결되는 툇마루를 놓고 부엌 벽을 터서 쪽문을 달았다. 이 문은 부엌에서 음식상을 안방이나 대청으로 옮기는데 편리하다. 대부분의 중농농가에는 부엌에 찬방과 찬광을 배치하였는데, 찬광은 김치독을 묻거나 기타 음식물을 저장하는 수장고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가옥들은 특히 진위천 유역에 속하는 기흥읍과 수지읍 일부에 많은데, 이는 서해안 해안평야 가옥문화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원삼면·백암면·남사면 일대에도 ㄱ자형 안채를 가진 가옥들이 가장 탁월하게 분포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一자형, ㄷ자형 가옥이 적지 않으며 맞꼭패집 보다는 ㄱ자형 안채에 一자형 부속채를 가진 집들이 더 많다. 다시 말하면 용인의 남부는 북부에 비해 가옥이 덜 폐쇄적인데 이는 아마도 一자형 가옥이 많이 분포하는 차령산맥 남부의 영향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 곳에는 용인북부에 비해 부엌광을 가진 집도 드물고 부엌과 대청 사이의 출입문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V. 結論 및 提言

경기 남부에 위치한 龍仁은 현재 592km²의 면적을 가진 통합시로서 수원, 오산, 성남, 광주, 이천, 안성 등의 시·군과 접경하고 있으며, 경안천, 청미천, 진위천, 탄천 등 네 개의 주요 하천유역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인의 지형은 일차적으로 원천, 신갈, 용인, 정수·원삼 등의 단층선에 의해 규정되며, 하천의 유로와 평야의 발달 역시 지질구조선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은 국지적으로 형제봉산계, 탄천·신갈천하곡, 성산산계, 경안천·진위천하곡, 봉래산·독조산산계, 양지·백암분지 등 여섯 개의 地形區로 나뉘어져 있어 지형적인 통일성은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용인의 分水界는 그다지 높지 않고 곳곳에 鞍部가 발달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과 교류에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용인은 산이 많고 谷底平野로 이루어진 들이 좁지만 산이 험하지 않고 잔잔한 구릉이 발달되어 있어 인간의 삶터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삼국시대 마한의 영역이었던 용인은 백제, 고구려, 신라, 고려 등의 정치적인 세대교체 와중에서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성해왔으나, 고려시대까지는 수도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지리적 중요성이 그다지 높게 인식되지 못하였다. 용인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漢陽定都 이후의 일로서, 직선거리로 서울 시청에서 용인시청까지 약 35km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때부터 왕도의 근교로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기에 이른다. 용인은 조선개국 당시 龍駒縣이란 행정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處仁縣을 아우르면서 龍仁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1914년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이 있기까지 현재의 용인시는 용인현 외에 양지현과 죽산부의 일부 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용인이 김량장에 중심을 둔 현재의 행정구역 패턴으로 탈바꿈한 것은 일제 강점기의 일이었다. 개편 당시 용인은 수여면, 포곡면, 모현면, 읍삼면, 수지면, 기흥면, 남사면, 이동면, 내사면, 고삼면, 외사면, 원삼면 등 총 12개 면으로 행정구역을 재정비하였으며 그 동안 몇 차례의 면 명칭과 경계조정이 있었으나 고삼면이 안성군으로 편입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용인 내에서의 변화였다.

한편 용인의 風水를 이른바 ‘死居龍仁’이 아닌 ‘生居龍仁’의 측면에서 풍수지명과 설화, 명당풍수(고을·마을), 비보풍수 순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용인의 자연마을에는 다수의 풍수적 지명이 현존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理想的인 형국으로 인식함으로써 그 풍수적 소망을 기대한 심리적 반영이었다. 그리고 풍수설화는 아기장수형,

斷脈형, 禁忌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용인·양지현 읍치는 각각 香水山과 定水山을 주산으로 삼은 풍수적 입지를 하고 있으며 넉넉한 局量을 지니고 도로 조건도 잘 갖추고 있다. 부분적인 장풍적 조건의 결합이 있으나, 용인의 경우 입구에 裨補物인 숲과 석상을 설치함으로써 보완하고 있다. 용인의 마을풍수는 자연마을 몇 개를 선정하여 풍수적 입지, 배치 및 좌향, 조경 등의 사실을 살폈는데 모현면 맹리 원촌·갈담리 갈월과 원삼면 문촌리 문시랑 등은 대표적인 풍수적 입지와 조건을 갖춘 자연마을이었다. 용인에도 다수의 비보경관이 있었다. 비보란 이상적인 풍수국면을 성취하기 위해 허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조경의 한 형태로서, 용인에는 사찰, 석상, 숲 등의 비보물이 존재하였다. 龍德寺 등의 사찰과 구성면 보정리 이현과 독정의 비보숲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양지면 양지리 등촌에는 淫風방어의 비보사레도 발견되었다.

생업을 농업에 둔 전형적인 농촌이었던 용인은 조선후기 이래 유례 없는 인구와 취락의 성장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교통로의 정비와 교통수단의 개선에 힘입은 바 컸다. 용인 내에는 대소 하천이 방향을 달리하면서 흐르고 있기는 하지만 내륙수로로 보다는 관개수원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교통은 주로 도로와 철도교통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용인의 교통은 驛制에 기초한 전통적인 도로교통시대, 전산업시대 교통체제의 와해 이후의 신작로교통시대, 협궤철도인 水驪線의 개통과 함께 찾아온 도로·철도교통시대, 해방이후의 신 도로교통시대 등의 변천을 겪었다. 전산업시대 용인의 교통은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한양으로 수렴하는 X자형 교통망의 일부구간을 책임지고 있었다. 찰방 소관인 良才道(조선 후기에 迎華道로 개편)에 편재된 용인, 양지, 죽산은 이른바 ‘嶺南大路’의 북쪽 말단에 해당하며 도로에 연해 구흥, 금령, 좌찬 등의 驛과 부대시설인 院이 배치되어 도로운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1895년 郵驛制의 폐지로 군사·행정중심의 전통적인 도로운영체제가 무너지고 근대화를 이끄는 도로의 역할이 강조되던 즈음, 용인의 교통체제는 불행하게도 외세의 주도에 의해 대대적인 수술을 받게 이른다. 통감부에 의해 계획된 1908년 제2기 治道事業 당시 용인에는 수원에서 김량장, 양지, 이천, 여주 등지를 지나는 소위 신작로의 개설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종래 남북방향의 도로망패턴이 동서방향의 식민지형으로 전환되었다. 지역 간 이동에서도 자동차라는 신식 교통양식의 소개가 있었던 시기였다. 식민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일제는 한반도의 식량·자원 기지화를 노골화하였고 그 일환으로 경기내륙의 미곡을 수원을 경유하여 수출항인 인천까지 수송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는데, 이는 1931년 수려선의 개통으로 구체화되었다. 수려선은 해방이후 1972년 폐쇄될 때까지 화물의 수송은 물론 여객의 운반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도로의 확충은 철도의 등장 이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으며 1960년대 들어서면 도로포장과 자동차의 수적인 증가에 힘입어 신 도로

교통시대를 구축해가고 있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교통중심지 신간의 도약은 용인지역 교통사의 분수령이 되었다.

교통의 발달은 지역 간 물자 및 여객의 이동을 수반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상업발달로 이어진다. 용인에는 전산업시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정기시장이 개설·운영되었고 이들 재래시장은 용인지역 공동체생활의 큰 축을 형성하였다. 용인의 재래시장은 5일을 주기로 개시되었으며 장시수 및 위치로 볼 때 조선시대에는 하천유역별로 평균 하나의 장시가 들어선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역내의 장시는 폐쇄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인접 군현의 장시와 긴밀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해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록 도촌장, 풍덕천장, 개천장과 같이 인근에 수원장, 오산장, 안성장, 이천장과 같은 大場을 두고있던 장시의 경우 얼마간 운영되다 철회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쟁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입장에 있었다. 장시는 대개 교통로를 따라 입지해 있었으며 교통결절도가 높고 접근성이 유리한 장시의 경우 거래액의 규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정기시장은 한때 수적으로 불어나는 양상을 보였지만, 식민지시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상설점포의 영향으로 인해 1970년대를 정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중앙부에 위치한 용인에는 적지 않은 선사유적지들이 발견되어 일찍부터 이 지역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나, 고려시대까지는 사료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취락의 발달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용인의 취락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이후로, 이는 용인이 서울로 통하는 길목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 사료되며, 특히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교통과 상업의 발달에 힘입어 용인의 취락은 급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일제시대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였던 용인의 취락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친 것은 1980년대 무렵이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도시들이 인구의 집중으로 포화상태에 달하자, 인근지역으로 각종 산업시설과 인구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용인도 이를 분담하게 되었고, 서울과의 거리, 주요교통로와의 접근성 등에 따라 용인 취락들이 취락경관과 기능의 변화는 물론 각기 다른 발달정도를 나타내게 되었다.

용인의 취락을 기능에 따라 읍취락·농촌·교통촌과 시장촌 그리고 동족촌 등으로 분류하고, 그 입지와 경관, 형태와 구조 등을 살펴보면, 먼저 읍취락은 풍수·방어·교통조건 등이 주로 고려되어 입지가 결정되었고, 조선시대 행정·경제·군사·교육 등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어 일반 촌락과는 다른 경관 및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읍취락의 공간구조는 풍수지리설과 周禮考工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짜여졌기 때문에 용인과 양지의 그것이 거의 유사했던 것은 물론 조선시대 전국 읍취락의 공간구조와도 대동소이했다. 용인현과 양지현의 읍취락은 각각 1895년과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구읍취락이 되었는데, 일제시대 이후 신작로 개수, 수려선 부설 등으로 인한 교통체계의 변화에 따라 용인현의 구읍취락은 계속 쇠퇴하였던 반면 양지현의 구읍취락은 소지역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다.

용인 농촌의 촌락입지는 산간골짜기와 곡저평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중 산간골짜기에 들어선 농촌이 농경을 비롯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 병화와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에 적당하다는 점, 풍수의 명당·도가의 이상향 등에 부합된다는 점 등 때문에 과거 용인 주민들이 더욱 선호했던 입지라 평가된다. 촌락 형태의 측면에서는 集村, 그중에서도 塊村이 지배적이었으며,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米作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농촌경관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편 용인 농촌의 전통적인 경관요소와 공간구조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그 이후의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질되었다.

용인의 교통촌과 시장촌은 대부분 사람의 통행이 많은 대로변, 교통로의 결절점 등에 들어서 유사한 입지패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역원취락이 관주도로 계획에 따라 비교적 규칙적으로 입지하는 데 비해, 주막촌과 시장촌은 민간주도로 교통량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입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형태면에서도 역원취락은 塊村의 형태를 띠는 데 반해, 주막촌과 시장촌은 街村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용인의 원취락과 역취락은 각각 17세기이후와 19세기 후반이후 그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였고 주막촌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주막촌 중 시장을 포섭한 촌락은 그 후에도 성장을 계속하였는데, 백암장·김량장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특히 조선시대 인근에 金嶺驛과 金嶺院이 있었고, 시장을 중심으로 주막들이 밀집해 있었던 김량장 일대는 현재 용인 전체의 중심지로서 급성장하였다.

용인의 동족촌은 주로 조선 중기 이후 土姓인 龍仁李氏와 다른 지방에서 이거한 迎日鄭氏·延安李氏·漢陽趙氏·海州吳氏 등 몇 개의 주요 씨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씨족들은 상호간의 혼인을 통해 인척관계 또는 정치적 연대관계를 맺고 있었음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동족촌의 입지는 일반 농촌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나, 공간구조에 있어서는 뚜렷한 계층성이 존재하며, 유교적 이념이 반영된 다양한 儀禮空間과 修己場所들이 발견된다.

촌락과 마찬가지로 용인의 가옥 역시 1970년대 이후 그 형태와 구조, 재료 등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개발의 혼란 속에도 아직까지 부분적으로나마 전통가옥의 모습을 지닌 가옥들이 다소 남아 있어 이를 토대로 용인의 전통가옥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인의 전통가옥은 ㄱ자형 안채를 기본으로 하고 ㅡ자형 또는 ㄴ자형 부속채를 가진 ㅓ자 또는 맞꼭배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ㄴ자형과 ㅓ자형 가옥은 극히 드물고 한강하류·경기도 북부지방에 널리 분포하는 띄리집도 거의 없

다. 둘째, 一자형 가옥이 많지는 않으나 경기북부, 동부내륙, 서해안 지방에 비하여 다소 많이 분포하는 편이다. 특히 충청도와 가까운 용인의 남부에 남부지방에 특화된 중앙부엌형 一자, 二자집이 분포한다. 셋째, 대청이 비교적 넓으며 김포·강화·양평 등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청에 문을 달아 겨울철에 폐쇄하는 가옥은 없다. 또 여주·이천·양주·포천 등 내륙분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당벽장을 갖춘 가옥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건넌방 앞에 뉘주를 설치한 가옥들이 적지 않다. 넷째, 경기도 내에서 부엌이 가장 크고 구조가 특이한데 이는 용인의 주민들이 비교적 부엌에 수장할 식료품이 많은 여유 있는 중농들이었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 즉 부엌에 찬장과 찬방을 부속시켰으므로 부엌이 한 칸 반 내지 두 칸 정도의 규모를 갖게된 것이다. 다섯째, 부엌이 대청에서 안방 끝까지 연결되는 뒷마루로 돌출한 가옥들이 많다. 이러한 집은 대부분 부엌과 대청을 연결하는 쪽문이 달려 있어 부엌에서 직접 음식상을 안방 또는 대청으로 나를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점을 종합해 보건대 용인의 가옥들은 경기남부지방을 대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하면 용인의 전통가옥은 경기서부 해안평야와 동부내륙, 그리고 서울과 충청도 가옥의 특성들이 종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자연과 인문환경을 포함해 풍수, 교통과 상업, 취락 등의 측면에서 용인의 역사지리를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는 최근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용인의 역사지리를 조사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긴 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자들은 불과 8개월 남짓했던 조사기간 동안에도, 용인의 옛 모습들이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거나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과거의 교통로와, 이와 관련한 주요시설의 복원이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용인이 국토공간 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조선시대 이후 당시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던 영남대로가 용인을 관통해 지나가면서 서울의 길목 역할을 하게된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용인을 지나가는 영남대로 중 상당한 구간이 현재의 국도 및 지방도와 일치하긴 하지만, 일부 구간은 농로나 한적한 산길로 남아 있어 그 흔적조차 사라질 형편에 있으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던 노변경관은 이미 대부분 파괴되었다. 따라서 영남대로 일부 구간과 노변경관의 복원은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가치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영남대로의 복원은 비교적 그 원형이 남아 있는 구간을 택해 더 이상의 훼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후, 자세한 안내판과 함께 과거영남대로의 주요 통행인이었던 통신사의 행렬이나 서울로 과거보러 가는 선비, 정기시장을 순회하는 장꾼 등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법, 돌무지·정자목·土侯·당집·長

촌 등 각종 도로표지를 조성하는 방법 등이 거론될 수 있으며, 그 후보구간으로는 역촌 가운데 상대적으로 도시화의 영향을 적게 받은 좌찬역촌 인근이 이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들의 증언과 문헌자료를 토대로 좌찬역의 주막거리·이문·마방·역사 등을 복원한다면 민속촌에 버금가는 훌륭한 역사교육의 현장으로는 물론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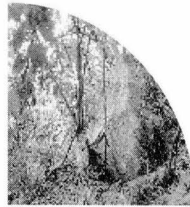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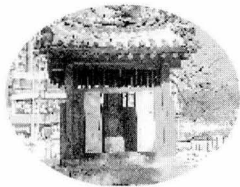
같은 맥락에서 일제강점기에 설립되어 1972년 폐기될 때까지 용인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기능하였던 수려선의 복원도 용인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지 답사를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지만 과거의 수려선로를 따라서는 열차 운행 당시의 실상을 반영하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양지역 앞의 궤도자리와 곡물창고, 삼가리 터널 등은 좋은 예이다. 구 선로 가운데 양지면 양지리 일대의 양지천 변을 따라 달리던 구간은 현재 공지로 남아있어 궤도를 일부 구간이나마 복원하고 자연농원에 있는 수려선열차를 옮겨놓으면 지나간 역사의 발자취를 현장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의 급격한 변화로 용인에서 전통적인 촌락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마을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도시와 달리 오랜 세월이 걸쳐 그 지역의 자연조건과 주민들의 생활양식·가치관 그리고 사회제도 등이 어우러져 빚어낸 결과물인 동시에, 한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전통마을의 보존을 소홀히 한다면 용인 전체로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금번에 집중조사한 연안 이씨 동족촌인 모현면 갈담리 갈월마을은 간선도로변에서 벗어나 있어 아직도 마을 고유의 색채와 전통 촌락의 공간구조가 원형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으며, 옛 가옥들의 보존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이 곳 역시 주변의 경치가 빼어나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외지인들의 전원주택이나 상업시설에 의해 촌락의 경관과 구조가 훼손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갈월마을은 고아한 기풍의 돌담, 장독대, 터줏가리, 빨래터, 마을숲, 한옥 등이 한데 어우러져 소지역 공동체 생활의 실상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시 차원의 충분한 사전계획과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들을 보수하고 단장한다면 경기남부를 대표할 민속마을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한편 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용인의 가옥들을 보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거주하던 규모가 큰 瓦家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자연 및 인문환경을 훨씬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일반 서민들의 가옥일는지 모른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용인의 지역성이 반영된 전통민가를 발굴·복원하는 작업도 병행했으면 한다.

이

백



용인시사총서 6

용인의 역사지리

2000년 10월 20일 인쇄

2000년 10월 25일 발행

발행 :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인쇄 : 서경문화사

TEL 02) 743-8203

FAX 02) 743-8210



비매품



용인의 역사지리
용인시사총서 6

